

광주 산채

下

김정호 지음



풍류를 즐기는 이 고장 인성이 맛마저도 멋으로
먹는 풍류의 하나로 발전해 왔다. 쌀과 맛 바꾸는
귀물 무등산 수박은 오랜 옛날부터 '푸랭이'라
하여 평지 수박이 수확을 끝낸 8월 말부터 시작해
추석 전후에 절정을 이루는 만생종 수박으로 명성이
있었다. 금곡동 흙으로 빚은 분청 사기그릇에
이 계곡에서 생산한 수박으로 요리한 각종 기능성
식품을 맛볼 날을 기대하기로 하자

광주
산책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detailed, stylized map of Gwangju, South Korea. The map is rendered in a traditional Korean artistic style, with green mountains, blue and green rivers, and various colored shapes representing buildings, parks, and landmarks. A prominent rectangular area in the center of the map is outlined in red, possibly indicating a specific district or area of interest.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muted, with greens, blues, and earthy tones.

광주 산책

下

김정호 지음

진정 어린 발걸음에 담긴 광주사랑

이번 『광주 산책(하)』은 지난해 발간된 『광주 산책(상)』에 이어지는 두 번째 책입니다. 제1장에서는 광주의 상징 산인 무등산, 제2장에서는 음식 중심의 광주명품을 소개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광주 도심 속 재래시장의 연원을 살펴 보며 한편 광주 경제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냈습니다. 제4장에서는 광주 도로와 교통에 대한 내용을 묶었습니다. 제5장에서는 ‘광주 인물’이라는 제목 아래 광주 사람들의 출생과 죽음, 광주 의료, 노인당 등을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제6장에서는 예술이 소수 기능인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 했습니다. 실은 이런 기초 작업이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란 것입니다.

1937년생이신 저자는 이번 집필을 위해 여러 차례 현장 취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취재 후 가끔씩 재단에 들리셔서 “취재에 응하는 관계 기관 직원들이 신문사 현역 시절 같지 않아 자료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나 눈빛만큼은 형형하였습니다. 거대 이론보다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이 지역 향토사의 한 문장, 한 문장에 담아내기 위한 진정 어린 발걸음에서 광주에 대한 애정을 매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 향토사에 관심 있는 시민, 연구자분들이 더욱 많아진 것 같아 반가웁습니다. 지난해 발간되었던 『광주 산책(상)』을 읽으며 광주를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노라 하시며 관심있는 분들이 이번 『광주 산책(하)』이 언제 나오는지 몇 차례 물으셨습니다. 이 책이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정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원고를 꼼꼼히 살핀 신장용 · 조광철 편집위원님 그리고 오세옥 무등일보 사진부국장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의 인문과 역사가 담긴 광주학 총서 발행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15년 12월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 영 진

현장에서 만난 광주 근·현대사

2014년 9월 11일부터 무등일보에 1년간 연재한 50편의 글을 모은 것이 2014년에 펴낸 상권에 이은 하권이다. 이 두 권으로 광주의 정체성을 더듬는데 기초자료는 좀 모아진 셈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상권과 마찬가지로 신문 연재 글이라 단행본으로 꾸미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신문에 연재한 원고지 20쪽짜리 토막글이라 얘기가 너무 축약된 것도 있지만 쪽수를 맞추느라 불필요한 군더더기도 있다. 신문연재 때는 오타자와 틀린 곳들이 있었지만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다. 이 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상권이 주로 광주 역사 형성의 근원을 탐색한데 반해 하권은 근·현대사의 흔적을 다뤘다. 물론 상권에서 못 다룬 광주의 자연과 특산품을 다루고 노비, 기축옥사 등도 덧붙였다. 현대사는 일상생활사 중 세월이 흐른 뒤 후학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향토사학의 입장에서 언급했다. 후반부는 광주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것이지만 광주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참고할 것들을 골랐다. 내용에 따라 언론 생활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비판적인 대목도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너무 많은 항목에 걸쳐 묵은 자료를 동원한 점도 홍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광주에 사는 시민이라면 상·하권에서 다룬 정도의 역사 사실이나 현재의 주요 상황과 모습 짚은 알아 두어야겠다는 심정으로 한 대목 한 대목을 골랐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연구나 자료가 일반화된 광주학생운동이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일 년 동안 매주 거르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무척 피로했다. 특히 현역이 아니고 나이도 있어서 현장 취재가 쑥스러울 때가 많았다. 물론 취재에 응하는 분들도 젊은 현역 시절 같지 않아 속상한 때도 있었다.

시간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국가기록원의 일본 통치시절 광주자료나 적산 처리 등 광주 근·현대사 자료를 좀 더 정리해 보았으면 싶다. 또한 국내 도서관과 일본에 있는 광주기록에 대한 흔적들도 모아 광주학을 하려는 후학들에게 참고가 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광주사람들의 연원을 밝히고 싶다. 이 책은 그 일을 위한 기초자료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일들은 역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만나 같이 하는 것이 보람도 있고 능률도 있을 것이나 꿈을 이룰 수 없이 세상을 떠날까 조바심이 인다. 기회가 다시 와서 상·하권을 합해 항목들을 다시 배치하고 색인편이나 자료편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제 목만 보고 현장 사진을 대느라 고생한 무등일보 사진담당 오세옥 후배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의 수고와 출판을 맡은 푸른커뮤니케이션에도 감사한다.

2015년 12월

저자 김 정 호

제1장 광주의 무등산

책을 펴내며 4
진정 어린 발걸음에 담긴 광주사랑

저자의 말 6
현장에서 만난 광주 근·현대사

무등산 17
광주의 상징산으로 2012년 말 국립공원으로 지정
무등산 이름은 무돌의 한자이름
돌 많은 무등산

원효계곡 23
두 번 불에 탄 천년사찰 북쪽 무등 문화의 중심
김덕령 장군의 태생지

금곡동과 배재 30
철분 많은 토질로
제철유적·분청사기 도요지 된 ‘쇠골’
광주 문화재 특구

증심사 계곡 36
무등산 서쪽자락... 이승에서 저승 가는 방위,
종교시설 많아

광주와 호랑이 43
산신님·당산신 등 외경의 존재이자 나라의 상징
조선의 정기 상징

제2장 광주의 명품

광주의 특산 명품 51
작설차·수박·부채 등 진상...
토공품은 철·분청사기·종이
일제침략과 토산변화
일제시대 광주의 상점들

호남평야의 중심음식 57
음식은 지리 풍토의 문화상징

광주 오미五味 60
풍부한 식재료에 맛과 멋에 취한 인성 더해져

생고기 육미肉味 66
소 ‘대접살’ 승승 썰어 상추, 된장 곁들이니 ‘진미’

제3장 광주경제

30년 전 광주애저 귀한손님을 접대할 때는 애저가 최고	70
황룡강 용봉탕 전남 독점 특식된 자양강장의 양혈 보신제 양식 자라는 전남이 주산지	74
무등산 녹차 춘설차 · 작설차로 무등명품 차를 이어오다	80
무등산 수박 쌀과 맞바꾸는 귀물 진상에 고관대작 선물로 ‘인기’	86
광주김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세계 속의 김치로 발돋움 발효식품의 왕좌	92
광주 의례 음식 보기 좋고 맛까지 갖춘 폐백 · 이바지 음식에 ‘탄성’이 절로 집집마다 다른 가례家禮	98
수출흑자 1백억불 도시 소비도시 벗어나 수출도시 된 광주 미래일거리 고민 중 자동차가 수출주도 금형산업이 새효자 자동차 1백만대 생산도시의 꿈키워	107
연초제조창 지역경제 이끌던 본촌산단 상정업체에서 겨우 종업원 200명 이내의 군소업체로 전락 담배유입 4백년 전 전매제도와 기업전환	113
광주의 위생업소 이발소에서 음식점까지 시대별 풍습 따른 천태만상 너무 많은 음식점	118

제4장 광주도로와 교통

재래시장	123
예술 · 관광 앞서	
좋은 물건 싸게 파는 상거래 본질 찾아야	
대인시장의 육성	
정기시장	129
물자 유통 뿐 아닌 정보소통 · 휴식공간	
성종때 지방장터 허용	
도시농업과 텃밭운동	135
살벌한 도시공간 치유할 최적의 대안	
귀농훈련의 공간, 텃밭	
도시텃밭 시범아파트 지정	
3,426개의 길	145
일정한 기준없이 정해진 광주 길 이름	
역사성마저 부족	
조선시대 광주 옛길	
충장로와 금남로	151
산업사회 근대화 상징도로	
충금 · 금남 지하상가	
광주의 철도	157
백년전 광주~서울 12시간서	
2015년부터 1시간 30분대로	
광주~담양간 철도 운행	
지하철	163
1호선 적자 줄이려면 2호선 건설 등 사통오달 돼야	
기본계획 3개 노선	
터미널	169
승객이나 도시 발전보다 업자들 뜻에 따라 위치 결정	
광주의 자동차	175
전철 · 무인자동차에 밀릴 미래의 사양산업	
전철 · 시내버스 안 타본 시민 54.5%	
시민 발목 잡는 시내버스	

제5장 광주인문

광주인문의 들목 183

‘이혼 · 저출산 · 고령화 · 가족해체 현상’
인류 종말의 징조

50년 전 인구 30만명
광주전입, 나주 · 화순 · 담양 순
손자 키우던 인종 번성

광주사람들의 출생과 죽음 189

“집없는 신희은 영원한 가난” 그릇된 생각 일반화

하루에 8쌍이 이혼
연간 6,800여명 죽어

2478년 광주소별 194

출산 · 전입자 점차 줄고
사망 · 전출자 꾸준히 늘어 ‘우려’

부부생활 여성 55.8%
석 · 박사 여성 많아

4천명의 광주 피난민 201

“작전상 후퇴 보름 후 다시 수복” 믿었다가 ‘생이별’

광주의 외국인 207

다문화 시대 맞아 순혈 국수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노비 값 40섬 213

동물처럼 매매되거나 자손에 유산으로 분배
한국노예 해방은 120년 전

셋집살이 시민 40% 218

시민 40% 집 없는 설움… 가장 뒤떨어진 주택복지
맨션과 아파트
가족의 붕괴
사라지는 전통 주택

광주시민의 효도 224

효덕동은 청주 한씨 형제를 칭찬하기 위해

노인당 230

복지행정 따라 80년대 보다 10배 늘었지만
예산 골머리
8명 중 1명이 노인

제6장 광주의 문화 예술

광주의 성매매(공창)	236
일본 총독부가 불로동 일대 ‘유곽지대’로 지정 변종업소 여전 공창제도의 시작	
광주는 기독교 도시	241
외래 종교 선호도 높지만 인구 절반 이상은 무신론자 교회분열 본보기 양림동 광주의 불교사찰	
광주의료	247
소태동에 자리잡은 장태경 의술로 가문명에 세워 치과 · 한의원 많은 광주	
광주 바른 씨름	252
경상도의 왼손잡이 씨름이 정통을 차지 1947년 전남씨름협회 창립	
의학	258
동학에서 5 · 18까지 호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의성義聲 죽봉 동상 하단에 새겨진 비문	
지리적 야당	264
서울 · 경기 중심 중용한 조선 과거제도 지역차별 근원 투표 가치의 평등	
물표인심	270
내년, 다음해에도 계속 이어질까	
광산이씨와 기축옥사	276
1694년 이발이 신원 복관되자 죽었던 나무에서 새순	
예향의 바탕	285
“소수 기능인 전유물된 예술 모든 시민의 일상돼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91
500년 역사유적 혈어 문화시설 건립하는 비문화전당 문화중심개념의 오류 문화개념의 착각	

비엔날레	297
1995년 시작한 격년제 현대미술전	
정율성	303
한국에서 이름은 정부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	
창극의 선구자, 김창환	309
공실극장 협률패들 지휘해 창극형태 창안	
임방울	315
흔한 전수관 · 전시시설 하나 없는 국악 본고장 광주	
광주의 시가문학	321
자유스럽고 호방한 시로 '호남의 사중' 추앙받은 석천	
도서관과 기록물	327
무등도서관 소장 도서 중앙도서관 1년 수집량의 절반	
박물관	333
지역 역사 전시관은 물론 의향 상징조차 없는 문화 도시	
인간문화재	340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한 명 없는 문화수도 광주	
축제祝祭	346
전문기관 설립 절실	

제1장

광주의 무등산

： 무등산

광주의 상징산으로 2012년 말 국립공원으로 지정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산이다. 해발 1,187m의 산봉우리를 경계로 화순과 담양에 물려있지만 국립공원 면적 75.425km² 중 63%인 47.654km²가 광주 광역시에 속해 광주의 산이라 할 만하다. 무등산은 2012년 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다. 이 공원은 행정 구역으로 광주시 전역은 광주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가 관리하고, 담양·화순 등은 화순 읍내에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동부 사무소가 관리한다. 이 공원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때 지정 면적이 30.230km²에 불과했다.

당시 공원은 광주시 전역에 치중해 담양군 땅은 0.80km², 화순군 땅은 2.4km²에 불과했으나 2012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그 면적은 담양 11.969km², 화순 15.805km², 광주 47.654km²로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도 두 곳으로 나뉘었다. 당시 무등산 식물 자원은 1,345종, 동물자원은 900여종이라 했으나 2013년 자원 재조사 때 곤충은 물론 물 속의 파래까지 추가되어 새로 발견된 자원이 늘고 바뀌어 식물은 1,061종, 동물은 2,607종으로 모두 3,668종에 달했다. 국립공원 자원 조사는 10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종이나 멸종 위기종은 수시로 추가할 것이므로 그 숫자는 변할 수 있다. 새로 조사한 자원 조사에서 밝혀진 멸종 위기종은 13종, 천연기념물은 11종, 한반도 고유종은 51종, 국내 미기록종은



어머니의 산으로 일컫는 국립공원 무등산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인원과 예향의 도시인 광주를 품안에 껴안고 있는 무등산의 자랑 서석대가 한층 웅장함을 더해준다.

9종이었다. 동물 중에는 산에 드문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이 살고 있었다. 멸종 위기종 2급인 삿, 담비, 황구렁이, 미기록종인 주황흰점무늬새, 뚝거리 등도 발견되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 깃대종 동물로 수달, 식물로 털조장나무를 지정했다.

공원관리사무소에는 90명의 직원과 8명의 해설사가 근무하고 화순과 담양 땅을 관리하는 동부관리사무소는 52명의 직원과 6명의 해설사가 있다. 이 밖에도 숲해설가협회 등 민간 NGO단체에서 봉사하는 해설가들이 따로 있어서 무등산을 오를 때 이곳 자원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전국의 국립공원은 모두 21곳이지만 100만 이상의 인구를 기슭에 품고 있는 국립공원은 무등산과 북악산 뿐이다. 이 때문에 자연

공원이면서 산에 오르는 관람자수가 많아 훼손의 위험이 크다. 공원 안에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 지방문화재가 12개나 있어서 자연공원이면서 역사자원을 많이 품고 있는 역사공원이란 특징도 있다. 그만큼 이 산은 예로부터 산기슭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터전이기도 했다. 150만 광주시민이 연평균 다섯 차례 이상 오른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자연보호의 대상이면서 시민생활의 뒷동산이란 생각을 갖게 한다.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추세는 언젠가는 무등산에도 적용될 것이다. 물론 40여년 전 한때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있었으나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오르는 동네 뒷동산 같은 산에 흉물스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은 장삿속이라는 비난 때문에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등산자들을 위한 61개나 되는 등산로도 환경을 해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이들 모두를 폐쇄하라는 극단론이 고개를 들 것이다. 노인들도 무등산을 관상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가 오히려 공평하고 자연생태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어 언젠가는 케이블카 설치논의가 시작될 것이 틀림없다.

무등산 이름은 무들의 한자이름

광주의 옛 이름이 무진武珍 또는 무주武州였듯이 광주고을 주산인 무등산 이름은 무진악武珍岳이었다. 『삼국사기』 잡지雜志 제사 항목에 보면 대사大祀 중사中祀 사직제, 사해제, 사독제 등 여러 제사티가 나온다. 이 중 소사小祀항목에 무진악武珍岳과 더불어 영암 월출산을 이르는 월나악月奈岳이 보인다.

광주는 백제 때 무주武州라 했으나 백제를 통합한 신라 신문왕 6년(686) 무진주武珍州라 했으므로 이 고을 주산 이름도 무진악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산 이름이 고려에 들어와 무등산으로 바뀐다. 고을 이름을 광주로 바꾸면서 불교와 인연이 있는 무등등無等等으로 불렸으리라는 이론이 일반적이다. 무등은 등급을 매길 수 없이 높고 높은 부처 같은 산을 뜻한다고 풀이한다.

광주의 백제 때 이름 무주는 노지奴只라고도 했다는 광주고을 연혁기록이

있다. 한국지명학회 고문인 이병선李炳銑(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은 『한국 고대 국명 지명의 어원 연구』에서 노奴 자는 땅을 뜻하는 옛말이고 지地 자는 땅의 이름에 붙는 토씨라고 풀이했다. 학자에 따라 노지란 늪지(습지)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이 본딴말을 ‘물들’ 또는 ‘무돌’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옛말에서 무진武珍이란 한자표기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병선은 무등無等의 等은 달의 한자표기라 했다. 물론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했다는 이두吏讀말에서 等은 달, 들(복수 꼬리말)의 옛말 표기로 쓰였다.

그러므로 언어학으로 보면 ‘무등’을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옛 광주 고을이름인 무들을 한자로 적은 말이 ‘무등’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불교의 술어를 빌려 썼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도 옛말을 알지 못하는 후대사람들이 산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무덤산’이라했고 조선왕조 개국 때 이성계의 뜻을 거스려 등급없는 무등산, 또는 불복산不伏山의 뜻을 지녔다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다.

돌 많은 무등산

무등산은 멀리서 보면 흙산처럼 보이지만 올라가 보면 바위산이다. 정상 부위의 바위를 천·지·인의 상왕봉으로 나누어 부를 만큼 엉바위산이고 입석대, 규봉암 등은 금강산의 해금강에 비유될 만큼 경관이 뛰어나 이곳 돌기둥 병풍바위는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될 만큼 빼어나다. 정상부에서 해발 500m 사이에는 깨어진 돌로 뒤덮인 너털이 지공, 덕산, 의상, 덕봉의 네 곳이나 된다.

흔히 무등산은 서석산瑞石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무등산은 무진악 또는 서석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서석이란 이름은 ‘서쪽 양지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있고 높이가 1백척에 이르는 이 바위에서 비롯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돌기둥을 지질학에서 어려운 한자 투로 ‘주상절리대’라 부른다. 실제로 이 돌기둥은 8,000만 년 전 화산으로 생긴 것으로 높이는 20~30m 내외이고 병풍처럼 120m가량

이 늘어 서 있다. 기록에 보면 이 돌들은 주봉인 천왕봉을 향해 늘어선 정승들이 손에 들고 있는 상아판인 홀笏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돌기둥은 돌로 나누어 서석대와 입석대라 부른다. 비온 뒤 해가 뜰 무렵 이 돌기둥들은 수정처럼 서기로운 빛을 발해 최남선은 『심춘순례』 무등산 편에서 ‘수정병풍’처럼 빛난다고 표현했다. 국어학자들 역시 서석산의 이름은 선돌立石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본다. 본디 옛 사람들은 돌 중에서도 선돌을 미륵불로 여기기도 하고 신적 영물로 마을 어귀에 장승처럼 세우거나 기도 대상으로 삼았다.

예부터 무등산 경승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곳이 풍혈대風穴臺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규봉사 절 곁 성벽 아래에 있는 이 바람구멍은 길이 한 자, 넓이 다섯 자다. 바람이 불다 그쳤다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다른 고장에서 흔히



무등산에서 풍혈이 발견된 꼬막재와 누에봉 사이의 너털지대. 풍혈이 300m 구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발견된 것은 무등산이 처음이다.

자랑하는 ‘얼음굴’, ‘바람굴’로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스운 바람이 나온다는 곳과 좀 다르다. 화순군은 동면중학교 곁 폐탄광 굴에서 부는 여름철 바람을 냉바람이라 하여 냉굴로 자랑한다. 뒤늦게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화순사무소는 담양군 남면 정곡리 애기봉 곁 너털에서 바람굴을 찾아냈으나 등산 길목이 아니라 개방을 꺼리고 있다.

무등산에 대해서는 박선흥씨가 단행본을 세 차례 냈고 다른 책들도 있어서 잔말을 피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무등산은 고려 때 몽고군의 주둔지로, 그리고 고려말엽 왜구들의 기지로 쓰여 인상이 좋지 않았다. 『예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곳 무등산에 도적 떼가 들끓고 고을 아전들과 내통하는 듯 싶으니 소탕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대목도 있다. 바위가 많고 동굴도 있어서 구한말까지도 호랑이가 많아 광주 시내에까지 들어와서 호랑이를 잡기 위한 함정굴이 읍성 곁 금동에 있었다는 구전도 전해온다.

： 원효계곡

두 번 불에 탄 천년사찰 북쪽 무등 문화의 중심

무등산의 양지쪽인 증심사 계곡에 근래 많은 문화시설이 들어서있고 음지 쪽인 원효사 계곡은 옛 문화 흔적만이 집중되어 있다. 원효사 계곡은 시 중심 부에서 12km 내외의 거리이고 숲길이라 드라이브 코스로 적당하다. 광주호를 중심으로 식당도 있어서 한적한 곳을 찾는 타관 사람을 안내하기에도 적합하다.

무등산 남쪽 규봉암은 의상義湘(625~702)대사가 창건하고 북쪽 원효계곡의 원효사는 같은 시대의 원효元曉(617~686)대사가 초창했다는 연기설화가 있다. 남쪽의 증심사는 조계종계 송광사의 말사이고 원효사는 태고종계 선암사의 말사였던 것도 대조적이다. 두 사찰 모두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없어져 인조 때 복설했으나 원효사는 6·25전쟁 때 또다시 불타 신도들의 손으로 5년여에 걸쳐 1960년 대웅전과 요사채를 마련했다. 1977년 법타스님(속명 신흥수申光秀)에 의해 오늘날 모습으로 중창되었다. 조선시대 광주목 지도에도 증심사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원효사는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광주고을에서 거리가 멀어 격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자동차도로가 생긴 것은 6·25전쟁 후 무등산 정상 곁에 공군기지를 두면서 군 공병대에 의해 작전도로가 닦이면서 부터다.

원효사는 해발 450m 산록에 자리 잡은 분지로 건너편에 의상봉이라는 빼



충장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국란을 극복한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사우이다. 충장공은 선조 28년 이순신 장군과의 수륙연합작전 등으로 명성이 높았다.

어난 봉우리가 있고 계곡에 인공으로 만든 원효폭포가 있어서 여름철이면 물맞으러 찾는 이들이 많았다. 이 폭포는 1930년대에 원효사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인공으로 만들었으나 1994년 풍속 등을 이유로 없애버렸다. 작전도로가 트인 뒤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자 1957년 광주상공회의소가 앞장서 무등산개발을 추진하면서 폭포 위에 산장호텔 개발을 정부에 건의했다.

2년 뒤 정부가 설악산 및 서귀포와 함께 이곳에 산장호텔을 허가하면서 10개 객실과 연회장을 갖춘 목조단층 호텔이 세워졌다. 1972년 무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74년 작전도로를 넓혀 7m 폭으로 포장하면서 비로소 광주 근교 유원지가 되었다. 이 일대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무허가 하숙집과 닭백숙집들이 들어서고 산록을 개간해 사는 촌락마저 생겨났다. 이처럼 사람들로 붐비면서 원효사 중창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고 1981년 원효사가 주차장을 마련하여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1980년 원효사 대웅전 중창 때 이곳에서 도자기 불두와 통일신라 때 청동

불상들이 쏟아져 나오자 국립광주박물관이 긴급발굴 사업을 실시해 발굴보고서를 냈다.

창건설화에 의하면 원효사가 증심사와 마찬가지로 신라 법흥왕 때 첫 절이 들어서고 통일신라 때의 삼성^{三聖}으로 일컬던 원효, 의상, 윤필^{尹筆}이 이곳에 와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물로 추측컨대 통일신라 전후에 초창된 사찰로 보았다. 창건설화를 뒷받침하듯 이곳에는 의상대사가 노닐었다는 의상봉(548m)이 있고 윤필이 지냈다는 윤필봉(400m) 안양암^{安養庵} 토굴이 있다. 토굴은 깊이 21.4m, 높이 3.7m, 너비 13m로 사람이 살만하다. 토굴 앞에 있던 건물은 1979년 철거됐다.

1960년 대웅전 중건 때 금동비로자나불 좌상이 나왔으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1980년 발굴 때 수습한 32점의 출토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시 유형기념물 8호로 지정됐다. 원효사에는 1960년대 이 절의 중창에 앞장섰던 지응현^{池應鉉}씨의 사위인 서양화가 오지호 화백이 그린 불화가 있다.

원효사에는 10여기의 중창비와 공덕비가 있다. 담양 추월산 만수사에 있던 범종을 1954년 이 절로 옮겨왔고 시 유형기념물 15호로 지정됐다. 2기의 부도 중 8각형 부도는 유형기념물 7호이다. 그동안 이곳 집단시설지구의 무허가 건물은 많이 정화되었으나 국립공원지정 후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산장 곁 200m지점에 김덕령 장군이 무기를 만들었다는 주검동이 있고 시 기념물 21호(금곡동 798-1번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 일대는 한때 동광원 결핵환자들의 자활터로 쓰이기도 했다.

충장사 갈림길에서 금곡동 서림동네에 이르면 분청사기 도요지 가마보호각과 전시관 겸 체험관이 있다. 이곳에서 오른쪽 계곡을 건너면 풍암저수지와 시 민속자료 15호인 풍암정이 있다. 풍암정 밑 계곡을 거쳐 고개를 넘는 항골에 진재량(92)씨가 개발한 광일목장이 있다. 이 길 3km는 진재량씨가 목장관리를 위해 개발한 도로이다. 이곳에서는 한때 산양과 젖소를 길렀으나 지금은 약초농장으로 쓰인다. 서림마을 삼괴정^{三槐亭} 곁에 민속자료인 양근석이 있다. 충효리에 이르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왕버들과 광주호반 호수

생태공원이 불만하다. 호수생태원, 수상전망대, 조류관찰대, 갈대숲, 꽃단지, 잔디공원 등 39종의 시설은 95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이곳 광주호는 본디 농업용으로 막았으나 한때 광주 시민 식수로도 쓰였다. 물 속에 노자암이라 부른 고인돌들이 있다. 인조호수이므로 호수 바닥 흙을 모아 삼신산을 만드려고 호수 주변도 다듬어 조경했으면 좋겠다.

김덕령 장군의 태생지

충효동 동네어구에 김덕령 장군 정려비각(기념물 4호)이 있고, 창암천변에는 명승 107호인 환벽당이 있다. 이 냇가 상류 언덕에 취가정이 있는데 1890년에 지어 시대적으로는 환벽당에 미치지 못한다. 김덕령 장군과 친히 지내던 석주 권필(1509~1612)의 꿈에 김장군이 나타나 읊은 시를 기념해 김장군의 후손들이 지은 것이다. 권필이 전한 김장군의 시는 다음과 같다.

취하여 노래하니 듣는 이 없구나
 나는 꽃과 달에 취하지 않고
 나는 공훈 세우기를 바라지도 않았다네
 공훈을 세우는 것 뜰구름 같고
 꽃과 달에 취하는 것 또한 뜰구름 같은 것
 취하여 노래하니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다만 원하는 것 긴 칼 잡고 임금께 보은코자 할 뿐이네

김덕령 장군(1568~1596)은 환벽당에서 살던 김윤제金允梯(1501~1572)나주 목사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25세 때 임진왜란을 겪게 되자 담양에서 의병을 모아 공훈을 세워 호익장군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1596년 부여 도천사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홍성싸움 때 부하의 칼에 맞아 죽은 이몽학李夢學과 밀통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된 뒤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20일만에 29세의 나이로 옥사했다. 이몽학은 임진왜란 때 한현 의병

부대의 선봉장으로 활동했으나 전쟁이 잠잠해질 무렵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 탓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다. 김덕령 장군은 양반 출신이었지만 정규군 출신이 아닌 청년의병장으로 공훈을 세워 선조로부터 호익장군의 시호를 받았으므로 관료 출신 의병이나 나이먹은 노병들의 시새움을 받았던 듯싶다. 특히 그는 서인계의 총수로 영의정이 되어 동인계의 총수격인 광산이씨 이발李潑(1544~1589) 일파를 정여립사건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숙청한 송강 정철鄭澈(1536~1592)의 가르침을 받은 동네 후배였다. 임란 직후 송강이 세력을 잃고 죽은 뒤 정계는 동인계가 세력을 잡았을 때이다. 이 같은 정치적 함수관계에 얽혀 숙청된 희생양의 한 사람이 김덕령 장군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1623년 서인계는 김유(1571~1648), 김상헌(1572~1652) 등이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되찾았고 숙종 때인 1674년 잠깐 동인계의 탁남파가 세력



원효사에는 부도 및 공덕비 10여기와 함께 담양 추월산 만수사에서 옮겨온 범종(시 유형기념물 15호) 등이 있다.

을 잡았으나 곧 1683년 이후에는 서인계의 노론과 소론당 세상이 되었다.

김장균은 이처럼 서인당 집권기인 1661년 신원되고 1788년 충장공 시호와 함께 충효리 정려를 받았다. 임란 때 광주에서 의병에 참가해 공훈을 세운 이는 고경명高敬命(1533~1592), 고인후(1561~1592), 고종후(1554~1593) 삼부자와 박광옥朴光玉(1526~1593), 김세근金世斤(1550~1592), 양재현梁載賢(1556~1592), 고성후高成厚(1549~1602), 김극주金克秋(1552~1610), 이세환李世煥(1541~1603), 이완근李浣根(1545~1615), 송제민宋齊民(1549~1602) 등 수십 명에 달하지만 관료 출신이었거나 관군 또는 고경명 의병 소속이었다.

이에 전주어 김덕령은 광주의병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과거를 거치지 않은 양반 출신이면서도 독립부대를 지휘한 의병장으로 경상도 의병 광재우와 전주였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의병장들과는 달리 전선에서 순직하지 않고 억울한 모함으로 옥사한 점에서 민중의 동정을 받아 전설적 인물로 많은 민담설화를 남겼다. 이 때문에 그는 유일하게 ‘김덕령전’이란 전기와 『임진록』, 『열여실기술』, 『동야회집』, 『풍암진화』, 『대동기문』 등 여러 야사집에 이름이 올라있다.

그의 가계는 자식이 없어 끊어질 처지였지만 1788년 충장공 시호와 함께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봉사손도 정해져 오늘날 그 봉사손에 의해 매년 9월 19일 충장사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당시 충장공 선양사업은 같은 광산 김씨인 전남일보 김남중 사장의 활동이 컸다. 제봉 고경명의 포충사는 같은 집안 고재청 의원과 전남도백으로 있던 고건 지사의 공이 컸다. 전상의 장군의 충민사는 당시 같은 천안 전씨로 광주시장이었던 전석홍씨와 전부일 장군의 활동이라는 연고가 있어서 중창 당시 시새움을 받기도 했다.

충효동과 지실 일대를 산책하면서 느끼는 감회는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엮이는 인맥과 파당 그리고 사적인 감정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형성된 혈연과 지연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다. 이 대목에서 원효사의 원효대사가 삼국통일 직

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화쟁론和諍論의 뜻을 헤아릴 것 같다. ‘부처의 지극한 뜻은 여러 학통의 쟁론을 모아 화통해야 한다.’(『열반경정요』중에서)

금곡동 도요지 출토 분청사기 중 ‘전라도’라는 명문이 있는 분청항아리가 문화재자료 23호로 지정되어 시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금곡동 도요지 전시관을 중심으로 분청사기의 전통이 이어질 것이 틀림없지만 이곳 분청사기가 이 일대 토양의 결정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체험한다고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는 재료를 쓰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곳 흙을 활용하는 연구도 병행해 분청도자 재료 개발이 이뤄진다면 옛 전통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창조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분청, 청자, 백자 식기류의 생산보급도 가능할 것이다.



원효사 범종

： 금곡동과 배재

철분 많은 토질로 제철유적 · 분청사기 도요지 된 ‘쇠골’

금곡동은 행정편의를 위해 충효동忠孝洞에 속해 있지만 1914년 석곡면石谷面을 만들 때 생긴 법정동 이름이다. 본디 이 동네는 조선시대 석저면石底面에 속했던 원촌, 신촌, 서림, 이치의 네 동네를 합해 만든 것으로 예전 이곳에서 철이 나와서 ‘쇠골’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곳이 쇠골이라 불렸던 것은 금곡동 798-1번지에 주검동이라 부르는 김덕령 장군이 무기를 만들던 제철유적이 있듯이 철생산 재료가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늘날 이곳은 국가 사적 제141호인 충효동 요지라 하여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 분청사기가 이 골짜기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 계곡에 분청사기를 만들기에 알맞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디 청자는 청자그릇을 만드는 흙에 철분이 약간 들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곳 흙은 청자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철분을 지니지는 못했다.

금곡동 이치梨峙는 ‘배재’라 부르는 고갯길의 한자 이름이다. 화암 동네에서 충장사로 가는 고개를 ‘이치’라 하고 충장사 북쪽 동네를 이치 동네라 한다. 이치는 본디 분청사기의 분으로 쓰이는 백토白土가 나오는 고개라 ‘백토재’라 했으나 백토재가 배재가 된 뒤 한자로 이치라 했다. 고려 때나 조선시대 그릇이 만들어진 곳들은 그릇을 만드는 땔나무가 풍부하고 그릇을 실어 나를 교통이 좋은 바닷가였으며 그 지역에서 나는 흙이었다. 강진 대구면 청자단지는

이 세가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물론 그릇의 색깔도 그 시대 생활에 맞아야 환영을 받았다. 청자그릇은 차츰생활이 유행한 시절에 환영받던 그릇이었다. 흔히 분청사기는 청자의 퇴화 형태라고 하기도 하고 왜구의 침노 때문에 도공들이 내륙으로 흩어지면서 나왔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분청사기는 무안 현정면이나 고창 바닷가를 중심으로 그 유적이 많다. 그렇건만 바닷가도 아닌 내륙부인 무등산 산록에 분청사기 가마가 생기고 이곳 그릇이 새 왕조인 조선왕조의 사랑을 받아 관요로 각광을 받은 것은 이곳에서 만든 사기가 청자의 태토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기교면에서 청자의 상감기법을 응용한 새로운 기법의 그릇 장인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릇도 시대의 유행을 따른다. 청자시대가 가고 그 흔적을 이은 분청사기가 사랑받는 시대를 거치면서 아예 청자형 그릇에 분으로 쓰던 백토만을 쓴 백자시대가 오고 백자 그릇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기법의 청화백자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금곡동 가마터

금곡동 도요지는 그 과도기에 각광을 받던 이 고장 토양이 빚어낸 도자기 생산 지대이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과 시대상황을 살피지 않고 가마의 구조나 생산기물의 형태 또는 제작자의 명문이나 더듬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설익은 학문이다. 이곳 요지는 충효동에도 뻗혀있지만 법정동네 이름을 따라 금곡동 도요지라 해야 맞다.

광주 문화재 특구

2010년 말 광주광역시 문화재는 모두 132기이다. 이 중에서 무형문화재나 근래 시작된 근대등록문화재, 민속자료 따위를 빼면 102기이다. 산수동의 잣고개를 넘으면 석곡수원지 계곡이 나온다. 이 일대는 옛날 상대곡면^{上谷面}이라 하던 곳으로 1914년 화암동, 청풍동, 망월동으로 바뀐 석곡수원지 골짜기이다. 무등산 북서쪽 청풍계곡을 지나 배재를 넘으면 옛날의 석저면으로 1914년 금곡, 덕의, 충효동이 되었다. 오늘날 무등산은 양지 쪽인 중심사를



분청사기 전시실

중심으로 개발되고 정상을 오르고 있지만 본디 무등산 동남쪽은 토질이 척박해 쓸모가 적었다. 어느 산이나 북서쪽 기슭의 땅은 겨울철 눈이 쌓였다가 녹기를 반복하여 토질이 비옥하고 숲도 무성하다. 특히 무등산은 북서쪽 구릉이 길고 부식토가 많아 살기 좋았던 탓인지 옛 문화 흔적이 집중해 있다.

무등산 수박이 이 북서쪽에서 생산된 것도 부식토층이 깊기 때문이었다. 서북쪽 산록이라 기온도 차서 양지 쪽 평지 수박보다 늦은 시기에 출하될 수밖에 없었다. 비옥한 곳이라 옛날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 무진고성도 이곳에 쌓았고 선비들도 몰려들었다. 광주시 문화재 중 지역성을 가진 문화재의 20%가 이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의 충효동은 옛날 석보^{石堡}였다. 개선사지 석등(국가보물 111호)이 이곳에 있다. 일찍이 면양정 송순이 1동 3승이라 부른 소쇄원(국가 명승 40호), 식영정(국가 명승 57호), 환벽당(국가 명승 107호)이 이곳에 모여 있다. 이곳을 송강 정철은 성산별곡에서 무릉도원에 비유한 바 있다. 조선시대 이 일대는 석저면^{石底面}이 되었고 1914년 11개 동네는 금곡, 덕의, 충효의 3개리로 바뀐 뒤 오늘날의 법정동 이름이 되었다. 금곡동은 국가 사적 141호의 충효동 요지의 중심이다. 이곳 요지는 금곡동 179-4번지 일대 83필지 5만7천626㎡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재 남쪽 동네인 화암 동네에도 있고 충효동 평촌, 매곡, 답뽕 등에도 그 흔적이 널려 있다.

석곡면에 합해지기 전

1910년 자료를 보면 석곡 수원지 골짜기에는 343집 1,639명이 살아 충효동보다 3백여 명이 더 많았다. 망월동은 상대곡면의 분토리와 하대곡면 북정리, 창평면의 죽월산·죽곡을 합해 만든 동네이



이치마을 표석이 충장사 옆에 있다.

름이다. 1922년 이곳에는 담양으로 가던 철도역이 있었다. 석곡수원지는 1967년에 준공한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개발되어 제4수원지라 불렸다.

석곡저수지 하류에 하대곡면下大谷面이 있었다. 오늘날의 장등동과 운정동으로 1910년 인구는 207집 986명이었다. 석저면, 상대곡면, 하대곡면은 결국 1914년 다 같이 석곡면이 되었다가 1957년 석곡출장소 시절을 거쳐 1961년 북부출장소 관할이 되었고 1973년 동구에 속했다가 1980년 다시 북구에 속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의 행정동인 충효동은 1955년 충효, 금곡, 덕의동과 함께 담양군에 넘겨졌다가 2년 만에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배재 고갯길 밑에 김덕령 장군을 모신 충장사忠壯祠(1975년 건립)와 충장공묘, 유물관, 영당 등이 있다. 유물관에는 묘 이장 때 나온 예장의복 8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옷은 국가중요민속자료 111호이다. 본디 김덕령 장군은 서구 벽진동 의열사에 박광옥 목사와 함께 배향되어 있었으나 고종 때 서원훼철령으로 철거된 뒤 1975년 새로 배재의 충장공 묘 곁에 충장사를 지어 모셨다.

충장사 입구에서 원효사로 가는 길을 무등로 원길이라 하고 금곡동으로 내려가는 길은 송강로(4.5km)라 한다. 본디 무등로의 출발점은 운암동 동운고가도로에서 시작해 신안동~중흥동~계림동~산수동~갓고개~화암~배재를 거쳐 원효사 입구까지의 15.7km를 이른다. 금곡동 서림 동네에서 평촌을 거쳐 환벽당에 이르는 길을 매봉로(2.0km)라 하고 서림 왼쪽으로 덕의동 지나 충효동에 이르는 길을 송강로라 한 것은 충효동길이라 했어야 할 길이다.

석곡수원지에서 청풍을 지나 망월동에 이르는 길은 석곡로(6.3km)라 부르기로 했다. 무등로는 무등산 북서쪽을 오르는 자동차 길이라는 뜻이겠으나 산수동 5거리에서 시작했어야 알기 쉬울 뻔 했다.

석곡수원지 무등로 갈림길에 김삿갓 비가 있다. 무등산 산록인 화순 이서면 물염정에서 최후를 마친 김병연金炳淵(1807~1863)을 기리기 위해 광주의 안동 김씨들이 앞장서 세웠으나 어쩐지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전상의 장군(1575~1627)의 예장묘(시 기념물3호)와 전장군을 모신 사당 충민사가 배재 밑 화암동에 있다. 그 곁에 본디 운암동에 세웠다가 철거된 송제민宋齊民(1549~1602)의 재실과 운암서원 유허비가 있다. 해광 송제민은 임란 때 공이 있어 1706년 운암동에 서원이 세워졌으나 서원훼철령 때 헐려 옛 서원 자리에 세웠던 유허비는 1987년 이곳에 재실 겸 서원을 복원할 때 옮겨 세웠다.

이곳 동네 이름은 본디 분청사기 가마인 불가마와 인연이 있을 것이나 해광 송제민의 아들 송타宋沱가 이곳에 자리 잡고 살면서 집에 백일홍을 심어놓고 당호를 화암당花岩堂이라 했다는 설에 따른 곳이다. 실제로는 그전부터 불가위, 또는 화암이라 불렀음직한 불가마가 있던 곳이다.

석곡저수지에서 망월로 내려가는 중간 길목 분토리에 정지 장군鄭地(1341~1397)의 예장묘(기념물 2호)와 장군을 모신 경열사景烈祠가 있다. 경열사는 본디 편방사片坊祠라 하여 1644년 동명동 74번지에 세워졌으나 고종 때 서원훼철령으로 철거된 뒤 1962년 장군의 묘소 곁에 복원해 경열사라 했다.

이곳에 2002년 유물관이 증축되었다. 보물 336호로 지정된 정지 장군의 갑옷은 시립민속박물관에 따로 전시중이다. 동명동의 편방사는 1718년 정지 장군의 후손 금남군 정충신을 추배하고 서산 유씨 집안인물, 장흥 고씨 집안인물 등을 추배해 8현사八賢祠라 부른 적도 있다. 이처럼 석곡수원지 일대에는 광주의 조선시대 충신 네 분의 묘와 사우가 집중해 있어 광주 역사를 공부하기 알맞은 곳이다.

하동 정씨인 정지 장군은 고려 말~조선 초기 광주토박이 출신으로 왜구 토벌에 공훈을 세웠으며 해군사령관 격인 제해도 도원수를 지냈다.

전상의 장군은 동구 지원동 화산 동네 출신으로 1627년 정묘호란 때 평안북도 구성부사로 있으면서 청나라 군사들과 싸우다가 순국한 인물이다. 태생지인 화산(골피)마을에는 그의 정려비각이 있었으나 6·25전쟁 때 훼손되어 다시 유허비를 세웠다. 이 집안의 후손이 상해 임정에서 태어난 전부일全富一장군이다.

： 증심사 계곡

무등산 서쪽자락... 이승에서 저승 가는 방위,
종교시설 많아

무등산 서쪽자락을 흔히 증심사 계곡이라 한다. 북쪽 원효계곡이 양달이라면 이곳은 양달이라 예부터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많다. 요새야 무등산 등산객의 80%가 이 계곡을 타고 오르지만 옛날에는 중턱에 있는 절을 찾는 사람이나 장불재를 넘어 화순 이서면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길이 있었다. 무등산 천왕봉에서 보자면 용연골짜기와 화순 만연산 쪽은 남쪽이고 소태산이나 증심사 계곡은 서쪽 계곡이다. 본디 방위상 서쪽은 이승에서 저승을 가는 길목이라 종교시설이 많이 자리 잡는다. 서방정토의 길목이면서 아미타여래의 세상으로 가는 피안이며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이다. 이 같은 관념 탓이었던지 조선시대 『광주읍지』 등 향토기록을 보면 무등산에 999암자가 있었다 하고 문적에 나오는 50여 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증심사 계곡에 있었다.

증심사, 원효사, 개선사 등 광주 근교 사찰들은 광주 세력이 절정에 달했던 9세기 전후에 세워졌다. 신라 문성왕(文聖王, 839~857)은 청해진의 장보고와 광주사람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신무왕(神武王)의 아들이다. 오늘날의 화순 능주 쌍봉사는 옛 광주인 무주(武州)에 속했던 땅이다. 장보고 시절인 825년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철감(澈鑑·道允, 798~868)은 847년 귀국해 금강산을 거쳐 능주 쌍봉사에서 중풍을 일으켜 쌍봉화상이라 했다. 그의 탑(국보57호)과 탑비(보물170호)가 쌍봉사에 남아 있고 탑호가 정소(澄昭)이다. 쌍봉의 법

을 이어받아 강원도 영월의 사자산에서 법을 펴 사자산과 2조가 된 절중折中(826~900)의 시호 또한 징효澄曉이다.

쌍봉의 철감선사가 광주의 약사사藥師寺와 증심사를 지었다. 이 때문에 1856년에 지은 '약사전중건상량문'에 증심사證心寺를 징심사澄心寺라 한 것은 도운스님의 탐호인 징소와 절중스님의 시호인 징효의 인연을 따라 징심사라 부르기도 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인 1443년 김방金俁 관찰사가 두 곳의 절을 같이 중창한 연인으로 쌍봉사와 약사암에 김방의 초상화를 모신 영당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1780년에 홍문관 대제학 김종수(1728~1799)가 쓴 '쌍봉사 사적비'에 실려 있다. 신라 9산문의 한 파인 곡성 태안사 동리산문桐裡山門 개산조인 혜철慧徹(785~861)스님도 본디 839년

증심사

증심사는 광주 세력이 절정에 달했던 9세기 전후에 세워졌다. 무등산의 방위상 서쪽은 이승에서 저승 가는 길목이라 '증심사' 같은 종교시설이 많고 양달이라 옛부터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즐비하다.



에 당나라에서 귀국해 능주 쌍봉사에 주석했다가 곡성 태안사로 옮겨 도선 국사를 길러냈다. 쌍봉사는 고려 무신정권 때 최충현의 손자 최항(崔沆·萬全(?~1249))이 환속하기 전 쌍봉사 주지였던 기록을 보면 이 절이 당시에는 광주 일대에서 가장 큰 가람이었던 것 같다.

현 시가지 중심부에 절이 세워진 시기는 고려 문종(文宗)(1047~1083) 전 후였다. 임동(林洞)의 십신사나 남문 밖 대황사 등도 이 무렵에 세워진 듯하다. 현재 중심사 계곡에 있는 사찰은 30여 곳에 달한다. 산 속에는 중심사, 약사사, 규봉암, 석불암 등이 있고 운림동, 학동, 지원동 등에 새로 생긴 절도 30여개에 달해 한마디로 중심사 골짜기는 사찰단지라 할만하다. 1988년 무등산 일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당시 절터 흔적은 있으나 이름을 알 수 없던 곳은 7곳이고, 터는 알 수 없으나 이름만 있던 곳은 23곳에 달했다. 오늘날 중심사 골짜기를 중심으로 불상을 모신 절 이름은 다음과 같다.

△중심사 △약사사 △염불암 △규봉암 △흥국사 △문빈정사 △운림사 △보현사 △동국사
△성불사 △광록사 △성군사 △대각사 △문안정사 △법연정사 △용화정사 △세심정사
△관음정사 △산제당 △천황사 △오성사 △승암사 △한승사 △학림사 △심인당 △극락암
△개안사 △보공사 △삼광사 △천명사 △현덕사 △광명암 △대광사 △실상사 △금불사 △용암사

지금은 터마저 확인할 수 없지만 절 이름만 남아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증각사 △천문사 △입석암 △불명암 △불사의암 △상원등암 △보조석굴 △삼일암 △금탑사
△대자사 △은적사 △석문사 △금석암 △동화사 △백운암 △자월암 △문수암 △조월암
△도솔사 △석불암 △장불암 △지장암 △보리암 △선덕암 △강선사

이밖에도 화암과 원효사계곡, 지산동 일대에 있었다는 절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개안사(화암) △개원사(화암) △선사 △서원사 △양두사 △의상암 △안양사(윤필굴)
△무량사 △천복사 △개룡사 △분영암 △백천사 △장원암 △양림사 △향등사

규봉(圭峯)(950m)은 무등산 천왕봉 남쪽에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永坪里)에 속한다. 그러나 흔히 이 일대 유적은 광주에서 더 관심을 가져왔다. 중심사 길목의 문빈정사(文彬精舍)(운림동 산96번지)는 1964년에야 장문빈 여사(1893~1987)가 지은 절이지만 1980년 지선(智先)스님이 이 절을



송광사 말사인 원각사

말은 뒤 조계종 사찰이 되어 그 전에 생겨난 주변의 신흥사찰들보다 이름이 알려져 있다. 봉황대 일대의 무당골 정화사업이 있기 전 무등산에는 더 많은 보살 기도장들이 있었다.

오늘날 시내 금남로4가 원각사(圓覺寺)는 송광사 포교당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1917년 『광주지방사정』 기록에는 본디 증심사 포교당이었으나 선암사(仙岩寺) 포교당으로 쓰였다고했다. 1924년 『광주읍지』에는 선암사 스님 김청호(金淸浩)가 이곳에 포교당을 세웠다고했다. 이 포교당은 1970년대에 조계종계 송광사 포교당으로 바뀌었다. 원각사가 이처럼 여러 차례 소속이 바뀐 것은 일제 식민 초기의 불교계 세력과 관련이 깊다.

본디 스님들은 성안 출입이 제한되었으나 갑오경장 이후 신분타파에도 불구하고 해금이 불분명했다. 일본승려들이 침략의 첩병으로 한반도에 진출해 성안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해 김홍집 내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냈

다. 1906년에는 통감부가 한국사원관리규칙을 만들어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1908년 서울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를 지어 원종圓宗 종무원이라는 친일 단체를 만들었다. 당시 스님들은 종교자유와 성안 출입의 자유를 준 일본에 감사하는 이가 많았다. 강점 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조선사찰령을 반포해 30본사本寺제도를 실시했다.

이 사찰령에 앞서 1911년 1월 15일 친일불교단체인 원종종무원에 맞서 송광사에서 임제종 종무원 결성을 결의하고 관장에 선암사 주지 김정운^{법명}元奇(1852~1936) 스님을 추대했다. 이에 따라 그 포교당을 광주시내에 두었다. 이것이 원각사의 시초이다. 당시 광주시내 증심사나 원효사 등은 모두 선암사 소속 말사였으므로 당시 선암사 포교소는 증심사가 관리했던 것 같다. 광복 후 한국불교가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갈리면서 광주시내 대부분의 절은 조계종계 송광사 말사가 되었다.

오늘날 증심사 가는 길은 의재로가 되었다. 학동 지하철역에서 증심사 밑 성촌 동네 옛 버스종점까지의 2,345m 에 이른다. 이 길의 종점에서 증심사까지 1,763m만을 증심사 길이라 하기로 했으므로 이 골짜기의 비중은 의재 허백련^{許百鍊}(1891~1977)에게 더 주어진 셈이다.

의재는 진도 출신으로 일제중엽 광주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1939년 광주 유지들과 함께 ‘연진회’라는 미술연구단체를 만들어 많은 화가를 배출하여, 광주가 예향이란 칭호를 받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는 광복 후 1947년 오방 최흥중^{崔興琮}(1879~1966) 목사와 함께 춘설헌^{春雪軒}(시 기념물 5호)에 광주농업기술고등학교를 세워 삼애다원^{三愛茶園}을 가꾸며 24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는 천제단에 단군전 건립운동을 전개했는가 하면 춘설차^{春雪茶}를 생산, 지역특산품화 했다. 그는 소치 허련^{許鍊}(1786~1866)의 남종화 화풍을 이어받은 화가로 광주문인화단의 뿌리역할도 했다. 1962년 문화훈장을 받고 1973년 예술원 종신회원이 돼 1970년대 광주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추앙받았다. 근원 구철우, 매정 이창주, 옥산 김옥진, 희재 문장호, 금봉 박행

보, 취련 허의득 등이 모두 의재의 문하에서 나왔다. 농업기술학교 폐교 뒤 1978년 의재로에 문을 연 연진회 미술원은 8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 광주 화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9년 국비 30억 등 76억 원을 투입, 춘설헌 곁에 의재미술관을 지어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를 하면서 창작스튜디오도 운영한다.

현준호가 학동에 세웠던 무송원의 중심 건물인 학선재鶴仙齋도 전통문화관의 무형문화재 전수, 전통문화교육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증심사는 1960년대에 종교분쟁에 휘말려 싸움이 지속되는 동안 절 밑까지 무허가 건물이 들어차고 70여 곳의 연계백숙집과 보리밥집으로 유명했으

의재미술관

의재미술관이 자리한 증심사 가는 길은 의재로가 되었다.



나 정화사업이 계속되어 제1수원지 일대로 모든 상가가 이주하고 의재로 일대는 예술문화특구로 개발이 추진되었다. 연진회미술원, 국윤미술관, 우제길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김치준도예공방 등이 들어서고 화가 10여명이 정착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궁동의 예술의 거리는 예술상가로 개발하고, 증심사계곡은 예술인촌으로 개발하여 연진회미술관 주변에 중외공원의 서양미술이나 현대미술에 대칭되는 한국화나 남종화 기념단지로 광주를 특성화했으면 싶다.



전통문화관

: 광주와 호랑이

산신님 · 당산신 등 외경의 존재이자 나라의 상징



근역강산맹호기상도

우리의 국토가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16세기 풍수학자 남사고에 의해 제기됐다. 그 후 육당 최남선에 의해 다시 소개되면서 한반도의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다.

일본사람 엔도 키미오(遠藤公男)라는 이와테(岩手縣) 고등학교 교사가 1986년 『한국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란 제목의 일본어판 책을 썼다. 그 책은 2009년 아담이란 출판사에 의해 한국어판이 나왔다. 이 번역서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항 교수 등이 활동 중인 인간동물문화연구회와 한국야생동물 유전자는행 회원들의 노력이었다. 책 판매대금 10%는 이 단체의 ‘한국범보존기금’으로 쓰인다. 이항 교수에 따르면 한국호랑이는 러시아 연해주 남부지역에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그 중에는 한국표범 30여 마리도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 호랑이와 표범은 국제적 민간단체 13개가 연합체를 구성해 보존운동을 전개 중이라 재정지원을 위해 한국 동호인들이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엔도씨에 따르면 목포유달초등학교의 호랑이 표본은 1907년 영광 불갑산에서 함정에 빠져 잡은 호랑이로 목포에 살던 다다미 공장주인 하라구치 쇼지로(原口庄次郎)(1878~1955)가 350엔에 사서 기증한 것이었다. 이 호랑이는 일본에 보내져 200엔에 표본을 만들어 이듬해부터 유달초등학교에 전시되었음을 밝혀냈다. 그는 1980년 서울의 한 신문사가 조작된 사진과 함께 서대문구 대현동에 살던 박용관이란 사람이 경주 대덕산에서 호랑이를 보았다고 보도한 오보뉴스를 접하고 한국을 방문했다. 엔도씨는 실제로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호랑이를 잡은 일과 함께 호랑이의 습격을 받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김유근을 인터뷰했다.

일본은 식민통치시절 호랑이가 민간에 해를 끼치는 동물이므로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1913년부터 일본 사냥꾼들을 앞세워 조선 포수들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 당시 호랑이 수렵은 수렵규칙에 따라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한했으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예외였다. 당시 수렵규칙에 따라 한국인에게는 의병활동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믿을만한 포수 415명(1914년 기준)에게 엽총면허를 주고 일본인에게는 34배나 많은 1만 4,264명에게 면허를 주었다. 이처럼 일본인의 무분별한 야생수 포획이 많아지고 호랑이 먹이가 줄어든 탓이었는지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휘보』에 보면 1915년과 1916년의 두 해 동안 호랑이, 표범, 곰, 늑대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 수는 사망

195명, 부상 165명으로 총 360명에 불과했다. 이 중 호랑이 피해자는 18명, 표범 피해자는 10명, 곰 피해자는 21명이었으며 늑대에 물려죽은 사람이 167명, 부상자가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물론 가축피해는 7,194마리였으며 그 중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1,233마리, 늑대에 의한 피해가 4,001마리였다. 이 통계로 보면 호랑이는 가축에 큰 피해를 주지만 사람에게는 피해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2년 동안의 해수구제 사업으로 잡은 호랑이는 24마리, 표범 136마리, 곰 429마리, 늑대 228마리, 멧돼지 2,664마리, 사슴 186마리였다. 이 사업에 일본경찰과 헌병, 공무원 등 3,333명(1916년)과 조선인 물이꾼 4만 4,460명, 일본인 사냥꾼 및 조선인 포수 3,097명이 동원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강점 직후인 1910년 조선인 39명에게만 수렵면허를 주었다가 1923년에는 3,074명으로 늘리고 일본인 2만 5,569명에게 수렵면허를 내주었다. 해수구제 사업을 계속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고관들에게 수요가 많은 호랑이 잡이를 계속하기 위함이었다.

총독부 수렵계 요시다 유치로(吉田雄太郎)의 기록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24년까지 6년간 조선에서 잡은 호랑이는 65마리, 표범은 385마리였다. 이 기간 전남에서는 호랑이 6마리, 표범 16마리가 잡혔다. 이 기간 평균 23명이 호랑이에 당했으나 사냥 중 입은 피해였고 표범으로 인한 피해는 호랑이보다 2배나 많았다고 한다. 1917년 조선에 호랑이 원정을 왔던 야마모토 다다시부로(山本唯三郎)(1873~1927)는 호랑이 사냥에 나서 20일만에 호랑이 2마리, 표범 2마리, 곰 1마리를 잡고 일본으로 돌아가 『정호기(征虎記)』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 책은 2014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호랑이가 없던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장수들이 앞 다투어 호랑이를 잡아 천황과 토요토미에게 선물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당시 조선호랑이 가죽은 최고급 호사품이었다.

1907년 불갑산에서 잡아 지금 유달초등학교에 박제로 남아있는 호랑이는 새끼호랑이라 350엔에 팔렸지만 1914년 3월 불갑산에서 잡은 호랑이는 길

이가 3.6m에 달하는 아주 큰 호랑이라 3,000엔에 팔렸다. 당시 광주 북동의 집터 200평 값이 840엔이었으므로 그 값을 어림잡을 수 있다. 1936년 판『선만동물통감鮮滿動物通鑑』에 조선호랑이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다.

조선시대 호랑이 잡이는 주로 함정을 판 뒤 함정 밑에 개나 돼지를 미끼로 놓아두면 이 미끼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호랑이를 창으로 찔러 잡았다. 이때 큰 호랑이는 관아에서 상으로 40냥(쌀 40가마)을 주고 중간크기는 20냥, 새끼는 10냥을 주었다.

호랑이는 불과 대, 팽과리 소리를 싫어하므로 호랑이 물이를 할 때는 팽과리를 치면서 쫓거나 죽창과 횃불을 들었다.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드물고 술 취한 사람과 숨을 거두지 않은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신대에 호랑이 가죽은 청나라에 보내는 공물 중의 하나였다. 호랑이 뼈는 호골주나 호정주虎精酒로 쓰이고 특히 앞다리는 힘이 좋아 호골고나 고요로 쓰여 버릴 것이 없었다. 호랑이 뼈는 벽사용으로 대문에 걸어두기도 하고 이빨과 발톱을 놀이개로 차고 다니면 악귀가 범하지 않는다는 민간신앙도 있었다. 신부의 신행길 가마위에는 호랑이 가죽을 덮어가야 액땀이 된다고 믿었다.

조선의 정기 상징

호랑이는 조선의 상징이며 산신님이 되기도 하고 당산신이 되기도 하는 외경의 존재이다. 『삼국유사』에는 환웅과 결혼하기 위해 곰과 경쟁했던 호랑이 이야기가 실려 있다. 곰처럼 참을성이 적어 사람으로 변신해 단군왕검을 낳아 이 민족의 시조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땅의 산천을 지키는 백수의 왕으로 군림하는 의식되어왔다. 이 때문에 무교의 산신당 그림에는 으레 산신님과 함께 호랑이가 앉아있다.

고려태조 왕건의 5대조 호경虎景은 호랑이와의 인연으로 살아남아 후손 중에서 왕이 나왔고 후백제 태조 진훤은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다고 『삼국유사』에 쓰여 있다. 12지호 중 인월寅月은 새해의 첫달인 정월이고 인방寅方은 동북



남편의 외도를 막아준다는 호랑이 부적

방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볼 때 조선 땅에 해당해 군자국君子國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 같은 인연으로 88올림픽 때는 호돌이를 마스코트로 삼았다. 조선시대에는 무관의 흉배에 호랑이 문양을 새겨 넣었다. 당상관급 무관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 당하관급에는 한 마리를 수놓았다. 남자들의 베개 수에도 호랑이 문양이 쓰였다.

중국에서 호랑이 그림은 새해에 대문에 내붙여 악귀가 집안에 들지 못하는 상징으로 삼았다. 구례 운조루의 대문간 대들보에는 호랑이 세화 대신 호랑이 뼈를 내달았다. 바람처럼 날래고 천하무적의 짐승이란 상징 때문에 군부대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옛 군대의 5방기 중 하나로도 쓰였다. 오늘날 기아타이거스도 고양이과의 영물인 해태를 회사 이름으로 내건 해태제과가 프로야구팀을 창설할 때 고양이과의 대장 격인 호랑이를 야구팀의 상징으로 삼았다. 호랑이는 이처럼 외형적인 본성인 용맹과 전혀 다른 착한 신령으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광주 무등산 호랑이는 김덕령 장군의 용맹을 나타내기 위해 때려 잡은 짐승으로 나온다. 반대로 『광주읍지』의 효행孝行항목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묘 곁에서 시묘하는 것을 지켜준 지성감천의 동물로 전사달全士達 등 일

곰 사람의 효행 설명에 호랑이가 등장한다.

최남선崔南善(1890~1957)은 한반도를 ‘호랑이 이야기의 나라虎談國’라고 표현했지만 1884년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1859~1916)도 조선민족에게는 호랑이 이야기가 많다는 기록을 남겼다. 실제로 한국에는 호랑이에 얽힌 지명, 효자 얘기, 불회사 중창 일화, 김완 장군 명당 얘기, 장성 목호치, 해남 두모포 열부 호랑이 얘기, 호랑이 속담 등 몇 권의 책을 내도 넘칠 만큼 많다. 광주 무등산에도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이굴(지원동 천장굴)이 있으며 옛 읍성 주위를 맴돌던 호랑이를 잡기 위해 금동에 함정을 파놓아서 이곳 이름을 ‘함정굴’이라 부르기도 했다.

특히 사직동에 동물원이 있던 1973년 7월 2일 벵갈산 호랑이 호순이가 국내에서 최초로 새끼 3마리를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호순이는 광주에서 모두 27마리를 낳는 기록을 남겼으나 새끼 2마리가 약재로 팔려나갔다고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양림동 정엄의 충견 얘기로 ‘통개비’란 애니메이션 작품의 상품화에 성공했다하므로 무등산 호랑이 얘기들도 이 같은 작품창안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한 벽사호랑이 목걸이도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아타이거스는 팬들을 위해 야구장 한편에 호랑이 박물관을 개설해 서비스하고 호랑이 부적이나 메달 등 상징 기념품을 선물하거나 판매해 타이거스의 홍보에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

제2장

광주의 명품

: 광주의 특산 명품

작설차 · 수박 · 부채 등 진상...
토공품은 철 · 분청사기 · 종이



조선시대 광주 특산품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이 처음이다. 이때 이미 무등산에서 차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책의 모본 격인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같은 내용을 살필 수 있는 토공 항목이 있다. 짐승 가죽이나 배, 감, 표고, 약재류 따위는 어느 고을에나 있는 것들이고 다른 고을과 비교해 특이한 광주 산물은 철, 종이, 도자기 따위라 할 수 있다. 철은 장불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후기 『광주읍지』를 검토해 보면 철을 다루던 곳은 장불재 밑 지한면 소태동과 석보면 금곡 및 상대곡면의 화암이었던 것 같다. 금곡의 분청사기는 『세종실록』에도 나온다.

광주에는 17명 정원의 장인이 있었다. 그 중 8명이 종이를 만드는 지장紙匠이었다. 광주에 닥나무가 많았던지 종이공장은 우치동과 당부면, 하대곡면에 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 진상품 중 많은 양을 차지한 품목이 종이로 후백지가 많이 나온다. 이 종이 때문이었는지 종이로 만든 부채인 백첩선, 백유선, 칠첩선, 칠유선 등이 진공품으로 많이 쓰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양림동 양림산의 신우대가 좋았던지 화살대 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 때부터 궁실과 중앙 각 부처는 오늘날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을 지방 각처에서 거뒀다. 이 일은 공부상정청眞臈詳定廳(오늘날의 국세청)이 맡아보았다. 현물 징수에 따른 폐단이 많아 쌀로 대신해 내도록 하는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서울에서 지방 특산품을 살 수 있는 상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 말까지도 궁실에서 쓰이는 지방 특산품 공납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각종 세금과 병역세(군포), 특정직업 세금은 쌀로 받아갔으나 특산품은 각 고을에 정량을 월별로 배정해 거뒀들었다. 이를 『공선정례』眞臈定例라 한다. 1820년께 만든 『호남공선정례』가 호남지역의 토산과 진품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이다. 물론 지역 진상품 자료는 『여지도서』나 『만기요람』, 『문헌비고』 등에도 있다. 광주 진상품에서 다른 고을보다 많은 품목은 석류와 꿀, 기름종이였다.

특히 작설차는 전남의 세 고을을 제외한 전역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나 궁실 진상에는 광주, 담양, 창평, 능주 등 무등산 주변 지역에 한정됐다. 차와 수

밖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다루겠지만 호남에서는 나주와 광주에서 왕실 진상의 수박을 생산했다. 오늘날 참빗 장인은 담양과 영암이 옛 맥을 잇고 있으나 광주와 나주고을 참빗도 유명했다. 은장도는 광양 특산이 되어있으나 조선시대에는 광주에서 철이 나오고 3개 역촌에 대장장이가 있어서 남평 광리역의 은장도도 유명했다. 재배기술의 발전이나 기후변화에 따라 오늘날 지역특산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필자는 가장 질 좋은 토산품은 조선시대 토산품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영산호농업박물관 재직 때인 1994년 『조선시대 전남 진상품』이라는 156쪽짜리 단행본을 낸 바 있다. 광주광역시와 관계가 없지만 조선시대 각 고을 명산품은 다음과 같다.

△황칠(해남, 강진) △안식향(영암땅 완도) △뱅어 · 광어(영광) △동백기름(해남) △목기(구례)
 △대밭(담양) △화문석(보성) △왕골자리(함평, 옥과) △인삼(영암, 강진, 조선초기 화순, 동북, 진도, 순천) △부추(나주, 장흥) △굴비(나주, 함평, 무안) △영지버섯(구례, 광양) △감초(나주, 해남) △오미자(구례) △복령(영암, 곡성) △생강(나주, 영암, 장흥, 순천, 장성, 영광) △마포(곡성, 보성, 순천) △백포(무안) △대추(광주, 창평)

일제침략과 토산변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화한 뒤 역점을 둔 사업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쌀과 세계시장에 수출할 옷감 재료인 면화와 누에고치 생산이었다. 본디 무안은 조선시대 때도 면화 주산지로 왕실에 쓰이는 무명베를 공납해온 곳이었다. 일제 때에 이르러서는 고하도에 면화 시험장을 두고 무안 주변 각 고을에 면화 생산조합을 만들어 이를 수집한 뒤 목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광주는 이때 누에고치 주산지로 정해졌다. 1913년 임동의 농업학교 곁에 도립잠업강습소를 개설해 단기과정 인력을 양성했다. 물론 누에치기는 신라 때부터 전래된 것이지만 일본은 세계적인 실크 선호에 대비해 잠사 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으므로 한반도를 그 재료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 여러 시책을 썼다. 1898년 광주에 처음 진출한 일본인 이오코 여인도 오쿠무라실업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잠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 영향을 받아 1909년 전

남관찰사 부인이 광주부인양잠전습소를 개설하고 강점 후에는 광주군 잠업전습소로 이름을 바꿨다가 도립에 밀려 2년 뒤 문을 닫았다.

일본인 의사 야스다安田篤郎는 광주천 고수부지 10여 정보를 10년 기간으로 사용권을 얻어 양림동과 학동 일대에 뽕밭을 만들었다. 일본인들이 이처럼 양잠에 눈독을 들이자 토박이인 최성기, 김용환, 최종섭 등도 잠농사를 설립해 그 보급에 나섰다.

『광주지방사정』의 기록을 보면 식민화 25정보 가량이던 광주군내 뽕밭은 53정보(400여농가)로 늘어났으나 1931년 3천890정보(1천 853집)로 6배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봄이 일자 도립잠업양성소도 농업학교에 병합하고 1919년 원잠종제조소로 바뀌 잠종을 주로 생산하다가 장성읍으로 옮겼다. 1925년 이 같은 누에고치 생산량을 소화하기 위해 학동 하천부지에 가네보鐘淵제사공장이 들어서고 1930년 와카바야시若林제사공장이 북동에 들어섰다. 이들 일본인 제사공장에 공급하기 위한 뽕밭이 광산,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화순, 함평 등 광주 인근 고을에 대단위로 조성되었다.

일제초기 광주 송정 일대와 나주 남평에는 일본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원예농장과 온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33년 자료를 보면 송정리 일대의 온실에서는 오이, 멜론, 가지, 감초 등이 생산되었다. 특히 송정리 일대에는 일본 국내 의약용 원료로 박하재배를 장려하고 박하기를 공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송정리 일대 박하 재배면적은 32정보에 달했다.

이처럼 광주 일대 특산품은 자급용과 왕실 진상용에서 일본인들의 산업화 원료로 바뀌면서 점차 그 특색을 잃어갔다. 뿐만 아니라 광주읍이 근대도시의 모습으로 바뀌고 유통의 중심에 서면서 일본 사람들은 주로 공산품을 파는 백화점, 기계 및 비료, 주조장, 도정공장, 장유공장을 운영했다. 조선인 일부도 주조장, 정미업 등에 참여했으나 조선인들의 생산품을 수집해 가공하거나 고작 비료를 파는 상업에 종사했다. 그 보기가 가마니 수집회사(광주수입), 참빗 도매상(광주유즐상무사) 따위였다.

일제시대 광주의 상점들

1935년 당시 조선인 회사는 다음과 같다.

△동양상회(유상벽, 충장로5가, 주단 · 포목) △대동흥업(김재천, 대금동, 비료 · 농구) △호남
신흥관(김금현金君鉉, 서석동, 문구 · 도서) △선광상사(지우선, 대의동, 정미 · 부동산) △남창
상회(심덕선, 포목점) △수륙점(조남풍, 충장로4가) △화신상회(박경홍, 충장로5가, 포목점)
△남파상점(김용률, 서석동, 발동기 수선) △안전상회(이기동, 궁동 · 잡화) △삼광상회(이영
수, 충금동, 건어물) △무등메리아스(김시중, 양동, 양말 · 셔츠) △전남양행(조국현, 충장로4가,
발동기 · 자동차대리점) △광산양조(김용호, 수기동, 막걸리) △전남주곡(최상현, 풍향동, 막걸리)
△전남정미소(김용성, 금남로5가) △전남상사(손종채, 금남로5가, 정미) △전남인쇄(최선진,
금남로5가, 도서관행) △남광연탄(안종면, 금동, 연탄 · 숯) △광주농업(오원택, 북동, 농구 ·
비료) △합동운송(정원모, 금남로5가, 운송업) △광주극장(최선진, 충장로5가) △광주권번(김
승연, 남동, 기생 · 예기 알선)

이 자료는 경성상공회의소의 『조선회사표』를 참고로 기술한 1993년판 『광주시사』 제2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자료에서 보듯 당시 조선 사람들은 광주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일본 공산품을 농민들에게 파는 장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새로 유행하는 일본 청주공장이나 간장공장, 도정 공장, 면화가공 조면공장이나 제사공장은 모조리 일본인 차지였다. 일본 공산품은 물론 여관, 요정업까지도 일본인이 경영하는 체제였다. 일본인 제사 공장들은 누에고치의 1차 가공품인 견사를 생산해 일본에 보내는 한편 목화의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면화로 짠 광목을 내수용으로 조선인에게 판매권을 주어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지속되어온 가내수공업적인 전통 베짜기 산업을 퇴화시켰다.

광복과 더불어 일본공업 원자재의 생산에 치중했던 광주 양잠과 전남의 면화산업은 서리를 맞았다. 2차 가공시스템이 국내에 없었을 뿐 아니라 수출역량마저 갖추지 못해 광주의 잠사산업은 침체됐다. 광복 후 광주산업은 5곳의 성냥공장이 겨우 명목을 유지할 정도였다. 광복과 더불어 광주 주력산업이었던 공장들은 귀속재산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거듭했다.

또 6·25전쟁과 농지개혁 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궤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5·16군사쿠데타를 겪었다. 그 군사정권마저 지역색을 나타내면서 자립에 몸부림쳤던 나주 비료 공장이나 아시아 자동차 공장마저 경상도 기업들에게 넘겨주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광주는 명품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이런 도시에 준비되지 않은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이 떠맡겨져 소화불량으로 허우적이는 꼴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인 무등산 수박

Ⅱ : 호남평야의 중심음식

음식은 지리 풍토의 문화상징

비록 전주가 전라도 관찰사가 주재해 있던 조선시대 행정중심 고을이었다 하더라도 호남평야의 지리적 중심고을은 광주였다. 전주는 전라도 한가운데 있는 고을이 아니다. 북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호남의 중심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주도 남서쪽에 치우쳐져 있다. 비록 광주는 전라남도의 북쪽에 치우쳐 있으나 전북과 합해보면 그 중심점에 있다. 다만 동쪽의 순천, 여수가 좀 멀다고 할 수 있으나 남쪽과 서쪽의 섬과 바다를 모두 경계로 보고 따지면 역시 호남의 중심은 광주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 호남대로湖南大路는 광주를 점점으로 우도와 좌도 길 이 맞닿도록 같은 고을 안에 두 간선도로의 관리청이 각각 다른 경양역(좌도) 과 선암역(우도)이 함께 있었다. 두 역로驛路는 조선시대 관로官路였지만 일반 백성은 꼭 이 도로만을 이용했던 것은 아니다. 관로는 장성에서 선암역을 거쳐 나주로 갔지만 동쪽으로 오늘날의 침단단지에 있던 동창을 거쳐 광주 읍내로 오갔다. 광주 읍내에서 남평의 광리역을 거쳐 장흥·강진으로 가기도 하고 나주읍을 거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선시대 도로망으로 보면 광주의 하루 생활권은 오늘날 광주광역시 위성 고을을 이루고 있는 담양(30리), 화순(30리), 남평(30리), 능주(50리), 나주(60리), 장성(60리) 정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서해안의 영광이 1백리 거리이고 법성포가 130리, 함평이 110

리 거리에 있었지만 당일 보행 코스가 되지 못해 함평, 영광에서 선암역과 가까운 사람들은 선암역 곁 정기시장을 보러 다녔다.

광주가 전남 서남권과 중부권의 생활권이 된 것은 신작로가 트이고 자동차와 기차가 다니기 시작한 1백여 년 전인 1910년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광주는 전라남도의 행정 중심지로 도내 각 고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러므로 1백년 이전의 광주음식은 내륙지역 음식 특징을 나타내 별로 내세울만한 특정 음식이 없었던 셈이다. 당시 이름 있던 광주음식의 전통이 황룡강 용봉탕과 잉어회 정도였다. 바다에서마져 이틀거리라 염장고기나 말린 건어물 정도였고 영산강과 황룡강에서 나는 민물고기인 자라, 잉어, 붕어 따위 음식이 고작이었다.

광주음식이 지역특색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역시 도청 소재지가 되고 일본인들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일본 상인들이 진출하자 기생 요릿집이 등장했다. 신흥 부호와 지주들이 드나들고 요정 음식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의 별미들이 선보이고 교자상의 요리 가짓수도 늘어났다. 선어를 즐기는 일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철도를 통해 목포와 별교 지방의 생선들이 수송되었다. 이때부터 법성포 굴비가 광주에 진출해 부잣집의 보리속에 묻어 두는 풍습이나 고추장굴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굴비는 오늘날의 염장조기와 달리 5~6월 갯바람에 2개월 이상 말려 조기가 쫄소리 나고 명태처럼 찢어져 생으로도 먹는 오월사리 알배기 조기였다.

음식은 결국 음식재료와 기후, 사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문화라 지역 특색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교통이 발달하고 재료의 가공이 과학화되면서 지역특색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더해 타민족의 풍속이 겹치면서 요리사가 대접받고 퓨전음식이 유행해 입맛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 지구상의 백인종과 유색인종들은 4천여 년에 걸쳐 진화한 육체와 서양인보다 긴 내장을 가지고 있어서 허끝에 맞는 음식이 내장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을 터이다. 짜고, 맵고, 시고, 달고 새콤한 맛의 짬뽕 전통은 세월이 가도 서양 요리에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긴 내장 속에 영양 많은 서양요리를 채

우는 식생활이 만병의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광주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분야는 한식에 맞는 우리 술의 개발과 진흥이다. 일본식민통치자들이 친일 유지들에게 술도가를 독점시켜주고 일본 전통의 정종을 장려하면서 2백여 종에 달하던 전통주는 밀조주로 단속 대상이 되어 그 명맥이 끊겼다. 일본식민통치 시절의 주류 정책을 답습해 온 정부가 뒤늦게나마 가양주의 소규모 양조 허가를 허용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광주도 전통주 기능자 발굴에 나서야 한다.

특히 한식의 찜밥에는 증류주, 어물숙회에는 인삼주, 봄철에는 두견주, 가을에는 국화주·구기주 등 계절 재료에 따른 명품 술이 있으므로 음식 못지 않게 명주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서울에서는 한국전통음식 소장 윤숙자씨가 혼자 힘으로 운현궁에서 '전통주와 전통음식의 만남축제'를 8년째 지속해 왔다. 광주도 음식에 알맞은 광주 명주를 곁들여 멋의 고장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 광주 오미五味

풍부한 식재료에 맛과 멋에 취한 인성 더해져

전라도 음식이라 할 때 그 대표성은 언제나 전라남도를 의미한다. 비록 조선시대 전라도의 정치행정 중심이 전주였다 하여도 오늘날 전주 음식의 대명사는 전주비빔밥과 콩나물해장국으로 서민음식이다. 일제 식민시절 일본의 유명한 공예가이며 민속 예술가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1880~1961)의 전라도 기행인 『조선과 그 예술』(1937년 5월 3일자)에 광주 춘목암 음식 얘기가 나올 만큼 광주의 음식은 명성이 높았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예기와 기생을 몰고 와 요릿집을 운영하자 조선 사람들도 음식제공 여관과 기생집들을 운영하면서 교자상 풍습이 생겼다. 본디 한국의 전통 밥상은 외상이 원칙이었으나 잔치 때나 제사 후 그 상을 옮겨놓고 둘러앉아 먹을 때가 있어서 이를 교자상이라 했다.

교자상이 요릿집의 표준이 되면서 음식의 종류는 호사롭다던 칠첩반상의 전통이 무너지고 반찬과 안주 종류가 20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임금님 수라상이 12첩이고 정승상이 10첩을 넘지 않았던 것에 견준다면 황제 밥상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광주 중심의 음식에는 밑반찬이라고 할 젓갈류가 다섯 종류 이상 올랐다. 18세기의 『여지도서(輿地圖書)』나 공선(貢膳)자료를 보면 전라도의 진상품 중 해산물은 81종이었고 그 중 18종은 전남에서만 나오는 종류였다. 이처럼 해산물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해안선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깎벌



송정 떡갈비

들에 미네랄이 풍부한 게르마늄 흙의 함량이 많아 해산물의 맛이 좋았다. 특히 전남 해역은 서해와 남해가 맞닿아 있고 동해로 향하는 난류가 지나가 어종이 풍부했다. 영산강을 낀 구룡지의 흙은 황토가 많아 예로부터 이 땅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기氣식품이라 하여 다른 지방산에 비해 값을 높게 쳐주었다. 더하여 전라도는 불가마에서 구운 소금 생산지라 천일염보다 쓴맛이 적었다. 오늘날은 금산 인삼이 유명하지만 조선시대 초기에는 동북 인삼이 개성 인삼에도 뒤지지 않았다.

아열대 지대이면서 난류의 영향을 받아 강황(조선중기 이후에 재배가 중지되었다가 요즘 다시 재배가 시작된 울금을 말함), 양하, 생강 등 열대성 양념 채소가 재배되었고 미나리, 갯, 시금치, 쑥, 구기자, 굴, 유자 등이 고루 나왔다. 특히 음식 맛을 좌우하는 곤포, 멸치, 디포리 따위의 주산지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풍부한 해산물을 말린 건어물의 주된 생산지였다.

더구나 권력을 외면하고 풍류를 즐기는 이 고장 인성이 맛마저도 멋으로 먹는 풍류의 하나로 발전해 왔다. 지역과 인종에 따라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민족이 있고, 맛과 멋으로 먹는 곳과 민족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배 채우

기 위해 먹는 식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맛을 다해 먹는 편이다. 역시 전남사람들은 맛과 맛을 취해 식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더구나 농사가 비교적 잘 되던 평야지대라 마음이 넉넉해 다 먹지 않더라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렸다.

그 전통이 이어져 70년대 광주 한정식 상차림은 30여 종류의 반찬과 술안주로 가득채운 교자상이었다. 이 전통이 대포집에까지 이어져 정종집들의 끊임없는 공짜 안주 대령이 외지 손님들을 감복시켰다. 광주의 한정식은 70년대 서울에 진출, 전라도 음식의 명성을 자랑했다. 지나치게 종류가 많아 먹지 않고 남긴 음식을 되돌려 낸다고 비판하기도 해서 개선책으로 식기 수 줄이기, 코스요리, 덜어먹기 등 여러 가지 장려시책이 권장되기도 했으나 아직도 그 습속이 끊이지는 않고 있다.

광주의 백반정식은 60년대 순천과 구례에서도 유행했다. 해남 대흥사 등 관광지에서 흥내 내다가 오늘날은 강진백반, 장흥백반이 되었으나 1상에 1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 옛날 형식이 조금 남은 광주의 서민 밥집과는 형태가 다르다. 광주의 한정식 중에는 4인상 20만원, 24만원, 36만원, 40만원짜리가 있어서 옛날 한정식이라 할 수 없다.



광주 광산구 송정 떡갈비 거리

광주에는 오미五味가 있다. 한정식을 비롯해 오리탕, 떡갈비, 보리밥, 김치가 그것이다. 떡갈비는 쇠고기만 다져낸 담양식과 쇠고기에 돼지고기를 섞고 파, 마늘 등을 다져 갈비에 붙여내는 송정리식이 있다.

광주시는 오늘날 한정식과 함께 오리탕, 떡갈비, 보리밥, 김치를 광주오미五味로 내세운다. 오리탕은 70년대 시작된 음식으로 나주 금천에서 오리농장을 하던 나씨 청년이 보급한 음식이다. 그는 1만여 마리를 길러 육고기를 대만에 수출하거나 통조림을 만드는 등 수요개발에 무척 애썼다. 광주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오리로스를 권장하다가 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영광 출신 주인을 만났다. 그는 자연산 청둥오리를 요리해 먹었던 경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미나리와 들깨가루를 넣어 끓여내는 오리탕 보급에 나섰다. 판로가 마땅치 않던 때라 닭 값의 반값에 오리가 공급되면서 중앙고속터미널 뒤쪽 유동, 신안동 일대에 30여 집이 생겨 80년대 말 오리탕 전성시대를 열었다. 중국과 국교가 트여 중국 오리고기에 익숙해지면서 오리구이, 약오리가 개발되고 광주 곳곳에 오리고기 전문점들이 번졌다. 유동 5거리에 아직도 10집이 영업중이다.

떡갈비는 쇠고기만을 다져내는 담양식과 쇠고기에 돼지고기를 섞고 파와 마늘 등을 더해 떡처럼 다져 갈비에 붙여내는 송정리식이 있다. 광주 시내에서는 충장로2가 우체국 앞 식당에서 떡갈비 백반을 대중화해 재미를 보았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송정동에는 아직도 12집이 떡갈비 전문점이다. 송정동을 중심으로 2집이 떡갈비를 계속해 광주 식도락가들의 주목을 받아 20여 곳에서 떡갈비를 취급해 특화거리가 되었다. 쇠고기 값이 오르면서 갈비가 작아지고 값도 올라 옛날 같은 인기는 없다.

광주시청은 보리밥을 광주의 브랜드 음식으로 내세우고 있다. 본디 광주보리밥은 중심사 위 팽나무 집에서 무등산을 올랐다가 내려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막걸리와 보리밥 쌈을 팔아 인기를 끌면서 점차 유행했다. 이곳 팽나무집 보리밥이 재미를 보자 절 밑 큰길가에 전복식당, 대지식당 등이 문을 열었고 지산유원지 입구인 무등파크호텔 주변의 식당들도 보리밥과 산채나물 비빔밥을 팔면서 추억 별미 음식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졌다. 이제는 중심사 길목보다 현재 무등파크호텔 주변에는 14곳의 보리밥 집이 문을 열고 있다. 2015년 무등산 보리밥지구는 농림축산부에서 선정한 우수외식지구 18곳 중



광주한정식 상차림

하나가 되어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60년대 제2수원지인 용연에서 시작된 연계백숙은 증심사 계곡을 거쳐 70년대 후반 원효사 계곡으로 번져 봄놀이나 여름놀이 특식으로 사랑을 받았다. 백숙이라야 닭발과 모래주머니를 날것으로 기름소금과 술안주로 낸 뒤 삶은 닭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녹두죽을 쑤어내는 것으로 값이 비싸지 않아 사랑을 받던 음식이었다.

70년대 광주 명품음식은 광주공원 앞 선지국이었다. 65년 전국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세운 구동체육관은 그 이후 각종 체육대회는 물론, 시 행사, 정치모임, 미인대회, 권투시합 등에 이용되었던 유일한 실내 공중시설이었다. 이 때문에 체육관에서 실내경기나 시민대회가 열릴 때면 광장 곁 구동시장 도로변 상가는 모조리 선지국, 돼지 곱창이나 애기보 수육을 팔아 음식 명소가 되었다. 실내체육관이 염주동으로 옮기고 구동시장 일대가 광장으로 바뀌면서 이곳 선지국집들은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등으로 흩어지고 지금은 이곳 거리에서 2~3집이 옛 선지국을 팔고 있다.

옛날 광산동에 도청과 광주시청이 있던 시절에는 금동시장 골목이 보신탕으로 유명했다. 보신탕도 전골, 수육, 구이 등 여러가지 요리가 선보였으나

오늘날은 쌍촌동이나 담양 등지 외곽에서 취급해 시내 중심지 보신탕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듯하다.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새 도심지마다 먹자 골목이 생겨났다. 남구 봉선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선 뒤 1동 12통 3반 시장통 골목에 28개 음식점이 들어서 명소가 되었다. 이곳은 특정 품목이 집중된 곳이 아니라 돼지고기집, 쇠고기집, 닭도리탕, 활어집, 오리집 등 품목이 다양하다.

두 번째 먹자골목은 염주동 사거리라 하여 염주4동 사무실 북쪽 골목이다. 이 골목에만 활어 생선횃집 10곳, 쇠고기집 16곳, 중화요리집 10곳이 경쟁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집중력을 보이는 곳이다. 아직도 정기시장 흔적을 보이는 두암동 말바우시장에 나주곰탕, 창평국밥 등 대중음식점 20여 곳이 경쟁중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90년대 후반 일곡동에서는 감자탕집이 성업을 이뤘다. 풍암·금호지구 택지개발 후 남쪽 매월동의 화개산 기슭을 중심으로 오리숯불구이 집이 7~8곳 문을 열어 한때 손님을 끌었고 주변에 붕어찜집, 한우 쇠고기집 등 먹거리 상가가 형성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남, 수완, 첨단지구에는 공업단지답게 대형 식당들이 들어섰으나 광주 토박이 음식이 아닌 타지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들이 들어섰고 값도 서민용이 아니다. 다만 송정-나주 길목의 동곡동 꽃계장 백반 거리에는 10집이나 생겨 값이 저렴하여 관광객 출입이 많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광주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관광객용 안내책자에는 한정식 26곳, 쇠고기집 18곳, 해물집 21곳, 중국집 10곳 등 모두 120여 곳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한정식집들은 교자상이 10만원 이상이라 대중적인 음식점이라 할 수 없다. 횃집이나 쇠고기집도 접대에 알맞은 집에 치중되어 허물없이 대접할 만한 광주 맛집 고르기가 힘들다. 특히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에 맞는 중국음식점이나 추천할만한 삼계탕집 등 전통성이나 위생, 가격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선정과 소개가 아쉽다. 맛집 선정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생고기 육미肉味

소 ‘대접살’ 송송 썰어 상추, 된장 곁들이니 ‘진미’

전주는 오늘날 비빔밥과 콩나물해장국이 먹거리의 대명사가 되어 있으나 광주는 내세울 대중 식단이 없다. 60~70년대 광주 명품음식은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값이 싼 한정식이었으나 오늘날 한정식은 서민음식이 아니라 교제 음식으로 값이 비싸 자랑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 생각다 못해 2년 전 광주시는 쇠고기 생고기를 광주 브랜드 음식으로 내세울 궁리를 했다. 이미 한정식, 보리밥, 오리탕, 떡갈비와 함께 김치를 광주오미五味로 내세우기로 한 터이라 쇠고기를 광주 육미六味로 내세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다.

옛날부터 쇠고기는 육회로 먹던 전통이 있었다. 70년대 광주에서 수육점을 하던 길모씨가 쇠고기 중 장조림이나 쓰이는 가장 값싼 부위인 대접살을 생으로 송송 썰어 상추와 된장, 생고추, 마늘을 곁들여 싸먹도록 손님들에게 팔았다. 길씨는 가장 안 팔리는 대접살이나 우둔살을 500g씩 썰어 수육점 소매 값으로 팔면서 소문이 나자 붐비기 시작했다. 그는 광주고속터미널 옆 2층집을 얻어 ‘광주회관’이란 상호를 내걸고 손님이 식사하는 매장에서 직접 쇠고기를 썰어 식탁에 올려놓았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육점 소매값에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붐빌 수밖에 없었다. 시샘하는 업자들이 있어서 쇠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촌충이 번지고 살모넬라균이 감염되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린다고 보건당국에 진정했다. 보건당국이 판매수육을 수거해 조사했



쇠고기 생고기가 빈혈과 노인들의 양기 보충에 좋다고 전해지면서 시내 곳곳의 식당에선 쇠고기를 접목한 식단을 개발하는 등 광주의 생고기 풍습은 오늘날까지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으나 옛날 같이 촌충 중간 숙주도 아니었고 당일 도축육만을 취급해 위생상 문제가 없어 단속할 수가 없었다. 광주 생고기가 소문이 나면서 서울에 광주 회관 체인점들이 생기고 광주 시내에도 광주회관이란 이름의 수육점 식당들이 여럿 문을 열었다. 당시 길씨는 광주회관 상호 사용료로 3천만원을 받는 대신 고기는 광주에서 도축한 것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체인점을 모집했다. 공급체계에 문제가 있었던지 광주회관 생고기 체인사업은 2년여 만에 문을 닫았다. 이후부터 시내에는 쇠고기 생고기가 빈혈에 좋고 노인들의 양기 보충에 좋다는 소문이 번져 대의동 예식장 일대 식당들이 생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해 광주의 쇠고기 생고기 풍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불고기집에서도 생고기 한 접시를 먹은 뒤 고기를 주문하고 광주 한정식에도 생고기가 오

르는 것이 관행으로 굳혀졌다.

광주시는 ‘빛고을 생고기’라는 이름으로 광주 생고기 식단을 명품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에 그 가능성 진단을 맡겼다. 조사 결과 광주 시내 쇠고기 생고기 소비량은 하루 4톤 가량이고 한 접시에 300g씩 담을 경우 1만 3천 그릇 가량 팔리고 있으며 하루 4억원, 한 달 1백억원의 매



출 품목이라 장려할만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생고기는 육회감과 달리 당일 도축한 고기를 당일 소비하기 때문에 위생상 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광주 생고기 식당들이 광주 시내 도축장에서만 고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나주, 화순, 담양 등 인접지에서도 사오고 있어서 통제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생고기감 쇠고기는 등외품으로 가장 싸지만 식당마다 판매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판매 가격을 종잡을 수 없다. 도축장 출하가격은 kg당 3만~4만원 고기이지만 수육점에서 팔 때는 600g 한 근으로 팔아 식당에서는 300g(반근) 한 접시에 4만원, 또는 1인분 100g에 2만원씩을 받아 광주회관 시절보다 소비가격이 비싸졌다. 시 위생 연구소 담당자는 식당들이나 식육 식당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등외품 쇠고기를 소비한다는 심정으로 이문을 배만 붙인다면 광주의 브랜드 음식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식단이라 말하고 있다. 쇠고기 생고기는 중국 『예기』에 천자가 먹던 8진미 중 한 음식으로 나오는 육지(肉漬)라 할 수 있다. 이 육지는 생고기를 술에 담가 하루 만에 건져 초장에 찍어 먹던 음식이다.

: 30년 전 광주애저

귀한손님을 접대할때는 애저가 최고

30여년 전까지도 광주 한정식이 부담 없이 접대할 수 있었던 음식이었던 데 전주어 돼지 새끼를 삶아내는 애저兒猪는 접대 식단이였다.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1759~1826)가 쓴 『규합총서閨閣叢書』라는 책에 애저가 나온다. 본디 애저는 새끼 뱀 어미 돼지를 잡았을 때 애기보에 들어있는 새끼를 깨끗이 씻어 뱃속에 양념해 찜을 한다고 했다.

이 짓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 낳아 기르던 새끼 돼지를 잡아 큰솥에 삶으라 했다. 미나리, 파와 무를 많이 넣어 무르익으면 뼈를 추려내고 살을 찢어 비게나 내장도 썰어 넣고 파를 한 치 길이로 썰었다. 생복이나 건복, 해삼, 표고버섯, 박숙, 파 한 뿌리, 생강을 넣어 다시 끓여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이때 깨소금을 많이 넣어 주물러 중탕한 뒤 달걀지단, 잣가루를 얹고 후추를 뿌려 겨자에 찍어 먹는다. 빙허각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쓴 서유구徐有榘(1784~1845)의 형수였다. 빙허각은 돼지새끼찜 요리 외에 돼지에 흠을 발라 굽는 돼지찜 포돈법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증보 산림경제』에는 ‘저자대猪子袋’라 했고 『시의전서是議全書』와 『오루연문전산고』에서는 ‘저태증猪胎蒸’이라 하여 기록이 나온다. 이때의 찜은 삶은 것이 아니라 대밭이나 시루에 찼다.

광주의 애저는 일제시대 구역 전통인 구서방네(성북관)의 특품 음식이었다고 박선흥씨는 『광주1백년』 제2권에 소개하고 있다. 광주 애저는 광주시 무



애저탕

형문화재 제7호 ‘남도예음식장’으로 지정되었던 이연채(1916~1994)씨의 비법을 황기록씨가 정리하여 『남도전통음식』(2000년 다지리 간행)에도 소개하고 있다.

생후 1~2개월 된 돼지새끼 내장을 들어낸다. 뱃속에 쇠고기 채반살, 다진 고기, 다진 마늘, 양파, 당근채, 생강, 들깨잎, 은행, 잣, 깨, 후추가루, 간장, 참기름을 잘 섞어 주물러 채운다. 왕골로 배를 세 줄로 묶어 푹 삶은 뒤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익었으면 불을 줄이고 간장을 풀어 끓인다. 익은 돼지를 상에 올려놓고 찢어 들깨잎, 풋고추, 된장, 마늘과 함께 먹기도 하고 양념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 고기를 먹은 뒤 양파, 마늘, 생강을 더해 죽을 쑤어 먹는다.

2009년까지 금남로2가에서 ‘또식당’을 운영하던 박정지씨의 구술은 좀 다르다. 그는 화순 동면에서 돼지를 기르는 양돈업자와 계약해 새끼돼지가 한 뺨 반 정도 컸을 때 잡아오면 냉장고에 냉동시켜놓고 썼다. 한 달 정도 자란 어린 돼지이지만 값은 젓떼기 새끼 값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요리해 팔 때 20만원 이상 받아야 식당 경영이 가능했다고 한다.

박씨는 돼지 뱃속에 인삼, 대추, 밤, 은행, 마늘, 생강, 녹각, 포부자를 넣고 된장을 푼 물에서 2~3시간 흐물흐물하게 삶은 뒤 뼈가 골라질 정도가 되면 통째로 건져 뚝배기에 담아 상에 올렸다. 뚝배기의 돼지는 찢어 풋고추와 마늘, 된장과 함께 들깨잎에 싸먹거나 그냥 초장과 토하젓에 찍어 먹었

다. 손님이 홍어를 좋아하면 묵은 김치와 삼합으로 먹기도 했다. 고기를 먹는 사이 녹두와 찹쌀, 마늘을 넣고 돼지를 삶아낸 국물로 죽을 쓰고 계란을 풀어 죽을 내놓을 때 들깨잎 장아찌를 찢어 넣거나 묵은 갓김치 또는 토하젓을 넣어 간을 맞췄다. 속담에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봤자 본전이라 하지만 애저탕은 속설과 반대로 여름철 보양식이었다. 옛날에는 돼지기름을 빼기 위해 시루에 찌서 몸에 좋은 약재와 양념을 넣어 굽기도 했다고 한다.

60년대 필자가 중앙일간지 광주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때는 서울본사 회장이 광주 애저를 먹기 위해 한 달에 한번 꼴로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당시 황금동에 있던 ‘국취원’이란 요정에 애저를 주문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애저가 당시에는 광주 별미 음식으로 알려져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음식점인 ‘우래정’이 돼지새끼 반마리 찌리를 팔아 2~3명이 주문해 먹었다. 그러나 4~5명이 먹던 통돼지보다 맛이 못하고 요정 애저보다 뱃속에 넣은 소도 종류가 단순해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중지하고 말았다.

‘또순이 식당’이 한창 인기 있던 시절에는 하루에 20마리 이상씩을 삶았다 하므로 요새 4인상 한정식을 40만원 가까이 받는 것을 생각하면 애저는 미식 관광객들의 별식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식당 박정지씨의 말에 따르면 후계 요리사를 양성했으나 새끼돼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전통을 잇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낸 『광주 맛집』에 따르면 상무지구의 Y식당이 애저 1통에 25만원 가격으로 장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확인 전화 결과 거짓 광고였다.

30여년 전에는 광산구 송정동에서 송아지 찜을 하는 곳이 있었으나 재료인 송아지를 구할 수 없어 맥이 끊겼다. 다만 ‘전남식당’에서 우삼탕이란 별미 요리를 했다. 우삼탕은 소영치뼈와 사골, 안심고기를 15~16시간 센 장작불로 푹 고아 육수를 만든다. 거의 끓을 때 찜 솥소 우량(불알)과 소꼬리를 육수에 넣어 삶는다. 우량은 동그랗게 잘라 두었다가 손님의 주문이 있으면 뚝배기에 찹쌀 1홉, 밤 5개, 대추 5개, 마늘 5쪽, 인삼 1뿌리, 잣, 검정깨를 섞

어 넣고 육수와 우량 5~7쪽을 넣어 20분 가량 끓여낸다. 쌀이 익어 죽이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잣과 검정깨를 죽 위에 뿌려 상에 낸다. 우량은 초장에 찍어 먹고 쌀죽도 초장으로 간을 맞춰 먹는다. 식후에는 쑥과 구기자, 감초를 끓여 차로 내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 진다. 송아지땀은 젖소를 줄일 때나 사고로 출산이 불가능한 암소를 잡았을 때나 가능한 음식이다.

오늘날의 광주는 전남 도청이 있었던 도시답게 전남 각 고을 사람들이 고루 들어와 살아 전남 음식의 종합경연장이 되어있다. 여수에서 유행했던 참장어 샤브샤브집이나 명계 비빔밥집도 있다. 함평비빔밥, 세발낙지, 낙지연포, 갈낙탕, 준치회, 가물치죽, 추어탕, 말린생선곰국, 민어전문집 등 없는 식당이 없다. 다만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전주처럼 적은 부담으로도 별미를 느낄 수 있는 대중 식당이 없어 아쉽다. 근래 영광굴비 백반이 유행하고 있으나 정통굴비가 아닌 기계건조 조거나 뚝은 기름내가 나는 짭퉁 조기를 굴비라 하여 1인분에 3~4만원씩 받는 집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황룡강 용봉탕

전남 독점 특식된 자양강장의 양혈 보신제



광산구의 별미 보양식인 용봉탕(사진 위)과 장성의 용봉탕 전문식당(아래)

광주에서 영광가는 길목 송산교 곁 용봉탕은 30여년 전 광주특식 중의 하나였다. 광산구가 송정시였던 1987년에 간행한 『송정시 마을 유래지』 명승과 명물 항목에 보면 「용봉탕과 잉어회」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애저^{兒猪}는 보통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웠으나 송산교 용봉탕은 중심사 계곡의 연계 백숙과 시내 일품요리 애저의 중간 정도 비용으로 맛볼 수 있어서 접대 음식으로 기호도가 높았다.

잉어회는 담수어의 기생충 감염 경고로 시들해지면서 자취를 감췄지만 18세기의 백과사전이라 할 『산림경제^{山林經濟}』와 그 뒤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 노인 양생 식품으로 나오는 전통식품이었다. 오늘날 가물치회는 볼 수 있어도 잉어회는 맛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송정시 마을 유래지에서는 도산동 서동 동네에 있던 백씨 과부집 잉어회가 유명했다는 일화와 함께 어룡동 서봉과 삼도동 지평 강변의 용봉탕이 당시 별미 보양식으로 유명했음을 밝히고 있다. 송정재래시장 품목으로 부활할 만하다.

오늘날 인터넷에 실려 있는 용봉탕은 잉어와 닭을, 어떤 곳에는 잉어와 오골계를 함께 삶는 여름철 보양 음식으로 소개하고도 있다. 1902년 광무 2년의 『궁실진연찬품정례』에 용봉탕^{龍鳳湯}이 나온다. 이 용봉탕은 붕어와 닭을 삶았다. 국어사전들은 ‘잉어와 닭을 함께 끓인 국’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본디 용과 붕은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므로 용은 물고기류, 붕은 닭으로 대신한다. 이 때문인지 광산구 송산교 일대의 일미 식품이었던 용봉탕은 잉어가 아닌 자라였다.

자라는 별주부전에 나오는 파충류의 일종으로 등과 배는 거북을 닮았으나 머리는 뱀을 닮았고 뱀과 마찬가지로 동면에 들어가는 민물 고기류이다. 민물에 사는 거북이라 할 수 있으며 수중왕인 용왕의 사신으로 육지에 사는 토끼간을 구하러 온 것이다. 거북과 같은 남생이^{木龜}와 닮았으나 등가죽이 약하고 남생이처럼 물 밖에서 오래 활동하지는 못한다. 물고기와 달리 육식동물 마냥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머리를 들어내고 숨을 쉰다. 곡성 석곡천이나 화순 동북천에 자라가 많이 살아 여름철에는 물 가운데 돌 위에 올라앉

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산구 호남대학 앞 황룡강에도 자라와 잉어가 많아 이곳 송산보 상류인 박피쪽 강변에 용봉탕 집이 여럿 있었으나 지금은 여름철에 영업할 뿐 겨울에는 문을 닫고 있다. 재미난 것은 중국 하남성 신양시 광산군의 황천潢川이 중국 제일의 자라 생산지라는 것이다. 광주 광산구 황룡강에 자라와 잉어가 많았던 것은 친연성을 느끼게 한다.

가장 오래된 자라요리 기록은 전통음식에 대한 책인 석계부인 안동 장씨(1598~1680)가 쓴 『음식디미방』의 별탕(자라탕)이다. 오늘날 서점가에는 수십 종의 음식관련 책들이 나와 있으나 자라를 요리하는 방법을 쓴 책을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옛 음식책 빙허각 전주 이씨(1759~1824)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자라찜’ 항목이 나온다. 빙허각은 오늘날 임곡 일대에서 손님상에 내놓고 있는 용봉탕처럼 자라와 닭을 함께 삶아내는 식이 아니라 자라만을 찌서 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빙허각 이씨는 이 자라찜을 ‘왕비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심장 답답증의 성약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빙허각은 요리법에는 언급이 없이 뽕나무로 고우면 쉽게 물러진다고 하면서 별주부는 용왕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가슴에 왕자무늬가 있거나 발이 세 개뿐인 경우는 이 자라를 먹지 말고 놓아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런 풍습 탓인지 옛날부터 자라는 불교 신도들이 강물에 방생용으로 많이 찌던 풍속의 흔적을 살필 수 있어서 흥미롭다. 서유구徐有榘(1764~1845)가 썼다는 『임원십육지』 ‘전어지’ 편에 자라잡는 법을 쓰고 있어서 이 무렵 자라 식용이 크게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앞선 『산림경제』에는 11월과 12월 상순에 잡은 자라는 먹지 말라는 기록이 보인다. 잉어는 산후조리에 좋아하여 주로 여자들이 고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림경제』에는 잉어회가 노인병에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

양식 자라는 전남이 주산지

자라는 강물에서 자라지만 고기 맛은 생선 맛이 아니라 닭고기 맛이다. 이

때문인지 일본 사람들이 즐겨먹어 한때 일본에 수출했다. 민물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산 자라잡이 어부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자라도 장어나 가물치같이 양식기술이 발달해 전남에만 29명의 양식업자가 생겨나 연간 111톤 가량 출하하고 있다. 여름철 송산교 밑 용봉탕집 서해정 식당 등에 공급하기 위해 황룡강 상류인 장성 동화면을 중심으로 3곳의 양식장이 성업 중이고 영광과 해남에 각각 4곳이 있다.

송산교 용봉탕 풍습은 자라목을 베어 흐르는 피를 소주에 섞어 닭똥집과 함께 먼저 내놓았다. 지금은 생피가 기생충 위험이 있다 하여 기피하는 손님이 많아 생피를 내지 않는 곳도 있다. 그 대신 쓸개를 소주에 타 내놓고 있다. 경상도 용봉탕은 오골계와 잉어를 고아내는 식이라 자라 양식장이 없고 청송과 구미 쪽에서 자연산 자라를 요리하는 풍습이 남아있으나 대부분 엑기스용으로 소비된다. 오늘날은 자라요리가 전남독점 특식이 되어있다.

송산교 용봉탕은 춘닭과 함께 삶아내지만 식당에 따라 오골계를 쓰는 곳도 있고 검정콩과 검정깨를 갈아 넣어 닭고기 색을 자라빛으로 변하게 하는 요리법을 쓰기도 한다. 장성 동화면에서 양식장과 식당을 경영하는 김종구씨(백제 용봉)는 현 국내 양식량은 수요의 20%도 안 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태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본디 남생이나 자라나 거북등은 칼슘과 교질분이 많



음식점 수족관에 있는 자라

아서 신장이 허할 때 쓰는 약재이므로 자양간장의 양혈 보신제는 자라만한 식재료가 없다할 것이다.

속설에 전하는 용봉탕은 뱀을 죽여 옹기 그릇에 담아두면 구더기가 생기고, 뱀구더기를 먹은 닭이 취해 털이 빠지면 그 닭을 고아 먹는 방식이었다. 옛 여인들은 남편의 보양을 위해 이처럼 혐오스런 과정을 거쳐 닭을 삶아 대접했을 뿐 아니라 마포로 속바지를 만든 뒤 마포에 된 풀을 먹여 입혀 남자들의 양근이 마포와 마찰해 둔감해지도록 신경을 썼다. 남편 양물의 신경이 둔감해져야 부인이 오래 즐겁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에게는 수탉을 삶아 주는 풍습도 있었다. 기르는 짐승 중 수탉은 한 마리가 암탉 열다섯 마리를 거느리고 매일 수십 번 수정을 하는 정력이 있어서 해구신이나 녹용에 버금간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40여 년간 자라를 양식해 왔다는 장성 동화면 김종구씨는 자라는 5월에 산란하지만 암컷의 알집은 암탉처럼 10월께부터 생겨 있어서 옛사람들은 이 알을 보호하느라 겨울철에는 먹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동면에 들어가는 11월께 자라가 좋고 6~7월 자라는 알을 깬 뒤라 맛이 덜하다고 말했다.

자라는 5월에 알을 받아 45일 만에 부하시켜 고기 양식 사료를 3년 먹여 길러야 1kg 가량 자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점점 양식업자가 줄어가고 열대지방 자라가 대량 수입중이다. 태국산 자라는 1kg에 3만 2천원에 소매하고 있다. 국내 거래량의 80%가량이 수입산 자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광주 애저나 용봉탕이 옛 명성을 유지한다면 광주는 역시 전주와는 달리 싸구려 음식이 아니라 전라도 부자들이 즐기던 보양 음식의 본고장답다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찾아 일상에서 벗어나는 관광시대일수록 그 고장 땅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쓴 전통조리법에 충실한 토속음식이 사랑을 받게 되어있다.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은 자기다운 영혼

이 있어야 한다. 전라도 한정식이 낭비가 많다고 해서 가지 수를 줄이고 서울식으로 코스 요리를 낸다면 전라도의 혼을 잃게 된다. 먹다 못 먹으면 버릴지라도 상판이 휘어질 지경으로 가득찬 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라도식 한정식의 전통은 유지되어야 광주 예방답다.

옛날 즐겨먹던 잉어회나 가물치회, 쇠고기 날것이 기생충 오염의 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이 실시해 비위생적인 요소를 없애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전통을 유지시켜야 한다. 호적 없는 퓨전 음식점들을 광주의 맛집이라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옛 일품 지방 음식들을 찾아 그 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사랑받게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다.

선남역 앞 황룡강 취수장은 광주 상수도 용수로 썼으나 지금은 용도가 폐기된 상수원 저수지이다. 이곳을 친수공간이 적은 광주의 리조트로 개발하여 평동의 북룡산 기슭의 하천부지에 전천후 자라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자라 생태관을 지어 청소년의 생태관찰에 이용하면서 용봉탕 음식 특구를 조성한다면 광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라는 중국 사람들이 즐기는 식재료이므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광주만의 특식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특히 중국 제일의 자라양식 고장인 광산군(光山郡)은 광산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곳 선진 자라 양식기술을 전수할 필요도 있다.

송산교 황룡강변의 자라, 잉어 사육을 장려하고 위생적인 전통음식을 유지시켜 고단백인 잉어나 오골계, 자라 음식이 광주 스태미나 브랜드 음식으로 육성되기를 고대한다.

： 무등산 녹차

춘설차 · 작설차로 무등명품 차를 이어오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지방별 토산품 이름이 있다. 순천, 광주, 옥과, 진원, 장흥 등지에서는 차茶가 나온다 하고 구례, 나주, 남평, 영암, 강진, 무안 등지에서는 작설차雀舌茶가 산출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작설차는 어린 찻잎을 따서 만든 것을 이르지만 당시는 일반차와 구분했던 것 같다.

이 자료를 보면 광주에서는 이미 고려 때부터 녹차를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92년의 『광산지』 ‘물산’ 편에 보면 차가 기록되어 있고 2월달 진상품에 작설차 4량(150g)의 목록이 있다. 물론 그 이후의 읍지에도 작설차 진상 기록은 계속되고 양만 7전錢이 늘어났다. 이 같은 기록은 양력 2월 20일 전후에 따 만드는 우전차雨前茶가 무등산에서 생산되어 작설차라는 이름으로 음력 2월 왕실에 보냈음을 알 수 있다.

1822년 「호남정선정례부편」의 자료에 보면 광주와 이웃 고을인 담양, 옥과, 능주와 함께 구례가 작설차 진상 지역이었다. 다만 5개 고을의 진상품 중 광주가 다른 곳 보다 배나 많았다. 조선시대에 동복과 남평에 차 공장이라 할 공소가 있었으나 진상품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물론 오늘날 보성寶城이 녹차 주산지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별로 이름 없던 곳이다. 광주의 차밭은 사찰 소유였을 터이지만 어떤 경로였던지 한일병탈 당시 무등산 차밭은 최상진崔相鎭(1852~1931)씨 소유였다고 한다. 그는 탐진 최씨 주남파로 최흥중崔興琮

(1879~1966)목사의 백부였으며 완도 군수와 광주 면장을 지냈다. 1907년에는 광주지방금융조합 초대 조합장도 지냈다. 그분의 손자가 사세청장을 지낸 최태근씨이다.

일본인 이주자가 늘면서 1912년 일본 돗토리 출신 오자끼尾崎三가 7백엔에 7ha를 최상진씨로부터 양여받아 차 공장을 운영했다. (박선홍, 『무등산』 참조)

광복 후 이 차밭은 의재 허백련(1891~1977)이 인수해 삼애다원三愛茶園이라 이름 붙여 춘설차春舌茶라는 상표로 녹차를 생산했다. 이 차밭 곁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최원순崔元淳(1896~1936)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 석아정石岬亭이란 별장을 짓고 지내다가 죽은 뒤 최흥중 목사가 인수해 오방정五放亭이라 이름했다. 이 오방정은 최흥중 목사가 의재 허백련과 함께 무등산 삼애다원을 중심으로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를 세워 운영할 때 의재에게 인계되어 춘설헌春雪軒이란 옥호로 변했고 의재가 세상을 떠난 뒤 시기념물 제5호



차는 절기 중 ‘곡우’ 전에 수확하는 우전차를 으뜸으로 삼는다.

로 지정되었다. 1947년 학생을 1년 과정으로 모집해 하늘과 땅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삼애정신을 가르치던 이 학교는 1954년 정식 인가를 받아 의재선생이 죽던 해까지 24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학교는 1년에 20여명을 뽑아 합숙 강의를 받으며 차밭을 가꿨고 일본에서 차 가공기를 들여와 증제식 차를 만들어 팔아 학교 운영에 보태기도 했다. 이곳 차밭은 학교가 폐교된 뒤 아들인 허광득에 이어 손자 허달재가 관리하면서 춘설차라는 상표로 아시아나 항공에 납품하는 등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근래에는 연진회와 의재문화재단 소비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자 허달재씨는 무등산 차밭이 재래종으로 관리가 힘든 산비탈에 있어 수확량이 적고 인건비마저 올라 일반 평지 녹차와 경쟁할 수 없어 상품화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제는 이 전통을 이어받아 의재로 사거리 연진회관 건너 한국제다(소태동 763-4)가 차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공장은 서양원(徐良元)(1931-2012)씨가 1957년 개설했다. 본디 광양 출신이었던 서씨는 젊은 시절 부산에서 살면서 하동 화개장터의 홍소술씨와 함께 찻잎을 양은그릇 염료로 수집해 납품했다. 광복 전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녹차가 광복 후 판로를 잃고 황폐화되는 과정에 녹차는 겨우 공업용 색소연료로 쓰였다. 서양원씨는 일본 생활로 일본식 녹차생활에 인이 박힌 사람들 사이에 녹차가 기호식품으로 거래되던 시절이라 춘설차라는 상표로 거래되고 있던 광주 춘설차 생산자인 소태동을 찾아왔다. 서씨는 이미 도내 자연산 녹차 자생지를 중심으로 공업용 녹차를 수집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어린잎을 수집해 가공한 다음 삼애다원에서 생산해 팔던 춘설차의 이삭줍기 판로를 개척해 갔다. 당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구례 화엄사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을 동원해 마산면 사찰 입구 차밭에서 찻잎을 따게 한 다음 사찰용으로 쓰고 있을 때이다. 당시 대흥사 주지를 지낸 응송 박영희 스님이 진도, 해남 지방의 자연산 녹차잎을 따서 자가소비를 하는 정도였다.

운 총계도 5·16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커피 금수조치와 함께 국산 홍차보급 정책을 썼다. 이 바람에 일본 식민시절의 녹차밭이 갑작스럽게 각

광을 받게 되었다. 보성 차밭은 일본 사람이 운영하던 직산이라 해군본부가 관리하고 있다가 서울 필동에 살던 해군 군속의 민간인 손으로 넘어가 있었다. 모든 다방에서 커피 판매가 중지되면서 홍차와 홍차에 위스키를 탄 위스키 티와 쌍화차가 판매되던 시절, 국산 홍차나 녹차가 없어 톱밥에 물감을 들인 짝퉁 홍차와 고추잎 홍차가 행세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는 홍차와 녹차의 국내 자급을 위해 농특사업이란 명목으로 야산을 개발해 녹차를 심는 조성사업을 벌였다. 이때 보성의 녹차밭 주변과 벌교 증광리 일대의 산지가 개발되었다.

2~3년 지나 서슬이 퍼랬던 군사정권의 커피금수 조치가 흐지부지되면서 다시 다방의 홍차가 사라지고 경험 없이 산을 개간해 심은 보성 일대의 차밭은 황무지가 되었다.

녹차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던 70년대부터이다. 주로 부산으로 들어왔던 일본 관광객들은 식사 후 오차를 요구했으나 오차가 녹차임을 몰랐던 접객업소들은 보리차를 오차라면서



한국제다 직원들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용 티백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내던 시절이었다. 결국 일본의 값싼 청차를 오차로 일본 관광객을 맞던 부산 사람들이 화개일대 전통차 받을 뒤져 녹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자연 녹차밭이 곳곳에 있던 전남에서는 보성을 중심으로 차밭 조성이 이뤄졌지만, 한국제다는 무등산 춘설현의 춘설차와 함께 작설차란 상표의 전통녹차를 꾸준히 생산해 국내 녹차 생산기업의 선봉에 섰다. 뒤늦게 동서식품 등이 국산다류 종류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한국제다의 경험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진도출신 손모씨가 영암 미암면에 일본 야브기다 품종 녹차밭을 조성하면서 태평양 화학이 강진 성전에, 이어 제주도 서귀포에도 다원을 만들어 전통차 부흥운동의 불이 붙었다. 태평양 화학은 화장품 회사였으나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천연 화장품 시대가 올 것이고 녹차는 여성미용에 최적의 재료가 될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든 셈이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이 복원되고 초의대사의 동다송이 번역되면서 한국 브리테니카가 1978년 녹차판매에 뛰어들었다. 이를 전후해 국내에는 다도의 백가쟁명이 시작된다.

일본식 다도를 흉내 내는 의례차가 유행하면서 80년대 농협이나 여성회관의 다도 교육이 정착했다. 78년 광주에 녹차를 즐기는 모임인 ‘요차회’가 발족되고 81년 사직공원에 저자가 시작한 ‘끼다거’란 녹차 시음장 겸 다구 전시장이 문을 열었다. 85년 한국차인연합회가 결성되었으나 힘을 합하지 못해 91년 광주사람들은 (사)한국차문화협회를 발족하고 한국제다공장 곁에 운차문화회관이 들어서 3천 5백명의 지도사범과 372명의 녹차생활 전문사범을 배출했다. 이처럼 광주는 녹차생활 정착의 중심에 서 있을 뿐 아니라 한국제다 서양원씨를 녹차명인으로 성장시켰다. 서씨는 2001년 한국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고 2004년 목포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국의 반발효차의 수입에 맞서 황차를 개발하고 일본 말차에 맞서 가루차를 개발해 2008년 명인지정을 받았다. 한국제다는 장성, 영암, 해남 등지에 10만여 평의 직영 차밭을 운영해 다류업계의 중추적 기반을 굳혔다.

오늘날 국내 차밭 면적은 3천 5백여ha로 연간 4천톤 가량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에 견준다면 아직도 유치원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연간 소비량은 15만톤으로 자국 내 생산량이 9만톤 가량이고 6만톤은 외국에서 수입해 쓴다. 일본 수준으로 녹차를 생활화하려면 한국은 6만톤 가량의 녹차가 필요하다. 이 경우 재배 필요면적은 4만ha 가량으로 재배적지인 전남의 밭 50%는 차밭으로 바뀌줘야 한다. 이처럼 녹차가 생활차로 일반화되려면 오늘날 한국녹차 생산량을 ha당 50%가량 늘려야하고 기계화하여 찻값을 지금 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 모든 생활이 국제화되는 마당에 커피를 줄이고 녹차를 생활화하고자하는 할 수 없으나 원두커피 소비량이 98년에 비해 2012년 4배로 늘고 2014년 10월 말, 원두커피 수입 외화가 3억 1,520만불, 9만9천 톤을 넘어섰다고 한다. 수입량을 5천만 국민으로 평균할 경우 1주일에 커피를 12.3회 가량 마셔 쌀밥 7회, 김치 11.8회를 앞섰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이 원두커피의 절반만 국산 녹차로 바꿀 수 있다면 FTA로 작목 선정에 고민하는 농민을 살릴 수 있으련만... 일본의 농가에서는 늙은 부부가 3백 평의 녹차밭 만으로 노년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비싼 녹차값을 낮추는 길은 많이 소비하는 데에 있다.

： 무등산 수박

쌀과 맞바꾸는 귀물... 진상에 고관대작 선물로 ‘인기’

서유본徐有本(1762~1822)의 처 빙허각 이씨(1759~1824)가 1815년께 쓴 것으로 알려진 『규합총서』 ‘팔도소산’ 항목을 보면 수박 산지로 충주와 나주, 광주에 세 고을을 들고 있다. 광주는 수박 외에 농금과 산약마을을 지역 특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등산 수박이 주목을 받은 것은 1970년대 접어들면서 농특사업이 추진되고 품목별 주산단지 사업이 장려될 때였다. 이때 전남에서는 양잠·유채·죽세공·맥주맥·아스파라가스 등이 장려 품목으로 결정되고, 곳에 따라 낙농·비육우·백합·양송이·밤·감귤 등이 선정되었다. 이때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대일수출 품목이 주목을 받아서 나주에는 낙교와 인초, 보성과 고흥·영암에는 홍차용 녹차단지, 해남의 옥돌 부업단지 등이 장려되었다. 당시 이 사업은 보조와 저리융자는 물론 국공유지의 임대 또는 불하 등의 혜택이 주어질 때라 전통적인 특화 품목이 없던 광주는 국유지가 많은 무등산을 활용한 농특사업이 구상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무등산 수박과 광산 비아의 무였다. 광산의 무와 나주 영산강 무는 국내 네 번째 특산품이었고 함평·무안의 양파는 국내 1위, 해남·나주·광산의 배추는 국내 다섯 번째, 고흥·신안·해남의 마늘은 국내 두 번째 특산품이던 시절이다.

무등산 수박은 오랜 옛날부터 ‘푸랭이’라 하여 평지 수박이 수확을 끝낸 8



무등산 기슭 중턱에서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을 머금고 익는 무등산 수박은 지역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월 말부터 시작해 추석 전후에 피크를 이루는 만생종 수박으로 명성이 있었다. 1926년 6월 27일자 동아일보 '향토예찬' 내고을 명물란에 국내에서 2번째로 무등산 수박이 소개되고 있다. 이 소개 기사는 광주 독자 김재석金在錫씨 투고로 이뤄진 것으로 김씨는 무등산 수박이 조선시대에 왕실 진상품으로 이름을 떨쳐 오늘날도 전국 각지에서 무등산 수박을 사려고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발 5백~8백m의 무등산 중턱에서 재배해온 이 수박 종류는 큰 것이 30kg에 달할 뿐 아니라 과일이 없는 시기에 나와서 찔과 맛바뀌가는 귀물이라 고관대작들의 선물에 주로 쓰였다. 『규합총서』에 나와 있듯이 나주, 광주의 특산이었던 무등산 수박은 영조때 왕실에 보내던 진상품 품목 중 하나였다. 1970년대 무등산 꼬막재 아래의 진재량씨 광일목장에 백운산 산악농장 개척자로 알려진 김동석씨가 들어와 단지 재배를 시도

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농촌지도소가 이 품목의 장려를 위한 작목반을 구성하고 76년 향토특산물 제1호로 지정,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주었다. 품질 향상을 위해 대만의 고산 지대에서 재배하는 수박씨를 도입해 시험하기도 하고 박이나 호박대목을 이용한 접목을 시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수박이었다. 그러나 씨는 박씨 마냥 하얗고 양눈에 검정점박이가 있는 씨를 고유 품종으로 확정했다.

수박은 본디 동북아시아 돌궐 지방이 원산지였으나 글안족이 돌궐을 지배한 뒤 그 맥을 이은 요나라遼(916~1125) 전역에서 재배했다. 요를 이어 금(1115~1234)이 되고 금나라를 이어 몽고족 원(1260~1367)이 되었다.

이 원나라는 고려 고종 때 7차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고 1272년 진도, 제주 등지에서 삼별초를 궤멸시켰다. 이후 80여 년간 몽고족인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는 드디어 힘이 쇠해 이성계 조선 왕조에 왕권을 넘겼다.

7차례 침입 때 몽고장수 차라대車羅大는 정동원수가 되어 1254년 무등산에 진을 치고 약탈을 일삼았다. 이때 차라대를 따라 고려사람 홍복원과 그의 아들 홍다구洪茶丘(1244~1291)가 원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활동해 고려군민총관의 자리를 차지했다. 고려 말 이재현李齊賢(1287~1367)이 쓴 『역몽패설機翁稗說』은 홍다구의 역적질을 기술하면서 홍다구가 서역땅으로부터 가져온 박종류라 하여 수박을 서과西瓜라 하고 고려에서 재배하도록 했다고 적고 있다. 홍다구의 아버지 홍복원이 차라대와 함께 무등산에 진을 치고 약탈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 무렵 몽고 수박씨가 무등산에 뿌리를 내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무등산 수박이 동남쪽인 중심사 쪽보다 북서쪽인 원효 계곡에서 재배되는 것은 앞서 무등산 지리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곳 서북쪽 산기슭 땅이 부식토가 많기 때문이다. 50여년 전 무등산 수박 재육성 사업 때 금곡동 노인들 얘기를 들으면 예부터 이곳 수박 구덩이는 노인의 상투 끝이 보일락 말락할 만큼 깊고 넓게 판 뒤 구덩이에 낙엽을 가득 채웠다고 한다.

실제로 전남대 농대 연구팀의 재배 기술지도에 따르면 깊이 2m, 너비 4m가 좋다고 한다. 일반 수박은 대부분 거죽에 호랑이 문양이 있으나 무등



무등산 수박 출하제

산 수박은 어릴 때는 같은 문양이 나타나지만 성숙해갈수록 문양이 없어지고 초록빛 단색으로 변한다. 당도는 12도 내외로 일반개량 수박보다 못하지만 속이 서릿발같이 성글고 과피는 두껍다. 과피가 두꺼운 만큼 저장성도 좋아 상온에서 한 달 이상 상하지 않는다. 연작 피해가 있으므로 땅을 바꿔가며 재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70년대 후반 무등산 수박 장려 때 충효동과 청풍동 일대 농민 30여 농가가 참여해 재배면적도 30ha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개량 수박이 계속 당도를 높이고 시설재배 면적을 넓히면서 가격이 일반 수박보다 10배 가까이 비싸 경쟁력을 잃고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1990년 이 사업은 북구청으로 넘겨지고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고품질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전남대 농대에 의뢰했다. 이때 양액재배, 온실재배, 지주재배, 포토육묘관리적과법, 병충해방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험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박순기朴順基씨는 2000년 무등산 수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전남대 농과대학 정순주鄭淳柱 박순기 공저의 『무등산 수박의 유래와 재배기술』이 간행되었다. 저자들은 무등산 수박씨가 83년 경기도 가평, 84년 충북 보은에 보내졌고 92년 일본에도 유출되었으나 지역적 특성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무등산 수박재배 땅들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재래식 재배가 불가능해 지금은 충효동에 한정해 평지에 온실을 짓고 재배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 농민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70년대 석곡출장소 작목반이 90년대 무등산수박 생산조합으로 바뀌고 지금은 충효동 농민 13명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겨우 4ha의 온실에서 재배해 공동 출하를 하고 있다. 무등산 수박과 유사한 만생종푸랭이 수박이 등장하고 있어서 북구청은 충효동 영농법인에서 생산하는 수박에 품질인증 표를 달아 판매토록하고 있다. 생산자들도 금곡동 길썬에 직판장을 개설해 서울 등지 백화점도 이 직판장을 통하도록 유통을 일원화하고 있다. 2014년 중 생산량은 2천 2백개 가량으로 8kg에 2만원, 20kg에 8만원을 받아 모두 2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영농법인 총무 정태영씨는 대학에서는 온실재배 때 지주식이 소득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 영농 때 시행이 어려워 2평에 1주 정도를 기르는 평지 재배법을 쓴다면서 다른 작물의 온실재배에 비해 큰 소득은 볼 수 없지만 지역 특산품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재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수박 재배면적은 4만7천여ha로 노지 재배와 온실 재배가 반반이다. 광주의 수박밭은 80ha가량이고 그 중 4ha가 무등산 수박이다. 중국의 수박밭이 전 세계 재배면적 250만ha중 40%인 98만9천ha로 단연 1위 소비국이므로 중국인들의 생활 향상에 따라 무등산 수박의 소비 확대를 내다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수박의 씨없는 연구가 일반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무등산 수박을 씨없는 수박으로 개발한다면 그 수요는 훨씬 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두꺼운 과피의 식용 및 효소 연구, 항암연구 등 특산품 1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정적 관심이 계속되어야 한다.

무등산 수박은 특히 다른 수박 종류보다 유기질을 많이 요구하는 비진화

중자라 환경친화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재배가 까다롭기 때문에 예부터 임신한 여인의 접근이나 상중인 사람의 수박밭 출입은 수박을 떨어지게 한다는 금기가 심했다. 산신제를 지내거나 제자들이 입는 마포의 재료인 삼마저 주변에 심지 못하게 했다.

무등산 기온은 시내보다 5도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무등산에 눈이 세 번 내린 뒤 비로소 시내에 눈이 내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고도에 따라 찬 기운이

도는데, 그 북쪽 산기슭 중턱에서 찬 기운을 머금고 익는 무등산 수박은 역시 다른 지역 수박이 흉내 낼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평지보다 비가 잦아 녹차가 잘 되는 땅이지만 수박에는 적당치 않은 강우이면서도 배수가 좋은 토질이라 찬바람 속에 익는 모습을 내보이는 무등산 수박은 마치 이 계곡에 모여 노닐던 시인 묵객의 모습에 비길만한 지역 특장 문화상품이다. 금곡동 흙으로 빚은 분청사기 그릇에 이 계곡에서 생산한 수박으로 요리한 각종 기능성 식품을 맛볼 날을 기대하기로 하자.



무등산 수박을 활용한 음식 시식회

： 광주김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세계 속의 김치로 발돋움

김치와 광주는 특별한 친연관계가 있는 음식이 아니다. 1994년 뜬금없이 광주광역시에서 김치축제를 시작하면서 인연을 맺은 식품일 뿐이다. 광주김치 축제는 2015년이면 29회째가 되는데 광주시의회가 행사비 15억 원을 삭감하면서 새삼스럽게 시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88올림픽을 전후해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홍보하면서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류의 물결을 타고 김치가 한국 밖에서 주목을 받자 일본은 짬뽕계 기무치 상표를 내걸고 국제시장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는 일본과 김치논쟁을 계속하다가 2001년 한국김치가 국제식품규격에 등록하는데 성공하면서 김치는 명실상부한 한국고유의 전통발효식품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건강잡지에 한국의 발효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고 2013년 12월 한국의 김장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가 확정되면서 세계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다. 그러므로 김치는 이제 한국이나 광주의 김치가 아니라 세계의 김치가 된 셈이다.

광주시가 김치축제를 시작한 것은 아직 국제적인 평가를 받기전인 1994년이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나름의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을 모으고 있었으나 광주는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었다. 남도음식축제를 생각했으나 이미 전라남도가 낙안음식축제를 계속해오고 있는 터라 비엔날레를 시작하면

서 김치축제는 부대행사로 기획된 것이다. 이름은 김치축제였지만 김치경연 대회와 더불어 여러 음식경연을 겸하고 광주칠석의 고싸움, 광산농악 등 전통민속예술을 곁들여 월드컵 경기장에서 큰판을 벌였다.

1995년 문화체육부, 농수산부, 한국관광공사 등의 지원을 받아냈고 1997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이 선정한 대표적인 기획 문화축제로 선정되었다.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5대 문화축제로 꼽혀 국비를 지원받는 등 주목을 끌었다. 주최지를 시립민속박물관 마당으로 옮겨 김치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꿨으며 2012년 유네스코 등록을 앞두고 아예 ‘세계’자를 넣어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그동안 이 축제에 관련해 쏟아부은 예산은 1천3백여억 원에 달한다. 물론 축제에는 매년 15억원 내외를 써 왔지만 이 축제를 빌미로 2002년 농림부에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 승인을 받았고 2009년에는 346억 원을 들여 남구 입암동(가산마을) 675번지



김장철을 맞아 광주 광산구 침단2동의 한 자연마을에서 아주머니들이 김장 담그기를 하고 있다.

(김치로 860)에 7만8,310m²의 부지를 확보해 김치타운 조성에 착수했다. 윤 중계도 이명박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중요 시책으로 내걸었고 2008년 김치산업진흥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세계 수준의 발효식품연구기관 설립을 결정했다. 2009년 광주시는 김치타운 안에 정부의 연구기관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제안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2010년 1월 개소)를 김치타운 안에 유치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2012년 182억 원의 국비로 연건평 7,682m²의 4층짜리 건물을 준공, 연구원 62명, 행정직 18명 등 80명의 직원과 함께 김치타운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김치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산업화를 위해 발효연구, 유전자은행 운영, 김치공정, 김치의 대사성 연구, 중소기업지원 등을 담당하고 연구시설을 완비하는데 치중해 왔다. 물론 이 연구소는 개소 후 4년간 지적재산권 출원 33건, 논문 72건의 연구성과를 올리고 김치의 포장기술개선, 김치와 건강, 김치산업의 활성화 등 학술토론회와 산학워크숍, 국외 홍보행사 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연구소는 김치가 심장병과 고혈압에 미치는 좋은 영향과 김치의 염도가 성인병과 관계없음을 밝혀냈으며 절임시간 단축기술, 저장시간 연장방법, 국제수출 포장용기 개발 기술 등을 기업에 이전했다. 2013년부터 김치생산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1년간 김치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1,300억 원에 달하지만 축제행사 외에 김치타운 조성과 세계김치연구소 유치 성과도 거뒀으므로 크게 손해 본 셈은 아니다.

김치타운의 경우 김치박물관, 김치체험장, 첨단 김치가공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9,225m²의 4층 건물로 2010년 10월 개관, 김치담기체험, 김치요리체험, 김장철 사랑나눔 김장대전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세계김치연구소의 활동 역사가 짧은 탓인지 시민이나 생산업체와 아직 밀착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김치 생산업체는 16개소고 전남업체는 90개다. 전남의 업체 중에는 시설을 현대화하여 배추세척 등을 자동화하고 있으나 광주업체들은 가

내 수공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김치타운의 시설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누구나 이곳에 가면 재료비만 내고 절인 김치와 다대기를 제공받아 김치를 담아갈 수 있다. 청소년들의 김장 실습장을 운영해 김치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타운이 시내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어서 시내버스마저 환승해야 하는 외진 곳이고 택시비가 1만원 가까이 나오는 오지에 자리잡고 있는 점이다. 글로벌 김치문화와 발효과학을 연구하는 박사학위자만 20여명이 근무하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있다는 것과 첨단가공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임대해주는 김치종합타운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 중국과의 FTA체결에 따라 중국김치 수입관세가 20%에서 18%로 낮아지고 절인배추와 다대기는 4.5%로 낮아지면서 국내 김치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향후 김치연구소는 젓갈대체 소재개발, 김치냄새 저감연구, 기능성김치 생산기술 개발 등으로 수입김치에 대처하고 수출김치 생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발효식품의 왕좌

김치는 소금 생산과 채소재배 기술이 개발된 이후 아주 오래전 채소저장 기술로 고안되었을 것으로 본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반도는 중국의 옛 기록에 나오는 저菹라는 채소 절임 방법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기록으로 볼 때 장아찌형 절임 김치는 백제 때 일본에 전했다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절 무, 가지, 아욱 등의 절임 김치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식 절임 김치를 뛰어넘어 발효 김치로 발전시킨 것은 17세기 때부터 보편화되었다.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가포육영家圃六詠』에 무를 9월에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한다 했으나 아직 찐지였던 것 같다. 권근權近(1352~1409)이나 조한찬(1572~1631)의 문집에 지축지축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용어는 겨울철을 지내기 위해 순무채로 만든 김치를 닮았던 듯하다.

안동 장씨(1598~1680)의 『음식디미방』에 산갓 김치와 꿩고기를 넣은 생치오이 김치가 나온다. 박세당朴世堂(1029~1703)의 『색경』穢經에 배추 재배

법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한국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에도 젓갈이 김치 재료로 쓰였다는 대목이 있다. 김치 섞박이로 전복, 소라, 낙지, 굴, 쇠고기, 생선대가리가 쓰이고 젓의 종류도 조기젓, 준치젓, 뽕대이젓, 굴젓이 있었다. 오늘날의 김치보다 오히려 호사스런 재료가 동원되었다. 이 무렵부터 그동안 김치의 주재료로 쓰인 무, 갓, 오이, 미나리, 부추, 죽순, 가지, 청각 따위가 배추김치의 부재료로 쓰이고 있다. 김치의 향신료로는 마늘, 파, 생강, 후추, 산초 등이 쓰였다.

홍석모洪錫模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새우젓, 장김치, 동치미, 젓국지 등이 등장한다. 1943년의 이용기『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신식통김치에 돼지양지머리, 도미젓, 방어젓, 생대합, 북어, 건대구, 설렁탕국물, 생조기가 동원되고 있다.

동치미에는 연어알, 맨드라미꽃, 유자, 석류, 잣이 쓰이고 열무김치에는 밀가루와 쌀밥이 들어갔다. 깍두기에 돼지양지머리·조기·방어 등을, 오이 깍두기에는 닭고기를 넣기도 했다. 이 같은 김치의 발전을 보면 전주비빔밥을 닮은 온갖 반찬재료가 동원된 발효 비빔 반찬이며 종합 부식이 김치였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저菹·지염漬鹽·함저鹹菹·육저肉菹·지축脂蓄 등으로 불리던 짠지류는 1527년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침채沈菜로 바뀌어 나오고 저菹자를 일러 ‘덤채조’라 한다고 풀어 국물 많게 절이는 김치를 뜻하고 있다. 물기 많게 소금을 적게 넣어 만든 물김치가 결국 젓산 발효를 진행시켜 한국형 유산균 덩이 발효 김치를 탄생시켰다. 이에 더해 임진왜란 후 들어온 고추를 부재료로 쓰면서 감칠맛을 더해주었고 옛날 맨드라미나 갓으로 우려내던 붉은 빛깔나는 현대 김치의 원형이 탄생했다.

그래서 절임 김치류인 일본의 쓰게모노나 다쿠양스케와 다르고 서양의 채소에 소스를 뿌린 즉석채소 무침 피클류와 다르며 유산균이 없는 중국의 파오 차이와 다른 발효식품이다.

한국인의 조상들은 중국인들처럼 모든 식재료를 불로 익히는 식문화와 다른 자연발효를 통해 낟알을 익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저염식 배추 속에 각종 향신료를 비벼 넣고 생조기, 생굴, 생닭, 꿩고기, 생전복, 날쇠고기를 속박아 젓산이 생고기를 불로 익힌 것 못지않게 감칠맛 나고 매콤하게 만드는 발효 기술은 가히 세계적이다. 마늘냄새난다고 기피하던 일본인들, 김치냄새난다고 홍보던 미국인들이 이제 김치는 세계적 건강식품이라면서 서로 흉내내는 세상이 되었다. 김치류의 발효는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 등 한국식 발효 음식이 미래식품이라면서 세계적인 조리사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한국식 재료의 중심에 있는 광주가 그 좋은 지역여건을 살려 세계일품 김치의 수도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광주 김치타운에 자리한 세계김치연구소는 2012년 연건평 2,894평의 4층짜리 건물로 준공됐다.

： 광주 의례 음식

보기 좋고 맛까지 갖춘 폐백·이바지 음식에 ‘탄성’이 절로

광주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중에 남도의례음식장(제17호)이 있다. 격식을 갖춘 행사와 예절에 맞춘 전라도 지방 음식내림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최영자(북구 풍향동), 이애섭(북구 동림동) 두 여인이 기능자이다.

본디 이 분야는 1989년 중흥동에서 살고 있던 당시 73세의 이연채(1916~1994)가 지정되었으나 지정 후 5년 만에 세상을 떠나 8년 뒤 그의 조카 최영자가 이어 받았다. 이애섭은 내림을 달리해 2006년에 지정한 울산 김씨계의 폐백음식과 이바지 음식장이고, 최영자는 탐진 최씨가계의 음식장이다.

그러므로 광주시가 그 음식솜씨를 내림으로 유지하도록 지정한 두 사람의 음식기능은 일상생활 음식이 아니라 행사용 음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바지 음식이나 결혼상에 올리는 폐백음식 등은 맛보다 볼품 위주로 만들어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지만 결국은 먹는 음식이라 맛도 갖춰야 한다.

이연채가 광주시 무형문화재가 된 것은 원래 그 분의 솜씨가 뛰어나 행사용 상차림 음식뿐 아니라 떡살이나 다식판 조각에도 뛰어났고 술안주 만드는 솜씨쟁이로 이름나 있었다. 광산 이씨였던 이연채는 외가가 일제 초기 광주의 명문이 된 탐진 최씨로 광주수피아 여중을 다닌 뒤 대촌면 칠석에 살던 서재석에게로 시집갔다. 6·25전쟁 때 남편을 사별하고 34세에 과수가 되어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인 이애섭(사진 맨 왼쪽) 남도의례음식장이 강좌에서 전통 폐백음식과 이바지 음식의 쓰임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남 2녀를 기르면서 불로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했다. 생계 방편으로 대가집 출장요리사로 불려다니기도 하고 부자로 살던 외가집 잔치일을 도우면서 광주 대가집들의 잔치상 음식을 고루 익혔다. 환갑이 지난 1984년 전통음식대회에서 입상하면서 다식유과, 떡살, 다식판 등으로 여러 매체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문어발을 오래 만든 이바지 음식인 어화魚花를 신미술대전에 출품해 특선을 하고 이듬해에는 제12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에서 어화로 입선했다. 이름을 얻으면서 제자들이 몰려 ‘전통음식보존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녀는 손수 감나무나 회양목에 각종 문양으로 파 떡살을 만들거나 다식판을 만들어 썼다. 이여사의 특기는 역시 폐백음식과 결혼, 회갑 등 행사 때 차리는 큰상(망상) 음식 만들기였다.

폐백음식 때 닭을 삶아 은박지를 깃털처럼 올려붙여 만드는 청·홍 봉황새와 문어 및 전복을 오래만드는 꽃은 음식이 아니라 공예품이었다. 53종의 음식을 신선로에 익혀내는 열구자탕은 남도음식의 박람회라 할 만하다. (황기록 엮음, 2000년 다지리 간행 『남도 전통음식』 참조)

이씨가 차리는 회갑 큰상에 봄에는 닭찜을, 여름철에는 일품인 애저를 올렸다. 애저는 결혼 이바지에 찜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가 솜씨를 냈던 분야는 특히 홍어찜, 제육찜, 갈비찜, 돔찜, 민어찜 등이 일품이었다. 한과류는 약과, 유과, 전과, 다식, 강정, 각종 부각 등으로 맛도 좋았지만 그 모양이 모두 아름다웠다,

이연채는 동동주, 조주, 점주, 삼해주, 잡주 등의 술빚기에도 능해 한때는 이 술과 여러 종류의 장아찌 전 따위로 광주 술꾼들을 맞기도 해 이름을 얻었다.

문제는 이연채의 기능이 2세대에 전승되었으나 일상생활 식품으로 대중화되지 못하는데 있다. 농성동 상무 대로변에 조선한정식이란 상호를 내건 전수회원 식당이 있으나 이연채식 남도의례 음식과는 거리가 있다. 보기 좋게 진설하기 위해 만든 음식을 어떻게 일상 음식의 일부로 끌어내려 상품화할 것인가에 대한 메뉴 개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장과 격리된 외례음식으로

화석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광주시 제 7호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 보존할만한 가치와 특성을 음식 종류별로 명시하여 그 재료와 조리법의 비결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황기록이 펴낸 『남도전통음식』이 유일한 조리 기준이 되어 있다. 이 기록마저 이연채가 타계한 6년 뒤에 이씨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화가인 황기록에 의해 쓰였으므로 전문서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음식장은 품목별 장인을 지정할 수 없어서 궁중음식장이란 포괄적인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음식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모호한 기준을 위임한 뒤 의례음식장이라는 이름의 문화재가 지정된 셈이라 종류별 음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집집마다 다른 가례家禮

의례儀禮라 함은 의식에 따른 예의 절차를 이르는 말로 궁중의례를 적은 책들은 1719년(숙종45)의 『진연의궤進宴儀軌』 등 10여 종류가 있으나 지방의궤나 음식조리법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다. 물론 궁중요리는 구체적인 요리법과 재료에 대한 기록도 일부 남아 있다.

다만 지방사대부나 서민들이 행한 조선시대 의례는 1474년(성종5)에 만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있고 영조20년 개정된 의례절차를 수록한 『속오례의續五禮儀』가 있다. 이 오례의는 주로 중국에서 행해오던 예기禮記와 주례周禮, 의례儀禮 등과 조선개국 이전에 행해지던 민속을 참고해 만든 표준의례 준칙이었다.

이 준칙에는 길례, 가례, 군례, 빈례, 흥례의 다섯 종류에 관한 것으로 향교 제사는 물론 사직제, 성황제, 여제 등 지방 행사와 집안의 상례, 제사, 사당의 제사 절차와 음식의 진설까지 자세하게 기술했다. 물론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남도의례라 함은 전라도에서 행해진 행사성 예의 절차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정해진 것이 없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국가가 정한 『국조오례의』마저도 신진사류들이 신봉한 주자학과 성리학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정통을 삼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붕당이 시작되어 피비린내 나는 사화(士禍)가 거듭되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예절이 다르다. 가가례(家禮)란 말이 일반화되면서 남의 집 제사절차 등을 허물잡지 말라고 했던 터에 남도의례의 정형이 있을 턱이 없다. 근래 광주여대 김지현 교수는 남도지방 12집의 대문중 종가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식품을 조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주 온양 정씨 정낙교 집안: 황토오리찜, 양파김치, 찢기미개젓(청개젓)

△ 나주 김해 김씨 김중민 집안: 참가죽나무잎 부각

△ 나주 풍산 홍씨 홍갑석 집안: 동아전과, 더덕 장아찌, 표고 장아찌

△ 화순 양덕승 집안: 흑두부

△ 해남 고산 윤선도 집안: 비자강정, 감단자, 갓김치

△ 담양 송강 정철 집안: 상추불뚝지

△ 영광 연안 김씨 김재명 집안: 홍어찜, 조기찜

△ 장성 노사 기정진 집안: 가족잎 붕어찜

△ 장성 하서 김인후 집안: 청주와 집장

△ 장흥 존재 위백규 집안: 계장, 파초 장아찌

△ 영암 경주 이씨 이대희 집안: 계란쌈, 약과

이처럼 명가 종가집을 중심으로 전래되고 있는 일품 요리를 따지자면 이연채의 음식은 광주 향반이었던 구한말 부호 최명구 집안의 밑반찬 음식을 이어받으면서 시갓집인 서(徐)씨 집안 잔칫상 음식을 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남은 경상도처럼 10대 이상 부자로 종가를 유지해온 집안이 적고 구한말과 일제식민시절 광주 부자들이 거의 그 전통을 잊지 못해 종가(宗府)브랜드 음식을 내놓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다. 물론 각 고을의 조선시대 부자나 토호였던 아전집안, 집안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사대부 집안, 일제시대 참사, 도평의

원 집안을 뒤지면 특품요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례음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전통의례에 대한 흐름을 덧붙이려 한다. 조선초엽, 나라에서 정한 『국조오례의』는 중종 이후 중국의 고례古禮(『주자가례』 또는 중국 의례)를 지켜야 한다는 훈구파와 주자가례를 전통 삼자는 신진사류가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金叔滋(1389~1456)가 『제의祭儀』를 통해 『주자가례』를 소개했다. 뒤이어 제사에 대한 사대부들

의 교양서가 계속 대행되었다. 이현호(1467~1555)의 『제례祭禮』, 이언적李彦迪(1491~1553)의 『봉선잡의奉先雜儀』, 송기수宋祺壽(1506~1581)의 『행사의절』, 이율곡李栗谷(1536~1586)의 『제이초第二初』, 송익필宋翼弼(1536~1599)의 『가례주설家禮註說』 등이다.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상례비요喪禮備要』와 『가례집람家禮輯覽』이 나온 뒤 서인계를 이은 노론계老論系 가례의 기본이 되었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의 동인계 인사 김성일金誠一(1538~1593)의 『상례고증』, 유성룡柳成龍(1542~1607)의 『상례고증』이 나왔다. 송익필, 김장생 등의 예서 이론은 뒷날의 이재李穰(1678~1746)에 이어져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나온 뒤 조선후기 일반 서민이나 사대부의 의식 절차는 대부분 이 사례편람에 따랐다. 다만



이연채씨의 어화

뿌리가 깊은 동인계 집안들은 『주자가례』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시행을 서인계나 노론당과 달리 정하거나 해석해 예송논쟁(禮訟論爭)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대에는 남의 집안 의례에 시비 않는 풍습이 생겼다. 집안에 따라 유훈으로 절차를 바꾼 집안도 있고 제사에 따른 제물의 종류, 절차, 경비분담 등을 적은 문서가 남아있는 집안들이 있다. 다만 전남지방에는 제사 음식이나 제사 참석자들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조리법을 다룬 옛 문헌이 없다. 광주광역시지정 남도의례음식도 대중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아쉽다. 이와함께 의례음식의 표준과 조리법을 정해야 한다.



의례음식 구절판 다식

제3장

광주경제

： 수출흑자 1백억불 도시

소비도시 벗어나 수출도시 된 광주 미래일거리 고민 중

30년 전인 1985년 광주시 수출액은 15억 6,229만불이었다. 2013년 말 광주시 수출액이 158억 7,000만불이므로 이제 광주는 소비도시가 아니라 수출공업도시라 할 만하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100억불 흑자수출도시가 광주이다. 서울시의 경우 수출액이 광주보다 3.8배 많은 603억불의 실적을 올렸으나 1,286억불 어치를 수입해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국내 광역도시 중 울산의 수출액이 가장 많은 914억불이지만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839억불에 달해 무역흑자는 75억불로 광주보다 국가기여도가 낮다. 인천시의 경우도 수출액은 광주수출액보다 1.7배가 많은 272억불이었으나 386억불 어치를 수입해 무역적자도시이다. 수출입항구를 자랑하는 항만도시이며 국내 제2도시인 부산의 수출액은 광주보다 적은 132억불에 불과하며 시세市勢가 광주의 2.3배인 대구시의 수출도 70억불에 불과하다. 광주와 시세가 비슷한 대전시의 수출총액은 광주의 25%에 불과한 40억불이다.

이 같은 수출통계를 보면 광주는 이미 교육도시, 소비도시, 예술도시라는 위상과 달리 이미 생산공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직후 광주의 대형공장은 이전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방직공장과 제사공장, 3곳의 성냥공장과 무등양말이 있는 정도였다. 광복 이듬해에 호남전기가 문을 열면서 근대적인 화학산업의 효시가 됐다. 그 후에 광천동을 중심



광주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기아자동차공장을 비롯하여 빗그린과 진곡산단 같은 대규모 산업공단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으로 옛공장, 과자공장 등 역내 농산물 가공이나 소비재 제조업체가 등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에 대학들이 들어서고 상무대가 생기면서 학생과 군인을 수송하는 교통운수업체들이 성장했고 이런 분위기를 타고 광주토박이들은 하숙업, 셋방 임대업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6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소외를 당한 광주는 70년대 접어들면서 생산도시화 운동을 전개해 66년 아세아자동차공장이 기공식을 갖고 70년 초 삼양타이어공장이 설립됐으며 광천·본촌·송암공단이 생겨 서서히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춰 왔다.

1964년 광주의 수출은 방직공장 2곳과 제사공장 1곳, 그리고 호남전기 등 4개 기업에서 170만8,600불의 실적을 올렸다. 공단조성이 이뤄지던 74년 수출기업은 27개로 늘었으며 77년 두 방직회사에서 6억불, 임동의 가산미파에서 286만불, 삼면스텐레스가 172만불, 호남전기가 15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려 광주에도 제법 공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동차가 수출주도

76년 하남공단 조성을 시작으로 1981년 소촌산단, 1992년 첨단과학산단, 1993년 평동산단이 조성된 뒤 2013년까지 무려 2,369개 업체가 들어서고 5만 9,643명의 산단종사자가 생겨났다. 이처럼 광주시는 날로 공업화의 길로 치달으면서도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진곡산단, 빛그린산단, 평동 3차산단 등이 이미 보상을 끝내고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분양이 끝난 8개 산단의 생산액 총액은 23조 2,759억원이며 수출액은 80억 7,600만불에 달하고 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예방, 의향을 떠들고 있는 동안 주변부에 11개 산단이 들어서 국내 7대 도시 중 100억불을 수출하는 유일한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광주수출액의 30.3%인 48억 500만불은 자동차 수출 덕분이다. 화물차 수출액이 6억 3,500만불이므로 이 두 품목을 합하면 전체 수출액의 34.3%인 54억 6,500만불이 아세아자동차의 후신인 기아자동차 회사제품이다. 광주산업에서 기아자동차의 위치는 익히 잘 알려진 터이지만 반도체분야의 수출비중이 27.2%인 43억 1,600만불에 달하고 있음은 의외이다. 냉장고와 세탁기의 수출이 15억 8,600만불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70년대 사랑을 받은 금호타이어는 11억 1,200만불로 4위이지만 노조파업이 잦아 미덥지 못하다.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해외시장에 별도의 판로를 개척해 온 자동차부품의 수출액도 2억 4,300만불이다.

2000년 이후 광주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한 광산업은 그동안 1조 2,000여억원이 투자되었다. 이 사업을 시작하던 1999년 광주시내 광산업체는 47곳이었다. 12년간 육성으로 업체수는 365곳으로 늘었고 종업수도 8,440명으로 늘었으며 2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지역을 상대로 육성한 지역전략산업 중 광주의 광산업이 최고의 성공사례로 뽑혀 2011년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

금형산업이 새 효자

앞서 밝힌 광주수출의 두 번째 효자상품인 가전제품은 삼성그룹의 가전사업부와 동부대우, 오택케리어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분야는 2009년부터 가전로봇산업의 기반구축지원이 시작되어 16,500m²의 가전로봇센터가 세워지고 스마트가전 특화사업 육성도 착수되어 2022년 수출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분야 종사원만도 9,503명이고 매출총액은 8조원을 넘어섰다.

금형사업은 자동차나 전자, 광산업 등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 대구 등 영남권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 국내 금형산업체는 모두 6,279곳으로 그 중 61%인 3,859업체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영남권에도 금형업체의 30%인 1,905곳이 몰려 있었다. 이처럼 금형분야도 2008년 광주에는 97곳뿐이라 4만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부품의 크고 작은 금형은 물론 광산업이나 가전업체에 필요한 금형생산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322억원을 들여 하이테크 금형센터를 세우는 등 지원을 늘렸더니 이 같은 노력의 결과 금형업체는 4년 사이에 300곳을 넘어섰으며 종사자수는 4,500여명, 매출액도 1조원에 달하는 효자산업으로 발돋움 했다.

광주 지역의 자동차는 60년대 맨손으로 이문환씨가 일으켜 비록 동국, 기아를 거쳐 현대에 넘어갔을망정 광주 최고의 기간산업이다. 이 공장의 하청 부품 공장만도 220곳에 이르고 기아자동차 종업원과 함께 1만 3,000여 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산업의 경기는 바로 광주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현대, 기아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755만대에 달하고 있으나 해외공장 생산량을 합한 숫자로 광주공장 생산대수는 50만대 안팎이다.



하늘에서 본 하남산업단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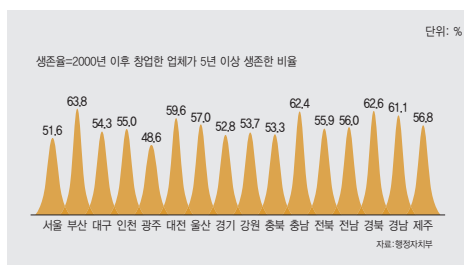
자동차 1백만대 생산도시의 꿈 키워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화를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5년 1월 첨단단지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고 자동차산업단지추진위원회(회장 정찬용)를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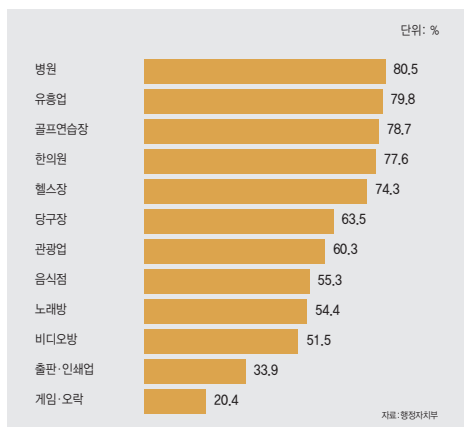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왕에 현대자동차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진곡산단을 조성해 30만 m^2 에는 본 공장을 유치하고 30만 m^2 에는 부품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보급에 맞춰 충전소와 저장장치를 서두르는 한편 광주폴리텍대학으로 하여금 관련인력양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수소전지차의 성공은 디젤차 수입대체로 1조 5,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는 꿈의 산업이다. 이 분야의 발전은 지구환경 오염을 막는 미래산업으로 기존 화학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원자력발전의 대체연료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기존 디젤엔진을 대체할 클린엔진이나 전지·전기차 핵심부품의 개발과 이 분야 벤처창업 인재의 확보가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차량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온 현대가 얼마나 광주의 이 분야 전략산업화에 협력하느냐도 문제이다.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 부품공장들의 입주는 모기업의 성공에 달려있다. 이 사업을 주도할 기아자동차공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광주사람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광주시는 자동차산업의 한계 때문에 융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치과용소재부품산업 등 광주의 미래산업 개발에 시민참여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민들은 먹거리와는 관계가 적은 비엔날레나 아시아문화전당 등에는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일자리와 관계 깊은 산단조성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은 별로 나타내지 않았다. 100억불 흑자수출도시라는 이미지는 문화도시라는 허상보다 훨씬 값진 광주의 자량이 되어야 한다.



16개 시도별 음식점 5년 생존율



전국의 업종별 자영업 5년 생존율

： 연초제조창

지역경제 이끌던 본촌산단 상징업체에서 겨우
종업원 200명 이내의 군소업체로 전락

광주에 연초제조창이 생긴 것은 1976년이다. 이 공장이 들어서고 1979년 이 공장 곁 일곡동, 양산동 일대 93만 7,000m²가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고시되고 1983년 본촌산업공단이라는 공업지대가 이뤄졌다. 본촌산단과 함께 조성된 것이 송암산단이지만 송암산단에는 연탄공장 등 비교적 공해업소가 들어가고 본촌산단에는 공해없는 식품업소들이 입주했다. 5·18이 일어난 직후라 어수선하던 때였지만 다행스럽게도 광주시내에 있던 로켓트 건전지와 해태제과가 옮겨가고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 OB맥주 등이 들어가 160개 업소 중 43개 업소가 식품업소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산단의 상징업체는 담배공장인 연초제조창이었다.

이 공장 근로자가 1,500여명에 달해 오늘날의 기아자동차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그랬던 광주연초제조창이 오늘날 겨우 종업원 200명 이내의 군소업체로 전락했다. 그동안 국내에는 담배제조공장 8곳이 있었으나 오늘날 신탄진과 영주, 광주 등 세 곳만 남아 있다. 그 중 광주 공장은 2012년 폐쇄방침이 연기되었을 뿐 그 운명을 알 수가 없다. 광주에 담배공장이 들어선 것은 전남이 앞담배 생산기지 중 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국내 앞담배 생산면적은 9만 2,000여ha였고 그 중 2만 7,000여ha가 전남에서 재배된 미국종별리 주산지로 33만 6,000여 농가가 담배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남의 잎담배 생산은 1986년을 정점으로 점차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해 잎담배 경작자수는 1만 5,029집으로 재배면적은 10분의 1인 2,734ha로 줄어들었다. 1989년의 통계를 보면 전남도내 재배면적은 2,108ha로 그 중 영광군 458ha, 무안군 318ha, 영암군 246ha 순위로 동부지역인 구례, 광양, 여천 지구에서는 담배를 재배하지 않았다. 광주의 경우 82년 12집이 3.1ha의 담배를 재배한 기록이 보인다. 이때는 생산지마다 생산자조합을 두고 경작지도원을 두는 등 주요국책사업의 하나였다. 오늘날 광주 전남에는 419.4ha의 담배밭이 있으며 849명의 농민이 광주조합과 전남조합에 속해 있다.

담배유입 400년 전

담배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라는 설과 함께 광해군 때인 1618년설, 중국사신 도입설 등 여러 설이 있다. 본디 담배는 서인도제도의 인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KT&G 공장의 생산라인

디언들이 피우던 향초로 1492년 콜럼버스가 이곳을 탐험하면서 발견해 유럽에 들어갔다고 한다. 담배는 스페인의 필립2세가 1558년 경작을 장려한 뒤 포르투갈을 거쳐 일본과 중국에 전해졌고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건너온 기호품이다. 일본은 이미 1607년 금연령을 내릴 만큼 담배가 일반화되고 수입에 따른 낭비 등 피해가 많았던 기록이 있다. 이 담배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남쪽에서 들어왔다고 하여 남초南草 또는 왜초倭草라 하고 중국을 통해 들어온 담배는 서초西草라 부르기도 했다. 이 담배는 멕시코 마야사원 벽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제사 때 피우는 향과 같이 쓰이다가 점차 환각제로 사용하면서 영초靈草, 만병통치약으로 민간에 전파되었다. 담배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부교감신경을 마비시키는 성질을 가져 중독성을 띤다. 피우면서 들어 마시는 연기는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나서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매제도와 기업전환

일본식민시절 조선총독부는 담배와 주세로 국세의 25%를 충당했다. 이 식민정책에 따라 술도가는 친일인사들을 골라 독점시키고 전통주를 밀주로 단속하면서 면허주마저 일본전통주에 밀리도록 도수와 재료 사입을 통제했다. 이와 더불어 1921년 담배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제도를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광복 뒤에도 계속 일본식민시절의 착취행정을 답습하면서 주류자유화를 억제하고 외국술의 수입특혜를 일삼으면서 담배전매 제도를 답습해 왔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1987년 인삼공사와 묶어 민간기업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장사를 한다는 이율배반의 함정을 벗어났다. 이와 함께 1988년에는 담배생산도 국제경쟁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국내담배시장을 개방해 미국계 담배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했다. 전매청이 담배인삼공사라는 이름으로 국영에서 벗어난 뒤 이 회사는 해외시장개척에 나서 이미 해외 총매출액이 국내 매출을



시설 현대화로 분당 1만 개피의 담배가 순식간에 벨트라인을 타고 로봇에 의해 담아지고 쌓아진다.

웃돌고 있다.

그러나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7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 금지, 광고금지, 금연구역지정 등을 실시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마저 담배를 피울 수 없고 모든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가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담배판매로 세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금연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5월31일은 ‘세계금연의 날’로 지정해 담배의 해독성을 홍보하고 있다. 물론 유럽 여러 나라들은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뱃값을 비싸게 받는 정책을 써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인삼공사와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4,000만원의 배상소송을 내 이미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담배가 폐와 후두에 20배 이상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

고 나섰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후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담배회사가 꽤소한 전력이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국가가 아편이나 대마초 등 마약은 통제하면서도 담배는 금연 등 가벼운 규제만 가할 뿐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안위를 돌보는 안전벽이 아니라 병 주고 약 주는 제국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중성이 문제이다.

필자 자신도 담배를 끊지 못해 무척 고통을 받은 사람이다. 담배를 팔지 않고 담배를 살 곳이 없으면 담배는 참을 수 있는 기호품이다. 실제로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면 정부가 생산부터 금지해야지 생산은 장려하면서 피우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케이티엔지(KT&G)는 국내 담배생산과 판매가 한계에 부딪치자 인도네시아에 담배회사를 세우고 중국 길림에 인삼가공공장을 세우는 등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업, 부동산 사업, 화장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등 사업의 다각화도 시도하고 있다.

: 광주의 위생업소

이발소에서 음식점까지 시대별 풍습 따른 천태만상

상투 틀고 갓 쓰던 풍습이 일본의 침략과 더불어 단발 풍습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이발 풍습은 단발령 이후에 생긴 서양화된 일본풍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사람들이 광주에 들어오면서 일본 이발사도 들어와 1930년에는 이발영업조합(조합장 황천사송 荒川司松)까지 생겨났다. 1947년 기록을 보면 당시 광주인구는 11만 5,000명으로 광주시내 이발관은 47곳이었다. 이때 비로소 여자들이 서양여자들 머리 흉내를 내면서 미장원이 생겼는데 겨우 12곳이 영업했다. 일제시대 이발은 주로 일본제 이발기계인 바리칸으로 박박 깎는 까까머리 이발이 주류를 이뤘고, 1960년대에는 귀밑을 높이치고 머릿기름을 바르는 이발이 유행했다. 이때 가장 사랑을 받던 머릿기름이 일제 밀수품인 경마표 포마드였다. 당시까지도 면도기가 대중화 되기 전이라 혼자서 면도하는 것은 능숙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3일 간격으로 이발관에 면도하러 찾아갔다. 이 무렵에 등장한 것이 여자 면도사이다. 1977년 통계를 보면 이 해의 광주시내 이발관은 448곳(당시 광주시 인구 65만 7,000명)이었으며 미장원 수는 477곳으로 이발관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발소는 각급 학교는 물론 큰 기관마다 딸려 있었다.

2013년 말 현재 광주시내에는 617곳의 이발관이 있다. 이 숫자는 관광호텔과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를 포함한 숫자이므로 30여년 전인 1980년대 광

주시내에 있던 920곳에 건주어 300여 곳이 줄어들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안전가미술이라 부르던 일회용 면도기가 일반화되면서 각자 집에서 손쉽게 면도를 하게 되고 장발바람마저 불면서 이발 손님이 격감하기 시작했다. 이때 생겨난 것이 퇴폐업소라 부르는 이발소로 별실을 두고 은밀하게 남자손님들을 받는 영업이 유행했다. 이 풍조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 청홍백 3색 싸인등이 두 개 걸린 곳은 여자안마와 면도가 가능한 이발소라는 의미이다. 이런 곳 중에는 여자면도사가 남자이발사를 고용하거나 이발소 영업주가 여성들을 고용하여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다. 1만2,000원의 이발료보다 안마면도료는 5만원이상 받아 본업보다 수지맞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 12곳에 불과하던 미장원은 여성의 사회활동 열기를 반영하듯 오늘날 광주시내에 3,730 곳에 달하고 있어 남자이발사의 여섯 배로 늘어났

다. 이 숫자는 광주시 여성인구 75만 여명을 미장원 숫자로 나눌 경우 한 미용사가 199명의 여자머리 손질을 맡고있는 셈이어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발사의 경우 남자이발마저 여성미용사들에게 빼앗겨 하루 열명 안팎의 손님을 받아 월정수입 200만원이 고작이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어려운 직업이라 젊은 취업자가 없어 광주 시내에는 30대 이발사도 없어졌고 나이가 많아 매년 20여명씩 은퇴하고 있어서 30년쯤 지나면 남자이발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미 여성미용사들이 남성이발을 남자이발소의 반값에 해주고 있어서 이발과 미용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



늦은 밤까지 청홍백 3색 싸인등이 두 개 있는 곳은 여자안마가 가능한 이발소라는 의미이다. 이발사의 경우 남자 이발마저 여성미용사에게 빼앗겨 하루 열명 안팎의 손님이 고작이니...

지만 이미 남성이탈 자격을 갖춘 여성이탈사도 15명에 달하고 있다.

동구에는 130명당 1곳, 남구에는 184명당 1곳, 북구에 194명당 1곳의 미장원이 있다. 미장원 중 36곳은 손톱손질이고 640곳은 피부관리로 미용실도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 책에서 이·미용사의 성쇠를 다루는 것은 향토사에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뒷날 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과거의 역사책이나 향토자료에는 이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던 경험 때문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오늘날은 목욕탕을 사우나라고 부르지만 점차 찜질방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다. 옛날 목욕탕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방식이었고 사우나는 수증기로 몸을 덥혀 목욕하는 방식이고 터키탕은 오늘날의 찜질방과 같이 열선을 짜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땀으로 빼고 때를 밀어주는 봉사가 실시되는 목욕탕이다. 광주 시내에는 이를 통털어 욕장업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 욕조를 겸한 화장실을 갖춘 아파트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대중탕이라 부르던 목욕탕을 다녔다. 이 풍습도 목욕을 즐기는 일본사람들과 함께 들어와 일제 때는 탕욕영업조합이 있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1960년대 이후 대중탕 영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아파트에 목욕탕이 부설되면서 가정집에서 맛보기 힘든 증기탕, 열찜질, 때밀이 등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89년 광주시내 목욕탕은 264곳으로 절정을 이뤘는데 이때 사우나란 이름의 목욕탕이 8곳 영업을 했었고 가족탕 또는 독탕이라 하여 여자종업원이 때를 밀어주던 퇴폐목욕탕도 있었다. 이처럼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이용자가 줄면서 오늘날 240곳만 남아있다.

공중위생업종의 한 종류로 세탁업이 있다. 세탁업도 값싼 옷과 세탁기의 보급으로 20여년전부터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어 1,400곳 넘었던 업소가 1,199곳으로 줄어들었다. 세탁소가 적은 곳은 광산구이고 동구청 관내 세탁소는 1곳이 327가정의 세탁물을 상대하고 있다.



세탁소는 값싼 옷과 세탁기의 보급으로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너무 많은 음식점

광주시내 일반음식점은 2013년말 1만 5,578곳이다. 이 식당수를 광주 56만 3,599세대로 나누면 평균 36세대와 93명을 상대로 1개 식당이 목을 걸고있는 셈이다. 광주인구 116만명이던 1989년 광주시내 식당수는 3,693곳이었다. 이때는 1개 식당이 시민 314명을 상대로 장사했다.

일반식당 외에 김밥장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모두 합하면 광주시내 식품접객업소 수는 1만9,178개소에 달한다. 이처럼 식품접객업소 수가 늘어나는 것은 외식이 늘어나는 풍습의 변화도 있지만,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식당의 72%가 3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후 3년 이내 폐업을 국내 제1위가 광주이다.

흥미있는 변화는 같은接客영업이면서도 80년대 1,000 곳이 넘었던 다방은 전통적인 영업형태의 업소는 줄어들고 카페,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이 201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500개였던 휴게업소는 2014년말

2,451개로 부쩍 늘어나 광주의 생업형태와 세태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제과업은 1980년대에 비해 프랜차이즈 등 기업형태의 빵집이 늘어나 2009년 534곳을 정점으로 영세제과점 보호정책이 시작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0~30년 전과 다른 영업형태는 위탁급식 영업이다.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직장 구내식당을 이르고 있으나 위탁급식은 외식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시락업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업소 수만 495곳이다. 여기에는 장례식장과 예식장에 식품을 제공하는 외식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떡볶이, 튀김, 아이스크림 등 즉석제조가공 판매업 수도 2,292개소이고 반찬, 도시락 등 배달업은 제조가공업에 속한다. 이같은 신형 식품업소들은 1986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뒤 새로 규제하기 시작한 영업종목들이다.

Ⅲ : 재래시장

예술·관광 앞서, 좋은 물건 싸게 파는 상거래 본질 찾아야

역사로 따지자면 길목 노점시장이 시장의 원조다. 이 노점시장을 관청에서 날짜를 정해 제도화한 것이 정기시장이다. 정기시장이 시도때도없이 손님을 받으면서도 마치 예부터 내려오던 시장처럼 생각해서 재래시장이란 이름이 생겼다. 도시란 장터가 커져서 생긴 큰 시장의 한자식 표현이다. 이 때문에 도시에는 길목 노점상을 중심으로 정기시장이 생기고 정기시장 가까이에 정한 날짜에만 문을 여는 전방이 아니라 쉬는 날 없이 일 년 열두 달 계속해 문을 여는 상설전방과 상인이 늘어나면서 도시가 되었다. 인구가 늘어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전방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장사꾼들이 모여 장사하는 엇스러운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나 마트 따위 현대적인 대자본상점과 다른 영세성을 띤 옛날 장터란 뜻이다. 70년대 광주에서는 백화점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한 건물안에 여러 사람이 특정품목을 가지고 입점해 장사하는 형식을 아케이트라 했다.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품목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던 만물상점을 한 기업주가 통합해 운영하는 형식이 백화점이다.

미국에서는 마켓이라 하면 식료품가게를 이르지만, 본디 영국에서는 공설 시장을 이르던 상점으로 오늘날의 대형시장인 마트로 변했다. 아울렛은 사실 철지난 제품을 처분하는 떨이시장이지만 자본가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는 상



현대화된 양동시장



예술시장으로 변모된 대인시장

품을 도리해 파는 형식이라 값이 싸다.

이처럼 유통형식이 날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옛 풍속을 계속하고 있는 시장을 재래시장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내 재래시장은 40곳에 달했으나 90년대 전후에 9곳이 문을 닫았다.

△금남로 중앙시장(1936~1978) △금동시장(1972~1993) △계림시장(1957~1991) △구동시장(1932~1990) △학동 제일시장(1972~1994) △화정동 서부시장(1976~1991) △중흥동 평화시장(1978~1993) △자산동 매일시장(1981~1999) △광천시장(1982~2002) 그 후에 △상무시장 △산수시장 △오치시장 등도 폐장 상태다

이처럼 전통형 상설시장이 아예 문을 닫았을 뿐 아니라 2000년말 재래시장 2660개 점포 중 35.3%인 939점포가 문을 닫았다.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선 것은 1994년 이후이고 시민의 73.3%가 대형할인점으로 몰리고 12.9%가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이용했다. (2001년 광주민속

박물관 조사연구서 10집 : 광주의 재래시장 참조)

재래시장 이용자는 주부의 5.9%에 불과하다. 1995년에 시작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물 따위의 새로운 유통방식까지 설치하는 판이라 재래시장이 버텨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재래시장의 위기를 구한다고 생겨난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고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중지, 대형할인점의 휴일제 도입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시작되었으나 본디 시장거래란 법적인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2008년 들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시책이 시작되었다. 매년 2,000억원 안팎씩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을 벌여왔다.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같은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매출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시내 재래시장은 5년 사이에 104억원 가량 매출이 늘어 3.8%의 활성화 성과가 나타났다. 충북은 50.9%, 제주는 42.2%, 전남은 41.7%가량 줄어들고 강원도만이 7.9%가량 매출이 증가되고 있었다. 산업사회의 당연한 재래시장 황폐화 현상이다. 재래시장의 황폐화는 전통공간의 파괴를 상징하기도 한다.

대인시장의 육성

지역경제의 상징이었던 재래시장의 존치를 위한 지역개발 이벤트들이 수 없이 창출되었는데 예술가들이 재래시장의 이미지화운동에 나선 수범사례가 대인시장이다.

1970년대 광주의 3대 시장은 양동시장,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이었다. 양동시장은 공실이 늘고 있어도 아직은 견딜만하다. 남광주시장은 양동시장을 넘어설 것처럼 88년 4층 건물로 키우고 종합상가로 발돋움했으나 오늘날 50%가 비어있다. 대인시장은 광주역이 생긴 1920년 이후 역전 노점상이 출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외버스들이 광주역 손님을 노리고 역전주변의 대인동에 발차장을 두면서 점차 시장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광주여객, 광성여객, 광일여객, 광동여객, 대한통운 등이 지척 간에 있었다. 1965년 농협

원예공판장이 곁에 생기고 청과시장이 되었다. 금남로가 확장되면서 1978년 금남로 중앙시장상권이 대인시장으로 넘어오고 1976년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의 롯데백화점에 자리 잡으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1991년 농협의 청과도매시장이 각화동으로 옮겨가고 96년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옮긴 뒤 같은 유통시설인 대형백화점 롯데가 터미널자리에 들어섰다. 이같은 사항은 대인시장의 사양화를 예측케 했다.

69년 시장 곁에 있던 광주역이 중흥동으로 옮겨갈 때까지도 오히려 옛철도역 부지에 주택이 들어서고 동계천이 복개되면서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그때는 시장 곁에 시민관이라는 공회당이 있어 집회가 잦았고 영화가 상영되기도해 대인시장은 먹거리점 생선횃집으로 유명했다. 그 회관자리에 한미쇼핑이 들어서면서 대인시장의 일부품목은 타격을 입어 없어졌다. 대인시장은 계속 성장하던 시절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교통번잡의 인상을 심어주었다. 시장이 개별상인들 소유라는 것도 약점이 되었다.

대인시장을 중심으로 예술시장운동과 관광형시장 지원 등 재생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대인시장을 거닐면서 받는 느낌은 늙은이들의 신세와 같다는 사실이다. 늙은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위로하면서 희망을 잃지말고 일하면서 살라지만 건강이 따르지 못하고 일감이 없는데 구호가 무슨 소용있나.

시장은 물건을 살 사람이 있어야 장이 선다. 장에 사람이 몰리려면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마이카 시대에 차를 둘 곳이 없는 시장에 사람이 몰릴 턱없다. 좋은 물건을 대줄 공급처가 외면하는데 질 좋고 값싼 물건을 확보할 수가 없다. 대형할인점들은 카드결제만으로 산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판에 재래시장 사정 보아줄 인심에 기대서는 큰 오산이다. 그런 시장에 불거리를 만들어주고 길거리 공연을 한다고 물건을 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상상은 착상몽상이다. 이문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찾아가는데 불편하고 결코 싸고 품질이 빼어난 것 같지 않은 재래시장에 찾아가길 전통애호가 몇 명이나 될까.



대인시장



양동시장

그동안 대인시장은 비가림시설 등 시설현대화 지원말고도 2013년부터 관 광형시장자금이 매년 5억원 이상씩 투입되고 있다. 이 자금 말고도 2009년 부터 비엔날레 프로그램사업이 시작되었고 아시아 문화전당의 부대사업인 문 화예술특구활성화 사업자금이 매년 4억원 내외씩 투입되어 2014년까지 30 억여원이 지원되었다.

노르웨이 베르겐시장은 730년이 되었어도 오늘날까지 세계 최대의 수산 시장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 중세기 상가는 유네스코 등록문화유산 이고, 관광명소이다. 시설을 바꾼다고 손님이 물리지는 않는다. 시장은 시장

나름의 특색과 고객에게 이문을 주는 상거래 장소가 본질이지 구경하고 노는 장소가 아니다.

2014년 광주문화재단이 펴낸 대인예술시장 활성화 사업백서의 좌담회 항목을 보면 그동안 벌인 사업비로 예술작품을 사는 것이 더 큰 성과이지 않았을까 싶다는 참여작가의 비판이 실려있다.

몇몇 나라에서 황폐화된 구도심이나 공장, 창고, 광산 등을 예술공간화하여 성공한 모델이 있다. 폐공간 아닌 시장을 예술공방화하겠다는 기획에 문제가 없지 않았던가 검토해보아야 한다. 시장은 이문을 노리는 장사꾼의 장사공간이다. 이곳 공방과 건물이 사유가 아니었다면 작가나 행정이 노린 시장의 예술공방화가 쉬웠을지 모른다. 공방이 인기를 끌수록 상인인 건물주인은 세를 높이거나 몰려드는 고객을 상대로 멈췄던 장사를 다시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 공방을 내쫓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 공간구조에서 사업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는 구상은 천진하다. 장터는 장사하는 곳이지 놀이터나 관광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예술장인들이 모여 집단공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공방과 거리를 이문나는 시장경제 장소로 만드는 것은 본질이 다르다. 상인들이 스스로 시대발전에 맞춰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개선하고 다른 유통시설과 경쟁할 수 있는 질 좋은 상품, 값싼 상품, 특색있는 유일상품을 개발하지 않는 한 행정이나 예술가가 끼어들어 재생활동을 벌이는 것은 한강투석의 행사성 사업일 뿐이다. 야시장도 야시장에 찾아올만한 주변 인력공급 여건이 먼저이고 교통도 편리해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이다. 행사 지원비 없이도 과연 대인동 야시장이 좀 더 냉철하게 가능하겠는가 가늠해 보아야한다.

Ⅲ : 정기시장

물자 유통 뿐 아닌 정보소통 · 휴식공간

오늘날 광주시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은 모두 상설시장으로 변해버렸지만 아직도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은 인접 농촌고객들을 위해 2, 4, 7, 9의 4일을 장날이라 한다. 이곳 시장은 경양역이 폐쇄되던 1890년대부터 시작되었을 터이지만 정식으로 관청에 등록한 것은 2005년이다. 등록당시 점포수가 511개이므로 광주시내에서 가장 크다는 양동시장 점포수와 겨룰만도 하다.

양동시장은 1939년에 개설된 시장이다. 그전 시장은 7년 전인 1932년 구동의 광주대교걸 광주천을 매립해 개설했던 구동시장이다. 일본사람들이 광주에 진출해 총장로를 점령하고 각종 전방을 벌였을 때 가장 ‘눈에 가시’는 전통적으로 열리는 정기시장이었다. 1920년대까지도 불노다리걸 하천에서 4일과 9일 정기장이 서서 이를 부동장 또는 작은장이라 했고, 광주대교일대 하천에서 열린 2, 7일장을 큰장이라 하고 공수방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작은장은 화순쪽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큰장은 나주, 영광쪽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일본총독부는 시장법을 만들어 정기시장, 공설시장, 도매시장, 양곡시장의 네 종류로 분류해 등록하도록 규제했다. 상거래질서를 잡고 조세징수를 위한다는 구실이었으나 사실은 일본상인들을 보호하고 한국전통시장을 없애려는 속셈이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자연발생의 장터였지 인위적으로 장을 만들지는 않았다. 오늘날도 사람의 왕래가 잦거나 큰 아파트촌 입구에 좌판



광주 도심에서 전형적인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양동시장은 1939년에 개설됐다. 요즘은 재래시장 활성화의 하나로 비가림막을 비롯한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을 벌이고 장사하는 붓짐장수들이 생겨나듯이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가생산품 중 여유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 물건과 바꾸는 물물교환 형태의 시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같은 자연발생형 원시시장은 멀리 신라와 백제시대나 고려때도 있었던 기록들이 있고 세계 다른 나라에도 있어왔다. 어느 곳에서나 물건을 교환하거나 유통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몰려 흥청거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곳을 중심으로 장사집들이 들어서서 시장市場이 되고 도시都市의 모태가 되어왔다.

조선왕조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개국 초에는 왕실의 용도에 쓸 물건을 대는 육의전이라 부르던 어용전방을 종로를 중심으로 두고 지방의 시장을 단속했던 듯하다.

성종때 지방장터 허용

그러나 원시형태의 물물교환의 거래는 없지 않았을 터이지만 세종실록 15년(1433년)의 기록에 '주군州郡에는 시장이 없다'는 기록이 보이다가 성종4년(1473년) 2월 기록에 신숙주가 이르기를 '성종원년(1470년) 흥년이 들자 전라도 일도一道의 백성들이 모여 시포를 열었는데 이를 장문場이라 이른다'고 말한 대목이 있다. 이보다 조금 뒤인 중종15년(1520년) 기록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남곤이 '지금 여러 도가 장문을 열고 있다. 신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는 엄금했으나 지금은 시장에 나오는 자의 수가 수만이 되어 경작에 힘쓰지 않는 병폐가 있다'고 말한 대목이 있다. 본디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왕조에서는 장사를 천하게 여겨 장려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길목에서는 백성들끼리의 물물교환이 이뤄졌던 원시 장터는 자연발생적 생활현상이었으며 특히 흥년때면 물물교환은 더욱 성행했던 것 같다. 기록상 조선왕조가 지방의 시장을 용인한 것은 숙종원년(1674년)으로 본다. (김성훈의 『한국의 정기시장』 52쪽 참조)

1백여년 뒤인 1770년에 펴낸 『동국문헌비고』에 비로소 시장통계가 실린다. 이때의 국내 정기시장은 1,064곳으로 그 중 호남은 216곳이었지만 영남의 278곳보다는 적었다. 이 시장수는 1830년에 지은 『임원십육지』 예규지향목에 호남의 시장수는 188곳으로 줄었다가 1903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 때는 다시 216곳으로 회복했다. 다만 1909년 조선통감부시절 집계때는 149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물론 이때는 전국시장수도 849곳으로 2백여곳 이상 줄어들었다.

1792년 광산지에 보면 당시 광주고을 시장은 읍내 큰장과 작은장, 건국동 용산장, 서창동 극락장등 넷이었다. 1879년 광주읍지때는 극락장이 없어지고 새로 선암장, 비아장鰲山市이 생겼으며 1924년 광주읍지에 보면 새로 송정장과 임곡장이 생겼으므로 광주고을 시장은 늘어난 셈이다.

읍내 큰장은 4·9일, 작은장은 2·7일, 용산장은 3·8일, 송정장·선암장도 3·8일, 비아장은 1·6일, 임곡장은 2·7일이었다. 극락장은 서창장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이라 하다가 대촌면 소재지에서 열면서 대촌장이라 하여 2·7일에 열렸다. 광주 이웃 고을장들은 장성 읍장이 광주장과 같은 4·9일, 함평과 담양읍장은 광주작은장과 같은 2·7일, 영광과 화순읍장은 3·8일, 남평장과 삼도면장은 1·6일, 능주와 영산포장은 5·10일, 화순중장터장은 4·9일, 나주읍장은 광주와 같은 2·7·4·9일 네 번 열다가 금천면장이 2·7일장으로 분리되면서 4·9일 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초창기시장은 정한 날짜 없이 사람왕래가 잦은 길목이나 나루터에서 열리다가 정한 날짜에만 장사를 허락하면서 정기장이 서고 그 주기는 5일 간격이 전국정기시장의 86%였다. 이는 서양종교의 안식일이나 주일에 빗댄만한 생산 및 휴식주기로 장날이면 사고 팔 물건이 없더라도 장구경갔던 옛 풍속의 연원이다.

그러므로 재래정기시장은 단순한 물자의 유통장소가 아니라 지역사람들의 정보소통의 장소이면서 노무종사자들의 휴식공간의 성격이 강했다. 물론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열흘 중 5, 6곳을 돌면서 물건을 팔아 생활을 하는 상업 전문 장돌뱅이 보부상이란 상인직업군을 탄생시켰다.

일본식민통치자들은 일인상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14년 시장규칙을 마련하고 시장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일본상인 진출이 늦은 북한지역에 정기시장을 장려해 1938년 전국 정기시장수는 1,458곳에 달했다. 광복 후 1976년의 통계 때 남한만의 정기시장수는 1,047곳이었으나, 이미 휴면 상태에 접어든 정기시장이 66곳에 달해 점차 자본주의 경제형태의 대형유통기구들이 기세를 떨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전농림부장관 김성훈씨가 중앙대학교수로 재직중이던 1976년 국립농업경제연구소(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5일시장의 구조와 기능」(200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행 『한국의 정기시장』)이 당시 국내정기시장의 현황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이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정기시장평균 장꾼수는 1,274명이고, 상인수는 164명으로 그중 60%인 97.6명이 정기시장을 순회하는 이동상인이었다. 자동차가 일반화되기전 이동상인들은 수레에 짐을 맡기거나 등짐으로 지고 새벽길을 걸었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짐은 자동차의 뒤편이 되었다. 드디어는 화물자동차에 갖가지 물건을 싣고 동네를 순회하는 자동차 행상이 늘어났다. 시골시장마저 30리 안팎에서 보통 한 달 16.5일 가량 돌던 낮익은 장돌뱅이는 전국을 순회하는 차량이동상인들 때문에 정기시장의 관행이 무너져갔다. 슈퍼마켓, 체인점 등이 고을마다 들어서고 농협구판장과 마트가 들어서면서 오늘날 정기시장은 절반이상 줄었다.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이나 달걀, 돼지, 소 등을 장에 나가 팔아 생필품을 사던 관습도 옛날얘기가 되었다. 농협이 계통구매를 하거나 자동차 장사꾼들이 동네를 돌면서 물건을 사가는 세상이라 장에 들고 나갈 물건이 없어졌고 살 물건도 없어졌다. 시골 정기시장들도 장옥을 만들어 전남 평균 64.2명이 장옥을 장기임대해 상설시장처럼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인근농촌에서 기차를 타고 몰려들어 도깨비시장처럼 붐볐던 남광주시장마저 1975년 상설시장으로 바뀌었다.

2012년말 현재 광주시내 상설시장은 등록시장이 19곳, 인정시장이 11곳이다. 열흘사이에 네번 열린던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마저 2005년 상설시

장으로 등록, 재래시장 근대화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일본인 전용시장으로 1936년 금남로 2가 7번지에 문을 연 명치정 공설시장(광복 후 중앙시장)이 광주 상설시장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43년 허가를 받은 금호시장은 1928년 황금동(광산동61)일본인이 문을 연 어체시장의 업종을 이어받은 김장채소 시장이었으나 광복 후 남부시장이라 하여 전쟁물자와 식료를 취급하다가 1980년대에는 보신탄전문상가로 변했다. 이 시장은 1992년 금동타워랜드(현 기산빌딩)으로 변하고 일부 골목길이 보신탄거리로 남아있다.

대인시장은 광주역이 대인동에 있을 때 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회사들이 자리잡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이다. 시장형태를 갖춘 것은 1959년으로 87개 점포를 허가했으나 1976년 농협이 이 시장결에 공판장을 두면서 비약했다. 물론 1969년 금남로가 확장되면서 충장로와 금남로 등 중심부의 식료품을 공급하던 중앙시장이 뜸기면서 그 상권이 대인시장으로 넘겨져 1970년대 대인시장은 양동시장, 남광주시장과 더불어 3대 어시장으로 호황을 누렸다. 1969년 광주역이 중흥동으로 옮겨가고 1976년 대인종합버스터미널이 생기면서 대인시장 고객이 크게 줄었다. 그 터미널마저 1992년 광천동으로 옮겨간 뒤 대인시장은 황폐화되어 왔다.

2008년말 대인시장의 폐점포를 중심으로 비엔날레의 현장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나 장사의 공간을 소비성예술의 공간화한 시도는 단추가 잘못끼워진 구상이었던 것 같다. 재래시장 관광활성화대상 시장으로 지정되어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차장 등 본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과가 의문이다. 이처럼 토종상인이라할 재래시장이 줄어드는 가운데 광주는 100년 넘는 토종기업이 없다는 특징도 있다. <재벌닷컴>의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부산은 평균 19.7년, 서울은 18년 등으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이 17년을 버티고 있지만 광주는 14.6년으로 제주·세종시 다음이다. 기업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곳이다.

: 도시농업과 텃밭운동

살벌한 도시공간 치유할 최적의 대안

오바마 미국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유기농 운동의 시범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카에 는 남편 고향인 아마구치 현에서 가져온 유기농 식재료와 토속주를 파는 테이블 4개짜리 ‘우즈라부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한다. 러시아 도시민들은 사회주의 시절부터 국가에게 근교 농촌땅 150평씩을 임대받아 채소를 재배해 왔다. 이때문에 금요일 오후면 온 가족이 자기농장의 텃밭을 위해 농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농촌 출신이었던 현대건설의 정주영회장이 서산에 간척사업을 벌여 목장을 개설해 소 1,001마리를 북한에 보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물론 삼성의 이진희 회장도 용인에 대단위농장을 개설해 돼지농장과 진돗개사육장을 개설했으나 결국 이 땅들은 용인랜드 부지로 전용해 본디 목적이 땅투기가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받았다.

2천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는 마을가꾸기, 도시가꾸기, 내집앞가꾸기, 행복마을, 살기좋은마을 등 여러가지 이름을 붙인 공동체운동을 지속했다. 시단위 자치단체에도 도시농업과를 색다른 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운동이 행정시책이 된 것은 그만큼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세태를 반영한다. 농촌공동체의 상징이었던 품앗이나 두레는 농기계와 발달과 더불어 무너져 왔다. 도시야 본디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구



도심 근교에 텃밭을 일군 가족이 야채를 수확하고 있다

조적으로 공동체형성이 어려운 공간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상인공동체가 있어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 본질은 서로 이익이 되자는 카르텔에 불과하다.

그렇더라도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더불어 산다는 의미의 단어인 공동체의 공동이란 단어는 2천5백여년전 공자때부터 있어온 낱말이다. 함께 공^공, 함께 동^동은 공자가 말했다는 「예기禮記」에 나온다. 본디 공자는 ‘사사로움私^私을 팔방八^八方으로 나눠 공평히 한다’는 뜻의 회의문자이다. 공자는 예기에서 “대도大道가 행해 진다는 뜻은 천하가 함께하는 공^공에 있다. 이 세상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자식만을 가족으로 생각지 않음이다. 재화가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되 자기만을 위해 쌓아서도 안된다. 그리하면 세상에서 모사하는 일이나 도적이 생기지 않고 바깥문을 닫지않는 세상이 되어 이를 대동大同세상이라 부르게 된다.”고 했다. 우리농촌의 두레나 영암구림의 대동계 등 그 근원을 생각하게 된다. 이같은 공자의 이상주의 철학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삼민주의나 공

산당이론의 근간이 되었다. 결국 공동체운동이란 더불어 살아가기 운동이므로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귀농훈련의 공간, 텃밭

진도 시골의 소작인집에서 태어난 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이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4년간 농사를 지었다. 4-H 활동 등을 하다 군에 다녀와서는 도시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원생활을 내버릴 수 없는 꿈이 있어 고향땅에다 단감 1천 주, 유자 3백 주, 매실 5백 주, 대추 2백 주를 심고 새마을 주택자금을 받아 새집도 짓고 농장관리인도 두었다. 30여년간의 언론계 생활을 청산하고서는 전라남도 독립농업박물관장을 맡았다. 박물관은 골동품전시장이 아닌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물관 뜰에 각종 산야초와 유실수를 심고 목화, 작약, 돼지감자, 조, 녹차 등을 심었다. 어느 날 국립민속박물관과 농협중앙회박물관 실무자들이 견학하고 간 뒤 두 박물관은 오늘날까지도 벚논, 목화밭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박물관 뜰에 심으려고 도입입시험장과 호남작물시험장에서 허락없이 약초와 작물을 캐다가 싸우기도 했다. 농업박물관장으로 6년을 마친 뒤 진도로 귀향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에 가면 귀농이라하고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에 가면 귀촌이라고 구분하는 요즈음 개념을 따르자면 이미 도시생활 중에 준비해둔 농장경영을 위해 농촌에 간 것이므로 귀농이라 할 수 있다. 막상 농촌에 들어가 농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첫째, 기왕에 조성한 과수원 나무들이 관리 소홀로 노화현상이 일어나 그대로 유지하면 안되었다. 둘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들어가 갑작스럽게 농사를 짓는 것은 체력이 뒤따라주지를 않았다. 셋째는, 농촌인력이 줄어 돈주고서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었다. 2년간 몸부림치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다시 집필에 몰두하다 농촌생활이 그리워져서 이번에는 귀촌해 텃밭 3백평을 구하여 채소류를 재배했지만 무리였다. 방울토마토 2그루, 오이 4그루, 가지 4그루면 2인 가족에게는 충분했다. 3백평을 묵히지 않겠다고 2백평에는 고추를, 1백평에는 무·배추를 심었지만

남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3백평때문에 농기계를 살 수 없는 형편이라 남의 것을 빌려야만 했다. 이 귀촌 농사도 3년만에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 소일거리로 아파트 베란다에 토마토, 오이도 심고 20평가량 텃밭을 얻어 작물도 키우다가 심근경색이 와 세 번째로 다시 광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귀농과 귀촌에 실패했지만 농촌에 대한 향수는 영영 저버릴 수 없어 근교 텃밭을 분양할 궁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공터에 미관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좋은 작물을 심자고 건의했지만 관리위원들의 반대로 할 수 없었다. 광주시청을 찾아가더니 ‘푸른광주21’ 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요령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2006년에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도 만들어졌음을 알게되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시민의 65%에 달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공동체사업에 동원한 사례가 적어 아쉬움을 느꼈다.

동네는 사회조직의 기초이다. 동이 모여 구가 되고 구가 모여 시가 되고 시가 모여 국가가 된다. 국가가 튼튼하려면 조직의 뿌리인 마을이 튼튼해야 한다는 이론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때문인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초기부터 향약운동과 함께 산림계조직 등이 장려되어 왔다. 일제시대에도 식민 통치자들은 식량증산을 위해 농지개량, 관계개선 등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대동계를 조직하고 대동모내기를 장려하는 등 언필칭 농어촌진흥운동을 전개했다. 뿐만아니라 양잠, 담배, 공예 등 특산품조합을 장려하고 수탈자금을 선대하기도 했다. 1932년에는 농촌진흥위원회를 설립, 기초공동체인 동네의 전시동원체제확립에 활용했다.

5·16 이후 시작된 마을공동체운동이 재건국민운동이었고, 당시 시범마을은 수준에 따라 별을 주어 삼성마을이라 했다. 재건국민운동에 이어 70년대는 새마을운동, 80년대 바르게살기운동, 후반에 사회정화운동 등이 마을단위로 시행되었다.

90년대 접어들면서 부처별 마을가꾸기사업이 시작되고 문화마을, 전통마을, 관광어촌 등 수많은 마을운동이 일어났고 농협, 농진공사, 산림청 등

도 각각 마을가꾸기사업에 참여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건국·행복마을·희망마을·체험마을·생태마을운동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을단위공동체운동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먼 옛날부터 전개되어 온 마을공동체운동의 절실성을 체감할 수 있다.

문제는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을공동체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예정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전시행정사업의 성향을 보여 안타깝다. 시대적으로 생활공동체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뜻이 같은 젊은이들이 모여 특정지역에 조성해온 생활공동체마저 결국 실패하고 마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공동체형성이 어려운 이익집단 공간인 도시지역에 몇몇 사업을 기획해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원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회성 행사로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다. 2003년 이후 광주시가 시행한 마을공동체시범사업들을 눈여겨 살펴볼 때 과연 진행형 사업동네가 몇 곳이며 앞으로 몇 년이나 지속가능할 것인가 한번쯤 따져 보아야 한다.

내집앞쓸기나 눈치우기를 법으로 강제하는 세상이 된 도시에서 동네사람들이 협력하게 하는 방법은 참여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도시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마당을 쓰고 가꾸는 번거로움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주택밀집 지역이나 아파트단지 이외에 사는 시민수는 30%가량 된다. 이들 중 변방에 사는 토박이들은 미풍양속의 전통을 지키고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자는 운동에 크게 저항하지 않는다.

광주시 면적 501.41Km²중 절반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내 24개동에 523가구 1,079명이 살고 있다. 이곳 인구는 매년 10가구 이상씩 줄어들어 새마을사업 당시의 공동체구성도 어렵다. 재개발대상지역 이외의 단독주택지구도 정주성이 떨어져가고 있다. 품앗이나 두레는 옛 마을 공동체에서는 첫째가는 요소였다. 두레작업은 공동체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수단이었었다. 오늘날 도시공동체에서는 이같은 절실한 공동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옛 생활공동체처럼 그 공간을 자손에게 상속해주지는 않을지라도 집값상승에 관계되기 때문에 참여

할 빌미는 된다. 도시텃밭운동은 이미 귀농학교에서 마을가꾸기사업에 참여해 몇몇 성과를 거두었다. 지원동 추남마을 25가구 텃밭, 지산 동산초등학교 빗물습지와 상자텃밭, 노대동 송하마을 텃밭, 동구정양길 공동텃밭, 주월동 광복5길 텃밭, 일곡동 한새봉 농장, 화정4동 공동텃밭 등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신안동 모아타운의 빗물저장탱크시설과 상추텃밭도 다른 아파트로 확대할만한 모범사례다.

도시텃밭 시범아파트 지정

도시텃밭운동은 살벌한 도시공간을 치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운동이다. 첫째, 시멘트공간에서 흙기운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운동이며 건강활동이다. 둘째, 어린아이에게 생명의 신비와 노동의 효과를 빠르게 체험시키는 체험교육장이다. 셋째, 지식과 수확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나눔의 미덕을 기른다. 넷째, 농민의 수고를 알아 농촌의 피해를 늦춰주는 도·농간 협력의 끈이 된다.

2015년 발족한 광주의 도시 텃밭포럼이 또 하나의 광주이미지를 만드는 데 공헌하기를 기대한다. 30여년 전에 우리의 정원과 도로변 화단이 외국화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개탄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광주시내 모든 아파트의 조경수도 마찬가지로 전통수로 바꾸되, 정자목은 느티나무나 팽나무로 바꾸고 화초는 건강에 좋은 약초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비록 집의 형태는 비둘기집처럼 시멘트를 써서 고층으로 올렸으되 난방은 전통 온돌식을 도입했듯이 아파트 정원조경을 텃밭개념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잔디 대신 맥문동이나 구절초, 쑥부쟁이 등을 심고 울타리에는 작두콩이나 더덕, 마삭줄, 포도, 머루, 으름 등 줄기과수식물을 올려도 좋다. 아파트주변의 습도나 채광에 맞춰 질경이, 원추리, 엉겅퀴, 민들레, 냉이 등을 키우되 아파트 동별로 관리하게 하고 수확 권한까지 주어 서로 경쟁시킨다면 아파트 뜰이 봄나물 텃밭이 될 수 있다. 향기나는 허브식물을 원한다면 들깨, 산초, 방아, 박하, 서향나무 등 전통식물이 얼마든지 있다. 아파트나 길거리를 모조리 향초식물

로 조정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파트나 길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 아파트 앞이라고 해서 유채나 갯을 심지 말라는 법이 있딘가. 머위, 양아, 울금, 생강, 돼지감자, 모란, 작약, 해당화 등은 화초점 건강식품으로도 쓸 수 있다. 아파트 모퉁이에 진달래·복분자·돌나물·둥굴레·고들빼기·도라지밭을 만들 수도 있다. 조경수로 구기자, 오가피, 오미자, 헛개, 여정실, 치자, 앵두도 쓰임새가 있다. 같은 값이면 개복숭아, 보리똥, 호박, 호두, 당뽕, 꾸지뽕, 엄나무, 살구, 자두, 모과, 감나무 등을 심어 동·가

구별 관리책임을 주고 수확권을 준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 나무와 화초들의 관리와 재배를 위해 음식쓰레기의 퇴비화, EM효소비료 만들기, 아파트 빗물 저장탱크의 장려, 그리고 이 물을 이용한 정원수 및 화초 자동관수호스장치 등을 위한 행정지원이 주어진다면 아파트 정원의 텃밭운동은 열화같이 일어날 것이다. 텃밭은 무·배추만을 심는 밭이 아닌 집에 딸리거나 집에서 가까운 경작지라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전답이 묶여있는 광주근교 농촌에 도시민 텃밭임대 사업장을 만들어 아파트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광산군 본양동 용진산록이나 어등·북룡산록 등은 주말 휴양지로도 알맞다. 이런



초·중등학교와 주택단지의 옥상이 텃밭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곳에 아파트단지별 주말농장을 만들고 현지농민들에게는 임대료, 관리비, 묘목 및 유기농비료대 수입이 보장된다면 명실상부한 개발제한 구역의 도시전원화가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집단주말농장에는 아파트별 주말버스를 운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농업포럼이 당장의 효과는 물론, 멀지않은 장래에 닥쳐올 도시민들의 전원생활 유행에 대비한 예비농군체험학교의 기능을 겸할 것을 희망한다.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미셸 오바마처럼 모두가 텃밭운동에 참여했으면 싶다. 아파트정원 텃밭은 아파트별 노인당에 경영을 맡기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한다면 노인당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시도 텃밭 시범아파트를 지정해 시험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제4장

광주도로와 교통

： 3,426개의 길

일정한 기준없이 정해진 광주 길이름 역사성마저 부족

본디 영어에서 로드(Road)라 하면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길이고, 스트리트(Street)라 하면 동네 안길을 뜻한다. 광주시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한 도로는 모두 3,426개에 달한다. 물론 동네와 동네, 집과 집을 연결하는 길은 집의 숫자만큼 많겠지만 새 집주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길이름은 우선 구청장이 정한 것이므로 주민의 청원이나 새 동네가 생김에 따라 길이름은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새로 정한 길이름은 너비가 8차선 이상의 큰길일 때는 대로大路, 2차선 이상 8차선까지는 로路, 그 이하의 길은 한글말대로 ‘○○길’이라고 정했다. 건물간의 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하고 길옆에 붙은 숫자는 길의 기점에서의 거리(○○×10m)를 나타낸다. 건물 번호도 홀수는 왼쪽, 짝수는 오른쪽을 나타내지만 길의 기점을 알 수 없을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광주시내의 길 중 차도 8차선 이상의 대로는 모두 26개, 2차선 이상 8차선까지(폭12~40m미만)의 중간길인 로路는 331개, 나머지 길은 3천69개이다. 이 길이름은 주로 지적 담당자와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맡아 정한 탓으로 서구 화정동 ‘백일로’는 친일인사의 이름을 길이름으로 정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물론 새 길이름들은 구청별로 지명위원을 위촉해 검토를 거쳤고 동별 공청회를 거치는 형식을 취했으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민주적 절



새주소 시행과 함께 설치된 입간판

도심의 8차선 이상은 대로 표시로 상무대로와 시청로가 표기돼 있다.

차를 따른다고 다수 의견을 존중하다 일을 그르쳤다. 서구청의 경우 새로 정한 길이름이 557개에 달하는데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길 하나하나의 내력이나 타당성을 회의장에서 당장 결정한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특히 땅이나 길거리 이름은 그 지역민들의 생활중에 자연스레 공감대를 이뤄 불리는 것인데 행정편의에 맞춰 쓰다보면 통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길이름은 생활 가운데 느끼고 연상되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불려진다. 그래서 땅이름은 어떤 지역의 특징이나 역사를 대변한다.

동·서양의 문화가 다른 것은 동양은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동네가 생기고 집과 집을 연결하는 동네길이 생기지만, 서양은 먼저 동네길을 낸 다음 길췌에 집을 짓는 도시국가형 문화이다. 이 때문에 서양식 주소는 도로 중심이지만

한국의 집과 길은 동네의 일부일 뿐이므로 동네 이름이 사람 이름이나 택호로 쓰이기도 하고 호號로 쓰여 왔다.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서양식으로 동네를 없애고 길 중심으로 주소 체계를 바꾼 시책은 철학이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물론 서양 문물을 본받아 생활양식이 서구화되었고 생활터

전도 산업사회 형태에서 도시화하여 내용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것이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근본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처럼 외형이 서양식을 흉내 내 주민을 그 형식에 함몰시켜 인간 본성을 잃어가는 주민들에게 전통적인 동네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의 미덕을 유지하려면 불편하더라도 생활공동체의 장소(텃자리)이름인 동네 이름과 주소가 계속 활용되어야만 연대감을 일으키는데 훨씬 유리하다. 길거리 주소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버려진 느낌을 안겨준다.

오늘날 새삼스럽게 골목길이나 돌레길 따위에 관심을 갖거나 애착을 갖는 시류도 사실은 자기 생활터전에 대한 연대감의 확산 운동이다. 길은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오솔길과 고샅길, 골목길을 통하여 집들이 내뿜는 아늑한 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골목을 지나 한길(큰길)에 접어들면 문명의 이기들이 눈을 흘키며 내달아 금새 골목에서 느꼈던 자신이 내동댕이쳐질 것같은 불안을 느낀다.

제주에서 골목길은 올레길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이 시류를 놓칠세라 골목길 투어니 골목길 상품화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다. 현대화와 서양화에 잊힌 마을의 재발견 기운이며 기초공동체 재건운동이라고 법석을 떨어댄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자연산보의 길’이라는 돌레길 보행운동이 일어났다. 80년대 초 한국에서도 이 흉내를 내 ‘자연보도사업’이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건강을 위한 걷기운동이 유행하지 않았던 때이고 사업마저 주민의 지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기획사업이라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유사운동이 오늘날 주민의 호응을 받는 것은 새삼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서양의 도시에는 으레 중심도로인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가 있다. 서양문화는 동네문화가 아니라 길목문화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네문화의 전통 탓인지 서양식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도 서양식 메인스트리트가 없다. 광주의 대로^{光州大路}는 자동차 여덟 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큰길일 뿐 중심도로는 아니다. 광주 길이름은 기점과 종점의 기준이 일정한 규칙이 없이 정해져 방위에 따른 들목이나 날목을 짐작할 수 없다. 광주 고을의 옛 인물을 추념한



주택단지 및 마을단위는 로와 안길을 표시하고 있다.

다고 20여명의 역사인물의 호나 시호를 거리 이름으로 정했으나 지나치게 충신과 선비에 치우쳐졌을 뿐 아니라, 광주근교인 담양·장성 출신 인사들까지 끌어들이어 이것 또한 기준이 없다. 도시 정체성 확산을 위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광주 옛길

광주의 옛길은 역원驛院 자료를 통해 광주 고을과 이웃 고을간의 도로를 짐작할 수 있으나 고을 안 도로자료가 없다. 물론 ‘대동여지도’ 등 일부 옛 지도류에 도로표지가 있으나 이웃 고을간의 도로망이고 ‘비변사지도’ 중 광주목 지도에 성안과 성밖의 도로가 그려져 있는 정도다.

1911년 일본육지측지부가 발행한 5만분의1 지도에 광주의 주요 간선과 셋길이 그려져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광주읍내 지도는 많으므로 그 변화를 살필 수 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2014년 11월 ‘옛 지도로 본 광주’ 기획전에 1917년 광주지형도, 1939년 광주시가지도가 소개되었다. 이같은

지도가 아니더라도 지적부를 확인하면 일제시대 도로망을 살필 수 있다.

광주읍 최초 기록 ‘광산군지’는 1792년 편이 전해오고 있으나 부도로 실려 있는 지도는 ‘비변사지도’보다 부정확하다. 다만 5개 다리와 극락원이 적혀있을 뿐이고 1879년 ‘광주읍지’에 비로소 11개 원_院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방면별 도로망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광주는 전국 10대 대로_{大路} 중 해남 우수영으로 통하는 8대로 길_路쑈고을이었다. 서울에서 동작진지나 승방평을 거쳐 과천으로 내려오던 이 길은 오늘날의 호남고속도로에 속했다. 천안~은진~여산을 거친 옛 8대로는 전주위 삼례역에 이르러 경상도 통영으로 빠지는 10대로와 나뉘었다. 이 통영길은 오수~남원~운봉~함양~산청~진주를 거쳤다.

해남 우수영에 이르는 8대로는 삼례역에서 금구~태인~정읍~갈재~원덕~단암역~장성읍에 이르고, 장성에서 황룡강 따라 광주 서쪽 선암역을 거쳐 나주~부소원(신북)~영암~월남~석제원(강진)~남리역(해남 황산면)~우수영으로 가는 길이다.

장성에서 광주 경양역을 거치는 길은 8대로에서 갈린 셋길일 뿐이다. 이 길은 장성~광주 동창(광산구 월계동)을 거쳐 광주에 들어오거나 목호재를 넘어 영신역(장성 남면, 본디 선암역으로 통하던 청암역도 소속 역이었다)을 거쳐 경양역으로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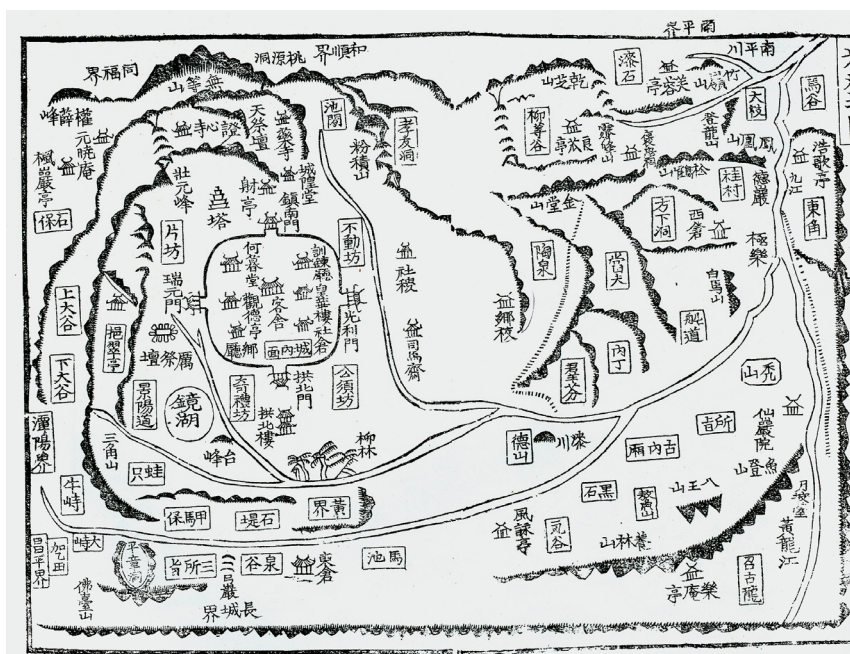
광주에서는 남쪽으로 너릿재 넘어 화순~능주~이양원장~웅치~보림사~장흥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서남쪽으로 남구 죽령산 대치(한재) 지나 남평 거쳐 화순 이양장을 지나 유점고개(여치)넘어 보성으로 가기도 했다. 서쪽 극락진은 나주로 가던 길로 읍내에서 진다리를 지나 노인고개~금정~화계~서창에 이르는 오늘날의 회재로를 이용해 서창나루로 통했다.

당시 광주~서울간은 720리라 했으며 장성은 60리, 담양 50리, 창평 30리, 남평 30리, 화순 30리, 나주 45리, 전주 220리, 순천 170리, 진도 260리라 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8일이 걸렸다.

1911년 일본육지측지부 지도를 보면 광주에서 충효동으로 가는 길은 잣

고개뿐 아니라 지산동 유원지 계곡을 넘어 화암으로 통하는 지름길도 있었고 원효사는 오늘날처럼 배재를 넘지 않고 화암동네에서 곧장 고갯길을 이용해 가기도 했다.

광주에서 영산강을 건너는 나루는 광산구 승촌에서 나주 노안면 용동으로 건너는 승천보나루, 화정에서 마곡으로 건너는 나루, 서창진나루, 벽진나루, 마르리나루, 우산~혈포간 나루, 풍암정나루, 불공나루, 오룡포나루, 복룡나루, 아촌나루, 생룡동, 용산나루 등 10여 곳에 달했다. 대부분의 나루터에는 주막이 있거나 원집이 있었다. 서창나루 건너 구룡포나 첩단단지가 된 월계동 오룡포는 배가 드나들던 곳이고 특히 오룡포는 본촌으로 통하던 나루였을 뿐 아니라 비아장을 거쳐 장성으로 통하는 오거리 포구였다. 길은 문물을 옮기는 원시시대 때부터 존재하는 주요시설이지만 삶의 터자리였던 동네없이는 무용지물이다. 길이름을 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광주의 옛 지도(1879년)

： 충장로와 금남로

산업사회 근대화 상징도로

충금동은 충장로와 금남로를 합해 1952년에 만든 행정을 위한 동 이름이다. 광주의 중심거리가 충장로와 금남로이고 이 길이름은 1947년 8월 15일 정해졌다. 이 거리는 조선시대 광주목의 치정 중심 관아들이 있던 성안의 북문거리가 있던 곳이다. 일본이 국권의 일부를 빼앗아 통치를 시작한 1905년 이후 일본사람들이 광주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시전거리로 개발해 일제시대 혼마치(本町)가 되었다. 한국지배의 원흉인 메이지(明治)천황의 이름을 붙여 전남도청 광장길로 키워낸 길이 금남로이다. 그러므로 이 두 길은 일제침략의 상징도로 이면서 광주읍을 산업사회 시전거리로 변모시킨 근대화의 상징 도로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신분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차례였으므로 관아 주변에는 장사치가 열썬거릴 수 없는 근엄한 장소였지만 서양의 경제형태를 흉내내 조선반도를 식민화할 작정으로 들이닥친 일본사람들은 조선시대 영빈관이었던 객사 주변에 전방을 열기 시작했다. 식민화 직후인 1912년의 지적통계에 따르면 객사였던 광산관에서 북문(충장과출소)까지의 거리 땅 1만 3,562평 중 47.6%인 6,466평을 일본사람들이 사들여 일본식 집을 짓고 장사를 시작했다. 물론 일본인들은 충장로4가의 68.4%, 충장로5가의 64.3%를 사들인 뒤 뒤늦게 장사에 뛰어든 조선사람에게 되팔았다. 이에 반해 금남로 일대는 당시에 길이 나지 않아 일본인들의 투기가 없었으나 1922년 광주에 철도역이 생기고 충장



광주 동구청의 7080 행사인 충장로 축제

로와 대인동에 오늘날의 구성로가 트이면서 뒤늦게 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이때는 조선사람들이 팔지 않아 겨우 13.6%의 땅을 사들이는데 그쳤다. 일본 통치자들은 국유로 남겨졌던 광산관 부지마저 1922년 일본인들에게 팔아 넘겨 광복 당시 총장로 1·2가는 우체국 등 공공건물을 뺀 땅은 모조리 일본인 소유가 되었고 총장로5가까지의 땅 중 한국인 소유는 15.4%에 불과했다.

이 총장로 적산들은 광복 후 1951년부터 1958년 사이에 불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 북문 통거리였던 총장로 1~3가는 조선시대 성내 간선도로인 중로中路에 속해 7.2m의 폭을 유지해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다만 금남로는 조선시대에는 없던 길로 광산동 13번지에 전남도청을 짓고 1911년 금남로2가까지 폭 12.7m, 길이 176m를 새로 낸

뒤 1912년 금남로3가에 재판소를 지으면서 2~3가까지 길을 뚫었다. 금남로 4~5가 길은 1933년에야 새로 낸 길이다. 비록 노폭 10~12m의 자동차도로는 이같은 연혁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셋길이 있었다. 이처럼 길이 양 갈래로 트이고 1930년 광주면이 읍으로 승격하면서 학동으로 통하는 남문통은 본정1정목, 동명동 쪽 동문통은 본정2정목, 누문동 쪽 북문통은 본정3정목, 충파에서 대인동 쪽 중앙로 일대는 본정4정목, 성문 밖 수기옥정은 본정5

정목이라 했다. 이때의 본정(혼마치)이 광복 후 충장로가 된다. 금남로는 도청 앞 광장에서 전남여고에 이르는 동문통을 명치정1정목이라 하고, 중정이라 부르던 금남로2가 일대를 명치정2정목이라 했다. 중정의 서쪽 일대가 명치정3정목, 북성정北城町은 명치정4정목과 5정목으로 갈렸다. 수기옥정은 본디 조선시대 기레방면의 중촌, 성밑成底 보통리湫通里 뒷동네後里 장터柿里를 이르던 곳으로 성문 밖 오늘날의 대금동과 북동이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수기옥정은 금남로와 충장로로 갈린 셈이다.

광복 후 일본침략의 대표적인 상징인 본정本町과 명치정明治町은 각각 관풍동觀風洞(본정1·2·3정목)·취인동聚仁洞(본정4정목)·창선동暢善洞(본정5정목)이 되었다가 1947년 충장로로 바뀐다. 명치정은 남일동南一洞(1·2·3정목), 인수동仁壽洞(4정목), 돈화동敦化洞(5정목)으로 바뀌었다가 1947년 금남로도 바뀌고 1952년 충장로1~4가, 금남로1~4가를 합해 충금동이라 했다. 다만 금남로5가는 대금동大鎭洞으로 독립행정을 하다가 충금동과 합해 충장동이 되었다. 충장동은 1998년 이후 행정동 이름으로 충금동·대의동·대인동·수기동·궁동·호남동·황금동·장동·불로동의 9개 법정동을 합한 이름이다.

충장로는 일본사람들이 상업의 중심을 삼은 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이곳을 서울의 명동에 비유한다. 일제 때 혼마치라 부르던 거리를 충장로忠壯路라 부른 것은 왜군과 싸운 충효리 출신 충장공 김덕령金德齡(1567~1596)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금남로는 임진왜란 때 종군했을 뿐 아니라 이괄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운 광주 정씨 금남공 정충신鄭忠信(1576~1636)을 기리기 위해 정한 길이름이다.

충장로는 충장로1가에서 누문동 144번지까지의 길이 1,093m 도로이다. 금남로는 총길이 1천473m로 북구 임동 94-165번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까지의 직선도로이다. 이 길이 넓혀진 것은 1969년 장형태 시장 때 일로 폭 18m이다.

금남로가 확장되어 광주 중심가로가 되면서 충장로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기관들이 금남로로 나오고 도청이 무안 삼향읍으로 옮겨가면서 충장로의 상권

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충장로길에 얹힌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다보면 광주 근현대사를 알 수 있을 만큼 광주변천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광복 후의 침체와 충장로5가와 금남로5가의 전성기, 충장로 일대의 양복점 거리와 도청 일대의 다방 및 식당, 아케이트와 백화점, 패션의 거리를 거쳐 오늘날은 젊은이들의 거리가 되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은 또 한번 충장로 경관에 변화를 줄 것이다.



구 도청 앞 분수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

충금·금남 지하상가

충금지하상가는 1980년 7월 문창수文昌洙 시장 때 준공했다. 지하 총면적 4,801m²(1,452평) 중 33%인 483평을 128개 점포로 쪼개 임대한 상가이다. 이 상가는 충장과출소에서 중앙로와 금남로 교차로까지의 사이에 있다. 오늘날 이 상가는 금남로4가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다.

금남지하상가는 충금지하상가의 북쪽 끝에서 옛 도청 앞 분수대 사이에 있다. 이 지하상가는 1989년에 1차로 204개 점포가 준공되었고 2년 뒤인 1991년 2차로 173점포를 분양해 완성했다. 광주도심지 방공호 겸 중심가로 금남로의 지상 인도 건널목을 지하로 옮긴 시설이기도 하다. 금남지하상가의 총면적은 7,520m²(2,486평) 중 44.8%인 3,369m²를 377개 점포로 나눠 임대했다. 그러므로 금남로1가에서 3가 사이 지하와 충장과출소 간에는 500여 점포가 들어서 있다.

도청자리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 동안 분수대 밑 상가는 행인이 사라져 2년 전까지 54개 점포가 비어있었다. 그러나 이곳과 문화전당 사이에 길이 새로 나면서 쓸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지하상가 입주자들이 상품창고로 쓴다는 구실을 붙여 임대해 2014년 말 현재 14개 점포만 비어 있다. 지하상가는 광주시 도시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청 소유 재산으로 점포임대는 평당 월세 20만~40만원이며 보증금은 1년 임대료와 같다. 점포는 4.5~15평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작은 점포는 월세 1백만원 안팎에 임대가 가능하다. 이 지하상가 관리에는 51명이 종사하고 있다.

백화점들이 고급브랜드 상품을, 양동시장이 서민상품을 판매하는데 비해 충금지하상가는 중저가 의류를 취급하고 있다. 충창로 지상상가와 마찬가지로 지하상가에도 중저가 상품의 대리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상인들은 매일 오후 7시께 신역 앞에서 출발하는 상가조합 대절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 거래처를 거쳐 이튿날 새벽 광주로 되돌아온다. 전에는 점포 문을 닫은 밤10시 이후에 출발해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새벽시장을 본 뒤 되돌아오기도 하고 야간침대칸 열차를 이용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취급품목마다 업주가 다르고 건물만 하나인 형태를 아케이드라고 하는데 1971년에 충장로1가에 무등아케이드가 들어서면서 이후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일부 아케이드들이 백화점이란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충장로 상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아케이드식 백화점은 충장로에만 8개가 생겼는데 코스모스·제일·동아·대광·신세계·화니·무등·부래옥 등이었다. 이처럼 명실상부하게 아케이드시대가 열리면서 점차 충장로 양품점과 백화점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 영향이었는지 1990년대 중반 화니와 가든백화점이 문을 닫고 대기업의 대리점이나 직판장들이 충장로를 점령하면서 광주의 유통구조는 또 한번 파동을 겪었다. 이제 고급브랜드의 대기업 백화점들이 주차하기 좋은 변방에 생겨나면서 광주의 명동이라 부르던 충장로는 새로운 재기를 꿈꾸어야 한다.

Ⅱ : 광주의 철도

백년전 광주~서울 12시간서 2015년부터 1시간 30분대로

송정철도역에 열차가 운행되기 시작한 것은 1913년 10월 1일부터이다. 대전~목포간의 호남선이 개통된 것은 이듬해인 1914년 1월이다. 당시 호남선 공사는 대전과 목포에서 동시에 착공되었다.

호남선 철도는 1896년 경인선이 미국인 모스(James Morse)에게 허가되고 1899년 그 허가권이 일본인들에게 넘겨지기 전인 1898년 6월에 그 설립허가가 결정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 승리 후 한반도 침략의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은 그들의 기지가 있던 인천~경성(서울)간에 철도를 부설한 뒤 이어 경성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부설을 위해 1901년 경부선 부설권을 따냈다. 1903년 인천항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한 일본은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일본은 경성~부산간 경부선 철도를 서두르고 마산선과 경성~신의주간 경의선을 서둘러 1906년 완공한다. 1905년 국권의 대부분을 빼앗아 일본 통감통치를 시작한 일본은 통감부 철도관리국을 신설해 모든 철도를 통감부 산하로 흡수한다.

이처럼 일본이 대륙침략의 도움이 되는 경부선·경의선 부설에 치중하는 동안 호남은 근대화의 상징인 철도부설에서 소외되고 만다. 일본의 전횡을 보다 못한 독립협회 이운용, 서오순 등은 1904년 호남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해 허가권을 따내고 자금모금에 나선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종황제는



복합환승역으로 최근에 완공된 광주송정역

1만원의 하사금을 내린다. 그러나 일본통감부의 방해로 모금에 실패한 뒤 1908년 3월 유길준 등 민족인사들이 재허가를 받아 추진한다. 통감부는 마지못해 통감부 예산에 호남선 철도부설 예산을 계상한 뒤 철도는 국방상 민간철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909년 호남선 철도부설권을 20만 9,435원에 통감부가 인수해 버렸다.

목포 개항 후 상권을 확보한 목포의 일본인들이 앞장서서 호남선 철도부설을 정부에 탄원한다. 1910년 호남선 부설 3개년 계획이 확정되고 1911년 3월 목포에 건설사무소가 개설되었고 1912년 10월 대전~이리간 공사가 끝났다. 1912년 10월 목포~몽탄간, 1913년 5월 25일 함평 학다리까지, 7월 1일 나주까지 연결되었다. 그리고 나주~송정간 철도가 1913년 10월 1일 준공되면서 송정역이 광주의 관문이 되었고 대전~송정 구간은 이듬해 1월 완공되었다.

호남선이 개통되자 송정과 광주읍내를 잇는 철도부설운동이 일어났다. 1913년 광주농공은행장이던 김형옥 등 12명이 발기해 광주정편철도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자본부족을 이유로 1915년 6월 허가가 취소되고 1918년 7월 남조선철도회사에 광주를 경유한 경전선 철도가 허가되었다.

광주~담양간 철도 운행

1922년 7월 송정~광주간 철도가 놓이고 이 해 12월에는 광주~담양간 철도가 준공되었다. 송정~광주간 철도가 놓이기 전 송정~광주간 여객수송은 자동차, 인력거, 우마차가 담당했다. 자동차는 일본인 가토加藤가 운영한 승용차 2대가 편도 75전을 받고 영업을 했다. 인력거는 50전이었으며 1시간 30분만에 광주에 도착했다. 마차도 손님을 실어 날랐는데 쇠바퀴수레마차는 35전, 고무바퀴 마차는 45전으로 1시간가량 달려 인력거보다는 빨랐다. 송정리에는 화물차와 소수레 운송점들이 들어서서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1916년 송정면 인구는 9,235명으로 광주면 인구 1만 948명에 육박했고 땅값도 광주읍내와 비슷했다.

송정~광주간에는 신가동 212-2에 극락간이역이 생기고 운암동에 북광주간이역이 생겼다. 담양선에는 망월동과 담양 고서면 원장리에 장산역, 봉황면 제월리에 마항역, 담양읍내 입구인 백동리에 삼거리역이 있었다. 담양선은 태평양 전쟁물자조달을 위해 늦그릇 제기까지 공출하던 1944년 2월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철로를 뜯어갔다.

담양선은 본디 남원 입구 금지면까지 연결할 계획이었고 광복 후인 1965년 담양~금지간 노반공사가 착수되었다. 이해 11월 세계개발은행이 정부가 새로 계획한 22개 철도노선 중 담양~금지간 등은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보고를 하는 바람에 기존의 광주~담양선 철도기반선마저 차도로 개량되고 말았다. 곡성 입면~남원 대강면 사이 섬진강 쪽에는 이때 부설했던 철교 흔적이 전쟁유적마냥 남아있다. 언젠가 전철 의존도가 높아지는 날, 광주~남원간 철도부설은 다시 재론될 것이다. 88고속도로를 따라 광주~대구간 고속전철도 논의될 것이다. 1969년 7월 대인동 2번지에 있던 광주역을 북쪽으로 옮겨 중흥동 611번지로 이설했던 이 신역부지는 1938년 일제시대에 계획한 광주도시계획 당시에 예정된 역사부지였다. 역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광주시 최초의 도시구획 정리사업이 이뤄졌다. 역사가 옮겨지면서 철도변경도 이뤄져 계림동 오거리의 철도는 산수동 쪽으로 이설됐다. 그 이설철도마저 1984



광주~송정역 간의 철로는 단선이어서 KTX의 광주역 진입 때 무궁화호(사진 왼쪽)는 극락강역 앞에서 잠시 멈춰야한다.

년 도시재정비계획 때 송정~광주선이 송정~효천역으로 바뀌면서 광주역은 경유역이 아닌 종점역이 되고 새로 송정~효천간 신촌동 826-3번지에 서석역이라는 역이 생겼다.

광주역에서 효천역에 이르는 10.8km의 폐선철도부지가 생겨나고 이 부지는 녹지화가 결정되어 2002년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가 생겨났다. 1차 순환 도로를 따라 폭 5~30m의 선형녹지공원이 새로 생겼다.

섬이 되어버린 광주역은 결국 전철에 의해 송정역과 연결될 운명에 놓여있지만 이 지역 정치인들은 고속전철을 연결해달라고 중앙정부에 맥빠진 건의를 거듭하고 있다. 폐선되었다고 시민성금을 모아 식재한 철도부지 선형공원도 결국은 전철에 쓰일 수밖에 없다.

광주~효천역간 철도선은 1928~1934년 사이에 진행된 광주~여수간 철도부설 사업 때 놓은 철도였다. 그 사이에 남광주역이 생겼고 백운광장의 건물목인 진다리에 벽공간이역이 있었다. 남광주역도 벌교 등 전남 동부의 농촌과 어촌의 보따리 상품이 몰려 역광장이 광주 3대 시장이 되었던 과거가 있다. 이를 기념해 역사는 뜯겼어도 열차 1량이 간이미술관으로 남겨져 있다.

1967년 도시계획 수정 때는 하남에 광주역을 신설하고 송정역을 화물역으로 바꾸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1984년 재정비 계획 때 취소되었다. 이후 1977년에 송정역 북쪽에서 바로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Y자형 철



광주 도심의 폐철도 부지에 조성된 푸른길

로가 놓였다.

광복 후인 1946년 9월 호남선에는 삼천리호라 부르는 급행 열차가 운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는 그 경유역에 불과했다. 1966년 11월에는 광주에 백마호라는 또 다른 급행 열차가 투입되었다. 광주역이 비로소 종착역이 된 시기였다. 1953년 7월 태극호라는 보통 급행열차가 호남선에 투입되었고 이 태극호는 1984년 통일호가 되었다. 1971년 9월 서울~광주간에는 새마을호가 들어왔다. 무궁화호라 부르는 열차는 1984년 1월 1일부터 호남선에 투입된 급행으로 오늘날까지 운행되고 있다.

철도는 석탄을 써서 움직이던 증기기관차 시대를 거쳐 1893년 디젤기관차가 개발되었으나 한국에는 1960년에야 도입되었다. 전기로 움직이는 고속전철은 1971년 서울에서 시작한 지하철에 도입되었다. 천안~대구간 전철화가 이뤄진 2000년 이후 호남선 고속전철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드디어 2015년 4월 서울~송정간 고속전철이 개통되었다. 물론 서울~송정리를 2시간 50분대에 다니고 있는 KTX는 2004년 4월 1일부터 기존철도를 이용

해 운행한 고속철도이다. 새 고속전철은 전용노선으로 달려 2시간 50분을 1시간 33분대로 단축시켰다. 이 같은 단축과 함께 편수도 그 동안의 12회를 22회(주말 24회)로 늘렸다. 물론 3시간 54분 걸리는 새마을호 2편과 4시간 20분 걸리는 무궁화호 6편은 중간역들을 거친다.

자동차나 기차가 없던 시절 광주사람들은 서울을 가는데 8일이나 걸렸다. 송정역에서 대전을 거쳐 서울로 가던 1백년 전 광주사람들은 하루 1회뿐인 서울행 열차를 타고 12시간 걸려 도착했다. 당시 열차는 발착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물건을 챙겨 타는 승객들의 행동이 느려 정한 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다.

송정역의 KTX는 목포까지 연결하는데 아직도 5년 세월이 흘러야 할 것 이지만 지역이해를 조정하느라 기존선로로 직행하느냐, 나주~무안공항을 거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모든 일은 본질이 중시되어야 한다. 세월이 가다보면 결국은 그때그때 부딪히는 지역의 이해보다 사업의 본질을 되찾아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목포~영암~보성선이 완성되어 경전선과 연결되면 머지않아 남해안 고속철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선로에 완도나 해남, 진도가 연결되고 제주해저터널이 생기는 날도 있을 것이다. 1백년 전 우리 선조들이 송정리역에서 처음 본 기차는 이제 21세기 필수 교통수단이 되었다. 전남 서부사람들은 서울을 가려면 광주버스터미널을 거쳤으나 이제 광주~서울간 버스는 30%가량 줄어들고 광주공항을 이용하던 비행기 승객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서울이나 천안으로 점심이나 만찬 모임을 다닐 수 있게 변했다. 20여년 뒤에는 무인자동차나 1인용 항공기로 서울나들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고속전철의 송정리 출발은 우리 모두에게 열린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적자 줄이려면 2호선 건설 등 사통오달 돼야

국내 첫 지하철은 1971년 서울역과 청량리 구간에 처음 등장했다. 1968년 11월 지상전차를 없앤지 3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국민소득은 고작 255달러였다. 6·25전쟁 후인 1955년 157만명에 불과했던 서울시 인구는 1970년 543만명으로 늘어 시속 10km의 속력으로 도심지 도로를 점령했던 노면(지상)전철이 도심교통의 장애가 된다고 운행을 중단시켰다. 곧 많은 시내버스를 투입했으나 버스를 증차하면 할수록 도심은 교통혼잡이 심해갔다. 철도청장 출신 양택식 시장은 없애버린 지상전철 대신 지하철 건설을 건의했다. 당시 국가재정을 책임진 김학열 경제기획원 장관은 ‘지하철을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고 반대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3년 4개월 공사 끝에 준공식이 예정된 날인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그 책임을 지고 지하철준공의 공로자 양택식은 옷을 벗었다. 다음 시장은 포병장교 출신 구자춘으로 54km에 달하는 순환전철 2호선을 추진했다. 이 순환전철이 서울시 역의 생활권을 외곽으로 확장시키는데 공헌했다. 서울시는 오늘날 9개 노선, 302개 역을 거느린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72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민 10명중 7명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2013년 한해에 4,172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이를 운영한다.

지하철은 본디 지상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도입된 것이 아니다. 일

제하에 미군폭격을 피하기 위해 방공호를 뚫듯이 전쟁 때 국민을 피신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 본보기가 북한의 지하철이다. 서울시에 지하철이 생기고 부산, 대구, 인천에 지하철이 생기면서 1990년 교통부는 6대 도시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의해 광주지하철 타당성 조사가 대전과 함께 실시되고 1994년 11월 제1호선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당시 용역 때는 1996년 착공해 2009년까지 1,2호선을 완공하고 2010년 이후 3개 노선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총연장 102.65km에 102개역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물론 1호선은 지금 운행중인 소태동~광산 월전간이고 2호선은 남북선로라 할 송암동~문화동간이었다. 3호선은 1호선 서쪽에서 버스터미널을 거쳐 광주역, 4호선은 광주역에서 북구 본촌동을 거쳐 터미널과 연결하고 5호선은 1호선의 북쪽 종점에서 하남을 거쳐 버스터미널과 연결하도록 구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6년 1호선 중 광산 월전종점을 옥동으로 100m 단축하도록 변경하여, 이 해 8월 착공했다. 8년간의 공사 끝에 2004년 1호선 선로 중 제1구간인 소태동 용산차량기지~상무역 간 1공구 구간을 완공하고 4년 뒤인 2008년 4월 겨우 옥동 차량기지에 이르는 광산구 구간을 완공했다. 2006년 이후 광주지하철은 하루 3만명 가량을 수송하다가 2008년 4



광주도심의 지하철

광주시철도 노선도

광주도시철도 1호선 운영 현황

운행구간 : 녹동 ~ 평동(20.5km) 1호선 20개역
 운행시간 : 05:30~24:00
 소요시간 : 녹동~평동 (38분) / 소태~평동 (33분)
 운행시각 : 출·퇴근 (5~7분), 평시 (10~15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개요

사업규모 : 확대순환선 41.9km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2개소)
 노선계획 : 시청~상무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
 ~조선대~전남대~첨단~수완~운남~시정
 건설방식 : 저상도 경량전철
 사 업 비 : 1조 9,053억원
 (국비 60% / 시비 30% / 지방채 10%)

구 분	개통시기	법 제	구 분	개통시기	법 제
1호선	2004년	2호선 (2단계)	2023년		
2호선 (1단계)	2020년	2호선 (3단계)	2025년		

만 3,000명을 넘어서 2014년 4만 9,460명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다. 승객 중 32.64%가 무임승차로 서울의 9.35%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개 역 중 가장 승객이 많은 역은 금남로 4가역으로 하루 평균 5,215명이며 다음 역은 남광주역으로 4,313명이다. 그 동안 송정역은 4위역으로 3,665명꼴이었으나 고속철이 개통된 4월부터는 1등역으로 변했다.

1호선 운영수입은 2013년의 경우 143억원이었으나 영업비용이 899억원에 달해 그 손실은 756억원에 달했다. 이 손실액은 시재정에서 405억원을 보조해주고도 365억원이 적자였다.

지하철 사업은 1조 5,868억원이 투입되었다. 국가에서 7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1,475억원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공채를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등 4,427억원을 끌어들여 모두 6,328억원의 빚을 졌다. 이 빚은 대부분 연리 3.5~7.5%짜리였으나 2014년 말까지 6,195억원을 갚고 나

머지 133억원은 2019년까지 갚을 계획이다. 그러므로 광주시 재정으로 볼 때 큰 부담은 아니다.

광주지하철은 2002년 11월 설립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위임받아 운영하는 정원 566명의 공기업이다. 역 안에 28개 점포가 있고 금남지하상가와 충금지하상가, 교보센터가 연결되어 있다. 주요 5개역에 공연장이 있고 금남로 4·5가역에는 상설전시장도 있다. 2호선 사업은 국비보조율이 70%에서 60%로 줄어들면서 과연 적자가 뻗한 이 노선을 착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란이 있다.

기본계획 3개 노선

20년 전인 1996년 광주지하철 수정계획 때는 전장 102.65km 5개 노선이였다. 당시까지도 광주시 인구는 2025년쯤이면 1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으나 막상 2차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주시 인구 성장추세는 2020년을 정점으로 152만명에 이른 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같은 인구증가예상치는 광주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다시 손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호선은 기존의 5차 노선을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근래 급성장한 첨단지구와 풍암·금호지구를 아우르고 향후 지선을 통해 송정~운남을 연결하고 광주역에서 야구장~터미널을 연결하는 부차적 계획을 덧붙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른다면 운남이나 터미널은 상황변화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20년전 계획 때보다 전철 길이를 27.45km줄여 75.2km로 수정했다. 이 사업은 1·2·3단계로 나눠 2016년에 착수, 2025년까지 10년 사이에 완공하되 1조 9,05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물가상승을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진행에 따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윤장현시장은 당선 직후 제2지하철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을 내비쳐 여론이 들끓었다. 서울시가 재정능력도 없이 지하철공사를 벌일 때 기획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김학렬씨가 ‘지하철을 건설하면 서울시가 망한다’고 반대하던

과거사를 떠올리게 했다.

오늘날 첨단지구 주민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오려면 1만원 가까운 택시비를 내지 않으면 30분 이상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지하철은 시민의 생활복지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적자투성이라고 짜증을 내는 1호선 지하철의 적자폭을 줄이려면 당연히 지하철이 사통오팔되어야 한다. 택시업자나 시내버스업자가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업을 공론에 붙인 것은 잘못된 일부 자문인사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존중한 신중성 때문이다.

2025년 2호선 사업이 완공되면 시민이 누리는 간접교통비 경감이나 시간 절약 이외에도 1호선 승객이 2만명 이상 늘고 2호선 승객만 22만 9,000명에 달해 운영적자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 경우 첨단지구 주민들 편의는 돈으로 계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특히 2호선 도시철도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2011년 지상고가 건설 방식을 채택하기로 고시했으나 다른 도시의 기존 고가철도가 소음, 진동뿐만 아니라 지상도로 노선에도 장애가 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다시 지하철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신 공사비를 줄여 적은 승객수요를 감안해 열차길이 9.45m짜리인 경량열차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지하철의 깊이도 10m이내에서 시공할 수 있는 저심도 지하공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량열차의 길이가 18m인데 전주어 그 절반가량의 열차를 투입할지라도 경유역 주변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대형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일시적 인파집중만 잘 조절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때문이다. 이 같은 건설방식변경에 따라 2013년 정부예산 52억원이 반영되었고 2013년 12월 24일 변경고시를 거쳐 2014년 7월 이후 논의를 거듭한 끝에 12월 1일 확정됐다. 2015년 올 들어 1단계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으므로 기본방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백운광장에서 옛 남광주역에 이르는 구간의 일부를 기왕에 푸른길가꾸기 사업으로 조경을 끝낸 폐선철도부지 밑으로 지하철을 시공하겠다는 기본구상에 환경단체가 시비를 걸고 나섰다. 시당국은 이 구간이 현재 차량도로인 순환도로 노선을 파헤쳐 지하철을 시공하는 것보다 폐선철도공원

을 이용하면 공사기간 중 이 구역의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고 공사비도 5백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원조경은 현재 이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이미 민간기부금 4억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수 만명의 인접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조성한 공원을 다시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당국은 지하철 건설 때문에 뽑히는 큰 나무는 다른 곳의 조경에 쓰고, 작은 나무나 꽃은 옮겨두었다가 제자리에 다시 심고 큰 나무들도 현재 것보다 좋은 나무를 심더라도 시비 4백억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사기간 대납로 교통혼잡도 줄일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시민들이 공감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호선은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는 시청에서 상무역 ~ 금호지구 ~ 월드컵경기장 ~ 백운광장 ~ 남광주역 ~ 조대 앞 ~ 광주역에 이르는 17km구간이다. 2단계는 광주역에서 전남대 ~ 일곡지구 ~ 본촌지구 ~ 첨단지구 ~ 수완지구 ~ 운남지구 ~ 시청까지 20km구간이다. 3단계는 백운광장에서 진월동을 거쳐

효천역에 이르는 4.84km로 최종단계이다. 시청 ~ 터미널 ~ 야구장 ~ 광주역 구간을 향후 계획으로 유보한 것은 광천동 버스터미널의 유동성도 염두에 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같이 2호선 지하철이 완성되고 나면 광주철도역은 광주도시철도역의 중심으로 그 기능이 바뀔 것이고 담양이나 화순도 새로운 전철망 연장을 위한 계획이 검토될 것이다.



상무역 인근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사옥

: 터미널

승객이나 도시 발전보다 업자들 뜻에 따라 위치 결정

터미널(terminal)이라는 외래어는 종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버스터미널이라 하면 시내버스 종점도 포함될 것이지만 흔히 시외버스의 종착과 시발정류장으로 생각한다. 이 정류장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일본식민시절에는 없던 제도이다. 이 때문에 일제식민시절의 시외버스 정류장들은 구역 주변의 대인동에 몰려 있었다. 오하라尾花라는 일본인이 일본에서 인력거를 들여와 광주~서창~송정간을 운행했다. 이에 자극받아 1913년 가토加藤가 승용차 2대를 들여와 광주읍내와 송정리를 왕복하면서 편도요금으로 75전을 받았음을 앞에서 밝힌바 있다. 1928년에는 광주자동차합자회사가 택시회사를 통합해 운영했다. 버스는 1918년 남조선철도회사가 광주~송정간을 비롯한 경전선 철도를 허가받으면서 버스를 도입, 남조선철도자동차부를 병설해 도내 지방노선을 뛰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철도부설권을 국철에 빼앗기면서 구역전 인근 대인동 190번지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했으나 태평양전쟁 중인 1943년 자동차교통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전남히노데全南日の出자동차와 합해 전남여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광복후 전남여객의 보유차량 32대는 광주여객(1948년 인가), 호남여객(1948년 인가), 동방교통 등에 분산되었다. 광주여객은 금남로5가 180번지에 있었고, 호남여객은 대인동 180번지, 남일여객은 대인동 301번지, 남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도여객은 금남로5가 178번지에 차고지 겸 터미널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 광주여객과 좌옹을 거룬 금성여객(1952년 면허)도 금남로5가 178번지에 있어서 오늘날의 구성로(계림1동~광주대교)일대에 버스정류장들이 집중해 있었다. 사람의 왕래가 철도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공간, 회차장, 정류장, 차고지 등이 도시계획법에 규정되고 도시시설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이후의 일이다.

광주도시계획은 일제시대인 1939년에 입안 될 때 15년후인 1954년 광주인구가 15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계획했으나 실제로 광주인구는 37만명에 이르러 기존의 도시계획으로는 도시공간을 규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우일설계에 용역을 주어 15년 뒤인 1969년 인구가 70만명에 이를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 정비계획을 세웠다.

중흥동의 현 광주역은 1969년에 옮긴 역으로 1939년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때 이미 광주는 당초 예상인구의 두 배를 넘어 섰고 1973년 호남

고속도로의 계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때라 전면적인 도시계획 손질이 불가피했다. 그 동안의 도시계획은 1984년이후에야 시민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규정되어 있었을 뿐 그 전에는 용역회사에서 계획한 것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되었던 시절이라 주로 교수들로 구성된 시도시계획위원들과 권력기관에 의해 그 기본안이 좌우되었다. 세부적인 실시계획 때는 유력한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도시계획이 영향을 받던 시절이다. 이 때문에 1967년 광주도시계획 재정비때는 조선대학교 교육지구가 132만 m^2 에서 212만 m^2 로 확대되어 교육지구 안에 포함된 주택들이 반강제 수용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광주역이 대인동에서 중흥동으로 옮기면서 신안동 127-5번지에 2만 2천 m^2 의 공용터미널이 지정되었고, 1973년 9월 백운광장 곁 959번지에 남부터미널 9,918평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광주여객이 대인동 5-3번지에서 운영하던 자체 터미널이 있던 시절이라 광주시 계획터미널로 옮기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자기회사 터미널을 공용터미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치열하게 경쟁하던 금성여객은 1973년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해 광주여객의 독무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1975년 2월 광주시외버스업자들이 광주여객의 대인동터미널안을 지지해 대인동터미널 부지는 5,349평으로 늘리고 하루 1,300회선을 넘을 경우 분산하거나 새 터미널로 옮긴다는 조건으로 도시시설계획을 변경해주었다. 대중교통수단의 핵심인 철도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멀리 자리잡고 도심지에 있어서 교통혼잡 등 민원이 빗발치자 광천동공업단지를 터미널 부지로 정한 광주고속이 이곳 땅들을 사들이면서 광주시는 1991년 7월 다시 이곳을 시외버스 공용터미널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므로 대인동터미널이나 광천동터미널은 광주시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발전을 보아 정한 위치가 아니라 업자의 뜻에 따라 결정한 터미널이다.

도시계획위원들은 광주시의 발전전망으로 보아 동북부를 오가는 시외버스는 광주역 곁의 신안동에 두고 남부의 시외버스들도 도심지를 지나지 않도록 백운광장 곁에 터미널을 두는 것이 좋다고 했으나 버스업자의 뜻에 따라 영풍

한 곳에 세워진 뒤 신안동 터미널부지와 백운동 터미널부지는 1998년 용도 지정이 폐지되었다. 백운동 후보지는 그 뒤 대형유통센터가 입주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오늘날도 공터로 버려져 있다. 광주역이 오늘날 계속 존치여부를 두고 기로에 선 것은 당초 이곳을 15만 인구의 교통중심센터로 정한 1939년 계획의 철도역인 탓도 있지만 이 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의 순환체계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광천시외버스터미널이 도시계획대로 광주역 주변에 있어서 도내 각처 시외버스들의 종착지나 시발지로 이용되었다면 오늘날처럼 존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다. 이 장에서 버스터미널을 다루는 것은 송정역의 KTX운행에 따른 대책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버스경영자의 입장에서 철도는 경쟁사업 시설이다. 장거리 여행객의 경우 버스보다 철도가 안전하고 안락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용자 편에서 보면 열차에서 내려 열차운행이 안 되는 곳에 갈 버스정류장이 철도역 곁에 있으면 편리하지만 버스업자 입장에서는 서울 갈 손님을 지방에서 터미널까지 모셔온 뒤 철도역이 곁에 있으면 값이 비싸더라도 승객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광주고속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철도역 주변의 정류장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북부와 남부터미널이 편리하지만 서울이나 시외에 나갈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터미널이 하나여야 이문이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광천동에 세워진 뒤 알게 모르게 광주 시내 도로망마저 터미널 중심의 기형적으로 기획되고 확장되어왔다.

제2순환 전철계획에서 광천터미널 경유를 후순위로 미룬 것은 광천터미널의 기능이 적어져가는 시대발전을 내다본 점도 있지만 전철이 버스터미널을 지나가게 되면 버스승객이 전철을 통해 철도역으로 쉽게 옮겨지는 것을 꺼리는 업자의 속셈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송정역과 시외버스터미널간 왕래가 편리해질수록 서울행 버스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싫던 좋던 송정역은 여수, 순천 등 동부권과 목포시민을 제외한 대다수 도민들이 도와 나들이 때 이용할 교통의 중추기능을 맡게 되어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짜는 것을 보더라도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점에

는 시내버스 투입을 줄이고 있다. 도내 시외버스 노선을 대부분 장악한 버스 업체는 광천터미널 하차손님이 송정역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도록 시내버스가 배차되기를 원한다. 광주시가 진정으로 시민과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송정역에 KTX가 개통되기 전에 대중교통 종합대책과 함께 도시계획 자체를 손질해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들었어야 한다. 미적미적 업자의 눈치나 보면서 송정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 할지라도 시민편의를 따른다는 순리를 따라야 지역기업으로 계속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이다. 도시계획이 이처럼 업자의 이해에 따라 변했던 과거의 적폐는 없어져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차량관련 시설은 공용터미널 이외에 주차장이 있다.

1970년대 남부터미널로 예정되었던 백운광장 일대



법에 따라 광주시가 지정한 주차장은 3만 4,773곳이다. 그 중 510곳의 주차장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유료이다. 주차장은 장소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건물이나 회사주차장이 있다. 주차단속은 주로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공공도로이거나 공공용지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제가 불가피한 10곳은 관리단체에 용역을 주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주차장 노면수는 51만 8,214면으로 광주시내 면허차량대수가 56만 8,054대이므로 5만대 가량의 차량은 불법주차가 불가피하다. 특히 많은 차량이 몰릴 광산구 송정동에는 농협공판장 노외주차장과 송정역 뒤 신덕동 주차장, 구청앞 큰길가 주차장 정도라 문제가 심각하다.

광주시 도시계획 시설조서를 보면 평동산단과 하남지구, 첨단지구 등에 넓은 면적들이 지정되어 있다. 북구 각하동에는 3만5,765㎡에 달하는 화물정류장이 지정되어있지만 무슨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지 항상 비좁아 각화동 순환도로일대가 정류장 겸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삼각동 271번지와 문흥동 877-15번지에 여객터미널이란 이름의 정류장도 있다.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일지 불분명하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설정과는 달리 백운광장 주변의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버스업자의 뜻에 따라 지난 1998년 용도지정이 폐지된 후 대형유통센터 입주신청마저 거절돼 오늘날 공터로 남아있다. 광천동 버스터미널로 전철이 통과하면 아마 버스터미널은 백운동으로 옮길 공리를 하게 될 것이다. 송정역에서 멀수록 좋지 때문이다.

: 광주의 자동차

전철 · 무인자동차에 밀릴 미래의 사양산업

근래 보도를 보면 카이스트(KAIST) 김대식 교수는 10년 안에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될 것이고 이 경우 90%가량의 현행 자동차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경우 도시공간의 재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직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선 주차장 공간이 줄어들고 주차장 관리인이 없어지며 택시운전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연구투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군에 무인자동차 연구센터를 건설해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있다. 대량수송체계의 왕자인 철도는 항공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고속화되어 있고 버스산업마저 사양길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위협은 무인항공기의 발전이다. 이미 드론은 군사용 단계를 넘어서 민간상용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은 스포츠의 하나처럼 보급단계에 있지만 가벼운 무게의 배달사업에 이용할 것을 시도하고 있어서 3~4년 내에 무인항공기가 승객수송에도 이용되고 나중에는 개개인이 등에 등산백을 짊어지듯 드론장비를 짊어지고 혼자서 새처럼 공중을 이동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을 예언하는 판이다. 이미 중국에서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런 세상을 공상만화의 세계로 여길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50여년전을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승객을 맞이하는 택시들

생각하면 세상은 상상을 훨씬 앞서 발전해 왔다. 5·16 뒤 공화당이 정치를 시작하던 1960년대 중반 집집마다 자동차와 TV, 전화기가 있는 세상이 곧 실현된다는 공약집을 보고 허풍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1백년전 10대도 안되던 광주 자동차가 오늘날 56만 8,054대로 2.62집에 1대꼴로 자동차가 시내를 점령해 버렸다. 광주시내 가구 수가 56만 3,599집이므로 광주시내 자동차는 1집에 1 대꼴을 넘어섰다.

전철·시내버스 안 타본 시민 54.5%

광주시내 교통분담은 버스가 28%, 택시가 11.6%, 지하철이 2%, 기타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이 2.3%, 자가승용차가 절반을 넘는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민교통의 차종별 분담은 매년 자가용 분담율을 계속 늘려 2006년 29.3%였으나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절반을 넘어섰다. 광주시민 중 절반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아예 타보지 않고 자가용이나 택시만 타고 다닌다.

광주시내 자동차 증가추세를 살펴보자. 1912년 일본인 가토 기사부로(加藤幾三郎)가 승용차 2대를 들여와 광주~송정간 영업을 시작했다. 1916년에는 생명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던 소바요자구(相馬與作)도 자동차영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승용차는 조선신문 총판을 하던 가토텐류우(天龍)가 1대를 사온 것이 최초라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자동차는 1921년 29대, 1934년 137대, 1940년 승용차 83대와 61대의 화물차가 증가했다. 광복 직전의 자료는 없다. 광복 후인 1946년 자료를 보면 황금동 87번지에서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1937년형 포드자동차 2대로 박인천씨가 여객운송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4km에 50원, 10분 대기료 10원, 시외는 1km에 20원(왕복의 경우 17원)이었다. 1953년 5월 여수여객운송부가 승용차 3대를 들여와 영업을 시작하고 이듬해 대양·동명·전일의 3개회사가 15대의 택시를 운영했다. 곧이어 광일·대양·무등·중앙·양양·전남·광주·송일·호남 등 우후죽순처럼 택시회사들이 생겨났다. 이때의 회사들은 2~3대로 회사설립을 했던 개인회사나 다름없었다.

광복 전후 광주에는 70여대의 인력거가 있었다. 소수레, 마차 등 40여대도 화물영업을 했다. 개인택시면허가 시작된 것은 1965년이고 5·16후 광주시내 30여개 택시업체는 광일·합동·신흥의 3개회사로 통합되었다. 개인택시제도가 생길 무렵 국산 코로나·코티나 등 택시가 생산되고 미터요금제가 실시되었다. 1970년 무선표출기가 보급되고 콜택시제도가 시작됐다.

1972년 104개 회사(1,763대)에 달하던 광주택시는 유류파동으로 폐업이 속출해 25개 회사(424대)가 폐업했다.

1975년 영업용 브리샤 차종이 보급되고 다시 차를 사서 택시면허 회사에 일정량의 세금과 경영비를 부담하고 개인이 택시를 운영하는 지입차제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택시증차는 기존회사의 보유차량에 따른 비율증차가 이뤄져 택시회사 전성시대였다. 증차 때마다 지입차 수입이 올라가던 때이다. 당시 이름있던 택시회사는 신흥택시(봉선동)·영진고속(임동)·남일운수(쌍촌동)·삼일운수(농성동) 등이었다. 지입차 풍습이 여러 가지 부작용

을 일으키자 1979년 이를 불법화하고, 신고자들에게 한시택시라는 이름의 기형 개인택시제도가 생겨났다. 1973년 말 960대이던 광주택시는 10년 뒤인 1983년 2,393대로 늘었고 1993년에는 6,008대로 늘어났다. 10년 사이에 두 곱절씩 늘어난 셈이다. 2013년 광주시내 택시는 8,219대이므로 1993년 이후 20년 사이에 2,200대가 늘었을 뿐이다. 그 사이 광주인구는 125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었으므로 인구증가율보다는 더 많은 수요의 택시가 면허를 얻은 셈이지만 1990년대까지의 증가추세에 견준다면 오히려 억제된 셈이다. 택시업계는 적정수보다 15.5%가 많으므로 1,268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택시가동율은 89.3%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물론 광주시내 택시는 청년 기사수가 줄어들고 퇴임자들의 운전자수가 늘어 기형적으로 개인택시 권리금은 9천만원대로 올랐다.

택시운전자 중에는 80세를 넘긴 고령자도 있어서 정부가 노인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인지검사라도 의무화하면 은퇴자들의 운전자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 같은 여건변화가 아니더라도 4~5년 내에 영업택시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점차 수입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발목 잡는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1954년에야 대창운수에 1대가 허가되었다. 일제 때 시작된 시외버스는 지방노선을 주로 뛰었으나 시내버스는 시외를 뛰지 못하고 임동~학동간 광주 중심부만을 뛰게 했다. 10년 뒤인 1963년 시내버스는 27대로 늘어 8개 노선을 뛰었으나 이때 12인 합승이 영업용으로 허가되면서 4개 회사가 154대를 확보하고 광주에 인접한 장성, 담양, 화순 동북, 나주 남평, 영산포 구간 등 14개 노선을 뛰면서 운수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본디 일제 때부터 화물차나 시외버스는 운전을 배우기도 하고 운전사 시중을 드는 조수가 동행했다. 초기 버스는 무연탄을 피워 증기로 운행하던 버스도 있어서 조수가 필수였다. 이 관행은 광복 후에 이어져 시외버스에는 남

자조수가 출입문에 서서 ‘오라잇’을 외쳤으나 57년 시외버스 회사들이 종점까지 직통으로 달리는 급행버스를 운영하면서 제복을 입은 여자승무원을 태웠다. 안내양이라 부르는 이 여차장 제도는 모든 버스에 유행했으나 1983년 운전기사가 자동으로 여닫는 자동문차량이 개발되면서 안내양이 30여년 만에 사라졌다. 시내버스로 1983년 시외버스와 같이 앉아서 가는 좌석버스가 학동~송정간을 운행했다. 이듬해에 중심사~도산동 등 5개 노선에 129대의 좌석시내버스가 도입되었다. 시내버스는 1993년 중반에 정점을 이룬 뒤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등을 겪으면서 적자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처지가 되었다. 시내버스의 운행중지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준공영제라는 타협안이 마련되었다. 운행실적을 보고 적자를 시민세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10개 시내버스 업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광주시간 계약을 맺어 2012년에 350억원, 2013년에 390억원을 보조해 주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20년전 버스대수와 거의 같은 968대이다. 이제 노동쟁의는 업자와의 협상이 시청으로 옮겨졌다. 업자들은 운전사들의 월급과 운영비를 제하고 버스대당 이윤을 보장해주라고 요구한다. 해가 갈수록 자가용 이용자수가 늘어가면서 시내버스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매년 운전사의 복지 요구와 임금인상 요구는 계속되어 광주시는 준공영제 보상금 분쟁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시청이야 노조와 업자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버티는 척 하다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결하는 편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하철처럼 시내버스를 광주시가 직영하거나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5년쯤 지나면 낡은 버스 교체와 운전사 확보가 문제점이 될 것이다. 택시업계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버스 운전기사 취업이 끝났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요금을 올릴 때마다 친절운행 등 이용자를 위한 개선책이 내걸리지만 고용이 철밥그릇처럼 보장되면서 친절서비스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시대는 고속전철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현실이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다가는 수렁에 빠져들 위험이 많



1970년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 때
마다 행선지를 큰 소리로 외치고 승객
을 다 태우면 버스를 탕탕 치며 '오라
잇' 하던 버스 안내양

은 격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모든 기술이 고속화되어가면서 10년 안에 기존 47%의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한다. 노조가 철석같이 단결하면 기득권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시민이 이 같은 집단이 기주의를 허용할리 만무하다.

택시종사자들은 운전자 없는 무인차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버스업 종사자들은 전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이 업계를 초토화시킬 미래를 걱정할 때이다.

제5장

광주인문

Ⅱ : 광주인문의 들목

‘이혼·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현상’ 인류 종말의 징조

50년 전 인구 30만명

1914년 광주군 인구는 7만 8,375명이었다. 이 인구가 10만명이 된 것은 1923년이요 광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가 부府로 독립했던 1935년 광주부 인구는 5만 2,674명이었다. 당시 외곽지인 광산군과 북구 일대는 광복 후까지도 광주군을 거쳐 광산군이라 했으므로 1948년 광주부가 광주시가 될 때 인구는 13만 5,000명에 불과했다. 1961년 광주시 인구는 31만 8,000명이었으나 1955년과 57년 광산군의 일부를 광주시에 편입한데 따른 증가일 뿐 사실은 30만 미만이었다. 1988년 송정시를 편입해 광주 인구는 111만 6,332명이었다. 기존 95만 2,884명이었던 광주시 인구는 이 때 송정시의 편입으로 한해에 17.2%의 인구증가율을 보여 100만 명의 광역도시가 된 것이다.

이 인구는 1994년을 정점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 이내의 성장률을 유지해 150만 인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광주시 인구가 160만에 미치지 못하고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의 인구증가는 도시화에 따른 전남·북 농촌의 이농현상 때문이었다.

2013년 광주시 시내에 전입한 인구는 22만 6,696명이었고 전출한 인구

는 22만 9,288명으로 2,592명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광주시는 인구유출 지역으로 변했으나 인구가 조금씩 느는 이유는 연간 1만 2,700여명씩 아기가 태어나 노인이 죽는 수보다 많기 때문이다.

2013년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사 간 곳은 서울(1만 964명)과 경기도(1만 895명)이었다. 물론 그 동안 광주시 인구의 주 유입처는 전라남도로 옮겨간 수가 3만 3,736명으로 전체 유출인구의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 다시 3만 5,498명이 들어와 1만 7,638명의 증가요인이 이뤄졌다. 전출보다 전입 초과 지역은 전남과 함께 전북, 부산이다. 이전에는 부산으로 이사 가는 숫자가 더 많았으나 2013년 560명이 부산으로 떠나고 1,047명이 광주로 들어왔다. 광주 사람들이 많이 이사가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인천(2,109명), 대전(1,610명), 세종시가 있는 충남(1,843명), 경상남도(1,475명)이다. 나머지 광역시도에는 1,000명 이내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들어오는 수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 인접지인 전라북도만은 5,549명이 이사 가고 5,726명이 이사 와서 부산, 전남과 함께 전입 증가 지역이다. 광주시에서 떠나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에 일자리가 없거나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 중 24.13%가 학생이다. 취학 연령층 아이들이 줄어들고 대학 구조조정까지 일어난다면 광주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2007년 경기도의 경우 4,000명, 서울의 경우 5,000명씩 이사 가던 광주사람수가 1,000~2,00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다행이다. 광주 인구유입의 배후지인 전남도에서 매년 4만~5만 명이 유입되었으나 2010년 이후 3만명 선으로 줄어 들었다.

광주전입, 나주·화순·담양 순

광주토박이가 적다는 글을 『광주산책』 상권(198쪽)에 쓴바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15만명 중 토박이는 3% 이내이고 40대 이상 중 반수 가량이 인접 시군에서 전입한 타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광주에서 전통사회 때의 광주정체성보다는 산업사회 진행 이후 전입인구의 학습과 교육 성향이 광주정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점심시간에 광주 금남로와 충장으로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

체성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산업화 이후 광주에 이주해온 인접 시군의 전입자 통계이다. 이에 대한 자료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대한 통계진흥원에 의뢰해 2010년 전남·전북 지방기초단체에서 광주시내에 전입한 인구통계를 확인했다. 이 자료에는 광주시 인접지역의 광주 전입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나주 3,532명 △화순 2,947명 △담양 2,447명 △목포 2,210명 △장성 2,008명 △순천 1,926명 △해남 1,602명 △전주 1,145명 △순창 560명 △정읍 550명 △고창 538명

물론 이 자료는 근래 1년간의 동태를 살핀 것이지만 광주 선출직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 출신 지역별 광주 인구의 믿을만한 수치자료이다.

광주 인접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은 광주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오늘날 광주시청 공무원들이나 시·구의원,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은 100년전 광주 토박이들보다 새로 유입된 타관 사람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어서



생활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휴일이면 도심 공원을 찾는 젊은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 현대사의 성격을 옛 역사에서 찾는 것은 사실을 오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본관 성씨들의 부침과 분포 및 조직도 지역사회 풍습과 성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조선시대 토반 세력이었다고 할 아전 성씨 집안과 동·서 봉당에 관련해 부침을 거듭한 광주 토성은 미미하지만 아직도 광주 정체성을 말할 때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집안들은 알게 모르게 결집력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50년 이후 인접지에서 유입해 온 사람들은 동창회, 향우회 등으로 선조들이 살던 땅에 대한 향수나 애착은 보이면서도 혈족을 상징하는 동성 의식이나 연대는 토박이 성씨에 비해 미약하다. 반면 토박이 성씨들은 사우나 서원, 묘역 등 선조들의 흔적을 광주에 가지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끈을 이어간다. 토박이 성씨 중 채蔡·탁卓·진陳·허許·반潘·승承·성成 등은 미미한 집안이 되었지만 광산 김씨, 광산 이씨, 광주 노씨, 탐진 최씨,

정씨, 고씨, 전씨 등은 아직도 지역내 영향력이 적지 않다.

성씨는 현대사회에서 따질 것이 못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성씨는 생물학적 유전자 갈래의 상징이다. 멀리 인류의 조상을 따지자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먼 조상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여긴다. 2005년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4만년전 같은 사람 갈래였던 네안데르탈인이 가족공동체의 유지에 실패해 호모사피엔스에게 영장자리를 내주고 3만여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네안데르탈인들과 호모사피엔스의 집단생활 지역의 유골을 살폈더니 네안데르탈인은 노인을 섬길 줄 모르고 혈족을 챙기지 않는 인종이었다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들이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두발로 일어난 것은 400만년 전으로 추정한다. 이후에 여성의 골반이 줄어들어 다른 동물처럼 뱃속에서 아기를 제대로 키워 낼 수 없는 신체 구조로 변했다. 그래서 털 자란 아기를 낳게 되었고 최소한 1년 이상 보살피 주어야 사람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할머니들이 아이를 돌보게 되고 여자는 다시 임신해 종족이 번성했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이 육아를 담당하는 가족의 출산율이 단핵 가족보다 높았다고 한다.

손자 키우던 인종 번성

광주인문 첫머리에서 인류의 진화와 가족 얘기를 다루는 것은 사회의 기초는 가족이고 결국 지역사회의 토대는 가족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961년 광주시내 한집 식구는 6명 평균이었다. 부부가 4자녀를 두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셨던 구조였다. 20년만인 1979년 5명 가족으로 변했고 1990년 4명 가족, 오늘날은 2.6명 가정으로 바뀌었다. 2.6명은 부부만 살거나 자녀 1명을 둔 가정구조로 변했다는 말이다. 3만년전 부모를 돌보지 않던 네안데르탈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듯이 자식과 손자를 통해 유전인자를 영속시켜야 할 생명체의 섭리를 소홀히 하면 현세인간도 결국 멸종하고 만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생체적으로 임신과 육아를 담당해야 할 여성이 폐경에 이르면 그 신호는 손자·손녀를 기르라는 변화임을 알고 정을 쏟아 대를 이어갈 후손을 길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하는 노인 세대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손자를 키우고 난 뒤 생활 보장의 장치가 없는 사회구조 탓도 있다. 광주 시내 65세 이상 노인 15만 2,000여명 중 2만 6,380명이 혼자 살고 있다.

근래 통계개발원이나 서울시가 노인문제에 대한 전망치 발표로 바쁘다. 2014년 서울에서 부부끼리 사는 집이 16.7%이고 혼자 사는 집이 27%라 한다. 15년 뒤인 2030년 서울시내 독신 가구수는 30.1%로 예측되고 그 중 38.1%가 65세 이상의 노인독거인이 될 것이라 하므로 일본처럼 도심지 초등학교가 양로원으로 개조될 판이다. 만혼, 이혼증가, 저출산, 고령화, 가족 해체 현상은 인류 종말의 징조이다. 인문학은 단순히 과거나 현재의 인간을 얘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학문이기도 하다.

: 광주사람들의 출생과 죽음

“집없는 신희은 영원한 가난”... 그릇된 생각 일반화

2013년 광주 시내에서는 1만 2,729명이 새로 태어나 하루 평균 출생자가 34.8명꼴을 보였다. 이에 견주어 죽은 사람은 하루 18.8명꼴인 6,891명이 었다. 전 시민의 24.13%인 35만 9,179명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수는 5만 16명이다. 매년 4,000여명씩 증가하는 보건사회복지 근무자 수도 교육 공무원 수에 육박하는 4만 7,302명이다. 점차 교육종사자 수는 줄어들고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공무원 및 군인은 1만 5,821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제조업 종사자 수가 7만 8,579명이다. 이에 견주어 부침이 심한 건설업 종사자 수는 4만 2,321명에 달한다. 소비도시답게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 종사자 수는 가장 많은 8만 5,101명이며 매년 창업과 폐업이 26%에 달하는 숙박, 음식 종사자 수는 5만 3,171명이다. 음식점의 폐업을 순위는 국내에서 첫번째다.

광주를 이해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직종이 언론매체이다. 국내에서 지방 일간지가 가장 많은 곳으로 통계상 28개이며 주간지 33개, 인터넷신문 131개로 이를 합하면 192개 업체이고 그 종사자 수는 841명이다. 출판, 인쇄 업체가 많은 것도 특징 중 하나로 심하게 말하면 경기도 파주출판단지를 연

상할 수 있는 곳이다. 광주시내 출판, 인쇄업체 수는 모두 575개소(종업원 2,419명)이지만 그 중 58%인 334개 업체가 동구청 남동과 금동 일대에 집중해 있다. 업체 수는 이처럼 많지만 기업형은 찾아볼 수 없다. 가내 수공업 수준으로 동구청 내 334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고작 846명이다. 관내 광주일보(일간신문사) 근무자 수가 이 통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빼면 업체마다 가족 형태로 2~3명이 운영해 그 영세성을 짐작할 수 있다. 출판, 인쇄업체수가 많으면서도 이곳에서 출판하는 출판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총판회사나 향토서적 취급 전문서점 등 유통체제마저 갖춰지지 않아 좋은 책이 출판되더라도 널리 소통될 길이 없다. 영세 인쇄업체가 많은 것은 컴퓨터에 의한 편집이 보편화된 탓도 있으나 지역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이나 미술인재를 많이 양성해내고 있지만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고 소모성 단순 인쇄물을 만드는 편집 작업이 쉽기 때문이다. 출판, 인쇄가 주요 예술산업 분야인데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육성시책이 별로 없다.

하루에 8쌍이 이혼

광주시내에서 하루 24.2쌍이 결혼해 2013년 1년간 8,820쌍이 결혼했



광주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

다.(2014년에는 8,213쌍) 결혼식은 시내 28곳의 예식장과 18곳의 호텔에서 이뤄진다. 1994년 광주시내 예식장은 31곳이었으나 호텔들이 적극적으로 예식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차장 등 여건이 나쁜 현대, 명성, 백악관 등 몇몇 예식장이 문을 닫았다. 1960~70년대 결혼식은 주로 전문예식장이나 교회를 이용했다. 하객 선물은 간단한 우산이나 비누세트 정도였다. 이 풍속이 1990년대 이후 하객 식사대접으로 바뀌면서 호텔예식의 뷔페음식 의존도가 높아지고 예식장업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물론 예식장에도 외식업체들의 뷔페음식 배달이 시작되면서 그 약점을 보완했으나 젊은이들의 허세가 가세하면서 호텔 결혼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옛날 예식장들은 임대료 수입과 신부화장, 결혼사진, 비디오 촬영 등 하청 수입에 의존했다. 오늘날은 결혼 사진도 야외 사진, 스튜디오 사진, 예식장 사진, CD제작 등 평균 210만원 꼴이다. 예식장 축포 도우미(20만원), 꽃장식(평균 106만원), 대관료, 하객접대 식사 등 평균 2,200만원 이다. 가족여성부 조사에 따르면 결혼비용은 집값을 제외하고 평균 3,000만원대가 전체 결혼의 48.7%이고 1,000만원 미만은 8.5%에 불과했다. 결혼 3종 세트란 말이 있다. ① 남자는 신접집을 마련해야 한다.(설문응답자·62.8%) ② 일가친척들에게 나눠줄 예단을 해야한다.(44.6%) ③ 식당은 붙벼야한다.(50.9%)

전라도는 신랑측 부담이 적지만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매매혼 흔적이 많아 신부를 사 오듯 모든 예식비용을 신랑 측이 부담했으나 점차 전라도 풍습을 따르고 있다. 신부 측 예단은 평균 742만원이었고 혼수는 냉장고, TV, 세탁기, 침대, 주방용품 등 신랑이 부담하는 집값의 10%쯤 부담하는 것을 원하는 세대이다. 60~70대 노인들이 50여년 전 결혼할 때는 상하방 전세나 월세방이 당연한 신접 살림집이었으나 오늘날은 집 없는 신혼 시작은 영원한 가난을 짊어지고 산다는 그릇된 생각이 일반화되어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비용 공동부담 의식이 68.2%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 1,200명 신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부담 비율은 남자가 7,545만원, 여자가 5,225만원으로 아직 남자의 부담이 좀

더 많았다. 그럼에도 결혼비용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떠넘기는 비율은 8.5%에 불과했고 부모지원 없이 신랑·신부가 모두 부담한 경우도 10.4%로 점차 전통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동시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준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있다. 혼자 살아도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는다는 젊은이가 38%에 달하고 실제로 사회 여건도 변해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구분해 생각하고 기간계약제 결혼이나 계약동거 관행마저 생겨나 옛 사람들은 혀를 내두른다. 광주시내 30~39세 미혼처녀는 2만 2,270명이고 40~49세 사이 노처녀도 4,202명에 달한다. 광주시내 이혼건수는 2,924쌍(2014년 3,051쌍)으로 결혼한 건수의 3분의 1을 넘었다. 이 같은 이혼에는 노년층에게도 예외가 아니며 65세 이상 이혼 남자노인은 947명, 여자노인은 936명이었다.

광주시내 이혼남자는 1만 8,287명, 이혼여자는 2만 5,760명으로 여자 이혼자가 훨씬 많다. 특히 35~46세 연령대의 이혼여성수는 5,008명이고 남자는 2,349명으로 여자가 2배 이상이다. 중년여성들의 이혼이 높아지는 경향은 경제적 능력을 갖게되는 사회여건의 변화라 하겠다. 이처럼 가족제도의 기초라 할 혼인제도가 허례와 가식으로 변질되어가는 세태를 보다 못한 국내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2014년 4월 21일 서울 세종 문화회관에 모여 혼례 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간 6,800여명 죽어

2013년 광주시내에서 저승에 간 사람은 6,891명으로 하루 18.8명꼴로 하늘나라로 간다. 50여년전에는 집에서 숨을 거두지 않으면 객사 귀신취급을 하는 풍습 때문에 병원에서 임종하더라도 집으로 옮겨와 장례를 치르는 형식을 취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아파트 지하공간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했으나 아파트 생활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영안실 장례가 시작되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73%가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광주

시내 병원영안실 장례식장은 20곳이고 병원에서 시신을 옮겨다가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맞는 장례 전문업소는 26곳이다. 광주시내 사망자들이 모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연간 46곳마다 평균 150명의 장례를 맞는 꼴이 된다. 호텔과 음식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업소 수와 장례장 수가 공교롭게도 같다. 그러므로 장례식장의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어 요즘 TV광고에서 보힘 다음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업종이 장례식장이 되고있다.

장례식장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장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용품의 경우 100만원부터 500만원에 이르는 등 가격차가 심하고 결혼식장과는 달리 사전에 예약하거나 가격 상담을 끝내고 가는 곳이 아니라 시비가 잦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조문객 음식을 외식업자에게 하청으로 주기 때문에 가격체계도 일정하지 않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시절에는 조문객이 올 때마다 호곡소리가 났다. 밤이면 상주가 밤을 새는데 동참한다는 핑계로 옷놀이나 화투놀이 판이 벌어져 출입장이 젊은이들의 핑계거리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진 풍습이다.

3일장이 끝나면 대부분 화장장에서 시신을 태워 공원묘지나 납골당에 봉안한다. 이 시신들은 45년이 지나면 유가족이 인수해가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 재활용 땅에 뿌려버린다. 정부는 국토 면적의 활용을 명분으로 나무 밑에 화장한 분골을 묻거나 뿌리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권장한다. 그런 정부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들은 보훈자라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해 추모한다. 국가공동체를 위해 충성하는 국민을 늘리자는 속셈이다. 그 국립묘지 공원들은 죽어서도 대통령묘지, 장교묘지, 사병묘지로 구분해 저승에 가서도 억만년을 계급따라 살라는 철학없는 비민주적 묘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빛나는 업적을 내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사람은 모두가 공동체에 알게 모르게 공헌한 사람들이고 자식들에게는 애국자나 전몰 전사자보다 더 소중한 추모의 대상이다. 살아서 대접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마저 흔적없이 재가 되어 산천에 뿌려져야 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므로 시비를 걸 수 없다.

: 2478년 광주소멸

출산·전입자 점차 줄고
사망·전출자 꾸준히 늘어 ‘우려’

한국의 출산율이 1.19명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한민족 소멸론이 화제가 되고있다. 국회입법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발표를 보면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출산율은 1.7명이고 이웃 일본은 1.43명으로 한국보다 높지만 이런 출산율로는 16년 뒤인 2030년 일본 인구는 1억명 이하로 줄어들 형편이라고 법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더 낮은 1.19명이라 122년 뒤인 2136년 한민족 수는 1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전망치에 따르면 광주는 464년 뒤인 2478년에 소멸하고 만다는 것이다. 한국 역사상 한 왕조가 존속해온 5백년 안팎에 광주가 없어진다는 전망치를 접하고 보면 광주의 정체성을 두고 옛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일은 부질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광주인구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100여 년 전인 1910년 일본 식민지가 되던 해 조선 8도(북한 포함) 인구는 1,300만명(당시 광주군 인구는 7만 8,669명)이었다. 그 인구가 1930년 2,000만 명이 되고 광복 전후 3,000만 명이 되었다. 6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고 남한인구만 2013년 5,00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의 경우 1966년 40만 시대가 되었고 1985년 100만명이 된 뒤 30년 만에 150만명으로 늘었다.



남부대학교 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수업 광경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 수가 눈에 띄게 많다.

이 같은 증가세를 눈여겨 살펴보면 1965년 전후 매년 6% 이상의 증가를 보이다가 1970년대 4%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은 6년 뒤인 2020년 180만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2년 증가율은 0.4%에 그쳐 6년 후 160만 도시도 어려운 형편이다. 1961년 가구당 6명이던 광주인구는 2012년 2.7명의 부부중심으로 변하고 매년 독거자 수도 늘어가고 있다. 출생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있어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57.8%로 매년 0.5%씩 줄어들고 있다.

그 동안 4만명 이상 광주로 전입해 광주인구성장의 공급원이 되었던 전남마저 전출인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2012년 이후 3만 6,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입이 줄어든 반면 서울 등지로 떠나가는 전출인구는 줄지 않아 전출입으로 인한 감소가 2,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성균관대학 배상훈교수는 10년 후인 2023년 호남인구 감소율은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

년 광주 신생아출생 수는 1만 4,392명으로 하루 39.4명꼴이고 사망자 수는 6,874명으로 하루 18.8명꼴이므로 자연증가 인구는 7,449명이었지만 2012년의 출생아동 수가 1만 4,000명을 넘어선 것은 5년만의 일이므로 출생자 수에만 기댈 수는 없다.

부부생활 여성 55.8%

문제는 가임여성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국내 평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2010년 15세 이상 시민 중 미혼남자 수는 22만 1,069명이고 여자는 17만 3,978명이다. 1980년대 미혼여자 수는 8만명에 불과하고 이혼 여자 수도 1,400명에 불과했으나 미혼여자는 배로 늘었고 이혼여자수도 2만 5,760명으로 늘어 매년 그 수가 늘어 가고 있다.

가임연령에 다다른 25~29세 사이 여성 중 미혼자 수는 3만 9,060명이고 결혼자 수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6,890명이다. 30~34세 사이 노처녀는 6,328명이고 40세~59세 사이 미혼 독신여자만도 5,463명이다. 광주시내 여성 중 부부생활 중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55.8%에 불과하고 44.2%가 독신으로 살고 있다. 광주시내 일반가구 수 51만 5,855집 중 28.6%인 14만 4,730집의 호주가 여성이다. 이런 세태에서는 신생아 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남자 중 짝이 있는 수는 57%로 여자보다 독신자가 적은 편이다.

어째서 이처럼 독신여성 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일까? 광주시민 중 여자 수가 남자보다 많기 시작한 해는 1991년이다. 이 해 남자는 58만 6,304명이었는데 여자는 59만 2,773명이 되어 여초女超 현상이 시작되었다. 2012년 광주시내 사업체 10만 5,931곳 중 42%인 4만 2,062 곳의 대표가 여성이다.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기른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증거이다. 광주시내 교직원 1만 9,089명 중 61.75%인 1만 789명이 여성이다. 그 중 초등학교 교사 1만 1,920명 중 79.8%가 여교사이다.



충장축제 때 다문화 고유 의상차림의 입장 퍼레이드

석·박사 여성 많아

여성 만혼의 이유 중 하나는 석·박사 과정을 밟는 여성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 석사과정 학생 64명 중 41명이 여성이고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717명 중 530명이 여성이다.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도 94명의 재학생 중 76명이 여성이다. 광주신학대학의 경우 신학대학원 이외의 5개 대학원의 석사과정도 모두 여학생이 많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등도 모두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많으며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도 여학생 수가 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출생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기왕의 교육시설운영에 큰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

2010년 1만 5,931명이던 취학적령 아동 수는 2013년 1만 4,355명으로 1,600여 명이 줄었다. 광주시내 학생 수는 662개의 학교에 36만 7,721명이다. 그 중 교육시설은 유치원 295개, 전문대 6개, 대학교 11개, 대학원 37개에 달하지만 매년 취학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주시 연령계층별 인구통계를 보면 2010년 현재 15~19세 연령층 청소년 수가 12만 610명이지만 10~14세 연령층은 11만 3,895명으로 6,725명이 적고 5~9세 계층은 8만 2,288명으로 3만 1,597명이나 적다. 마찬가지로 4세 이하 어린이는 7만 3,114명으로 위 연령층보다 9,274명이 적다. 결국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가 줄어들고 대학교 진학자도 줄어들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학구조 조정에 착수한 터이지만 전남의 적령아동 수 감소가 광주보다 심하고 광주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이 늘고 있어서 광주시내 각급 학교들의 학생정원 확보도 문제이지만 학교경영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는 시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인종에 상관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정책을 쓰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같은 정책을 입안할 것이지만 자치단체 나름의 거시적인 인구정책이

입안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에는 2012년 말 기준 1만 4,492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중국인으로 5,328명, 베트남인 2,499명, 인도네시아인 570명, 대만인 316명, 미국인 554명, 일본인 312명 순이다. 동별로 보면 하남동 1,774명, 용봉동 1,440명, 평동 1,012명, 건국동 908명, 어룡동 830명, 월곡2동 662명, 비아동 530명, 침단2동 308명 순이다.

국제결혼으로 광주에 시집 온 외국인 수는 501명으로 캄보디아, 태국, 몽골,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다문화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화 바람이 불어 영어교육이 국어교육 시간을 웃도는 현상은 민족의 해체를 염려하게 한다. 민족이란 혈연이나 피부색이 아니고 문화가 결정한다. 한민족을 눈여겨보면 단일 혈족이 아니라 반도 국가답게 다혈족 혼혈민족이어서 언어가 단일민족의 뿌리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각 씨족의 족보를 보면 60% 이상이 중국이나 몽골, 일본 등지에서 귀화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인 김해 김씨의 시조 할머니는 인도에서 시집 온 사람이고 멀리 아랍에서 설씨와 장씨가 들어왔으며 베트남에서 이씨, 양씨 등 네 성씨가 들어왔으나 오늘날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동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비좁은 탓인지 외래유입자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한 편이다. 광주가 인구감소로 500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성 예측을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극복할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중국과 다르게 여성이 출가해도 성을 유지하고 사회신분도 남자의 신분보다 여자의 신분을 우선시 한 조선시대 전통은 외침이 잦은 반도라는 지리환경에 적응한 슬기이다. 여자 종이 양반의 씨를 받아 자식을 낳아도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비가 되고 양반 본부인이면 보쌈으로 다른 씨를 받아 자식을 낳더라도 양반의 대를 이어온 전통이야말로 한국적인 문화였다. 비록 피부가 다르더라도 이 땅에 와서 낳은 아이는 한국인이다. 이 같은 전통이 이어진다면 한민족의 멸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5년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캐서린 문 박사가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1990년 전체인구의 1%에 불과했던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2010년 이미 3%에 이르렀고 2020년이면 5%, 2030년이면 10%로 증가해 오늘날 유럽국가들의 이주민 비율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는 이미 한국내 외국노동자수는 50만명을 넘어섰고 그 중 10%가 넘는 6만 5,000여명이 불법입국자들이다. 조선족 입국자 45만명, 탈북 입국자 2만 8,000명 외에도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만도 30여만명에 이른다. 이 새로운 한국인들은 한국 적응에 곤란을 겪고 2세 교육에도 이미 곤란을 겪고 있지만 북한과 통일할 경우 엄청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민족적 순수성을 정치적 정통성으로 삼고 있으므로 다문화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는 남한의 새로운 한국인들은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걸림돌과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4천명의 광주 피난민

“작전상 후퇴 보름 후 다시 수복” 믿었다가 ‘생이별’

1950년 6·25전쟁을 겪은 광주시민은 150만 시민 중 18%가량인 26만 6,000명으로 추계된다. 이 중에서 철들어 그 전쟁의 일부라도 기억할만한 연령층은 75세 이상이므로 그 수는 8만 6,000명 정도이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다수는 6·25가 과거의 역사일 뿐 체감할 수 있는 현실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중동과 아프리카의 종교전쟁이나 민족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보도를 본다. 한국에서도 65년 전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 북한주민의 월남피난이 일어났다.

현재 피난민 후손 수는 전 국민의 10%가량인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피난민 계열은 문화, 정치, 경제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6·25전쟁 때의 민족이동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이동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현상과 사회연구를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8·15 해방기와 6·25전후한 북한피난민의 월남이동에 관한 연구」를 1986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이인희씨가 석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한 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별로 없다. 지금도 삶의 터를 옮기는 인구이동은 계속되고 있는 터이지만 8·15 해방 후와 6·25 때의 이동은 살던 곳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을 피해 주거지를 옮긴 난민들이다. 이 같은 이동사례는 왕조의 패망이나 임진왜란 때도 있었던 터이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빈약하다. 다행히 해방기와



옛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 역할을 했던 광주시 남구 압촌동 정착마을

6·25피난민에 대한 개략적인 동향은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의 이동이 남한 정착지에 남긴 문화와 사회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특히 전남 지방에는 황해도 일대의 북한난민들의 임시정착지로 이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기록마저 정리되어있지 않다. 1960년대에는 이들에 의한 정착 성공사례 등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 대한 연구는 없다.

1948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월남민 수는 45만 6,404명이었다. 1949년 5월 말 외무부 발표 때는 64만 8,784명으로 늘었다. 외무부는 이들이 38선을 넘어 임시수용소를 거친 사람 수이고 이밖에도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 1만 3,476명, 만주에서 들어온 사람 30만 6,755명이 있다고 집계했다.

8·15 광복 이후 6·25 직전까지의 월남민 수는 그 추정치가 일정치 않으나 이인희 연구자는 대충 80만명 내외였을 것으로 보았다. 6·25피난민은 1955년 9월 1일 실시한 전국인구조사 때 파악한 자료가 있다. 이때 파악

된 피난민은 44만 9,929명이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실에서 펴낸 『한국전란 3년사』에는 61만 8,721명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1945년 8월 15일 이후 1953년까지의 8년간 월남자 수는 140만명 내외였을 것으로 어림 집계된다. 그러나 1959년 이북5도민회에서는 남한정착 북한사람이 500만 명이라고 주장해 뒷날 이산가족 찾기 때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통용되었다.

해방 후 월남민들은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토지를 분배당한 지주계층이나 공장근로자들 중 파면자 또는 춘궁기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남한의 미군정청 구호제도 소식을 듣고 38선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때 월남민들은 동두천, 청단, 토성, 주문진, 개성, 춘천, 의정부 등지의 수용소에 임시 수용됐다. 당시 38선은 양쪽에 경비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편지 왕래가 이뤄지던 때라 월경이 비교적 쉬웠다. 다만 1948년 남한정부가 독립정부를 선언하면서 경계가 강화되고 점차 월경이 어려워졌다.

6·25전쟁 때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한 1950년 10월 25일 이후 이듬해 1월 4일 철수작전 때 가장 많은 피난민이 월남했다. 이처럼 군사작전의 일부로 실시한 철수작전 피난민 외에도 전쟁 중 월남자와 북한군 포로 중 잔류자 등이 있었다.

2015년 1월 1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화제가 된 영화 ‘국제시장’의 무대는 바로 중공군 개입에 따른 철수작전으로 남한에 피난 온 함경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중공군은 1950년 10월 25일 국경을 넘어서 10일 만에 평남에 이르렀다. 12월 9일에는 강원도 산악지대를 장악해 원산, 함흥 일대 국군의 퇴로를 막았다. 12월 10일에는 서해안의 제주도 중공군 점령지가 되었다.

육로를 통한 평양철수는 12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때 5만명 가량이 육로를 통해 개성을 거쳐 서울로 들어오고 이틀 뒤 진남포를 통해 6만명가량의 평남사람들이 해로로 월남했다. 동해안의 원산철수는 12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7,009명, 함북 성진항에서는 12월 6일과 7일 사이에 1만 2,000명, 홍남부두 철수는 가장 늦은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군수송선 LST 빅토리아호(7만 6,000톤급)로 9만 8,000여명이 철수했다.(이인

희 논문 참조) 이 해안선 피난 작전에는 민간선박 193척도 동원되었다.

이듬해 1월 4일에는 또다시 서울이 위협을 받자 피난명령이 내려지고 수원 이남의 피난민소개 코스와 원칙이 정해졌다. 이때 전남은 광주, 목포,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의 진도, 해남, 완도, 강진, 고흥이 피난지구로 선정되었다.

평양과 평남 도민들은 12월 초순 피난했으나 그보다 남쪽의 황해도 사람들은 중공군이 12월 10일 해주를 거쳐 16일 백천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웅진, 연백지구 서해안 사람들의 육로 남하가 어렵게 되자 피난 중 가장 늦은 1951년 1월 7일부터 황해도 서해안 피난민 구출작전이 시작되어 6만 2,082명을 소개시켰다. 이 황해도 사람들은 군산과 목포, 여수에 수송된 뒤 앞서 지정한 피난지구에 배정되었다.

광주에는 3,000명 가량의 황해도 웅진사람들이 목포를 통해 기차로 송정역에 수송되어 이곳 통운 및 농협창고에 수용되었다. 이때 진도군에는 황해도 장연, 송화군 피난민 3,000여명이 배정되어 3개 피난민촌에 정착했다. 광주에 수송된 웅진군 피난민들은 3주간 미군들이 제공하는 구호식량으로 끼니를 잇다가 국유지나 사유지가 많은 곳으로 분산 배치됐으나 그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1955년 인구 조사 때 광주에는 4,007명의 피난민이 있었고 그 중 2,310명이 동남기 피난민이라는 통계가 있다. 별도로 광산군에도 403명이 있었다.

당시 피난민으로 정착해 살고 있는 남구 압촌동 정착촌마을 김세출씨는 자신이 두 살 때 부모와 함께 피난왔다고 했다. 그의 가족은 광산군에 도착한 뒤 당시 군에서 이곳 국유지를 개간해 살도록 21집의 웅진군 사람들을 정착시켜 처음에는 구호곡으로 연명하면서 국유지 1,000평을 개간해 정착했다고 했다. 그러나 개간지만으로 살 수 없어서 간척지가 있다는 경기도로 떠나고 고향과 가까운 인천이나 의정부로 떠나 지금 이곳에는 김씨 집만이 살고 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도시로 나가 장사를 하거나 기술을 익혀 생활한 피난민들은 모두 살만큼 되었으나 자신처럼 농사를 짓고 정착한 사람들은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곳 정착촌은 석정동 내동과 이웃한 개

발제한구역으로 압촌동에 가서 이 동네를 물으면 석정동 내동으로 찾아가라고 말할 만큼 외진 동네이다.

북한 피난민이 전 주민의 50%가 넘는 곳은 강원도 양양군(68.4%)과 고성군(59.9%)이다. 속초시도 피난민이 시민의 20% 이상이다. 철원, 양구, 파주도 20% 이상이고 부산, 인천, 수원, 포천, 가평, 화천, 인제는 10% 이상이다.

1960년 인구조사 때 남한 내 북한 피난민의 34.8%는 황해도 출신이고 21.8%가 평남, 20.8%가 함남, 17%가 평북, 5.6%가 함북 출신이었다. 피난민의 42.4%가 서울, 20.4%가 경기, 11.4%가 경남, 8.8%가 강원도에 집중해 있었다. 피난민 중에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싫어서 피난길에 오른 경우가 많았지만 유엔군이 “작전상 후퇴했다가 보름 정도가 지나면 수복해 돌아온다.”는 말만 믿고 가족과 헤어져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군인들을 따라 다니다가 오늘날의 휴전선이 고정되면서 강원도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다.

전남에는 주로 황해도 사람들이 살았고 함경남도 사람들은 주로 경상도에 많이 정착했다. 전남에는 황해도 피난민 1만 310명이 와 있었다. 1955년 조사 때 광주 2,310명, 무안 1,710명, 여수 1,565명, 진도 1,136명, 해남 709명, 광산 403명이었다. 국내에서 피난민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부산으로 7만 8,478명에 달했고 거제도에 5,027명이 살았다. 인천에 2만 5,677명, 포천군에 1만 2,576명, 양주군에 1만 1,537명, 철원군에 1만 7,113명, 고성군에 1만 5,196명, 양양군에 4만 8,722명, 전북 군산에 5,863명, 대전시에 6,760명, 대구시에 1만 2,938명이 몰려 살았다.

광주시의 피난민 수는 6·25 전쟁기에 4,007명이란 1955년의 통계가 있으나 그 이후 이동에 대한 자료는 없다. 1955년 광주시 인구통계자료가 남아 있다면 당시 어느 동네에 피난민들이 몰려있었으며 생업이 무엇이었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광주 남구 사직공원 남쪽 기슭에 있는 충현원은 오늘날 전쟁고아박물관으

로 개조되었다. 본디 이 육아시설은 미국남장로교 선교사들이 1949년에 세운 영아시설로 6·25 때인 1952년 정식으로 모자원 시설인가를 받아 120명을 수용했다. 1957년 모자영아원으로 바꾸고 1972년 보육사업에서 손을 떼 뒤 탁아 어린이집 겸 아동상담소가 되었다. 오늘날 이곳에는 6·25 때 전쟁고아 1,059명을 인천에서 제주로 수송한 미국공군 군목 블레이즈 텔 대령의 동상과 멕시코의 세바스찬이 조각한 평화의 비둘기탑이 서있다. 텔 대령은 그가 겪은 6·25전쟁과 고아들의 수송과정을 담은 출판물의 판권을 이곳 전쟁고아박물관에 기증했다. 그는 충현원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육아시설이 6·25전쟁 때 공헌한 인연을 찾아 이곳에 6·25전쟁 당시의 고아관련 자료들을 기증한 것이다. 6·25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전쟁보다 많은 희생과 국민대이동을 겪게 한 비극의 역사다. 당시 이 전쟁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한 문화적 사회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멕시코의 세바스찬이 조각한 평화의 비둘기탑(충현원)

Ⅱ : 광주의 외국인

다문화 시대 맞아 순혈 국수주의에 빠진 대한민국

『삼국유사』를 보면 김해 김씨 시조인 수로왕이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과 결혼한 설화가 실려 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국내 현존 김해 김씨와 허씨·인천 이씨 등 480여만명은 2천여년 전 한반도에 시집 온 외국인 인도여성의 다문화 가정 자손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보면 신라 6촌 사람들은 중국 진시황 때 도망 온 진한의 유민들이라 했다. 6촌 성씨의 대표라 할 만한 경주 최씨 최치원이 쓴 ‘쌍계사 진감선사탑비’를 보면 진감선사의 속성은 최씨이고 본디 그 선조는 중국의 한족漢族이란 대목이 있다. 경주 김씨 출신 왕인 문무왕의 비문에는 경주 김씨 2세의 이름이 성한星漢이다. 1928년에 간행된 『조선씨족통보』 경주 김씨 항목에 보면 김성한은 소호 김천씨 집안의 김일제金日禪의 후손이다. 김일제는 흥노 휴도왕休屠王의 아들이고 투땅땅의 제후가 되어 소호 김천씨 제사를 지냈다. 문무왕 비문 중에는 투 땅의 제후이며 소호 김천씨 제사를 맡았던 집안의 후손이란 명문이 있어 경주 김씨들은 그 선조의 가락을 중국의 김일제에 대기도 한다. 현존 한국의 박씨들은 박 속에서 태어나 박씨라 한다는 설화로 분식하고 있으나 본디 이 집안은 활을 잘 쏘는 동호족의 일파로 중국에서 건너온 씨족으로 보기도 한다. 한韓씨, 기奇씨, 선우鮮于씨의 3성은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하는 등 한반도 현존 성씨들은 한결 같이 그들 선조가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정리하고 있으므로 사실 여



이른 아침 삼삼오오 짝을 이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 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광산구 월곡동 일대 ‘고려인 마을’에는 고려인들을 위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등이 있다.

부를 밝히기 어렵다. 이 같은 기록들을 정리해 필자가 엮어낸 책이 『한국의 귀화성씨』(지식산업사, 2003년 출간)이다. 본디 이 책을 기획한 것은 짝을 구하지 못해 중국이나 필리핀, 태국 등지로 신부를 구하려 물밑듯이 몰려갔던 1990년대에 일부 농촌주민들이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외국 신부들을 보는 경향을 고쳐보고 싶은 심정에서였다. 당시 이 외국인 신부들이 낳은 아이들은 6·25전쟁 때 태어난 양공주들의 자식들을 ‘트기’(혼혈아)라는 이유로 괘시를 받았듯 차별받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단군왕검 단일선조의 후예라는 그릇된 순혈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지구촌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다. 다행히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고 국가도 심각성을 인식해 ‘다문화가정’이란 색다른 이름으로 차별성을

순화시키면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다. 그렇더라도 계속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나 신부들이 스스로없을 만큼 동화되기까지는 문제가 첨첩산중이다.

2014년 1월 현재 광주시내 외국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5,336명으로 그 중 2,172명은 국적을 취득했으나 60%가량인 3,164명은 아직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있다. 광주시내에는 이 같은 결혼이민자 외에 유학생 3,202명, 취업근로 외국인 6,737명, 방문비자를 가지고 취업하러 들어온 재외동포 1,740명이 살고 있다. 이들 외국인은 총 2만 4,466명으로 이들 사이에 낳은 혼혈아동 수는 4,997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가 중국인으로 5,934명이고 2위가 베트남인 4,576명, 조선족 3,833명,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1,246명을 포함한 재외동포 1,740명, 기타 외국인이 2,454명이다. 1970년에도 광주에는 외국인 761명이 살고 있었다. 1985년 22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1992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07년 1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유학생들이 몰려 있는 용봉동에만 1,497명의 외국인이 살고있으며 산단이 있는 하남동에 1,815명의 외국근로자들이 몰려 있다. 역시 산단이 있는 평동에 1,183명, 어룡동에 891명이 몰려있어 2010년 이웃 삼도동 남초등학교에 외국인 어린이들이 다니는 정원 75명의 새날학교(교장·이천영 목사)가 세워졌다. 2008년 구 소련에 속해 있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방문 취업비자를 가지고 광산구 일대 산단에 일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100명 미만 이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2009년 말 250명, 2010년 400명, 2013년 700명으로 늘어나면서 월곡동 일대에 고려인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2013년 말 현재 월곡1~2동에 살고 있는 고려인 수는 1,267명이고 이웃 우산동에 295명, 비아동에 468명의 외국인들이 몰려있어 고려인끼리 협동조합과 교회,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유입 외국인들은 산단 이웃지역에 몰려있지만 아직 안산시나 영등포구 대림2동 등처럼 외국인 특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내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불평인데 외



광주 유입 외국인들은 산단 이웃 지역에 몰려 있지만 외국인 특구는 없다.

국민들은 한국을 일자리천국이라면서 기회의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 월곡동 고려인센터의 신조아씨는 고려인들의 일자리는 단순노동이고 한국어가 서툴러 최하위 임금을 받지만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지역 임금보다는 2배가량 많아 방문비자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전남대학교 임채만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고려인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이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100만원 미만도 13%에 달한다. 고려인센터의 신씨는 150만원을 받더라도 월세 방값 30만원과 전기세, 수도세, 식비 등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데 대부분 2~3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들어와 어린이 보육이 큰 문제라고 했다. 물론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병이 들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어 공부뿐 아니라 저축액 1,800만원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해 3년간 애써 벌어들인 1,800만원을 저축하기 불가능하고 취업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할 겨를도 없다고 푸념이었

다. 다행히 이천영 목사가 새날학교 교장을 맡아보면서 월곡동 고려마을교회, 어린이집, 아동센터, 상담소, 협동조합 등을 운영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목사는 고려인들을 돕는 여러 기구를 한데 모아 센터 건물을 세우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려 1억 4,000여만원을 마련, 2015년 8월 센터를 준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2001년에 들어왔다는 신조아 씨는 탈북동포들에게는 정착교육기관도 있고 정착금도 준다는데 우리들은 재미동포나 재일교민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보도를 보면 출생률이 낮아 앞으로 청년일꾼이 고갈될 것이라면서도 출생률이 높은 고려인들의 국내정착에 대해서는 둔감하다고 푸념했다. 국적취득도 안 된 고려인들이 광주에 들어와 낳은 어린이만도 30명이 넘는다면 미국처럼 이 어린이들에게는 자동국적취득제도가 생긴다면 미래를 대비한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선족들이 가족을 중국에 두고 돈을 벌러 오는 것과 달리 구 소련의 고려인들은 온 가족이 옮겨 오는 것이 다르다. 소련이 해체된 뒤 민족별로 독립하면서 새독립국가마다 민족어를 쓰는 바람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지의 고려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유대계 영국인 팀 알퍼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만큼 차별이 강한 국가가 없다. 유대인차별반대단체인 ADC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차별성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일본이 23%, 중국이 20%인데 견주어 한국은 53%가 차별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일제식민지시절 배양된 민족감정이 남달라 다른 민족과의 차별의식이 강하다.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길러진 민족일체감이 남북 분단 후에도 통일을 전제로 단일민족을 지나치게 강조해 강박관념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본인 이토 요라코(伊藤 友子)가 쓴 『병으로서의 한국』이란 책과 러시아인에서 한국에 귀화한 박노자 씨의 책 『당신들의 대한민국』이 민족순혈주의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로 인력을 보충해온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새로운 보수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아동의 안정적 정착과 동화는 닥쳐올

미래에 청년인력 고갈의 재앙에 대한 슬기로운 대비이다. 만일 이들이 차별 없는 국민으로 동화되지 못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된 뒤 사회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계 이민이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피부색이 전혀 다른 노동자들도 찾아들 것이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관념도 고쳐가야 할 당면과제이다.

근래 미국 하버드대학 데이비드 라이히 교수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자연인류학회 연례회의에서 재미난 연구를 발표했다. 현생 인류는 8,000년 전에는 같은 피부였으나 사는 지역에 따라 피부색이 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2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들이 유럽에 건너갔던 8,000년 전에는 아프리카 원주민과 같은 검은 피부였다. 유럽에서 채취한 고대인의 유전자분석결과 7,700년 전ैया 유럽인 유골에서 하얀 피부 유전자와 푸른 눈, 금발머리 유전자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피부를 하얗게 하는 유전자는 터키와 이란 등지 서아시아사람들이 유럽에 옮겨가 유럽고대인들과 섞이면서 생겨난 혼혈로 백인이 탄생했다. 라이히 교수는 사람은 햇빛을 받아 비타민D를 합성하는데 햇빛이 비교적 적은 지역일수록 피부색이 열어야 비타민D의 합성이 쉽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피부색이 백인을 만들었다는 이론이다. 모든 민족은 삶을 꾸려온 지역환경에 따라 피부색이 달라지므로 피부색에 의한 인간의 우열이나 차이는 없다. 다문화가정시대에 명심할 인종적 편견이나 민족개념은 수정해야 하겠다.

： 노비 값 40섬

동물처럼 매매되거나 자손에 유산으로 분배

조선시대말기 법전인 『대전회통』(1865년)을 보면 16세~50세 사이의 노비 값은 저화槥貨 4,000장이고 그 외의 노비 값은 3,000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닥종이로 만든 돈 1장은 쌀 1되와 바꿀 수 있었으므로 저화 4,000장은 쌀 4,000 되이고 말로 따지면 400말(40섬)이다. 실제 거래 때는 말 1필과 바꾸기도 했다. 노부는 남자노예이고 비첩은 여자노예이다. 이때의 노예들은 관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사노비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매매되거나 자손에게 유산으로 분배되는 신분이었다. 노비들은 병역의무나 부역, 세금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구조사의 대상도 아니었다. 다만 호구조사 때 각 세대주는 호구단자를 제출하면서 노비의 이름이나 나이는 신고하지만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구미라고 숫자로 신고했다. 인원人員은 과세대상이 되는 신분에게 속하는 사람이고 인구人口라 할 때는 노비까지를 포함한 말이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구人口조사 때의 인구에는 노비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 노비가 얼마나 살았던가에 대한 통계는 남아있지 않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였다. 신분은 크게 사대부士大夫와 서민庶民, 천민賤民으로 나뉘었다. 사대부 중 대부大夫는 관료직 신분이고 사士는 흔히 선비라 부르는 관료에 오르지 못한 유생幼生, 학생學生 등을 일컬었다. 서민은 양민

良民 또는 상민常民이라고도 불렀지만 직업에 따라 농農 공工 상商으로 구분하고 상업자를 가장 낮춰 보았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號牌가 각각 주어졌다.

벼슬이 2품 이상인 관료들에게는 상아로 만든 아패牙牌를 주고 그 이하의 관리들에게는 쇠뿔로 만든 각패를 주고 생원, 진사 등 시험에 합격한 선비들에게는 황장목으로 만든 호패를 주고 지방공무원인 향리鄉吏와 서민들에게는 소목방패를 주고 천민에게는 대목방패를 주었다. 이 호패는 길이 1치7푼, 너비 1치3푼, 두께 2푼으로 만들어 주소, 이름, 직업, 본관, 나이, 키를 쓰고 사는 고을의 이름을 낙인해 발행했다. 모든 사람들은 여행 때 이 호패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했던 것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지참과 같다.

관노비는 관청마다 노비 정원이 있었다. 광주목의 관노비 정원은 450명이었다. 향교와 역에도 관노비가 있었다. 광주향교 노비는 30인, 경양역의 노비는 50인이었으나 이 정원이 잘 지켜지지 않아 곳에 따라 3~4배수의 인원을 두기도 했다. 『여지도서』 경양역의 기록을 보면 정원의 다섯 배인 259명이 노비였다. 양민이 노비와 관계해 낳은 자식은 노비인 어머니 신분을 따랐다. 다만 양반이 자기 노비를 겁박해 낳은 자식은 양민 신분을 얻기도 했으나 천출 또는 서출이라 하여 차별을 받았다. 관청 아닌 일반백성이 거느린 노비는 사노비 또는 사전私錢이라 했다. 노비끼리 결혼시켜 낳은 자식들은 모두 부모노비의 주인 소유가 되었던 탓에 문벌 있는 집안의 경우 그 수가 200명을 넘는 집도 있었다. 해남 윤선도 집안의 경우 200명이 넘어 30여명은 술거노비라 하여 본집에 두고 가사를 돌보게 했으나 나머지 노비들은 각지에 파견해 독립 생활을 시키되 그 소득을 거둬갔다. 이런 노비들을 외거노비라 했다.

광주지방의 사노비는 일부 호구단자에서 살필 수 있다. 북구 오룡동 860번지에 살던 이무李茂(1671~?)의 1690년 호구단자에는 노비이름 8명이 나온다. 같은 동네 이원식李元植(1635~?)의 1690년 호구단자에는 노비이름 7명이 나온다. 월출동 340번지에 살던 허옥許沃(1760~?)의 1807년 호구단자를 보면 3명의 노비이름과 함께 도망노비들의 이름이 나온다. 이들 가계의 신분

이 유생으로 농사를 짓는 처지였지만 가족 수보다 많은 수의 노비를 두고 있었다. 다만, 조선후기로 올수록 도망노비가 많아 시대사정을 살필 수 있다.

한국노예 해방은 120년 전

한반도의 노예해방은 120년 전인 1894년 갑오경장 때이다. 이 해에 공포한 칙령 23호는 공사노비의 문서를 없애고 인신매매를 금한다고 했다. 이 같은 한국의 노예해방은 미국보다 32년이나 늦다.

전라도 지방에는 해남 화원의 구한말 호적, 곡성호적 등이 남아있으나 경상도보다 많지 않다. 1690년의 경상도 대구부 호적장부에 나타난 노비 수는 인구 13,913명 중 43.1%인 5,992명에 달했다. 이 비율은 심한 경우 이지만 보편적으로 주민의 20%가량이 노비였던 것 같다. 갑오경장 직후 『진도군 사례성책』을 보면 관노비 수가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노비가 해방되어 오늘날 평등한 신분이 되었지만 미국처럼 피부색이 다르지 않아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다행이다. 갑오경장 이후 족보 간행이 자유스러워지면서 국민의 20% 내외에 달하던 노예 신분은 양반가계에 편입되어 신분이 탈색되었다. 학문적으로 노예신분의 흔적은 1909년 오늘날 쓰고 있는 호적의 최초의 기록에서 더듬을 수 있다. 호적신고 당시 신고자로부터 위로 4대 조까지의 이름을 적고 직업을 적도록 했기 때문이다. 직업난에 고공, 협호, 일고 등으로 적은 가계는 대부분 노비신분들이었다. 이때 노비들은 주인의 성을 많이 따랐다.

미국에서는 피부색을 탈색하지 못한 탓인지 아직도 노예시대 얘기가 소설로 나오기도 하고 흑백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노예 12년’도 미국 노예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흑인 연주가 솔로몬 노섭이 1841년 워싱턴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노예상인에게 납치되어 루이지애나 주의 한 농장으로 팔려갔다가 12년 만에 구출된 얘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감독인 스티브 매킨은 “아직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들 핏속에도 120년 전까지 지속되어온 노예와 주

인의식이 잠재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우리선조들 중 많은 수가 일본에 잡혀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멀리 이탈리아까지 팔려가기도 했다.

광주에도 노비제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남구 월산동 947-4번지에는 광주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포충사가 성역화되어 있다. 이 사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끈 고경명과 그의 두 아들 종후(從厚), 인후 및 금산싸움 때 같이 순절한 유팽노, 안영을 모신 곳이다. 환갑이 넘은 선비가 아들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섰다는 그 충의를 높이 사 임란 직후인 1603년 이곳에 사우가 세워졌고 이듬해 광주에서 맨 처음 사액서원이 되어 정원 20명의 생도를 둔 학교로도 이용되었다. 이 사우는 고종 때 전국의 서원을 헐어낼 때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철거당하지 않았다. 1978년 새로 성역화하면서 경내면적은 1만 5,000여평으로 늘어났다.

병자호란 때 척화론의 선봉에 섰던 김상헌 예조판서는 이 사우에 이르러 “슬프고 슬프다. 이 싸움이여! 고금 어디엔들 전쟁이 없었으리오만 어찌 부자가 같은 날 나라를 위해 죽은 일이 있었으리.”라고 시를 읊었다. 고씨 집안에서는 그의 숙부 경형(敬興)이 종후와 함께 1593년 진주성싸움 때 죽었다. 또 다른 고경명의 동생 고경신과 고경명의 딸이자 노상용의 부인, 조카며느리 광산 정씨 등도 죽었다.

이곳 포충사 언덕에는 다듬지도 않은 자연석에 이 집 종이었던 봉이(鳳伊)와 귀인(貴仁)의 비가 있다. 이들은 금산싸움에까지 주인을 따라갔다가 주인인 고경명이 전사하자 그 시신을 거두어 집으로 옮겨왔다. 이듬해 고경명의 큰아들 종후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진주성싸움에 나서자 또 따라가 싸우다가 주인과 함께 죽었다.

조선시대 종들은 성이 없었다. 자식을 낳아도 팔려가기 일쑤라 가통을 이을 수도 없었다. 본디 병역이 면제되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충원된 대상이 노비였다. 사람의 형체를 갖췄으나 노새나 말처럼 주인의 재산이 되어 팔리거나 상속되던 노예가 120년 전까지 엄연한 사회제도였는 데도 노



포충사 언덕에는 봉이와 귀인의 충노비가 있다.

예제를 다룬 문학작품이 없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한 한국풍토이다. 문화유적 조사에서도 이 같은 천민들의 흔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셋집살이 시민 40%

시민 40% 집 없는 설움… 가장 뒤떨어진 주택복지

의식주는 생활의 3대 기본요소이다. 경제형편이 풀리면서 입고 먹는 문제는 생활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큰 걱정을 덜었다. 이 때문에 국가복지 정책도 구호복지보다 건강복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선화하고 있다. 문화향수도 복지의 개념에 포함시켜해 각종 시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후진된 분야가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주는 주택복지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주의국가들도 비록 좁을망정 결혼해 가정을 이룰 경우 정부가 주택을 배정해준다. 선진국일수록 장기임대주택제도를 일반화해 비록 자기소유가 아니더라도 사는데 불편이 없는 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집은 내 집이라야 한다는 소유개념이 강한 한국에서 아직도 집 없는 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이 40%에 달한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등록임대사업자 중 국내 최고와 두 번째 사업자가 광주에 있었다. 광주 최고 임대 사업자가 임대 중인 집은 2,312채이고 두 번째 사업자의 집은 2,062채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975년 광주에는 11만 7, 413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주택은 6만 9,360채(59%)뿐이었다. 나머지 집 없는 사람들은 방풍집이라고 불렀던 붉은 시멘트 기와를 올린 날림 기와집의 상하방 셋방살이를 하거나 새로 유행한 2층 양옥집 중 2층방에서 세살이를 했다. 당시에는



천안지구 내 고층 아파트와 일반 주택들이 대조를 이룬 모습

집을 가진 사람이면 2층이나 단층 개량식 한옥의 대청 옆 상하방을 세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2012년 말 통계를 보면 광주시 주택율은 102.5%로 주택수(54만 5,060채)가 세대수(55만 6,487)보다 많았다. 이처럼 집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삭월세살이 시민은 1만 4,321세대이고 월세살이 시민은 10만 8,372세대(21%)이며 전세생활가구는 7만 9,085세대(15.3%)였다. 이 통계는 결과적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영세시민이 많음을 말해준다. 광주임대사업자들은 남아도는 아파트를 용자를 받아 싸게 사들인 뒤 임대업을 하고 있다.

맨션과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한국에 아파트가 도입된 것은 1930년 일본인들이 서울 충정로에 도요타^{豊田}와 삼국^{三國}아파트(회현동)를 지은 것이 시초이다. 광주에는 1969년 광주천변의 판자촌 철거민들을 위해 광천동 650번지

에 지은 4층짜리 3동을 시영으로 지어 9평씩 184세대를 입주시킨 것이 시발이다. 이듬해 학동 898-20번지에 44세대, 13평형(42m²) 3층 2동을 지었고 1971년에는 산수동 463번지에 공무원 아파트(30평형) 187세대 6동을 지었다.

맨션은 본디 대저택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비교적 고급아파트를 이르는 말로 바뀌어 금남로2가 체신청 산하 전신전화건설국 자리에 1977년 10층 50평짜리 고급아파트를 지어 금남맨션이라고 했다. 주택공사 아파트는 1975년 쌍촌동 232번지에 5층짜리 13평형 아파트를 지은 뒤 1983년 화정2동에 11~18평형 2,900세대 96동을 지었고 1985년 염주동에 14~19평형 42동을 지어 1천 118 집을 입주시켰다. 1979년 운암주택단지에 13~24평형 149동을 지어 5,613세대를 입주시켰다. 오늘날에는 휴먼시아라는 상호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다. 1980년대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벌써 구식 서민아파트 취급을 받아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광주의 아파트 붐은 시영과 주택공사가 주도했으나 1977년 우진건설이 5층짜리 5동을 지은 뒤 수지맞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방건설업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서울의 대형건설업자들도 광주의 주택 시장에 참여했다.

1975년 광주시내 주택통계를 보면 기와집 5만 9,760채, 초가집 6,476채, 함석집 215채, 콘크리트집 2,669채가 있었는데 당시에 아파트는 콘크리트집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택통계에서는 기와집, 초가집은 없고 아파트, 연립, 단독 등 구분만 있을 뿐이다. 2012년 말 광주시내 주택 55만 6,487세대 중 아파트는 35만 1,248세대로 63.1%를 차지한다. 1975년 말 기와집, 초가집, 함석집 수가 전체주택의 95%를 점하던 시절도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 아파트 초창기에서 머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은 화장실 겸 욕실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것이 무슨 오랑캐집이냐”며 분개했던 일도 먼 얘기가 되었다.

한편 아파트 확산과 더불어 세월이 흐를수록 세대원 수도 줄고 있다.



광주 첫 아파트 광천시민아파트. 1969년 광주천변 판자촌 철거민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로 광주 아파트 건설의 시발이다.

1965년 광주시민들은 한 집에서 평균 6.3명의 가족이 생활했다. 15년 뒤인 1980년 4.8명으로 줄고 1991년 3.7명으로 감소한 뒤 2012년 세대당 인구는 2.7명에 불과하다.

가족의 붕괴

광주시민 중 방1개짜리 집에서 사는 가구는 6.2%인 3만 2,215세대이고 방2개짜리 집에서 사는 가정은 5.8%인 2만 9,893세대, 방3개짜리 집에서 사는 가정은 14.4%인 7만 4,178세대이다. 광주시 통계에는 없으나 2005년 말 전국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집이 전 국민의 10.5%로 2020년에는 29.6%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혼자 살더라도 옛날처럼 한옥이었다면 빈방을 세주어 고독을 달랠 수 있지만 비둘기집처럼 이웃과 폐쇄된 채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면 고독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내 여성 가구주는 28%인 14만 4,330세대이고 65세 이상 혼자 사

는 할머니는 4만 424명,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8,015명이므로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자식도 이웃도 모르게 죽어가는 비극은 해마다 늘어갈 수밖에 없다.

1970년대 아파트는 5층 이하·20평 이하의 소형이었으나 1980년대 15층으로 고층화하면서 난방도 중앙집중식으로 변했다. 1991년 무등파크가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은 다음 1992년 모아와 라인이 25층짜리 아파트를 지었고 분양면적도 135m²(45평) 이상으로 늘어나 230m²(80평)형까지 생겨났다.

규모별 통계를 보면 60m²(20평) 이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48%인 15만 6,066집이고 60~100m²(20~34평) 중형이 41.78%인 13만 7,048집이며 100~130m²(34~44평) 중대형이 6%인 2만 69집, 그이상의 대형규모가 4.6%인 1만 4,812집이다.

단독주택 중에도 100m²~230m²의 호화주택이 4만 5,475세대에 달해 아파트의 대형화를 앞지르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자들이 주도하는 아파트나 호화빌라들은 전통이나 주택주의 개성보다 시대유행에 따라 획일화되어 문화유산으로 남길만한 가치가 없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연평균 5%가량씩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재테크 대상으로 매력을 잃었고 대신 아파트임대전문업이 다른 지역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대당 가족수가 출산율이 낮은데다 독신 여성과 독거노인 수가 늘어갈수록 중소형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왕의 중대형 주택이나 아파트는 월세나 전세, 학생자취방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늘어갈 것 같다.

사라지는 전통 주택

광주의 전통주택 평면이 일자一字形인 양식이었다. 농촌지대는 사랑채와 뒷간 겸 축사가 뒤따르고 양반집들은 집안 내에 사당을 두기도 했다. 구한말 일제초기들어 상업이나 농지투자로 돈을 벌었던 정낙교의 집과 최상현의 집이 시지정 민속자료가 되어있다. 김용학의 집(자료3호), 고원희의 집(자료8호), 김봉호의 집(자료25호)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오지호의 집(기념물6호), 춘

설현(기념물5호), 박용아의 집(기념물13호)은 가옥의 가치보다 그 집에서 산 예술가를 기념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양림동의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집과 건물들은 개화기의 서양식 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광주에 들어와 1만여명이 살았고 많은 집을 지었으나 광주는 그 흔적을 유적으로 보존하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 관아는 물론 그 터마저 보존하지 않은 도시이므로 옛 것을 보존 않는 것을 오히려 특색으로 삼아야 할 판이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시멘트 블록과 기와가 개발되고 광주의 담벼락은 시멘트 블록 일색을 이뤘다. 1970년대 잣고개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풍향동 일대는 자주색 시멘트 기와를 올린 방풍집이라 이르는 집장사 한옥이 가득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길 따라 지은 상가 겸 주택, 2층 목조장옥木造長屋이 충장로 일대의 전형적인 건축물이었다.

기와집 대신 반양옥이라 하여 시멘트로 지은 1~2층집이 무더기로 들어선 것은 1970년대 세계개발은행 차관 도입 때였다.

1966년 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 공포된 뒤 주택단지는 구획 정리된 땅을 100평 단위로 분양하면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월동, 백운동, 월산동 일대 순환도로 변에 조성한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1976년 669채의 국민주택형 반양옥을 지었다. 1979년에는 하남공단 배후택지인 신창동에 1,076필지를 분양해 10~25평 집을 조성했다. 주택의 노후율을 2%로 보고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므로 소형아파트는 다시 고층 아파트단지로 바뀔 것이다. 이제 주택은 행복지수에서 가장 선결요건이고 복지의 대상이므로 광주광역시시는 주택과나 건축과가 건축허가나 준공 등의 행정은 건축사들에게 맡기고 값싼 주택공급, 부담 없는 임대주택정책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행복한 시민 생활의 첩경은 걱정 없는 내 집 마련이다.

: 광주시민의 효도

효덕동은 청주 한씨 형제를 칭찬하기 위해

광주의 효자 행적을 보면 손가락을 깨물어 사경을 헤매는 부모의 입에 피를 넣어드렸다가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여 드렸다는 내용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많은 행적은 2년 시묘를 했다는 내용이다.

30년 전인 1985년 필자는 전남도의 의뢰를 받아『전남 문화 유적 총람』을 집필한 적이 있다. 이 조사는 현장조사가 아니라 그 동안 지역별로 간행된 보고서나 기록을 토대로 시군별 문화유물유적 2만 5,184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때 도내 비석은 1,814기였다. 비석 세우는 풍습은 그 이후에 더욱 크게 유행했으므로 아마 500기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재미난 것은 고흥군에 비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286기에 달해 시군 평균 65기의 4배를 넘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이 함평으로 141기, 3위가 장흥으로 128기였다. 당시 광주시내 비는 41기, 광산군 비가 48기였으므로 지금의 광역시로 따지면 89기였다. 이 중 선정비와 기념비가 21기였고 나머지 68기가 효자와 열녀비였다. 참고로 선정비가 많은 고을은 해남 56기, 진도 49기, 장흥 47기 순이었다. 종류에 따른 비석의 많고 적음은 그 지역의 향촌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조선사회에서는 서당에서 천자문에 이어 추구(推句) 또는 명심보감(明心寶鑑), 효경(孝經) 등 교재를 통해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백행(百行)의 근본이요 만물창조

하루에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즐겨찾는 광주 빚고을노인건강타운



의 원리임을 배웠다. 또 대학과정이라 할 향교나 성균관에서도 맹자, 논어, 중용, 예기 등 여러 책을 통해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효경』이란 책은 공자와 그의 제자인 증자^{曾子}가 효도에 대해 논한 책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덕^德의 근본이다, 사람의 신체와 털이나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손상시키지 않음이 효도의 시작이다, 즉 신체발부 수지 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효도는 곧 천자나 제후, 사대부들이 몸소 실천해야 할 근본이고 선비나 서민들도 천지불변의 법칙과 질서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강조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도 효를 근본으로 하여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을 장려하였다. 물론 불교에서도 효도를 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부모은중경』이나 『효자보은경』 등을 통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강조했다. 서양에서도 고대 로마시대에 키케로란 사람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선행의 기초임을 강조한 글을 남겼고 『구약성서』도 여러 곳에서 부모와 시부모에 대해 공경을



암촌동 고씨 삼강문

강조한 대목들이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가 인간의 근본윤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교를 국가통치이념으로 정한 조선왕조는 법으로 효도를 규정하고 『예전』 禮典 장려항목에 매 3년마다 효열충신을 골라 정려를 내리거나 벼슬을 주고 서민에게는 호역戶役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특히 삼강행실의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뽑아 백성들이 알기 쉬운 국문으로 쓴 책을 간행, 배포하기도 했다. 이처럼 효행을 중히 받들었기 때문에 벼슬자리에 있다가도 부모의 상을 당하면 벼슬을 그만두고 3년상을 치르도록 했다. 고향에 늙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고향에서 3백리 안쪽 고을의 수령을 맡겨 효도하도록 배려했다. 광주 절동의 늙재 박상朴尙은 1519년 기묘사화 때 어머니 상중이었으므로 화를 면했다.

『광주읍지』 1924년판을 보면 효자와 효녀 479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 옛 읍지들은 간단한 연혁과 현황과 함께 고을이 배출한 인물로 채워져 있다. 이 인물 중에는 과거합격자나 벼슬을 지낸 인물, 생원과 진사합격자, 증직자 이름 등이 많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명은 효자, 효녀와 열부이다.

『광주읍지』의 효자란 첫머리 인물로는 광주토박이였던 광주 노씨 노준공

盧俊恭의 이름이 나온다. 손가락을 두 번이나 잘라 어버이에게 피를 마시도록 하고 돌아가시자 2년 시묘를 한 효행이 알려져 나라에서 절효節孝라는 시호를 내리고 정려각을 세우도록 했다. 본디 읍지에는 조선시대의 효행자 3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읍지에 효행자로 이름이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풍습이 유행하면서 읍지를 만들 때마다 표창과 상관없이 읍지 편찬자들이 신증新增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새로 200여명씩 새 인물들을 집어넣으면서 읍지들의 효자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효행과 관련 일화도 많다. 남구 효덕동은 청주 한씨 집안의 형제효자를 표창하기 위해 동네이름을 효우동이라 한 것에서 비롯됐다. 북구 석보면 석저리는 이 마을 출신인 김덕령 장군이 나라에 충성한 장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효도해 동네이름마저 충효리라 했다. (『광주산책』 상권 참고) 조선전기에 받은 효자정려로는 양립동에 있는 양촌공 정엄鄭淹(1528~1580)의 정려비각이 있다. 충장공 김덕령에 앞서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와 고인후 형제는 아버지 뜻을따라 전쟁에 나가 순국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이들을 기려 3효열 삼강문을 내렸다.

광주의 효자 행적을 보면 손가락을 깨물어 사경을 헤매는 부모의 입에 피를 넣어드렸다가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여 드렸다는 내용이 많다. 다음으로 많은 행적은 2년 시묘를 했다는 내용이다. 겨울에 잉어나 자라를 잡아 봉양했다는 내용도 많다. 광주효자 중 전사달全士達 같은 이는 호랑이가 여막을 지켜주었다는 색다른 얘기도 있고 호랑이가 잡아갔던 돼지를 부모 제삿날 도로 집에 물어다 주었다는 얘기도 있다. 효도로 9품 교관 벼슬을 받은 이는 다섯 사람이고 참봉 벼슬을 받은 이는 더 많으며 호역을 면제받은 사람, 노비신분을 면제받은 사람 등 여러 행적을 살필 수 있다. 일본식민시절에는 향교나 유도회를 대신한 모성회라는 단체에서 효행자 표창을 해 이 표창을 근거로 효행비를 세운 사례도 많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앞세워 표창했기 때문에 동네어귀에 세우는 정려비나 비각은 가문의 자랑이면서 동네의 경사



충효동의 정려비각

였으므로 동구 밖 정려비각은 동네의 품격을 상징하는 징표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갑오경장 직후 일본의 압력에 의해 단발령이 내려지자 ‘신체발 부 수지부모’라는 구호와 함께 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유교국가인 조선왕조는 망하고 식민생활을 거치는 동안 충효관념은 낡은 이념이 되고 개개의 인격을 존중하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미풍양속이라 여겨온 효행마저 버려야 할 관습으로 잘못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2년 남구청(당시 청장 황일봉)은 ‘효사랑’ 운동을 구정 구호로 내걸고 갖가지 관련 시책을 강구했다. 이를 계기로 효덕동에 노인건강타운을 유치하는 등 부모에 대한 효개념을 노인공경의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상투와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근대화 상징이었다. 부모는 나를 낳았을 뿐 나는 독립된 개체라는 신개념과 더불어 부모는 자식들의 봉양대상이 아닌 국가 복지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조상대대로 학습되어온 효행은 인간의 도리라는 문화인자가 아직은 몸속에 남아있어 과도기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노인 중 자식과 사는 노인은 1994년 54.7%였으나 2014년 28.4%로 줄어들고 혼자 사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24.5%에 달한다. 광주시내 독거노인은 2만 6,380명이며 자살자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008년 자살 노인 수는 하루 9.8명꼴이었으나 2012년 11명꼴로 늘어나 OECD국가 중 자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물론 이웃 일본의 경우도 도쿄의 노인 6만명이 독거 상태이고 혼자 죽어가는 숫자가 1년에 2,869명에 달한다고 한다. 자식은 물론 이웃도 모르는 사이 노인들이 죽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은 ‘신평 고려장’으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지만 살아도 너무 오래 사는 노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세상이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바빌로니아 신화에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길가메시라는 영웅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 불사신 우타나피슈티를 찾아 나서지만 도중에 바다가 있어 만날 수가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유혹의 여신이 “길가메시! 당신이 물어봤자 결국 죽는 신세다. 의미있게 살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 먹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이나 해라”고 비꼬았다. 결국 죽어야 할 인생이라 할지라도 짐승신세처럼 외롭게 죽어가는 부모를 방치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 노인당

복지행정 따라 80년대 보다 10배 늘었지만
예산 골머리

1986년 광주 시내 노인당 수는 125곳, 송정시와 합한 뒤인 1989년 노인당 수는 199곳이었다. 그 노인당이 2014년 말 현재 1,272곳이므로 한해 47곳씩 노인당이 늘어난 셈이다. 이 노인당에 65세 이상 노인이 출입한다면 한 노인당에 120명 가량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회비 1~2만 원을 내는 사람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이 주류를 이뤄 정식 회원 수는 4만 3,000여 명 안팎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인당에 따라 영세한 곳은 30여명 미만인 곳도 있지만 전통이 있다는 불로동의 수영노인당은 회원이 70명을 넘어서고 있다. 4만 명 회원을 1,200 곳으로 나누면 평균 30명꼴이다.

옛날부터 노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대접을 받았다. 조선시대에 70세 이상의 2품 이상 벼슬아치와 임금은 기로소(耆老所)라 이른 양로당에 모셔 노닐게 하고 영수각이라 하여 기로소 노인들의 영정을 모셨다. 일반 백성 중에도 나이 80세에 달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벼슬을 주고 전토와 노비를 하사하기도 했다. 기로연이라 하여 70세 이상의 노인잔치를 3월 삼짇날과 9월 중구에 나라에서 베풀었다. 『국조오례의』는 군현마다 기로연을 갖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해 하달했다. 매년 동짓날에는 모든 고을수령은 고을 내 노인들을 한데 모아 향음례를 행했다. 영조대왕은 1756년 특별히 60세 이상의 노인들만을 모아 기로과라는 과거시험을 치러 5~6명의 합격자들에게 2~3품관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통풍물교실을 비롯한 파워댄스, 난타, 스포츠 오락 등 어르신들의 감성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의 벼슬을 주기도 했다. 조선시대 풍습에 양민이라 하더라도 나이 80이면 벼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도 벼슬이란 속담이 생겼다. 이런 미풍이 전해져 오늘날 시, 군마다 노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사회단체나 동네에 따라 정기적인 노인잔치를 열기도 한다.

노인당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파트단지마다 노인시설을 의무화한 데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정부가 노인당마다 쌀과 부식비를 제공하고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선심을 노인복지행정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노인선거인구가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다. 오늘날 노인복지예산은 매년 62%씩 늘어났고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노인문제는 나라의 재앙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렇더라도 오늘날 전 유권자의 17%를 점하고 있는 노인은 2027년 26%, 2032년 30.8%로 늘어날 추세에 있으므로 공무

월연금 이상으로 노인문제는 정치적 곤란을 겪을 전망이다.

일본 노인들은 일찍이 국가연금 혜택을 입어 사람마다 연간 200만엔 가량을 받아 독신생활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노인들은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에 견주어 한국의 노인들의 빈곤율이 48.6%로 OECD국가 중 1위이고 노인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10만명 중 29.1명이 자살하는 불행한 국가의 상징이 되어있다. 비록 더 가난했으나 대가족제에 의해 부양받던 노인들이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자식들로부터 분리되어 2000년 말 혼자 사는 노인은 16.3%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7%로 늘어났다. 이처럼 노인들이 밀려나면서 자녀와 살던 가정 비율은 10년 전 67.5%에 달했으나 33.6%로 줄어들고 젊은 부부와 두 자녀 4인가정이 전 가구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 1명을 둔 3인 가정이 22.7%, 부부뿐인 2인 가정이 24.7%로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홀로 사는 가정은 이보다 더 많은 27%이다.



건강지킴이에는 율동이 최고

8명 중 1명이 노인

2014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13.1%로 8명 중 1명꼴이다. 이 비율은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인 세상이 되어 공무원연금 때문이 아니라 노인복지 때문에 파산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런 판국이니 노인재앙이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의 요구는 날로 더해갈 것이고 호스피스제도도 일반화될 것이므로 노인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9988’이라면서 노인들에게 건강하게 장수할 것을 권하지만 인간의 체력이란 늙을수록 장거나 사지가 노화해 고통스런 병치레 10년을 지내다보면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부담도 노인 수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빈곤해소에 도움을 주면서 고독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이 노인 일자리사업이다. 색깔 있는 조끼를 입고 길거리 쓰레기를 치우면 월 20만원씩 주던 사업은 올해 들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사업에는 연금혜택 노인을 제외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기초생활을 돌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제외다.

광주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가 노인수는 9,767명이다.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사업에는 60세 이상 노인도 참가하지만 지원사업 참여자격자인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전 노인의 66.19%인 10만 1,098명이므로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6.43%에 불과한 셈이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인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노인의 직업직종 개발 보급시책을 강구해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규정과 달리 노인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노인취업은 생활안정과 함께 우울증에 의한 자살예방이라는 사회정책적 필요시책이다. 초창기에는 길거리 쓰레기 줍기와 청소 등 단순노동에 그쳤으나 오늘날은 여러 형

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광주시의 경우 191개 사업에 취업시키고 있다. 다만 이 사업들은 취업자들의 건강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주 36시간, 하루 3~4시간 근무로 제한해 사실상 반거치리를 만들고 있다. 특히 공무원퇴직자 등 연금수혜자들의 참여를 막아 지식노동자들의 경력을 활용할 길이 적다. 숲해설이나 문화해설 등은 여러 기관 단체에서 선수를 쳐 노인층 이외의 해설사들을 양성해 수당을 주고 있어서 외국에서 노인 직종으로 이용하

는 문화나 문화재, 환경생태 등 향토성 짙은 활동이 막혀있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덤으로 사는 기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보람과 활기를 찾으면서도 적은 비용의 수입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노인 직장운동은 복지와 고용의 중간 형태이면서 사회적 복지운동이라는 생각으로 각급기관과 기업, 사회단체들이 노인인력의 활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노인의 사회활동이 고독감을 해소시키는 복지방안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글쓰기 등 취미동호회를 육성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옛날 자식들은 집안 어른들이 모여 시를 읊으며 풍류생활로 노년을 보내도록 정각을 지어드렸다. 여유있는 선비들은 스스로 정각을 지어 벗들을 불러 모아 누정문학을 즐겼다.



한 어르신이 미용봉사를 받고 있다.

이런 누정에 관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말엽 탁신卓愼(1367~1423)이 노닐었다는 탁송정卓松亭의 기록이다. 김문발金文發의 부용정, 김언거의 풍영정, 유사柳泗의 호가정, 김윤제金允沛의 환벽당, 김덕보의 풍암정 등도 모두 오늘날로 치면 노인당이며 노인정이다. 광주시내에는 이 같은 정각이 70여개나 남아 있다.

같은 성격의 현대시설이 노인복지회관으로 광주시내에 10개가 있으나 말 그대로 여가시설일 뿐 아직 노인문화시설의 기능은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100 개소에 달하는 요양시설을 상대로 하는 노노케어 예술단의 순회봉사 등도 바람직하다. 노인시연합회가 있고 구청마다 지구노인회가 있으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장기요양복지협회가 있다. 노인일자리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와 5개 구청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노인들의 창업과 판매사업을 돕고 있다. 여수 등 몇몇 지방 시니어클럽은 수익을 올려 사회은퇴자들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지방 시니어클럽들은 은빛가게 할머니맛집, 중고센터 운영 등으로 보람을 얻고 있다. 이에 견주면 광주의 시니어클럽들은 그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인이란 장애인에 속한다. 이 때문에 대접 받기를 좋아한다. 시민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베풀어야 존경받는다. 노인의 취업과 생산제품의 소비에 동참해 자살 없는 노인 사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노인은 백발의 면류관을 쓴 망령이 아니라 젊은 이들의 거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식층은퇴자들이 한사람 빠짐없이 동네 노인당 활동에 동참할 때 노인이 국가와 사회의 재앙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고 해결하는 자랑스런 어른이 될 것이다.

: 광주의 성매매(공창)

일본 총독부가 불로동 일대 ‘유곽지대’로 지정

변종업소 여전

성(性)이란 생명체 존재양식의 기본이다. 수컷은 씨를 퍼뜨려 그 존재를 영속하려하고 암컷은 좋은 씨를 받아들여 새로운 후계를 계속하려는 본능에 충실한다. 인간도 생명체의 하나이므로 이 본능은 원초적이라 할 수 있다. 원시 인류의 초기단계에는 모계중심사회였던 흔적들이 많다. 현존인류의 이동도 여성의 이동을 중심으로 연구된다. 2세를 낳은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신화시대도 모계사회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모계중심사회였던 중국이 부계중심사회가 된 것은 하북 이후로 본다. 다만 역사기록이 부계중심사회가 된 이후에 기술되기 시작한 탓으로 황제 현원씨나 염제 신농씨를 남성화하여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여성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혈통 중심사고가 지배하면서 혈통의 갈래를 나타내는 부호로 성씨를 만들었다. 이 표의문자도 사실은 어떤 여자가 낳았느냐의 뜻으로 여자女라는 글자에 낳을 생자를 합해 만든 것이다. 이 같은 흔적을 갑골문의 해독으로 찾아낸 뒤 중국신화에 남성으로 나오는 태호 복희太昊 伏羲씨는 풍風이 성이고 황제 현원黃帝 軒轅씨는 희姬씨였으며 염제 신농炎帝 神農씨는 강姜씨였다고 정리되고 있다.

중국신화시대 연구는 청동기에 새겨져있는 금문金文의 해석이 진행되면서 신화시대 씨족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황제 현원은 25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어머니가 각각 달라 12성씨의 각각 다른 성을 가진 아들

을 두었다고 해석된다. (줄거 『한국의 귀화 성씨』, 2003년) 이 같은 해석도 사실은 남성중심 사고일 뿐 그 시대에는 가계 중심이 여성으로 우수한 현원의 씨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생각에 따라 동물의 세계처럼 수컷 중에서 가장 강한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동물세계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인간이 집단을 이루는 과정에서 직접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가족집단의 우두머리에 있던 시대에는 남성은 여성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머슴의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시기에는 처가로 장가를 가서 살아 이를 서쪽에서 온 사람이라하여 서방님이라 부르고 일반적인 남자는 머시매(머슴)라 했다. 하나라 이후 중국의 성씨는 제후가 지배하던 땅이름을 따서 썼다.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무기를 거머쥔 남성이 집단을 지배하면서 부계사회로 변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매매혼 풍습이 시작된다. 자본이 성을 지배하면서 일시적인 성매매 풍습도 생겨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대인동 사창가. 광주 동구 금남·반도상가 주변 일대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망 및 상가 등이 새롭게 단장되어가고 있다.



공창제도의 시작

이탈리아나 그리스를 여행하다보면 고대 성매매풍습이 있었던 유적을 볼 수 있다. 숯가락만 들 힘만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성충동을 느껴 여성과의 접촉을 원하는 것이 남성 DNA이다. 다만 여성은 동물의 세계에서처럼 수태기 때만 성충동을 느꼈을 것이나 일부일처제를 유지해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도모하고 남편을 붙잡기 위한 방편으로 성감대를 발전시켜 수태기 이외에도 남성의 성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진화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먼 옛날부터 남성의 외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프랑스가 맨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나라에서 장소를 지정해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창제라 한다. 가톨릭 율법으로 일부일처제를 유지해오던 유럽사회에 자유의 물결이 닥쳐오면서 신교 태동이 성공을 거두자 일부일처제에 대한 전통의식이 무너지면서 자유연애가 유행했다. 1760~1987년 사이에 파리 시내에는 5,000명의 혼외사생아가 길거리에 버려졌다. 성의 자유를 외치던 미혼모들이 신생아 양육을 위한 생활방편의 하나로 성매매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1789년 혁명에 성공한 프랑스는 기아와 미혼모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정 장소를 지정해 성을 매매할 수 있는 공창제를 실시했다. 이 물결은 곧 유럽전역으로 번져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일부국가들은 오늘날도 공창제를 유지하고 있다. 동양에서 이 제도를 제일 먼저 수입한 나라는 역시 네덜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이다. 물론 일본에는 전통적인 게이샤(예기)와 술자리 시중도 들고 몸도 파는 창기제도가 있었으나 유럽처럼 일정한 장소를 정해 몸만을 파는 공창제도를 둔 것은 1870년대 명치유신 이후이다.

공창제도에 맞들인 일본인들은 조선침략의 첩병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창기들을 거느린 유곽업자들도 동행했다. 광주에도 1905년 이미 일본기생업자가 서동에 자리 잡았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유곽지대라는 이름의 전국적인 공창지대를 지정할 때 광주 불로동 일대를 유곽지대로 지정했다. 이 무렵 불로동 천변에 하루노야春の家와 황금동 현 학생회관 자리에 기타무라로

北村樓, 서동에 이시무라로西村樓가 자리잡아 일본게이샤를 두어 갑종요리점이
라 했다. 창기접대부를 두는 식당을 을종이라 했는데 1916년 당시 7집이 일
본 창기 22명을 두고 있었다.(기타무라의 『광주지방사정지』)

이처럼 일본기생들을 둔 요릿집이 호황을 누리자 한국기생을 2~3명씩 둔
서봉루와 서흥관이 문을 열었다. 당시 광주인구는 8만명이었고 광주읍내 인
구는 3,628명으로 그 중 55.6%인 2,017명이 일본인이었다. 일본인 남자
절반가량인 997명이 직업을 가진 성인이었으므로 이들을 고객으로 한 일본
요릿집만 10곳이나 있었던 셈이다. 광주에 철도가 놓이고 역전에 많은 사람
이 드나들면서 술집과 매음작부들이 기생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불로동에
기생공급을 위한 일본식 권번^{권番}이 생겼다. 갑오경장으로 관아에 속했던 기
생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생계방편으로 요정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지
방에서는 퇴기들이 무계 종사자들과 더불어 신청을 만들어 무신을 섬기는 한
편 국악연수생들을 뽑아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었지만 광주는 이미 일본화 과
정을 걷고 있어서 신청 없이 일본식 기생양성소인 권번만 있었다. 이곳에서
는 국악지망 소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요정 등의 요청이 있으면 숙련된 기생을
공급해주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예기권번과 창기권번이 따로 있어서 예기권번은 게이샤를 양
성하고 창기권번은 유곽접대부 양성을 맡았으나 광주는 이같은 구분이 불분
명했다. 광복 후 공창제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48년 미군정청이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공창은 없어지고 사창^{私娼}이란 이름으로 그 습속이 지속
되었다. 특히 광주는 상무대가 들어서면서 사창이 더욱 번성했다. 결국 대인
동 일대(현 롯데백화점 주변)는 사창가로 성매매 여성을 두고 대문 앞에 붉은
등을 내걸어 이곳을 홍등가^{紅燈街} 또는 적선지대^{赤線地帶}라 불렀다. 지금은 창녀
촌을 집창촌^{集娼村}이라 부르는 것과 흡사하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1962
년 윤락여성방지법을 공포하고 사창제마저 철폐했지만 실제 대인동 사창거리
는 10여년 뒤까지 영업을 계속했다. 이곳의 관리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맡았
고 등록업자와 등록접대부가 있어서 매주 1회 보건소의 성병검진을 받도록

했다. 1960년대 후반 이곳 대인동 사창지대 업주는 49명이었고 종사자 수는 200여명이었다. 당국은 이곳 여성들의 직업선도를 위해 1966년 양림동 계명여사에서 직업보도훈련을 시켰다. 1976년 대인동에 버스공용터미널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곳 사창촌은 없어졌다. 일제시대에 시작된 유곽식 요리 점은 광복 후에도 이어져 기생집 또는 요정이라는 이름으로 국악을 들려주며 요리를 파는 요정과 손님 시중만을 들고 2차 성매매장소로 이동하는 접대부 요릿집으로 나뉘어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보건소는 적선지대 여성, 다방 종업원, 요정 접대여성에 대한 성병검진이 큰 업무 중 하나였다.

1970년대는 황금동 정종 대포집이 유행하면서 학동의 천일극장 거리까지 접대여성을 둔 선술집이 흥등가를 대신했다. 대인동 집창촌이 없어지면서 이곳 여성들은 독탕을 둔 대중목욕탕 때밀이로 진출하기도 하고 퇴폐이발소 면도사로 진출했다. 이 여성들이 안마를 겸하면서 점차 안마를 전문으로 하는 안마시술소로 업종을 변경하기도 하고 노래방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한때는 카바레라 이르는 양춤집이 성매매 알선업소로 변태영업을 하기도 했다. 성매매는 2004년 그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외형적으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전히 성충동을 버리지 못하는 수컷으로 존재해 있고 여성들 중에는 생활방편으로 성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갖가지 방법으로 범망을 속여 가며 지속하고 있다. 남성은 성행위 자체를 원하고 여성은 사랑을 원하는 이질생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매매춘은 계속될 것이고 이를 부도덕한 인간모독 행위라는 주장과 성행위도 신성한 자유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도 계속될 것 같다.

Ⅱ : 광주는 기독교 도시

외래 종교 선호도 높지만 인구 절반 이상은 무신론자

200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계 때 전국의 종교별 신도수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인구 4,700만명 중 무신자 수는 46.48%인 2,186만명이었고 53.52%인 2,497만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22.8%인 1,072만명이 불교신자, 18.3%인 861만명이 개신교신자, 10.8%인 514만명이 천주교신자였다. 이 수치를 20년 전인 1985년과 비교해 보면 불교신도는 2% 줄고, 개신교신자는 8.1%가 늘었으며 천주교신자는 4.6%에서 10.8%로 늘었다. 이에 반해 유교신자는 48만 3,361명이 10만 4,578명으로 줄고 대종교는 1만 1,000명이 3,766명으로 줄었다.

2005년 부산시의 불교 신도율은 39.2%인데 전주어 광주의 불교 신도율은 14.39%로 그 차이가 심했다. 이에 전주어 개신교 신자율은 광주가 19.79%인데 전주어 부산은 14.3%였고 천주교신자의 경우 광주는 전 시민의 13%인데 전주어 부산은 7.44%였다. 부산은 재래종교의 선호도가 높는데 전주어 광주는 외래종교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을 나타냈다. 흥미있는 점은 광주의 무종교시민이 51.74%인데 전주어 부산은 41.36%로 종교를 가진 시민이 10%나 많았다. 특히 부산은 전국 신도 3만 4,550명인 증산교의 10%인 3,511명의 신자가 부산에 있으며 각종 신흥종교나 외래종교도 빠짐없이 등지를 틀고 있어서 광주에 전주어 종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

다. 부산은 10명 중 4명이 불교신자이고 특히 여성신도가 많아 부산여자 2명 중 1명은 절을 드나들었다. 이에 반해 광주시민 3명 중 1명은 교회를 다니거나 천주교당을 다니는 외래종교 신자들이었다. 이 같은 통계도 지역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자료이다.

광주에 개신교를 퍼뜨린 사람들은 미국 남장로 선교사들이었다. 1904년 12월 양림동 배유지 선교사 집에서 시작한 예배는 110년 만에 27만 9,884명의 신도를 모았다. 이 중에는 광복 후 들어온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교, 안식교 신자들도 있고 1960년대 토착화를 내세운 전도관, 통일교, 순복음 등 80여 종파의 신자들도 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충족된 삶의 연속된 추구일 것이다. 종교는 가족의 평안과 소원 성취를 기원할 것이다.

교회분열 본보기 양림동

광주 양림동을 중심으로 뿌리내린 미국남장로교가 가장 많은 교회와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기장과 양림교회(웃교회)를 시작으로 통합파 양림교회(아랫교회), 합동파 양림교회(새교회)가 모두 같은 뿌리이다. 1953년 웃교회에서 분리해 오웬기념각에서 예배를 시작한 예수교장로회 교회는 1960년대 들어 합동파가 분리하면서 통합파 교회가 되었다. 이 세 교회는 골목길을 경계로 서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양림동 선교부 땅 대부분을 통합측 호남신학대학교에 넘기고 서울 연지동의 선교부로 옮겨 갔다. 전남에서 가장 크다는 중앙교회가 중심이 된 합동파는 호남신학대학에 맞서 북구 본촌동에 광주신학대학을 설립, 통합측과 개신교 양대 축을 이루

고 선교경쟁에 뛰어들었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1978년 광주시내 개신교신도는 통합측 교회 33곳에 2만 1,941명, 합동측 교회 34곳 2만 3,650명, 기장파 11곳 1,500명, 고신파 6곳 2,400명이었다. 당시 모든 교파를 다 합한 개신교신도 수는 5만 8,584명이었으므로 65만 도시에서 아직 10% 미만이었다. 10% 미만 이던 광주 개신교도 수는 2005년 20%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다. 1978년 1만 1,491명이던 천주교도 수는 2005년 전 시민의 13%인 18만 3,787명으로 무려 16배나 늘어났는데 이는 민주화투쟁이 있었던 광주의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된 것 같다. 국내 천주교 신자가 1978년 114만 4,000여명에서 2005년 514만 2,600여명으로 5배가량 늘어난 것과 견줘도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편 개신교 신자의 증가에는 통합측 예수교장로회와 합동측 장로회가 다 같이 경쟁적으로 시내에 목사를 기르는 신학 교육기관을 갖고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1백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삼도교회

오늘날 호남신학대학은 목사 자격을 부여하는 신학대학원에서 매년 150여명의 신학석사와 일반대학원 석사 300여명씩을 배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주신학대도 80여명의 신학석사와 5개과 160여명의 일반대학원 석사를 배출하고 있다. 두 신학대학에서 그 동안 배출한 목사는 5,000여명씩으로 대부분이 전남지방에서 목회 중이다. 이처럼 목회자를 배출하면서 목사양성 교육기관 소재지인 광주시내에는 두 교파의 교회가



광주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한 교회의 예배 모습

600여 곳씩으로 늘어났으며 신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돌이켜보면 광주 시내 기독교개신교계 신도는 거의 90%가 광주 양림동에 동지를 틀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양림동은 광주와 전남 개신교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을 만하다. 비록 국내의 정치적 형편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기장, 통합, 합동 등으로 분파되었다하더라도 양림동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총신신학대 출신 최육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는 글에서 한국교회는 이미 성장기를 지나 2028년쯤에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파산하는 예를 들면서 한국의 교회들도 대형 교회를 자랑삼고 확장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100명 단위의 기존 신자관리형 교회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는 인구 대비 개신교나 천주교신도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인구가 정체되어가고 청년층의 교회이탈이 늘어가면서 교회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인구는 한정되어있는데 목회자 수가 늘어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교회경영 형태는 악화될 것이다. 노인인구가 늘어가면서 포교대상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인신도들은 교회경영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복지부담을 키우는 측면도 있을 터이다.

양림동 선교의 은혜를 받은 전남 일대 목회자는 통합, 합동계 신학교 출신만도 7,000~8,000여명은 넘어설 것이다. 이들이 십시일반 추렴해 양림동에 기독교기념관을 짓고 광주선교에 헌신한 외국선교사들의 사랑과 봉사를 추념하는 행사를 반복한다면 날로 개인주의화하는 시대병폐를 교정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 같은 일은 이해관계로 얽힌 교회에 맡길 수 없다면 교육을 담당한 호남신학대학과 광주신학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앞장 서 교회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광주의 불교사찰

선교 110년째인 개신교와 선교 80년의 천주교가 광주시민의 30%인 46만 3,000명을 신도로 끌어들이는 것에 견주어 1,000년 전통의 불교는 14.4%인 20만 3,400여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평균율에 견주면 열세지역이다. 2005년 국내 불교신자가 22.8%인 것과 비교해도 광주에서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종파간의 분열이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 법란이라 이르는 파동을 겪었다. 일본식민시절 광주시 중심부에 진출했던 일본불교사찰들은 광복 후 뜯기거나 한국사찰에 흡수되고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법화종, 법상종, 법륜종, 심인종, 원효종, 원운종, 선교종, 선각종, 총지종, 천태종 등 여러 이름의 사찰들이 생겨났다. 개중에는 보살점쟁이라 이르는 무교계 사람들이 불상을 모신 사찰들도 생겼다. 비구니·대처승간 분쟁이 계속되던 1960년대 중반 증심사, 백양사, 선암사, 향림사 등은 대처승 사찰로 조계종에 흡수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었다. 이 같은 싸움으로 당초 선암사포교당으로 지어졌던 원각사나 백양사포교당이었던 관음사 등은 대처승 사찰로 남아있었다. 1960년 3월에는 증심사를 중수해 차지하고 있던 대처승 최용식崔溶植 스님과 비구니 측 허동許銅 스님 간에 집단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1972년 3월 비구·대처승간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대처승 측의 승소로 끝이 나고 대처승 측 일

부는 태고종이라는 새 교명으로 등록,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9년 전남 광주 138개 사찰의 주지들이 불교사암연합회를 만들어 서로 협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빈정사 주지였던 지선스님이 통일불교운동협의회를 주도하면서 일부 사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978년 당시 광주 시내에는 조계종계 사찰 27곳, 태고종계 사찰 30곳이 있었는데 이듬해 사암연합회 창립 때에는 도내 조계종계 사찰 36곳과 태고종계 사찰 24곳이 참여했다. 사찰들도 시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신도들을 위한 법회, 불교대학 등을 운영해 신도증을 주거나 계와 법명을 주는 등 서양종교의 형식을 도입해 가고 있다. 사찰에 따라 포교사를 양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젊은 후계사찰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흔히 신흥종교라 부르는 종교예배당도 광주에는 여럿 있다. 영광에서 창교한 원불교는 광주에 5,000명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증산교 교도도 1,000여명 있으며 증산교계 중 가장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순순리회 신도도 증산교수와 엇비슷하다. 중국계의 일관도 분파인 도덕협회도 있으며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구원파 예배당도 있다. 증산교계의 보천교는 일본식 민시절 전국 500만 신도를 자랑할 때 서석동에 그 교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마저 찾을 길 없다. 찬물교, 성덕도 등도 있다. 1943년 나주사람 김홍원(金洪原)이 창교한 무용교는 풍암동에 있었으나 3대 교주 김신현에 의해 고창 성송면으로 옮긴 뒤 미륵불교가 되었으나 원뿌리는 증산교이다. 광주향교를 중심으로 유교신도로 집계된 유교신도는 2,859명으로 부산과 비슷하다. 1985년 전국유도 신도수는 48만명으로 집계됐으나 2005년 유교신도수는 1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광주의 종교적 성향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들이다.

Ⅱ : 광주 의료

소태동에 자리잡은 장태경 의술로 가문명에 세워

2010년 대전에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광주출신 우잠 장태경(張泰慶, 1809~1887)이 남긴 『우잠만고(愚岑漫稿)』를 국역해 펴냈다. 한의학연구원은 한국전통의학이 중국한의학과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기 위한 전통 한의학 지식의 자원화 사업의 하나로 이 책을 낸다고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옥구 장씨인 장태경은 1924년의 『광주읍지』 인물항목에 어릴 적 이름인 장철경으로 나온다. 그는 나이 70을 넘겨 동지중추부사의 벼슬을 받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옥구 장씨들이 광주에 정착한 것은 고부군수를 지낸 7세조 승중(承重)이 17세기 중반으로 광주에 자리 잡은 뒤 소태동을 중심으로 살았던 듯하다. 장태경의 아버지로부터 증조부까지가 모두 증직을 받은 보첩 기록을 보면 장태경이 의술로 이름을 얻어 공명첩으로나마 가문의 명예를 확보했던 것 같다. 같은 시대에 봉선동에 살았던 연안 차씨 차지순(車至淳, 1844~1884)이 차고약으로 이름을 떨쳐 선조들이 증직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 다만 차씨들은 당시 부를 증손 때까지 잘 유지해 오늘날 육영재단 동아여중·여고를 남긴 것에 견주어 장태경은 문집만을 남겼다. 장태경의 『우잠만고』는 1833년부터 1850년까지의 진료기록이다. 그가 처방해 만든 청온해독환(독감 특효약)이 이름났고 장성, 순천 등지까지 왕진을 다녔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의 저서에는

47개의 의안과 130개에 달하는 처방 및 3개 침술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는 『동의보감』의 처방을 따라 치료하면서도 시대조류에 맞춰 운기치법 運氣治法을 따랐고 홍양의 김창백 비방을 원용하는 등 스스로 지역과 시기에 맞는 비방과 처방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본디 동양의학은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기를 다스리는 것을 요체로 삼는다. 이 때문에 오늘날은 맥파검사나 경락기능검사 등 전자기기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진료방법과 약물 처방이 주로 쓰이고 침과 뜸이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견주어 서양의학은 세균을 중심으로 균을 죽이는 화학적 요법과 물리적 요법을 동원하고 온갖 현대과학기들이 동원된다. 특히 서양의학은 19세기에 항생제와 마취제가 개발되면서 급성질병치료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응급 외과수술, 물리적 치료 등은 동양의학보다 신뢰도가 높다. 특히 서양의학은 유전자분야에서 독보적이다. 그 서양의학이 광주에 들어온 것은 미국선교사들이 1905년 양림동에 자리 잡으면서 부터였다.

1909년 설립된 도립병원인 자혜의원에 일본인 의료진들이 들어오고 일본인 감옥의사 외에 개인병원으로 관동군병원장을 지낸 야스다安田篤郎가 1913년 처음으로 개인의원을 열었다. 조선사람으로 첫 서양의사는 김중섭金鍾燮으로 1917년 호남동에 광산의원, 1922년 김흥열金興悅이 충장로4가에 중앙의원을, 1928년 최원순崔元淳(1896~1936)의 부인 현덕신玄德信(1896~1963)이 충장로4가에 산부인과를 개업했다.

이처럼 개화의 물결과 더불어 양의들이 공공의료와 시중심부를 장악해 갔으나 전통적인 한의학은 여전히 서민의 사랑을 받았다. 1940년 『광주위생요람』을 보면 양의사는 43명, 한의사는 8명이었다. 1964년 자료를 보면 양의원이 80곳(193명) 한의원은 14곳(15명)이었고, 별도로 접골원 2곳, 침뜸원 9곳도 있었다. 다만 이때 약국이 125곳인데 비해 한약종상이 120곳이었으므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 비중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크게 변한다. 약도매상과 약국 수가 693곳으로 늘어난데 견주어 약종상

과 한약업자 수는 148곳으로 위축되었다. 의사 수도 치과를 포함한 양의사 수는 1,507명으로 늘어났는데 한의사수는 68명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치과·한의원 많은 광주

2012년말 현재 광주시내 치과 및 양의사 수는 3,891명인데 견주어 한의사수는 560명으로 그 수가 크게 늘었다. 국내 대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병실을 갖춘 한방병원이 47곳, 한의원 수가 300곳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와 더불어 한약국이 48곳, 한약도매상이 54곳, 한약업자가 54곳으로 늘어난 것은 호남지역에 원광대와 동신대가 한의학과를 둔데 따른 인재양성의 영향이라 하겠다.

물론 새로운 질병이 늘어나면서 서양의학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대체의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2년 국립보건원에도 이 분야를 다루는 과가 생겨났다. 근래에는 미국 등 서양병원에서도 침, 뜸 등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4년 국내에도 통합의학회가 생겼다. 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면서 의약분야마저 동양적인 생약이 각광받기 시작하고 자연의학, 생활의학 등 실제 생활에서 얻어지는 면역력이나 치료력이 대체를 이루고 있다. 근래 중방 TV를 중심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효소나 자연식 그동안 외면됐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2013년 의협통계로 보면 국내전문의 수는 7만 6,973명으로 2만 3,335명이 서울에 몰려 있어 의사 1인당 436명이다. 광주의 경우 전문의 수는 2,682명으로 의사 1인당 서울 다음인 544명이다. 전국 평균이 649명으로 부산(588명), 인천(878명), 울산(884명)보다 의사집중률이 높다. 치과의사 수도 836명에 달해 다른 도시보다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전남의대와 조대의대의 의사배출이 큰 요인이다. 1964년 의사 258명이던 시절, 치과의사가 14명(5.4%)이었던 것에 견주어 2012년 광주시내 의사가 3,085명인데 치과의사가 836명으로 27%에 달하고 있으므로 과잉이라 할 만하지만 노령화에 따른 치과 환자 수의 급증으로 아직은 의사보다 치

수입이 괜찮다고 한다. 치과의사의 증가에 따라 수지맞는 직종으로 치공사가 부상하기도 했다.

오늘날 출산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지만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가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 중반이며 조산원이라는 직종이 따로 있었다. 산부인과병원이 10곳이던 1964년 각 가정을 찾아가 출산을 도와주는 조산원이 36곳에 달했다. 1985년까지도 광주 시내에는 조산소 25곳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병원에 속한 조산사 19명이 있을 뿐이다.

광주 시내 의료기관 수는 1,822곳으로 직원 1만 9,091명 중 1만 547명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지만 매년 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간호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방의학이 새로 들어온 서양의학에 밀리던 시절 개발된 것이 사람의 체질은 네 가지로 나뉘 다뤄야 된다는 이제마의 ‘사상체질론’이다. 이 ‘사상체질론’과 함께 주목을 받은 것이 유림의사들에게 유행했던 운기치법이다. 곡성출신으로 1960~1970년대 풍향동에서 한약방을 한 동촌 김용한의 ‘오운육기론’이 이 부류에 속한다. ‘사상체질론’과는 달리 생명이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궁했을 때 어머니 자궁에 아버지 정자가 집을 짓고 앉으면 생명이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계절을 느끼며 자라기 때문에 사람마다 계절에 따라 식성과 질병에 대한 내성이 다르므로 사람의 생시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는 이론을 폈다. 이 이론에는 오행론과 주역이 동원되었고 치병은 기운의 유행을 다스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때문에 동천은 사주로 질병을 진단한다고 알려졌을 뿐 아니라 사주에 따른 운명이나 궁합에도 일가견을 보여 광주의 저명인사들의 출입이 잦았다. 그는 육영수 여사의 저격사건을 예언했다고 소문났으며 대전에 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 땅투기로 돈을 번 부자들의 기부를 받아 두암동에 김유신 장군을 모신 장열사를 짓기도 했다. 같은 무렵 월산동에 자리 잡은 배성식 한의원이 명의로 유명했다. 배성식 씨는 경희대 전신인 동양 의과 출신으로 1956년 서울 혜화동에서 개업했으나 전라도에 와송이 많다는 데 착안해 1966년 광주에 문을 열고 와송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광주여고 근방에서 중국한의원을 경영하다 서울로 옮겨 노태우 전 대통령부인의 가정의를 맡았던 김성호씨도 있었다. 그는 대만출신이었지만 광주에서 중국한의원을 운영하다 1980년대에 서울로 옮겨갔다. 당시 서울에서는 미국유학을 다녀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들을 서양여자들처럼 냉찜질로 조리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다. 김씨는 이 산부들에게 몰래 한약 2첩씩을 들여보내 산후증을 치료하면서 이름을 얻어 노태우부인의 가정의를 맡고 한중 국교정상화의 다리를 놓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일화가 알려지면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2년간에 걸쳐 건강에 대한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김씨는 필자와 수석^木관계로 친교를 맺고 있어서 자주 들은 얘기이지만 서양의학은 인체를 동일하게 보고 획일 치료를 하는데 견주어 동양의학은 사람마다 체질은 다양하므로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서양의학은 상처치료의학이고 동양의학은 예방의학이라는 주장을 편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식물자원과 민간의약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한의학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 광주 바른 씨름

경상도의 왼손잡이 씨름이 정통을 차지



김홍도의 씨름도

씨름은 한국 전통의 민속경기이다. 세계도처에 같은 형식의 경기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경기임이 분명하다. 씨름은 힘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만으로 서로 붙잡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힘겨루기이다. 같은 유형으로 몽골의 부호, 일본의 스모와 유도, 그리스의 레슬링, 스페인의 푸차키나리아, 아이슬란드의 팽, 스위스의 쉬빙겐, 터키의 카라쿠지크 등이 있다. 올림픽이 그리스에 근원을 가지고 1896년 세계경기로 재탄생시킨 탓인지 올림픽 경기종목은 대부분 서양사람들이 즐기던 것들이다. 그 많은 씨름 중에서도 그리스의 레슬링만이 올림픽 종목이다. 근래 인도의 전통경기인 카바디가 종목에 끼어든 것이나 일본의 유도, 한국의 태권도 등은 동양사람들의 전통경기이면서도 국력신장에 따라 추가된 종목들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전통 민속경기들이 계속 가세할 추세다.

씨름은 한국전통민속 경기인 것처럼 알고 있으나 사실은 중국 한나라 때 있었던 각저角抵라는 경기가 한국에 전래된 뒤 정착한 놀이다. 물론 고구려 때 이미 일반화되었던지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고구려 무덤 벽화 중에 씨름그림이 있어 이를 각저도角抵圖라 부른다. 1677년에 변섭, 박세화 등이 지었다는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 어해』에는 씨름을 한자로 줄拵자로 표현하고 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에는 각력角力이라 하여 오늘날의 씨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도하 소년들이 남산기슭에 모여 각력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꿇어앉아 각각 오른손으로 상대 허리를 붙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같이 일어나서 서로 들어 넘어뜨린다.’

중국에서 씨름을 각력·각희·각저라 하는 것은 신화시대 치우가 싸움에서 머리에 달린 뿔로 사람을 들이 받아 이것이 민간에 전승되었기 때문이라는 연원을 가지고 있다.

1936년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보면 전국각지에서 단오, 백중, 추석 등 명절에 씨름을 하고 있다. 그는 서울지방 씨름놀이를 설명하면서 유득공과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상대의 오른쪽 다리에 60cm길이의 살바를 메고 그 살바를 얹은 상태에서

서로 거머쥐고 동시에 일어서면서 힘을 쓰기 시작한다. 장소에 제한이 없고 먼저 쓰러지는 쪽이 진다. 승패를 겨루는 당사자보다 승패를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더 즐거워하는 오락이다.’

유득공과 같은 시기의 사람인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에도 씨름 그림이 있다. 유득공이 묘사한 씨름은 오늘날 씨름대회 때 쓰는 ‘원씨름’이고 일제 때 무라야마가 묘사한 씨름은 ‘바른씨름’이다. 고구려 벽화나 김홍도의 그림은 바른씨름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연구가에 따라 이 씨름들은 두 손 모두 허리띠를 잡았던 ‘띠씨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989년 간행된 『전남체육사』 99쪽을 보면 전남씨름이 쇠퇴한 것은 1962년 전국씨름대회 때부터 바른씨름을 없애고 원씨름으로 통일하면서부터라고 적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경상도는 ‘원씨름판’ 지역이고 원씨름으로 통일된 것이 5·16 직후라는 사실이다.

이때 명분으로 내세운 사건이 있다. 1927년 9월 서울 휘문중학교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 씨름대회 때 허리띠를 오른손으로 잡느냐 왼손으로 잡느냐로 시비가 있었다. 대회 후 서울고보 체육교사가 자기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씨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호남과 경기도만이 바른씨름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원씨름이었다는 결론을 냈다.

본디 원씨름은 왼손을 주로 쓰는 왼손잡이들의 씨름이고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바른씨름을 해야 힘이 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씨름의 원초는 힘겨루기로 처음에는 몸통을 잡고 힘센 쪽이 상대를 들어 내동이치는 형태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본다. 이 방식에 좀 더 공정성을 도입해 서로 한손으로 허리를 잡고 한손으로 다리를 잡은 뒤 일어서자마자 상대를 내동댕이치도록 했을 것이고 1927년의 제1회 전조선 씨름대회 때 비로소 씨름 옷으로 잠뱅이를 입히는 대신 허리띠를 겹치는 동시에 한쪽 다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살바라 부르는 통백목 맧끈을 둘렀다고 전해온다.

옛 노인들의 말을 빌리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허리띠를 잡히고 왼손으로 살바라를 잡게 하면 오른손 힘을 쓸 수가 없어 배지기나 말치기 외에는 다

른 기술을 쓸 수 없다고 한다. 오른손잡이들은 힘이 약한 왼손으로 허리띠를 잡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살바를 잡게 하면 오른팔 힘을 마음껏 쓸 수가 있어서 불끈 들어올리기도 쉽고 살바를 잡았던 오른손을 살바에서 떼어내 오금치기, 무릎치기, 잡치기, 꼭뒤집기, 등삽바 잡아치기, 들치기 등의 여러 기술을 쓸 수 있어서 왼씨름보다 훨씬 현란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왼씨름은 병신씨름이고 올바른 씨름 원형은 바른씨름이라는 주장이다. 바른씨름의 보존론을 펴는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발전한 레슬링에도 자유형, 그레코로망형 등이 있듯 씨름도 띠씨름, 바른씨름, 왼씨름 등 여러 형식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 경기도와 전라도만이 바른씨름을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제 이후까지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인 논산에서 열렸던 양도씨름대회도 바른씨름으로 치렀다. 결국 충청도 사람들도 바른씨름을 했다는 말이다.

광복 후 1948년 전국체육대회가 재개되면서 당시에는 바른씨름부와 왼씨름부가 구분되어 있었다. 바른씨름 주무대였던 전남 동부 8개군 씨름꾼들이 기세를 올리던 시절,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체구가 크고 뚱뚱한 고흥 씨름꾼들이 유명했다. 이 무렵 치우의 박치기를 이어받은 김일 레슬링선수도 배출됐다.

광복 이후 명절이나 장날이면 동네마다 씨름판이 벌어졌다. 난장을 틀 때면 으레 송아지를 우승상으로 내걸었다. 일제 때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씨름대회 때면 광주출신 노천묵, 함평출신 백근호, 영광출신 김동식 등이 씨름판을 휩쓸었다 한다. 광복 후 1946년부터 해방기념씨름대회 때면 광주의 김태원, 정영춘, 신성진 등이 바른씨름으로 유명했다. 광주출신 김덕령이 의병장이 된 것도 그가 장성, 담양 일대 씨름판에서 이름을 얻은 장사로 알려졌기 때문이란 말도 전해온다.

1947년 전남씨름협회 창립

전남씨름협회는 광복 후인 1947년 당시 장사로 이름을 날렸던 김태원(金泰源)의 주도로 10여명이 광산동 미나카이 백화점에 모여 당시 주조장을 경영하던



전국체전을 앞두고 광주공고 씨름단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

황규복씨를 회장으로 추대해 결성되었다. 전남씨름협회는 1948년 광주에서 제1회 전남씨름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을 이해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29회 전국체전에 출전시켰다. 이 대회의 바른씨름 일반부에서 광주출신 김태술이 우승하고 신성진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물론 학생부 단체전에서도 광주사범이 우승, 광주농중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사범은 원씨름에도 참가해 3위를 차지했다.

30회 대회 때는 광주사범 김재룡이 바른씨름 개인전에서 우승, 3회 대회 때는 광주금융연합팀이 바른씨름 일반부에서 우승하고 광주농중팀도 학생부 우승을 했다. 34회 대회 때는 조대부고팀이 학생부 바른씨름에서 우승하고 일반부는 준우승, 35회 대회 때는 조선대학팀이 대학부 바른씨름에서 준우승했다. 44회 때는 광주남중이 중등부 우승, 45회 때는 담양중학팀이 중등부 우승을 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광주·전남 씨름은 원씨름 일색인 전국체전에서 힘을 펴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도 전남지방의 면이나 장날 씨름은 바른씨름을 했으나 점차 전국협회의 규정에 따라 원씨름

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때문에 한때 목포의 보해양조가 프로팀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전남출신 선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서부터 왼씨름에 익숙해온 경상도 장사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오늘날은 사투리도 문화유산으로 보아 지방마다 사투리사전을 내고 사투리대회를 여는 등 서울중심 표준화에서 벗어나려는 분위기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사업으로 진행한 조선민속조사 때 일본인 무라야마가 쓴『조선의 향토오락』에서도 바른씨름은 서울씨름의 기본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씨름의 기본이 힘겨루기이고 서로 몸을 붙잡고 싸우는 경기이므로 당연히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왼손을 지렛대삼아 상대의 허리춤을 잡을지라도 오른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식이 바른씨름이고 옳은 씨름이다. 표준화한답시고 제대로 힘쓸 수 없는 왼손잡이 씨름을 표준으로 삼은 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1927년 서울 휘문중학생들에게 조사한 조사 자체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스의 레슬링도 두 형식이 있듯 씨름도 두 방식이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보다 호남의 중심인 광주가 앞장서 전통적인 이고장 방식인 바른씨름을 부활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문화의 발전은 지역색이 강한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1970년대까지도 초·중·고등학교마다 체육대회가 있어서 지역축제의 기능을 맡았다. 학교마다 매년 학예회가 열려 재능있는 학생들의 발표기회를 마련해주고 표창도 했다. 어린 시절 연극이나 합창 또는 독창에 참가했던 학예회의 추억은 평생 그 사람의 정서적 기호를 결정 짓는다. 학교운동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은 소질개발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평생 건강생활의 기초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학예회를 부활하고 운동회를 갖는 것은 전인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에게 씨름을 시켜보면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상대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가랭이를 거며 쥘다. 이처럼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씨름형태를 죽여서는 안 된다. 바르다는 말은 옳다는 뜻이다. 바른씨름이 옳은 씨름이다. 사투리의 부활처럼 바른씨름도 부활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 의향

동학에서 5·18까지

호남 깊은 곳에 자리한 의성義聲

광주사람들은 5·18 이전에도 스스로 광주를 예향藝鄉·미향美鄉·의향義鄉이라고 내세웠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이 평가받으면서 의향이란 많이 크게 부각되었다. 5·18 이전에도 광주사람들이 광주를 의향이라 한 것은 일제식민지 시절의 학생운동 때문이었다. 학생운동과 늘 함께 언급하는 의향의 본보기는 한말의 의병활동과 임진왜란 때의 고경명 의병이었다. 조선시대의 두 사건은 광주사람들이 주역을 맡기도 했지만 사실은 호남을 통틀어 일컫는 때 이르는 말이기도 했다.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호남의소 도통대장을 맡았던 박용식朴鏞植은 광주 의병장 조경환曹京煥에게 보낸 글에서 “예부터 호남은 의성義聲이 최고였음”을 말하였다. 같은 시대 의병장 기우만奇宇萬(1846~1916)은 의병열전 김익중전金翼中傳에서 ‘호남은 예로부터 충의의 고장이다. 임진왜란 때 금산에서 순국한 이들이 어디 사람이며 남해안 바닷가에서 싸운 이는 어디 사람들이었던가.’ 라면서 호남지역의 의병운동이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웠다.

금산에서 순국한 이는 광주출신 고경명이다. 그는 환갑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 아들 인후 및 집에 살던 노비와 광주사람 6,000여 명을 이끌고 왜병과 싸워 순절해 광주의병 역사의 첫머리에 오르내린다. 한말 의병으로 지리산 연

곡사에서 순절한 고광순(高光殉)(대장) 고광훈(좌익장) 고제량(부장) 고광수(선복장) 고광채(우익장) 등이 모두 그의 후손이다.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동학농민운동도 의로운 일에 넣는다. 폭정과 불의에 저항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들자면 호남이나 광주주의 의거는 멀리 후백제 건국을 위해 일어난 광주사람들의 애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왕조시대에 조정에서 저항한 사건은 모조리 반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의로운 거사였으나 실패했을 뿐이다.

후백제의 건국은 신라조정의 부패와 곳곳에서 일어

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일어난 광주사람들의 의거로 시작되었다. 물론 이에 앞서 광주사람들은 광주로 쫓겨 온 신라 김우징 왕자를 추대해 신무왕(神武王)을 만든 장보고 선단의 주력이었다. 역사기록상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장보고이다. (『삼국사기』, 『변천문집』) 고려 때의 1232년 담양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연년(李延年)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임란 직전 정여립(鄭汝立)(?~1589) 일당으로 내몰려 죽은 정개청(鄭介淸)(1529~1590)과 호남선비들,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무신란(戊申亂)의 희생



한말 함평과 나주를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40여차례 싸워 승리로 이끌어 낸 죽봉 김태원 의병장의 동상으로 광주 서구 농성동 광장에 있다.

자들 또한 과연 불의한 사람들이었던가 되살펴 보아야 한다.

죽봉 동상 하단에 새겨진 비문

다행스럽게도 5·18은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역사적 승리를 거둔 의거의 하나가 되었다. 광주학생운동도 사건 후 15년 만에 일본이 망하면서 그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조명되어 학생운동기념일도 생기고 기념탑과 기념회관조성, 학생운동사연구 등 선양사업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도 사후에나마 공훈을 세운 사람들의 행적이 잘 정리되고 나라의 표창을 받거나 사당, 정려, 서원 등이 세워졌다.

1799년 고경명의 8세손 고정현이 『호남정의록』을 내놓았다. 이 책에 실린 절의자 수는 1,463명이다. 같은 해에 임란 때 장성에서 창의한 67명의 행적을 기록한 『남문창의록』이 나왔다. 1762년의 『호남병자창의록』은 당초 106명은 수록했으나 1932년 세번째 발간 때 수록 인물이 448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사람들의 정묘호란 참가기록인 『광산의거록』이 1760년에 간행된 기록이 있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1980년대에 『호남지방 임진왜란 사료집』이 간행되었다. 이와 달리 1986년 민간단체로 광주·전남 충의사현창회가 발족해 1992년 『오란창의 의사록』을 간행하고 합동 창의사 건립을 시도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창평 유촌리에 의사공원을 조성하고 의정신관을 세우는 한편 고평순 의사 기념비를 세우는 등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그 행적을 밝힐 수 있었던 임란이나 병자호란, 학생운동, 5·18과는 달리 동학농민운동이나 한말의병 및 일제식민하 수많은 독립운동은 사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주도하여 당시 계층간 갈등도 없지 않아 이후 지역유지나 선비, 부호들의 외면을 받아 나주 같은 곳에서는 동학군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있었다. 더구나 동학군이 반란군으로 취급받아 소탕된 뒤 후손들은 족보에마저 등재되지 못했다. 광주도 동학 때 선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다만 전봉준이 백산에서 호남창의



죽봉 동상 하단에 새겨진 비문

대장소를 발족할 때 광주에서는 강대열姜大悅, 박성동朴成東, 김우현金右鉉 등이 참여했다. 남구 대지동 윤태한尹泰翰(1857~1932)이 동학접주로 김개남 부대에 참여한 뒤 살아 돌아와 한말의병에 가담했다가 1907년 12월 체포되어 2년 옥고를 치렀다. 물론 동학농민군으로 광주 박성동朴成東 접주가 4,000명의 농민을 이끌었다는 기록도 있다. (오지영의 『동학사』) 남구 이장동 고광문(1860~1898) 형제는 동학군에 종군한 뒤 몸을 숨겨 가산을 탕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후손인 고영두高永斗(1930~2006)씨가 부지를 희사해 이장동에 동학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박성동 접주를 따라나선 4,000여농민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말의병은 단발령과 민비시해 후인 1895년에 일어났다. 을미의병이라 이르는 이 의거 때 충청도에서는 이항노李恒老(1792~1868)의 척화斥和 사상 을 이어받은 유인석柳麟錫(1841~1915)이 부대를 이끌었다. 장성 진원의 기정진奇正鎭(1789~1876)으로부터 척화학통을 이어받은 그의 손자 기우만奇宇萬(1846~1916)은 손아래 족속 기삼연奇參衍(1851~1907), 고광순高光殉(1848~1907)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광주향교에 본부를 두었고 나주 의병이 친일적인 안중수安宗洙 참사관과 시찰관, 순검 등 6명을 살해하자 그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기우만은 정부에서 파견된 신기선 선유사의 만류에 의병을

해산하고 말았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일본인 43명이 피살되었는데 일본군인 스지다쇼土田謙亮 중위가 김구金九선생에게 살해되어 김구선생이 사형을 인도받았으나 탈출에 성공해 뒷날 상해임시정부를 이끌었다.

1906년 6월 경기도 포천 사람 최익현崔益鉉(1833~1909)이 1905년 일본의 통감정치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피보호국이 되는 한일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반대해 옥구 출신인 제자 임병찬林炳贊(1851~1916)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당시 태인 아래인 임실, 순창 일대에는 동학농민군의 뿌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 최익현은 순창에서 7일만에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된 뒤 순국하고 임병찬은 담양으로 피했다가 잡혀 최익현과 같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국권병탈 때 풀려나자 다시 독립운동에 가담, 1914년 체포되어 거문도 유배 중 자결했다.

1906년 추수가 끝난 11월이 되면서 장성의 기우일奇宇日·강재천姜在天, 능주의 이광선李光先, 순천의 백락구白樂九, 부안의 이경춘李慶春, 순창의 최산흥崔山興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듬해 1월 창평의 고광순高光珣이 또다시 봉기했다.

1907년 7월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자결하자 일제는 고종황제의 책임을 물어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해버렸다. 이 같은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행위로 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할 때 해산당한 한국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했다. 이 해 1907년 9월 24일 장성 수련산에서 호남창의회맹소가 결성됐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통감정치 직후까지 유생들이 의병을 주도한 것과는 달리 이때부터 의병운동 참가자 중 농민과 상인 출신이 많았다. 이 무렵은 세제가 달라져 세부담이 늘었을 뿐 아니라 지적측량으로 토지를 빼앗기는 일이 많았다. 이에 더해 일본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국유지 불하는 물론 하천부지, 해안빈지 등 일반서민들의 경작지를 강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본 침략에 대한 분노가 팽배했다.

나주출신 김준準·泰元·김율律 형제 의병장은 기삼연奇參衍(1851~1908) 등과 장성회맹 후 주로 광주 주변 일대에서 싸우다가 순절했지만 이후 광주지역 의병에는 그들이 미친 영향이 컸다. 조경환曹京煥(1879~1909), 김원국

金元國(1874~1909), 강사문姜士文(?~1909), 양진여梁振汝(1860~1910), 양상기梁相基(1883~1910) 등은 모두 김태원 의병부대 출신이었다. 오성술吳聖述(1882~1909)은 기삼연, 윤영기尹泳淇(1880~1947), 신덕균申德均(?~1908), 고광순 부대 등에서 활동했다. 한말의병은 일본군인 아니라 친일 면장, 이장, 징세원, 우체부까지도 토평대상으로 삼았다. 양진여 집안의 양동골梁東骨(2년형), 김재민金在珉(서산동·교수형), 박봉석朴奉石(교수형), 박현동(비아·5년형), 임윤팔林允八(오치·교수형), 송학묵宋鶴默(1870~1909, 본촌·교수형), 김동수金東洙(1879-? 15년형), 이원오李元吾(1874~1909, 사형), 정익중鄭益仲, 이기섭李基燮, 선덕현宣德玄 등의 의병활동가 기록도 있다.

한말 의병은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1만 5,000여명의 희생 끝에 끝났고 이후 국권이 일본식민지배 하에 들어가 폭도의 후손들도 박해를 받다가 광복 후에야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의병장 469명은 재판기록이라도 남아있었으나 그들과 함께 싸운 5,000여명의 민초들은 이름마저 남지 않아 원혼을 달랠 길 없다. 친일파는 3대가 잘 살고 의열사는 3대가 못 산다는 속설이 있다. 못 살고 못 배워 선조의 의열마저 모르고 지낸다.

정부마저 보훈대상 신청자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 적극적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공적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 분들의 덕을 입은 우리 모두가 나서 감사해야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뒤늦게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의 현충사 순국선열의 방치가 문제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말의병에 대한 대우가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에는 군郡 에도 의병기념공원이나 기념관이 있는 것에 견주어 전남과 광주는 의향만 자랑할 뿐 그 유적이나 선열선양에는 인색하다.

： 지리적 야당

서울·경기 중심 중용한 조선 과거제도 지역차별 근원

중국에서 기내(畿內)라 하면 옛날 우왕(禹王)때 왕성(王城) 사방 5백리 땅을 일렀다. 이 개념이 한반도에 들어와 경기도를 기내라 했으나 중국처럼 도성 5백리까지를 이룰 때는 황해도와 충청도 북부가 포함되어 이를 기호(畿湖)라 부르기도 했다. 기호의 땅은 본디 도성 안에서 왕실의 운영에 쓸 세금징수의 대상지였지만 중앙관료들의 급료 대신 땅의 경작권이나 징세권을 주는 중앙정부 전용 지구라 할 수 있다. 이 밖의 땅은 중국의 풍습에 따르면 통치의 대상인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차별했다. 이곳에 살던 학자들마저 서울지방의 기호학과와 그 이남인 영호남학과와 구분했다. 이것이 서울사람인 율곡 이이의 기호학과와 경상도사람인 퇴계 이황의 영남학과에 대한 구분의 뿌리이고 결국 이들 학파는 동서당(東西堂)의 기초가 된다. 지역차별 본보기가 조선왕조의 관료 등용문인 과거제도의 응시 정원에 잘 드러나 있다. 조선왕조 법전인 『경국대전』이나 후기의 『대전회통』의 ‘예전(禮典)항목’을 보면 생원초시(生員初試)의 경우 한성은 200명, 경기 60명(뒤에는 한성에 합했다), 경상도는 100명, 전라도와 충청도는 90명, 강원도와 평안도는 그 절반인 45명을 배정했다. 대과인 문과와 경우도 같아서 한성 안의 성균관에 50명, 한성 내 40명을 배정하고 지방의 향시에 경기도는 20명, 경상도 30명, 전라도와 충청도에 25명을 배정했다.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서울, 경기도에 사람이 몰려 살았기 때문 만은 아니었다.



광주 충장로 인파

1860년계의 인구통계(『대동지지』)를 보면 한성인구는 28만 3,200명, 경기인구는 61만 6,100명, 경상도 인구는 144만 7,800명, 전라도 인구는 91만 900명이었다. 서울·경기 인구는 합해야 전라도 인구에 미치지도 못했다. 이때 인구조사는 노비 등을 뺀 조세자료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라 정확성이 부족했다.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의 인구통계가 실제 인구보다 조세부과자료에 불과함을 알고 1910년 해방된 노비까지 합해 철저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서울인구는 23만 3,590명, 경기도 인구는 119만 4,803명이었다. 당시 경상

도 인구는 289만 5,630명, 전라도 인구는 244만 4,891명, 충청도 인구는 140만 6,993명이었다. 이 인구가 오늘날 통계에 나타나는 본적별 인구의 기틀이다. 이 같은 실질적인 인구수로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이 조선시대 누린 특혜를 보면 역시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었다.

100년이 지난 2014년 10월 현재 본적별 인구수는 서울이 978만 2,945명으로 41배나 늘어났다. 이에 견주어 전라도 본적인구는 930만 5,549명, 경상도 본적 인구는 1,688만 1,522명으로 늘어났으나 1910년의 10.2

배와 11.6배로 서울사람에 비해 크게 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충청도는 140만 6,921명이 760만 1,576명으로 5.3배 밖에 늘지 않았다. 이 증가는 전국인구증가율과 비슷하다.

문제는 본적지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권역별 인구수에 있다. 이때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적과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중심으로 경상도 사람들의 타향살이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으나 1910년대의 경남·경북은 오늘날 대구·울산·부산의 광역단체들이 같은 권역 내에 생겨 인접 경상도 권역 안으로 이동했으므로 1910년대의 권역인 경상도 전체로 따질 때 경상도 밖으로 나가 사는 경상도 본적 토박이는 308만 1,048명이고 전남·북과 광주광역시를 합한 전라도 사람들은 좀 더 많은 405만 3,751명이 전라도를 떠나 살고 있다.

오늘날 경기도에는 1,233만 4,073명이 살고 있으나 경기도 본적 토박이는 586만 2,451명이므로 647만 1,572명의 다른 권역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셈이다. 올해 인구통계 중 본적은 호주 중심이 아니라 2005년에 시작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본적에 따른 통계이므로 핵가족이 많은 서울에 조상대대로 살아온 토박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서울 팽창때 들어온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낳은 1~2세대들이 본적을 서울로 바꿔 신고한 탓으로 기형적으로 서울토박이가 많아진 셈이다.

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기록부상의 서울시내 타관사람은 33만 9,716명뿐으로 다른 대도시의 타관사람 비율보다 적다. 권역별 타관살이는 전라도 본적의 사람 44.8%, 강원도 35.22%, 충청도 30.12%, 경상도 18.25%이다. 이 비율은 권역 안에 공업화에 의한 권역내 개발의 정도를 반영해 전라도의 저개발을 웅변하고 있다.

충청도는 근래 대전에 인접해 군대시설인 계룡대가 들어오고 정부기관 이동에 따른 세종시가 생겨나면서 충청권 거주인구가 531만 1,437명으로 호남 525만 1,798명보다 5만 9,639명이 많아졌다. 이를 계기로 충청권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조정을 하자고 성명을 내고 있다.

투표 가치의 평등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남 장흥 선거구 인구와 서울 강남을 선거구의 인구를 견줄 때 4.46배 차가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가치의 평등권을 해치므로 최대 4배차를 두라고 하여 선거구 인구를 8만~32만으로 조정되었다. 이 바람에 영암, 장흥이 단일 선거구로 통합되었다.

6년 후인 2001년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그 격차를 3배로 줄이도록 해 선거구 인구를 10만~30만 명으로 조정되었으나 2014년 들어 다시 그 차를 2:1로 줄이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른다면 선거구는 13만 3,333명~26만 6,666명 이내로 조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지는 전국적으로 62곳이다. 이 62 곳 중 경기 16, 인천 5, 서울 3, 충남 3, 대전 1곳이 새 선거구로 증설되고 경북 6, 전북 4, 전남 3, 강원 2곳이 줄어 국회의원 수가 15명 늘어나게 되어 정치는 조선시대처럼 기호지방의 주도하에 놓여 경상도와 전라도는 동·서 갈등을 일삼다가 결국은 기호지방 사람들의 눈치나 살필 처지가 되었다.

비례대표제가 직능자들을 영입하는 정치제도이듯이 인구수만을 따져 정치인을 뽑는다면 인구밀집지역이 과소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논리상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소수자와 다수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주의가 고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장

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지역 간 평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 이익집단의 횡포와 불평등이 된다.

5,128만명의 남한인구 중 경기권 인구만 2535만명으로 50%를 넘어선 마당에 충청도 인구 531만명이 경기권에 가세해 기호세력이 된다면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는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판이다. 이 같은 인구분포의 변화는 지역이기주의와 결합해 2원제 내각책임제로의 헌법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것은 본적 중심의 지연을 따질 경우 이북 월남민 140만명의 후손인 500만명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적 중심으로 따질 때 영호남 사람은 2,690만에 달해 서울, 경기 지방에 유입되어 있다. 특히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서울토박이 978만 명의 90%가 영·호남인의 2~3세대이므로 선조의 고향을 아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1910년 전라도와 경상도 인구비는 38.6 : 61.4였던 비율이 2013년 45.77대 54.23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본적 인구의 차가 좁혀졌으므로 정책적으로 출산율만 조금 높인다면 1천년 걸쳐 경쟁해온 동·서 갈등과 경쟁은 형평을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비록 선거구 조정으로 전남선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경기도와 서울에 진출한 전라도 출신들의 정계진출이 고향을 지킨 경상도보다 많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울 본적 인구가 턱없이 많듯이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도 거품이 있다. 2014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광주 본적 인구는 95만 8,120명이고 주민등록상인구는 147만 7,517명이다.

1860년대 광주인구가 2만 920명이었고 1910년 인구가 7만 8,669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1백년 사이에 12.18배나 토박이 자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웃고을에서 전입한 타관사람들의 2세들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광주 출생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전라도와 광주사람들이 인구율에 따른 정치적

열세를 극복하는 길은 출산을 장려 시책과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시책이 절대과제다. 세상의 문명이 발전해 공간의 장소성이 줄어 세상이 한울타리가 된다는데라도 자신의 주생활공간과 혈연은 생활에 밀접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한계는 어쩔 수가 없다.

치정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리한 조건에서 변방인 전라도가 기호지방과 같은 소득과 행복을 누리는 길을 그 어느 때보다 고민할 때이다.

본디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생체이므로 지역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이다. 머리로는 공평과 균형을 말하면서도 본능적 행동은 지역이익을 우선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생체적 본능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내지방은 여당성향을 갖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은 치정 중심에서 가까운 기내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마련이다. 치정 중심에서 먼 곳 사람들은 언제나 정치적 수혜정도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위치 때문에 천생 야당이 될 수 밖에 없고 정치가 공정치 못하다고 불평하게 된다. 이것은 공간의 벽이 점점 좁아지고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는데 따라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비이성적 정치행위는 줄어든 것이라고 기대하자.

: 몰표인심

내년, 다음해에도 계속 이어질까

광주사람들이 몰표를 주기 시작한 것은 5·18 이후 처음으로 직접선거가 실시된 1987년 12월의 13대 대통령선거 때부터이다. 당시 선거에서 대통령은 일반의 상상을 깨고 군사정권의 연장이라 할 노태우씨 차지가 되었다. 이 선거는 국민들이 16년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였으나 양김씨의 단일화 실패로 다시 군부세력의 집권이 이뤄지고 말았다.

두 김씨가 싸우는 바람에 5·18희생과 민주화투쟁이 무의미해졌다. 이 선거 때 광주는 94.4%가 김대중씨에게 몰표를 주었다. 전남은 90.3%, 전북은 83.8%의 몰표였다. 이에 견주어 김영삼씨는 부산에서 56%, 경남에서 51.3%의 표박에 얻지못했으므로 호남사람들의 몰표가 훨씬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김영삼씨는 광주에서 유세마져 할 수 없을만큼 배척을 받자 경남 창원유세장에서 ‘몰표를 주셔서 광주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자’고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13대 대통령선거의 호남지역 몰표현상은 5·18민주화운동의 명분을 퇴색시킨 셈이다. 황새와 조개 싸움통에 노태우가 어부지리를 한 선거판이었다. 군정종식이나 민주화가 두김씨의 권력욕에 묻혀버렸다. 이때 교훈을 얻은 두 김씨는 14대 대선 때 김영삼씨는 경북기반의 노태우씨와 야합하고 15대 대선 때는 김대중씨가 충청도의 김종필씨와 야합해 정치적 성공을 거뒀다.

1992년 당시 광주사람들은 13대 때보다 1.4% 많은 95.8%의 표를 김대

중씨에게 몰아주었다. 당시 김대중씨의 출신지인 신안군 하의도는 광주보다 적은 90.62%의 지지를 보였고 김영삼표도 66표나 나왔다. 김영삼씨의 고향인 거제도 장록면에서는 94.16%가 김영삼씨를 지지하고 김대중표는 겨우 18표였다. 재미난 것은 김대중씨가 박정희씨와 대결했던 1971년 대통령선거 때 신안군 하의면 주민들의 61.57%가 김대중씨, 23.58%(699표)가 박정희씨를 지지했던 것에 견준다면 1987년 선거부터는 고향 출신에게 보다 많은 지지를 보여준 셈이지만 절대적 지지는 아니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충청도출신 김종필씨와 연합한 김대중씨는 1998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디어 이회창씨를 누르고 당선의 꿈을 이뤘다. 이때도 광주사람들은 97.28%라는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다시 이와 같은 기록은 없을 것이다. 이때 이회창씨와의 표차는 전국적으로 39만표였으므로 이인재씨가 출마해 이회창씨를 견제하지 않았다면 김대중씨는 또다시 실패했을 터이다. 왜냐하면 이인재씨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30%의 지지율을 보여 전국적으로 492만표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에서만 30%인 62만 3,000표를 획득했다. 이 표만 이회창씨에게 갔더라도 김대중씨는 낙선했 뻔했다.

2003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는 호남 출신 후보자가 없었다. 일편단심 김대중씨를 따랐다는 의리만으로 광주사람들은 부산 출신 노무현씨에게 17대 때 전북 출신 정동영씨에게 준 79.75%를 훨씬 넘는 95.17%의 지지표를 주었다. 이때 노무현씨와 이회창씨의 표차는 57만 1,000표였으므로 호남사람들이 노무현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셈이다.

당시 노무현씨는 고향인 부산에서 겨우 29.85%의 표를 얻었고 이회창씨는 노무현씨의 배가 넘는 66.74%를 얻었다. 그러나 노무현씨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대중씨가 창당한 당을 깨고 경상도 중심의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김대중씨가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다고 김대중 비서실장 박지원을 구속했다. 이때 호남사람들은 정치의 무상함을 느꼈다.

2008년의 17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의 싸움이었다. 이

번에는 호남사람인 정동영씨가 통합민주당후보로 출마했으나 광주사람들은 노무현씨 때보다 15% 이상 적은 79.75%만 주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에게 준 표도 10%미만인 8.59%였다. 야당몰표 성향이 줄어드는 듯 싶었다.

노무현씨의 비서실장 문재인씨가 출마한 2012년 12월 19일의 선거에서 광주사람들은 문재인씨에게 91.97%의 표를 몰아주어 두번째 의리를 다했다. 이 선거에서 문재인씨는 고향인 부산에서 40%에 못미치는 39.87%를 얻었다. 이 표는 노무현씨 때 29.85% 보다는 10% 늘어난 수치이다. 박근혜씨가 고향인 대구에서 80.14%를 얻었던 것을 생각하면 노무현씨 고향인 부산의 인심은 달랐다.

1987년에 시작된 광주의 몰표현상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는다. 민선5대 광주시장 선거 때 강운태씨는 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조영택씨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다. 결과는 강운태 56.71%, 조영택 33.94%였으나 16대 시장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강운태씨는 31.77%로 정치신인 윤장현씨에게 졌다. 강운태씨는 16대 국회의원선거 때 광주남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50.69%의 득표로 당시 국회의원으로 새천년민주당 공천을 받는 임복진씨(34.47%)를 이기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5년 광주 서구 재보궐 국회의원선거에서 천정배씨는 연고와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열린우리당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자 조영택씨를 이겨냈다.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또다시 몰표인심이 고개를 들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선거에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본디 광주의 선거인심은 어떠했는가? 광복 이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수립 후 직접선거가 열린 1952년 8월 5일 선거 때 자유당 이승만씨는 전국 74.6%, 전남 73.6%, 광주 39.5%였다. 광주는 당시 이시영씨에게 39.7%의 표를 주었고 조봉암씨에게도 15.5%의 표를 주어 전국득표평균인 11.3%보다 조금 높았다. 부통령의 경우 함태영씨가 41.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광주는 조병옥씨에게 38.2%, 이범석씨에게 20.9%를 주어 이때 야당성향을 나타냈다.

두번째 대통령선거때인 1958년 유세 중에 신익희 후보가 죽었는데

도 26.9%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유효표 중 44.1%를 조봉암씨에게 주고 55.8%를 이승만씨에게 주었다. 사표와 조봉암씨 표가 이승만씨 표보다 많았다. 1954년 민의원선거에서 무소속 정성태(鄭成太)씨를 당선시키고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정성태, 이필호와 자유당의 박흥규(廣山)씨가 당선되었다. 1956년 제2대 시의원선거 당선자는 무소속 10명, 민주당 6명, 자유당 3명, 국민당 1명으로 야당이 우세했으나 무소속 7명이 자유당에 협력, 균형을 이뤘다. 이 때문에 간접선거에 의해 자유당의 홍용구씨가 시장이 되었으나 1958년 직선제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김일도(金一道)씨가 자유당의 정상호(鄭尙好)씨를 5,000여 표차로 누르고 시장에 당선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하고 과도정부체제하의 1960년 7월 29일 선거 때는 참의원 조국현(曹國鉉)(민주), 최상채(崔相彩)(민주), 김남중(무소속), 박철웅(무소속)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에는 모두 민주당으로 정성태, 김용환, 이필선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1년만의 군사쿠데타로 해산되고 민정이양선거인 1963년 11월 국회의원선거 때 다시 정성태와 공화당의 정래정(丁來正)이 당선되었다.

광주는 광복 후 이때까지 계속 야당이 우세했으나 여당이 지금처럼 10% 이내가 아니라 근소한 차이를 보여 몰표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1963년 대통령선거는 윤보선(尹潽善)씨가 15만 6,000표차로 박정희씨에게 패배한 뒤 정신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선거이다. 이때 광주사람들은 49.2%를 윤보선씨에게 몰아주고 박정희씨에게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8%의 표를 주었다. 비록 광주시민들은 야당후보자를 지지했으나 전남도민들은 윤보선씨에게 35.9%, 박정희씨에게 52.2%의 표를 주어 그 차가 28만 4,900표였으므로 박정희씨는 전남도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셈이나 다름없었다. 재미난 현상은 4년 뒤에 열린 1967년 대통령선거 때 광주사람들은 1963년 선거 때 21.8%의 지지율을 보인 박정희씨 표가 42.36%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이다. 광주사람들이 아세아자동차공장의 건설에 목말라했을 때 유세 중 박정희씨가 자동차공장건설을 약속한데 따른 희망 때문이었다(『광주산책』 상권 294쪽 참조). 광주사람들이 이처럼 박정희씨에게 희망을 걸던 선거에서 전남

1952년 8월 5일 대통령선거 (2대)			이승만	%	이시영	%	조봉암	%
	전국	7,275,883	5,238,769	74.61	764,715	10.89	797,504	11.35
	전남	1,164,923	823,587	73.57	165,245	14.76	99,885	8.92
	광주	45,157	17,057c	39.50	17,114	39.70	6,757	15.50
1952년 8월 5일 부통령 선거 (2대)			함태영	%	이범석	%	조병옥	%
	전국	7,133,297	2,943,813	41.3	1,815,692	25.4	575,260	8.1
	전남	1,136,734	729,541	64.1	59,318	5.2	125,525	10.0
	광주	44,155	7,030	15.9	9,250	20.9	16,887	38.2
1956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 (3대)			이승만	%	조봉암	%		
	전국	9,067,063	5,046,437	69.98	2,163,808	30.01		
	전남	1,286,178	741,623	72.11	286,787	27.88		
	광주	95,625	37,981	55.83	30,042	44.16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 (5대)			박정희	%	윤보선	%		
	전국	11,036,175	4,702,640	46.64	4,546,614	45.09		
	전남	1,457,183	765,712	57.22	480,800	35.93		
	광주	124,274	43,766	35.21	67,698	54.47		
1967년 5월 3일 대통령 선거 (6대)			박정희	%	윤보선	%		
	전국	11,645,215	5,688,666	51.44	4,526,541	40.93		
	전남	1,554,478	652,847	44.58	682,622	46.61		
	광주	143,304	56,314	39.29	75,050	52.37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 (7대)			박정희	%	김대중	%		
	전국	12,417,816	6,342,828	53.19	5,395,900	45.25		
	전남	1,496,413	479,737	34.43	874,974	62.80		
	광주	179,036	39,303	21.95	131,447	73.41		
	하의도	2,964	699	23.58	1,825	61.57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 (13대)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전국	23,066,419	8,282,738	36.64	6,337,581	28.03	6,113,375	27.04
	전남	1,498,755	119,229	8.16	16,826	1.15	1,317,990	90.28
	광주	481,126	22,943	4.81	2,471	0.51	449,554	94.41
	부산	2,024,324	640,622	32.10	1,117,011	55.98	182,409	9.14
1992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14대)			김영삼	%	김대중	%	정주영	%
	전국	24,095,170	9,977,332	41.96	8,041,284	33.82	3,880,067	16.31
	전남	1,285,110	53,360	4.20	1,170,398	92.15	26,686	2.10
	광주	685,797	14,504	2.13	652,337	95.84	8,085	1.18
	하의도	1,557	66		1,401	90.62		
	거제장록	1,919	1,807	94.16	18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15대)			김대중	%	이회창	%	이인재	%
	전국	26,042,633	10,326,275	40.27	9,935,718	38.74	4,925,591	19.20
	전남	1,325,731	1,231,726	94.61	41,534	3.19	18,305	1.40
	광주	783,025	754,159	97.28	13,294	1.71	5,181	0.66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16대)			노무현	%	이회창	%	권영길	%
	전국	24,784,963	12,014,277	48.91	11,443,297	46.58	957,148	3.89
	전남	1,161,511	1,070,506	93.38	53,074	4.62	12,215	1.06
	광주	755,398	715,182	95.17	26,869	3.57	7,243	0.96
	부산	1,983,492	587,946	29.85	1,314,274	66.74	61,281	3.11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17대)			이명박	%	정동영	%	문국현	%
	전국	23,732,854	11,492,389	48.67	6,174,681	26.14	1,375,498	5.82
	전남	971,461	88,834	9.22	757,309	78.65	31,289	3.24
	광주	663,338	56,875	8.59	527,588	79.75	31,524	4.76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18대)			박근혜	%	문재인	%		
	전국	30,721,459	15,773,128	51.55	14,692,632	48.02		
	전남	1,171,210	116,296	10.00	1,038,347	89.28		
	광주	898,416	69,574	7.76	823,737	91.97		
	대구	1,585,806	1,267,789	80.14	309,034	19.53		
	부산	2,219,699	1,324,159	59.82	882,511	39.87		

※ 4대 대통령 및 부대통령
선거는 3·15부정선거였
으므로 생략함



선거 유세장 풍경

도민들은 1963년 선거 때와는 달리 46.6%가 윤보선씨를 지지하고 1967년에는 그보다 3만여 표 적은 44.58%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 탓이었던지 이후 박정희씨의 지역차별정책이 노골화되어 전남푸대접 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4년뒤에 실시된 1971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지역감정이 노골적으로 표출된다. 물론 이때 전남 하의도출신인 김대중씨가 출마한 탓이 컸다. 전국적으로 박정희씨는 김대중씨보다 94만 7,540표를 더 얻어 할 말이 없었지만 광주 사람들은 김대중씨에게 75.57%를 몰아주었고 전남도민들은 62.8%가 지지했다. 이때부터 호남사람들은 김대중씨의 성공이 지상과제가 되었다. 박정권이 김대중씨 납치극을 벌이고 박정희씨가 총격으로 죽자 대통령자리는 파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있을 때 전두환군부가 김대중씨를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 구속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이런 판국에 민주화를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전라도 사람뿐이었겠는가? 물론 광주 5·18은 본원적인 절의정신이 밑바탕이 되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전라도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 같이 변해버린 김대중씨의 구속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때의 한이 집단병리가 되어 몰표 투표인심을 30년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몰표 현상이 계속 이어질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다음해의 대통령 선거때 그 성향이 나타날 것이다.

: 광산 이씨와 기축옥사

1694년 이발이 신원 복관되자 죽었던 나무에서 새순

진도군 임회면에 가면 광산 이씨들이 기축옥사 때 피신해 와 살기 시작했다는 피동(避洞)이란 동네가 있다. 오늘날의 정당정치는 고위 관리나 국영기업체장들이 자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거의 동시에 사표를 내거나 사직 후 비리가 밝혀지면 감옥에 갔다 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봉당정치 때는 정권을 빼앗기자마자 역적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본인은 물론 삼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오늘날 진도에는 광산 이씨가 130여 가구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선조 재위 때 같은 집안의 이발(李潑, 1544-1589)이 동인(東人)의 영수로 전주에 살던 정여립(鄭汝立, 1544-1589)과 더불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옥사를 당하자 피신한 후손들이다. 당시 광산 이씨 집안에서는 이발의 동생 이길(李詰, 1550-1589), 사촌 동생 이급(李汲, 이발의 어머니 해남윤씨, 이발의 아들, 사위 등이 죽임을 당했다. 이길의 아들 원섭(元燮)은 제주로 도망가던 중 진도 고군면 원포항에서 닢을 내렸을 때 이곳 사람의 도움으로 진도에 정착했다. 이발의 조카 이선희(璿華)는 진도 지산면 관마리에 숨어살다가 그의 아들 보세(寶世)가 임회면 피동으로 옮겨 살았다.

조선왕조 초기 가장 많은 과거 급제자를 냈던(대촌면) 원산동 만산동네 어구에 있던 물버드 나무는 광산 이씨들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북을 매달아 꽤 고정수(掛鼓亭樹)라 불렸다. 이발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곳에 살던 집안이 뿔뿔이 흩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4호인 쾌고정수

어지고 나무마저 말라 죽었다. 그러나 1694년 이발이 신원 복관되고 정려가 내려지자 1백여년 만에 죽었던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되살아 광산이씨들이 새빛을 보았다는 전설이 있다. 이 나무는 1998년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4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1924년의 광주읍지에 이 나무 얘기가 있다. 나무가 죽은 해는 1833년 이고 되살아 난것이 1865년이라 했다. 광산 이씨 족보는 보다 자세하다. 쾌고유가 말라죽자 이 꼴이 보기 싫어 이 집안 이상엽李尙燁이 아들 주신周臣(1830~1890)을 시켜 도끼로 찍어 없애라고 했다. 그러나 도끼로 찍어 놓치지 못해 나무단을 쌓아 놓고 3일간 불을 질렀으나 타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 사이에 느티나무 묘목을 심었더니 1865년 느티나무와 함께 죽었던 버들가지에 새싹이 나서 오늘날 고목이 되었다 한다.

이발의 집은 당시 남평군 산포면 등수리 등계마을 483번지에 있었다. 이

발이 장살을 당하고 이 집은 불을 질러 태운 다음 연못을 파버렸으나 오늘날은 동네가 들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발의 아버지 이중호李仲虎(1512-83)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그의 5대조는 조선초기 광주의 인물이었던 이선제(1390-1453)로 예문관 제학을 지내고 광주향약을 지었으며 『고려사』 개찬에 참여했다. 이웃에서 산 고경명高敬命의 할아버지 고운高雲(1479-1550)이 이선제의 증손자 사위였다. 이처럼 광산 이씨 집안은 조선초기 이발에 이르기까지 12대 홍문관을 낸 명문이었다.

연일 정씨 정철鄭澈(1536-93)은 서울에 살면서 어린시절 누이의 인연으로 궁실을 드나들었다. 그러나 1545년의 을사사화 때 큰형이 장살을 당하고 아버지가 유배를 가자 창평 원강의 할아버지 묘지 곁에 내려와 살면서 충효리 김윤제金允梯(1501-1557) 나주 목사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 이발이 여덟살 나던 해 정철은 열여섯살 때 남평에 살던 이발의 집을 들렀다 한다. 여덟살의 이발과 다섯살의 그의 동생 이길이가 장기를 두는데 이를 구경하던 정철이 훈수를 했다. 그러자 이발이 일어나 “네놈이 누구이길래 우리형제 장기에 끼어드느냐”면서 턱에 승승 자라난 수염을 뽑아던졌다. 정철은 이런 낭패를 당하고도 씩 웃으면서 대문을 걸어나갔다. 이 얘기를 들은 이발의 어머니 해남 윤씨는 “화를 내지않고 웃고나갔다니 필시 후환이 있을 것이므로 조심하라.”고 두 아들을 타일렀다. 박힌 돌이 굴러온 돌에 뿔히는 사회의 빌미가 시작된다.

정철은 1562년 대과에 급제해 벼슬을 시작했고 이발은 11년 늦은 1573년 알성 장원급제해 이조정랑에 발탁되면서 동서 봉당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때 이발은 서인들의 미움을 사 1589년 기축년 정여립 고변사건 때 이 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 격인 위관 정철의 손에 걸려들어 장살을 당했다. 이때의 전말은 왕조 실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나 야사野史는 『대동야승』의 ‘기축록’에 자세하다. 이밖에 『해동야언』, 『조야기문』 등에 기록이 있고 기록아닌 구전도 많이 나와있다. 이발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은 젊은 시절 남평 좌수의 딸이 짝사랑 끝에 죽어가는 것을 외면해 결국 그 딸이 죽은 뒤 파랑새가 되어 이발의 집 대문을 쪼아댄 원한 탓이라는 구전도 있다.

정여립 사건으로 함평 엄다에 살던 정개청鄭介淸(1529-1580)이 죽고 그의 문인들이 모두 같은 역당의 무리로 몰리면서 호남은 후백제 패망 이후 두 번째로 '반역향'이란 지탄을 받았으므로 뼈아픈 역사이다.

정여립 모반사건은 단순한 중앙권력싸움이 아니라 향촌사회의 분열을 낳아 오랜 기간 지역사회 갈등 요소가 되었던 일로 피차 언급을 삼가는 터이다. 오늘날은 옛날 문중 간의 원한을 따지는 이도 별로 없지만 중세사 이후의 향촌사 연구를 위해서는 그 전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전처럼 실제로 같은 고장 사람들끼리 중앙 정계에서까지 사적 원한으로 피바람을 일으켰다면 통탄할 일이다.

근래 일부 학자들은 노비 출신인 송익필宋翼弼(1534-1599)이 동인들에게 원한을 품고 모사로 엮어낸 살생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개청은 나주 나씨 나사침羅士枕(1525-1596) 등을 가르치다가 신북 모산 출신의 나주목사 유몽정의 부탁으로 나주향교 훈도를 맡았다. 이때 토반 학생 도련님들에 대한 대접을 잘못된 탓으로 모함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그는 동인계 이산해의 천거로 곡성현감이 되었는데 이때 창평에 낙향해 있던 정철을 홀대해 피를 보았다는 야사기록이 있다.

화순의 조대중曹大中(1540-1590)은 동인계 유희춘柳希春에게서 공부해 1582년 문과에 급제한 뒤 전라도사가 되었다. 순행 중 사촌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이 정여립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라는 모함을 받고 국문을 당하다가 죽었다. 이발의 외가인 해남윤씨와 인척 관계에 있던 미암 유희춘 집안이나 나주 탐진 최씨 최부崔溥의 집안 등도 모두 동인계 인맥으로 분류되어 두고 두고 서인계에 흡수된 광주사람들과의 갈등이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다.

기축옥사 때 동인의 모함에 앞장 섰던 사람들 중 오히려 국문을 당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축옥사가 일어난 2년만인 1591년 정철이 실각하고 동인계가 집권하면서 입은 광주 근교의 서인계 피해도 적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에서마저 당색은 가시지 않았다.

진주성 싸움의 주력은 호남 서인계 인사들이 주도했으므로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가 외면한 것은 그가 동인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광산 이씨는 8세에서 순백^{洵白}과 숙백^{淑白}으로 갈렸다고 정리하고 있다. 순백계는 상서 공파라 하여 대촌 일대에 뿌리를 둔 이선제 집안이고 숙백계는 한림 공파라 하여 운암동에 정착한 집안을 이른다. 재미난 것은 오늘날 두 집안은 지원동 무량골에 두 시조를 함께 모시고 있지만 기축옥사 때는 한림 공파는 마치 다른 집안처럼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도 이 집안의 이세환^{李世煥}(1541-1603)은 광주목사 권율(1537-1599)장군의 막하에 들어가 의병에 참여해 공훈을 세웠다. 다만 관군에 자원할 망정 서인계 인사들의 의병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발이 정계에 진출하던 때에 이조정랑을 둘러싸고 심의겸^{沈義謙}(1525-1587)의 서인당^{西人黨}과 김효원^{金孝元}(1532-1590)의 동인당^{東人黨}이 생겨났다. 이발은 서인계의 율곡 이이^{李珥}의 추천을 받아 이조정랑이 되었으나 그는 이직할 때 동인당의 우두머리라 할 김효원을 자신의 후임 자리에 천거한 탓으로 서인들의 미움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심의겸의 외숙인 이량^{李樑}(1520-1572)을 몰아냈는데 하필 이웃 동네에 살던 고종 9촌숙이 되는 고맹영^{高孟英}(1504-?)도 귀양가고 그의 아들 고경명^{高敬命}은 파직되었으며 고맹영의 동생 고중영^{高仲英}(1506-?)또한 진도로 유배되었다. 충효동을 중심으로 자란 정철(심의겸 과거동기)도 이때 파직되어 창평에 3년간 은거하는 신세가 되었다.

역사의 승자는 정철이었고 패자는 이발이었으므로 패자의 진의는 곡해되기 쉽다. 조광조^{趙光祖}(1482-1519)가 너무 젊어 이상주의적인 지치주의를 내세우다가 기득권자들의 모함을 받아 죽었듯이 이발은 선조 때의 조광조였다고 할 수 있다. 같이 희생물이 된 정여립도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정개청은 보다 현실적인 사람으로 절의 청담론을 폈으나 주변의 시기를 받아 희생된 인물이다.

그는 선비들이 지나치게 절의를 내세워 본분을 이탈하고 자신을 망치고 있

다고 비판했다. 청담을 얘기하는 자들도 말 뿐, 행동은 권세를 탐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이는 모두가 명덕과 실민을 모르고 중화(中華)를 모르는데서 오는 병폐라고 시대상을 개탄했다. 그는 선배들이 직분과 의리의 본뜻을 모른채 조정을 더럽게 여기고 오만하게 천하를 얹잡아 보면서 세상 인물들을 비판하고 조정 대신을 헐뜯다 보면 대신들이 일할 수 없어 중국에는 나라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오늘날 정치현상을 보고 말하는 듯해 간담이 서늘하다.

선조 40년(1607) 6월의 실록에는 이런 글이 있다. “정개청, 이발, 이길, 조대중, 유몽정 등 다섯 신하는 일세의 명류였다. 이 가운데서 이발, 정개청, 유몽정은 더욱 우수한 자들이다. 평생동안 일삼은 것은 충효와 학문 뿐이었다. 기축년 권간들의 모함에 빠져 끝내 헤아릴 수 없는 화를 만났으니 하늘인가 사람인가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제6장

광주의 문화 예술

: 예향의 바탕

“소수 기능인 전유물된 예술 모든 시민의 일상돼야”

70년대 서울에서 간행되던 잡지나 신문들은 광주 기행문이나 특집을 할 때면 광주를 예향藝鄉이라고 곧잘 칭찬하며, 판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요정이나 스탠드바 등 술집에 흔한 서예작품이나 동양화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뒤에 소개할 석천 임억령林億齡(1496~1568) 등이 무등산록과 해남 등지에서 활동한 문학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향이란 별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천부사를 지낸 이수광李睟光(1563~1628)이 쓴 『지봉유설芝峯類說』을 보면 “시인은 호남에서 많이 나왔다”하고 박상, 임억령, 임형수, 김인후, 양응정, 박순, 고경명, 백광훈, 최경창, 임제 등을 들었다.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 허균許筠(1569~1618)도 『성송식소록』에서 앞서 열거한 당대의 호남 문장들을 열거하며 호남은 학문과 문장으로 유명하다 칭찬했다. 좀 더 후기에 살았던 화가 김득신金得臣(1754~1822)은 『삼익당서三益堂序』에서 “호남은 경학 보다는 문학을 숭상했다”고 전제하며 “경학에는 기대승 한 사람이 있었으나 문장에는 임억령, 고경명, 백광훈, 임제가 있었다.”했다. 이 같은 평가 때문인지 흔히 영남은 퇴계의 도학이고 호남은 석천의 문학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같은 평가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백제 때 정읍사를 비롯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운산가, 무등산 안민가, 지리산가, 방등산가, 장생포가 등의 기록이 보이고 조선시대 장가의 대부분은 호남사람들이 읊었다. 태인 사

람 정극인(丁克仁)(1401~81)의 상춘곡을 시작으로 석천의 송대장군가·백련 사동백가 등 20여 편이 있다. 또는 이를 이어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송순의 면앙정가, 백광홍의 관서별곡, 소쇄원 양산보의 애일가, 나주출신 광연(윤현 변, 1618~86) 스님의 청학동가, 태평곡, 위백규의 권학가 등 수십 편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고산 윤선도(尹善道)(1587~1671)가 단가인 시조로 이름을 떨쳤으므로 문학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필자는 『전남의 문화와 예술』 집필 중 예술가 수로 광주, 전남이 예술의 고장임을 논술한 바 있다. 1989년 당시 전국예술인 총연합회 회원수는 2만 7천 995명이었다. 그 중 45%가 서울, 인천 등 경기지방에 몰려 있었으나 인구 8.78%뿐인 광주·전남예총 회원수는 12.7%인 3,564명이었다. 당시 경상북도 회원수는 1,898명, 부산·경남 예총 회원수는 1,147명으로 경상도 전체 예총 회원수를 합해도 전남, 광주 예총 회원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국내 국악인 수는 457명이었는데 전남에 78명, 전북에 89명이 살고 있었으므로 호남에 살고 있던 국악인 수 167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기호지방에 살고 있던 국악인수 181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인구비율에 견줄 때 호남은 역시 국악의 본고장이었다. 당시 통계는 회원들의 활동이 조사되었던 때인데 광주·전남에는 예총 회원수가 많지만 활동 않는 회원이 많고 서울, 경기, 경북, 부산 지방의 문예행사는 호남의 배를 넘어서 예술향유의 기회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1960년대 광주에는 소릿꾼을 둔 기생 요정이 여럿 있었다. 요정 풍습이야 일본식민화 때 시작된 것이지만 광복 후에도 그 습속이 광주에서 지속된 것은 국악을 하는 여성이 많았던 데 있다. 본디 판소리는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발 전해온 터이고 구한말과 일제식민시절 판소리 명창들이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었던 탓으로 일반의 수요도 다른 고장보다 많았다. 특히 갑오경장 이후 군마다 있던 고을 소속 기생과 교방청, 장악원 등의 천민 근무자들의 신분이 해방되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시작되었다. 한때 기생수가 80여명에 달했던 광주 목 소속 교방청 기생들과 악공들이 신분 타파와 더불어 성밖으로 쫓겨나면서



시 한수를 읊는 선조들의 풍류
재현에서 느낌을 받듯 예향 광
주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없이
아름다움에 취하고 찬미하는 대
동세상을 꿈꾸며 즐겨왔다.



소쇄원 광풍각에서 여유로움을 즐기는 선비들

남문밖 일대는 배운 재주를 바탕으로 생업을 열어가던 퇴물기생의 동네가 되었다. 때를 맞춰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요정이 문을 열고 이 요정에 기생을 공급하는 일본 권번^{倭番}도 생겼다. 이 일본 풍습을 본따 한국 기생들이 만든 것이 기생조합이다. 기생조합은 기성 기생들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기생조합에 찾아오는 어린 처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이 교육은 교방청에 근무하던 악사나 남성소리꾼들이 맡았다. 학비는 조합고습학생이 16세 이상이 되면 비녀를 꽂아줄 부호들의 몫이었다.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 협률패 등 국악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조선시대 고을마다 있던 관속 기생과 교방청 악생들이 관속에서 풀려나면서 살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광주는 호남의 중심도시답게 많은 구한말 국악 기능자들과 동호인들을 보유하는 지역이 된다.

광주는 오늘날 대학에서 배출한 서양화가 수가 많아졌으나 70년까지만 하더라도 스승을 중심으로 시사 받은 동양화가나 백연회 수련생 수가 많았다. 오랫동안 중앙 서예계를 장악하고 있던 소전 손재형 예총회장의 영향이었던지 서예 인구가 많았던 것도 광주 특징 중의 하나였다. 문학은 몇몇 이름 있

는 소설가들도 있었으나 수필, 시, 아동문학과 사진작가가 많은 것도 한 특징이다. 옛날 선비라 하면 예술이 필수 교양이었다. 오늘날도 예술은 문화인이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서는 광주는 예술인 수가 많아 언필칭 문화중심도시라 할만하다. 그렇지만 단점은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개성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술자체가 개성과 창조를 지향하는 행위이므로 보수의 반대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성격은 외래종교인 기독교 교도가 많다는 도시 성격과도 연결된다.

예술인 수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 관념이 적다는 단점도 생각할 수 있다. 주민소득이 높은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기 취향을 살려가려 하여 예술행위 자체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삶의 질에 관계될 수는 있어도 예술행위가 생계 방편이 되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재능이 없이는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술이 시민의 교양 수준으로 일반화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예술은 직업이 될 수 없다.

광주가 선택된 도시로 비엔날레를 가져다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세우고 아시아문화전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5·18민주화의 보상적 의미가 없지 않지만 사실은 예술인 수가 많다는 도시 특성이 가져온 결과물들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국제적인 비엔날레나 문화전당을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예총 회원수나 민예총 회원수의 비율이 다른 고장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전체 시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다. 더구나 예총은 자신들의 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화합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어서 시민 교양 증진이나 지역문화 융성에는 소극적이다. 예총의 이같은 회원 이익주의에 반발해 탄생한 민예총도 회원 활동에 치우치는 것 같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동네 부녀합창단이나 동네 취미클럽들도 예술 단체 예우를 해준다. 조선시대 예술은 신분에 따라 즐기는 분야가 달랐지만 지금처럼 차별하지는 않았다. 무당과 기생은 종합예술가들로 오늘날로 치면 대중예술도 맡았다. 선비들은 시만 짓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음률에 맞춰 한 시나 시조 등을 음악화하여 읊을 줄 알았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예술도시,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면 예술인들의 인문소양을 높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술이 비록 개성적인 창조 행위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가지려면 지역사회의 인문 전통이 반영되어야 하고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술은 궁극적으로 대결과 폭력을 순화하고 대동 융합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편이다.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차별 없이 아름다움에 취하고 찬미하는 대동 세상을 이뤄내야 한다. 예술이 소수 예술기능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광주 예술인들은 이 같은 시민사회를 이루는 것을 사명과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마다 학예회를 연례화하여 어려서부터 예술감성을 기르고 노인당마다 합창단과 무용단을 육성해 모든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해야 한다. 이런 기초 작업이 광주를 문화 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0년 역사유적 혈어 문화시설 건립하는 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현대사에서 기념비처럼 기록에 남길 시설이다. 이 시설은 아시아문화전당 개발원이 홍보하듯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면적에 버금가는 규모로 세워졌다. 2014년 한국문화관광이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423명,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연구원 315명, 외주기능직 243명, 4시간 근무 자원봉사자 204명 등 1천 2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도 광주용성의 기폭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설이 2005년 착공되고도 9년간이나 준공이 되지 못했고 정식 개관은 2015년 11월 25일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광주 건설사에서 기록에 남을 만하다. 문화전당이 착공되고 이 시설이 무슨 일을 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만 8차례나 열려 1백여 명 이상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지만 임시 개관을 하기까지도 확정적인 기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2015년 들어 논의가 계속되던 문화전당은 우선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두고 그 운영은 별도의 법인 단체를 두어 모든 것을 법인에 맡긴다는 과도기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탁경영체제로 바뀌면서 예산도 용역 결과보다 3분의 2쯤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4년 8월 27일, 광주문화재단 다목적 홀에서 열린 마지막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제시된 운영안은 법인 운영체제가 정부의 의지이므로 지역 여론과 상관없이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10여년의 공사 끝에 2015년 11월 25일 개관했다.

경영모델을 따를 것이 확실하다.

문화중심개념의 오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02년 12월 14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씨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선거 공약에서 출발했다. 노무현씨는 이 공약 때문이었는지 광주 투표사상 유례없는 95%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03년 11월 7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5·18 역사바로세우기와 함께 전남도청을 무안 남악으로 옮기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담화는 1999년 7월 도청 소재지 변경 조례가 통과되면서 2001년 5월 남악 도청 소재지 개발 기공식이 열리고 도청 소재지였던 광산동 및 충장로 일대는 박탈감에 빠져들었다. 이 박탈감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공약이 노무현 대통

령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고 옛 도청 부지는 아시아문화전당 후보지가 되었다. 이 공약과 시책은 도심 공동화의 재생사업으로 의의가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심사숙고했어야 할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옛 전남도청 터는 비록 1백여 년간 전남도의 관아가 있던 터였을지라도 역사적으로는 광주고을의 5백년 관아가 있던 역사 유적지였을 뿐 아니라 한국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5·18 유적지였다. 평가에 따라 더 큰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위해 과거 유적쯤은 희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문화를 명분 삼는 전당이 문화유적을 헐어 없애는 시책은 비문화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문화전당 건설은 건설 초기에 5·18단체의 항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수정되고 옛 도청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 5·18이야기를 수용하는 민주평화교류원이 등장했다. 그렇지만 이곳이 광주고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터자리였다거나 광주읍성의 남문 터나 성터 흔적은 형식에 불과하고 영원히 땅에 묻어버렸다.

문화개념의 착각

두 번째 오류는 문화에 대한 행정상의 착각이다.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한 문화개념은 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뿐이었다. 이 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광의의 문화(Culture)가 아니라 협의의 예술(Art)에 한정되어 문화의 근간인 문화인문 분야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관료 사회의 행정은 법률에 정한 개념에 충실한 관성이 있어서 법률상 잘못 규정된 문화예술에 대한 편견이 고착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나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또는 문화재단들이 한결 같이 예술진흥이 문화진흥으로 획일화되어 왔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의 예술진흥위원회나 기금과 문화진흥기금 또는 인문과학위원회를 구분해 육성시책을 쓰는 것을 눈여겨 보지 못해 왔다. 예술은 문화발전의 한 동력일

수 있지만 문화자체는 아니며 문화가 보수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데 반해 예술이 창조를 본질로 하는 미래지향적 문화 활동은 때에 따라 활동이 상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후진성이다.

뒤늦게 정부는 2013년 문화기본법을 제정공포하면서 법 제3조에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이 법의 문화 정의에 따른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은 예술뿐 아니라 생활양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 인문적 분야를 포괄하는 전당이어야 한다. 이처럼 잘못된 법정 문화개념 시절에 기획되고 착공된 아시아문화전당의 출발은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국제적인 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와 포럼을 거듭할수록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중에도 의견이 백출하는데 가까스로 방향을 잡은 것이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와 프랑스의 퐁피두센터를 모자이크해 만든 아시아문화전당의 최종 설계이다.

그러므로 지리와 더불어 형성되는 문화의 본질과 동떨어진 아시아문화 중심이라거나 아시아문화의 창 또는 허브라는 자화자찬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내의 보존건물인 옛 전남도청사

아시아문화전당은 영어로 아시안 컬처 콤플렉스라 하여 ACC(아시아 문화 종합관)라 부르기로 한 모양이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5대 원의 하나로 문화정보원을 두고 아시아 문화연구소를 부설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전당법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함은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아시아문화의 연구, 창조, 교육,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특례가 실시되는 지역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문화의 중심이란 문화교류 기능을 맡을 도시라는 뜻으로 후퇴하고 있다.

문화란 진화하는 것이지 예술처럼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 대륙의 45개 국가 70여 민족에는 각각 자기 나름의 문화가 있다. 문화란 지리적 인문적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것이 본질인데 어떻게 광주에서 전 아시아를 포괄하는 아시아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것인가.

이웃 일본의 오사가 국립민족박물관은 문화인류학적인 오대양·육대주의 다양한 민족문화를 전시하기 위해 60여명의 학예연구사를 두고 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고작 5명의 학예연구사를 둘 예정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다. 하물며 아시아문화를 연구하겠다는 광주전당은 인문계 학예직이 아닌 예술감독 4명이 4개원의 책임을 맡도록 기구조직이 설계되어 있다. 이런 기구 구성으로 연간 2백50여억 원의 운영비를 쓸 계획이므로 외국 공연단이나 초청해 굿판이나 벌이면서 대단한 문화시설을 해주었다고 할까보아 걱정이다.

94년에 가동한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는 도시국가로 국제적인 관광 도시답게 연중 2천 400개의 행사가 열려 관광 필수코스가 되어 있다. 한국의 변방 도시인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이 프랑스의龐피두센터처럼 국제적인 예술단체가 찾아와 보았자 관객동원이 큰 문제이다. 결국 가난한 광주시민들이 관람석을 채워 체면을 유지해야 할 판이다. 개발원은 연간 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예정하고 있고 관람비로 1~5만원을 받을 구상이므로 50%의 관람석을 광주시민이 채워줄 때 40~50억의 광주시민 관람비 지출이 예상된

다. 물론 1천여 명의 취업으로 상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직원은 공채로 뽑고 지역배려는 5%전후가 될 것이므로 비정규직이나 자원봉사자나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당에는 23개 상업 편의시설이 예정되어 있다. 4개는 직영하고 19개 시설은 식당, 카페, 편의점 등으로 공모해 임대할 계획이므로 이 시설운영이 광주시민 차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문화시설 단체장이나 직원이 서울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라 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광주는 외지출신 직원들의 눈치나 살필 처지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입춘을 전후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식축제를 열고 7~8월에 한여름 밤의 축제, 12월 말에 송년축제, 광주뮤직 페스티벌 등 4대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벽지라 할 아키타현 타자와코 민간예술촌에는 극단 와라비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 예술촌은 4개 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민속음악축제도 열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개원을 전후해 고루한 기존 인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부터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렇지만 이미 경남 창원시는 아시아예술제를 열고 각 도시마다 문화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 교류중심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도시들의 시세움도 큰 문제이다. 기왕의 문화회관이나 미술관, 5·18기념관 등과 중복되는 기능 조절이나 문화도시다운 도시경관 조성, 시민소양의 증진 또한 큰 과제이다. 국가지원이 줄어들 때 지역경제가 뒷받침할만한 여력이 없으니 이 또한 걱정이다. 그렇더라도 낙관하자. 광주시민의 힘이 이를 성공시킬 것이다. 정치적으로 7천억 원을 들여 돈 먹는 하마 격인 전당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광주 시민의 책임이다. 전당측은 예술과 첨단과학이 융합한 새로운 문화창조의 발전기지를 만들 것이라 하므로 기대해 보기로 하자.

： 비엔날레

1995년 시작한 격년제 현대미술전

광주비엔날레는 21년 전인 1995년에 시작한 격년제 현대미술전이다. 첫 해에 165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등 성황으로 광주관광과 문화융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주목받았다. 2005년에는 디자인 비엔날레를 병행하고 2011년에는 시가지에 설치미술이라 할 폴리를 설치하는 등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다. 광주비엔날레는 20년 중 10회의 행사를 치르는 동안 회당 평균 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행사비 중 30~40억 원은 국비보조를 받고 시비는 당초 5억 원에서 출발해 15억, 30억 원으로 날로 그 비중이 높아져 왔다. 나머지는 관람객 입장료와 기금이자, 협찬금 등으로 충당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5년 이상 지원한 모든 국가보조금은 졸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광주비엔날레는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초창기 1백만 명에 이르던 관람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20만 명 수준으로 줄면서 자재수입마저 비례해 줄어들어 외국의 사립 비엔날레처럼 자립의 길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최근 작품작을 둘러싸고 창작예술 본질의 탄압이라는 항의와 함께 창작의 공공성과 광주정신의 본질에 대한 시비마저 일면서 혁신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혁신 임무를 맡은 정동채 대표이사는 6개월간에 걸쳐 여섯차례의 혁신위원회의, 세 번의 워크숍, 두 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7대 혁신안을 내놓고 물러났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 같은 진통은 자생적 지역행사가 아니라 소화력을 갖지 못한 지역에 주어진 과분한 하향식 행사의 필연적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연원을 따지자면 80년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력으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한 전두환 정권은 광주의 신문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지역 기업들을 위협해 1백여 억 원의 기금을 모았다. 그 중 일부로 광주예술회관 뒤편의 광산이씨 선산을 비롯한 저수지 일대 땅 8만 4,208평을 사들이고 중외공원이라 했다. 이때 강제 모금한 돈 70억 원이 광주, 전남발전협의회 기금이 되었다. 이 공원 안에 북한관, 과학관, 시립민속박물관, 어린이회관 등이 들어섰다. 1992년 그 땅 일부에 예술회관과 미술관, 국악관 등이 들어선 뒤 이곳 일대는 문화시설 지구라는 예술단지로 변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 바로잡기가 시작되고 노태우와 전두환이

구속되면서 응어리진 광주의 한이 좀 풀렸다. 당시 정부는 광주시민의 민심 위안책을 물색했다. 당시 임병성 화백 등 일부 인사들은 예향의 전통을 이을 수 있도록 예술대학 설립을 건의했다. 정부는 예술대학은 전남대에 병설하도록 하고 그 대신 현대미술 전시행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그때까지도 광주는 의제 허백련을 중심으로 연진회가 많은 동양화 인재를 배출하고 있었고 조선 대학교 미대를 중심으로 김보현, 오지호, 임직순이 서양화를 가르쳤다. 광주 사범학교에서는 양수아, 강용운이 현대미술을 가르쳤다. 광주사범계 화가들은 1960년 전남현대미협을 발족시키고 회장에 김인규, 간사에 임병성, 강용운, 양수아 등이 추대되었다. 76년에는 전일 미술관에서 제1회 광주현대미술제를 갖기도 했다. ‘태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광주에서는 현대미술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82년 김두원 소아과 원장이 ‘현산 미술관’을 개관해 이 그룹을 돕는다. 에쁘크에서 분리된 일부 화가들은 79년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를 결성하고 예술의 현실 참여를 추구한다. 80년 이후에는 민주화 열기와 궤도를 같이해 걸개그림, 벽화 등이 크게 유행한다. 이런 풍토에서 주어진 행사가 광주비엔날레였다.

120년 전인 1895년 이태리 베니스에서 시작된 비엔날레라 이름 붙여진 격년제 예술행사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200여 곳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국제현대미술전은 아시아에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지만 이미 상해,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뒤따라 왔고 국내에도 15곳에서나 비엔날레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물론 국내 15곳에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들은 격년으로 열리는 전시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 광주와 같이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대구), 공예(춘천), 도자기(이천), 조각(창원) 등 여러 분야다.

제1회 광주전은 95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62일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중외공원에서 갖가지 공연이 계속되어 종합예술제나 다름없었다. 본 전시에는 7개 권역 50개국 92명의 작가가 참가해 24세의 쿠바 작가 크쵸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란 작품에 대상이 주어졌다. 1회 대회는 권역별로 외국인들이 커미셔너로 참여하여 국제적 행사임을 강조했던 탓으로 지방기획자들은

특별전 기획에 전남대 장석원, 목포대 원동석, 호남대 윤진섭 등이 참여하고 신경호, 우제길, 홍성담 등 광주작가 작품이 본 전시에 출품되었다. 1년 전에야 법인이 구성되고 1년 만에 열린 행사치고는 성황을 이뤘다. 광주역사상 세계적인 행사는 이것이 최초였고 광주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보탬이 되었다. 매회 50여 국내외 작가 평균 125명이 초대되었으므로 외국인 관람객과는 관계없이 현대미술작가들 사이에는 광주비엔날레가 주목받은 셈이다. 이 때문에 8회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외국신문들이 관심을 나타냈고 사람에 따라 국제 5대 현대미술전으로 꼽을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 미술계에서는 관심이 높아져왔지만 비례해 광주시민들의 관심은 식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디 광주비엔날레는 시각예술의 실험적 작품을 통해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진단하고 시민의 미의식을 함양하며 국제적 소통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전시 작품들은 종전의 액자 미술품과는 달리 보존성이 약하고 작가의 개별성이 뚜렷해 미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감식안을 갖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최첨단 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시회의 이름인 비엔날레라는 이름마저 외국어라 낯설고 생경하다. 그런 전시회에 교통이 불편한 광주비엔날레 전시장까지 찾아가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을 뿐 아니라 관람료를 지불하고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회 주제와 감독을 바꾸고 관객을 작품 구성에 참여시키거나 장소를 시내 지하철, 5·18공원, 대인시장, 양동시장 등으로 넓혀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이 전시회가 지역산업 진흥에 도움을 주지 않는 예산낭비 행사라는 비판 때문에 비엔날레 전시 휴식년이라 할 중간 해에 디자인비엔날레를 유치해 그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2011년 8회 대회와 2013년의 9회 대회 때는 특별전의 이름으로 시내 길거리에 ‘폴리’라 이르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폴리를 중심으로 공연을 시작, 시민의 쉼터 기능을 시도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광주에 조성하기 시작한 아시아문화전당도 그 밑

뿌리는 비엔날레라 할 수 있다. 시골 도시에서 국제적인 현대미술축제를 끌고 가는 역량이라면 아시아문화의 심장기능도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체격을 갖추지 못한 소년에게 서양 어른의 양복을 입혀놓은 형국이 되었다. 세계 최첨단의 현대미술을 낫 익히기에 시간은 너무 짧았다. 이 행사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할 지역 예술인들도 이런 국제행사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구경마저 할 기회가 적었던 처지에서 선듯 주역을 맡겠노라고 나설 용기도 없었다. 그렇더라도 특별전이나 동원되어 중심부에서 제외되는 처지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외국처럼 자립경영의 지역 풍토가 조성되려면 세월이 더 필요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이 성장통을 겪듯 광주현대미술제전은 역량도 기르기 전에 지역특성을 나타내면서 세계미술 경향을 아우르라는 주문이 답답할 뿐이다. 이 축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150만 시민 중에서 50만 명쯤은 자진해서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미술에 대한 시민 소양을 높여주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미술인구의 저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2014년 설치 작품

확대를 위해 여름방학중 교사와 중·고·대학생 20명씩을 교육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 정도의 교육으로 어느 세월에 50만 시민을 2년마다 열리는 전시장으로 불러들일 것인가. 광주현대미술제전의 활성화는 시민 소양의 증진, 지역 작가의 훈련, 자립경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실제로 국제 2백여 곳의 비엔날레 중 5위권에 드는 위상을 갖췄다면 세계현대미술을 주도할만한 수준 높은 국제적인 미술평론지 하나쯤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적인 교양

지를 간행해 시민의 안목을 높이되 독자를 비엔날레 회원으로 흡수하고 관람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교육원의 연수 때나 문화해설사 보수교육 등 시민강좌가 있는 곳마다 강사를 파견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간다면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것이 시민의 자량이 되고 광주비엔날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비엔날레가 진정으로 수익을 필요로 한다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내 중심부에 분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 정율성

한국에서 이름은 정부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로 추앙

정율성은 광주 출신으로 우리 나이 20세 나던 1933년 중국에 건너가 항일단체의 조선혁명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국외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사회주의 단체에 많이 가입했듯이 그도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정율성은 중국 항일군정대학 음악지도원으로 재직하면서 중국공산당 정권의 중심이 된 ‘팔로군 대합창’을 작곡, 88년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로 비준을 받은 음악가이다. 그는 일본이 항복하자 북한으로 귀국해 황해도 도위원회 선전부장, 북한군 협주단 단장, 평양 조선음악대학 작곡부장 등을 역임한 뒤 6·25전쟁 때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전쟁 후 51년 4월 중국에 되돌아가 63세 때 세상을 떠났다. (출전: 1997년 국립국악원 논문집 9, 중국연변대학 김성준 글)

정율성이 한국출신 음악가임을 소개한 것은 1988년 8월 15일자 중앙일보였다. 곧이어 90년 9월 26일 동아일보가 소수민족의 애환을 읊은 정율성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91년 한겨레신문, 92년 동아일보, 92년 정율성의 부인 정설송(丁雪松)의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율성』을 형상사에 의뢰해 한국어판이 출판되었다.

1993년 11월에 간행한 『광주시사』 제2권 제8장 해외의 독립운동 제 2절 중국 본토에서의 광주·전남인의 활동편(홍영기 집필) 577쪽에 정율성이 소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 입구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

개되었다. 96년 10월 8일에는 국립국악원의 소극장에서 「정율성 작품발표회」를 열고 그의 작품 360여곡 중 16곡을 소개했다. 그의 작품은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 인민해방군가가 주제곡으로 쓰이면서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랐다. 1992년 북한은 작곡가 정율성이란 제목으로 3시간짜리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2004년 9월 제4회 광주국제영화제 때 일부 공개된 바 있다. 정율성이 전주신흥학교 중퇴자라는 인연으로 92년 8월 28일 전주 KBS가 특집 방송을 한 뒤 2004년 8월 13일에는 8·15특집 방송으로 방영했다. 이에 앞서 MBC는 2002년 12월 8일 북경 아리랑이란 제목으로 정율성의 음악을 소개했다.

92년 한·중 국교정상화를 전후해 일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에 힘입어 2004년에 광주남구청은 정율성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정율성이 남구 양림동 출신임을 주장한다. 중국 연변대학교 김성준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호적상 정율성은 1914년 7월 7일 광주 금동 162번지에서 태어났다

고 했다. 이에 반해 정율성의 부인 정설송이 쓴 『작곡가 정율성』이나 정율성의 누나 딸인 박의란의 증언은 양림동 출신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남구청은 2005년 11월 정율성의 딸 정소제를 초청,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열면서 그의 출신지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하동정씨 종친회와 한·중문화교류협회는 정율성의 족보, 제적부, 학적부 등을 추적, 정율성은 동구 불로동 163번지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6년 3월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를 확정한 다음 이 해 6월 19일 163번지 히딩크호텔 마당에 탄생지 기념비를 세웠다.

정율성의 한국에서의 이름은 정부은(鄭富恩)이었다. 정부은이 화순 능주 관영리에서 살 때 능주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에 따라 화순군도 2005년 10월 탄생지 보고서를 낸 뒤 능주초등학교에 동상을 세웠다. 정부은은 능주초등학교를 거쳐 광주송일학교를 다녔고 전주신흥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에 따라 그의 출생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정부은의 아버지는 하동 정씨 용공파(容公派) 정해업(鄭海業)(1873~1931)이고 부은은 그의 넷째아들로 동구 불로동에 제적부가 남아 있었다. 이 제적부는 정율성의 아버지 정해업이 1931년에 주월동 734번지에서 살다가 죽은 뒤 그 호주권이 큰아들 정효룡(鄭孝龍)(1894~1934)에게 상속된 뒤 제적된 제적부에 나타나 있다. 이 제적부에 따르면 정해업은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83번지에서 정남현(鄭南鉉)의 3남으로 태어나 광주 불로동에서 살던 최학신(崔學新)(죽보이름 용진(溶鎭), 1846~1895)의 넷째 딸 최영온(崔永溫)(1873~1964)과 결혼해 일가를 이뤄 이미 효룡(1894~1934) 충룡(1901~1927)과 두 딸 송이(宋伊)(1906~1925) 봉은(奉恩)(1908~1977)을 둔 가장이었다. 그는 1909년 광주 부동정 94번지(현. 불로동 163)로 이사 온 뒤 얼마 후에 금정 162번지에서 산 것으로 적혀있다.

오늘날은 호적부가 가족관계기록부로 바뀌었지만 그전에 쓰인 호적부는 1909년에 대한제국 통감부에 의해 만들어진 민적법에 의해 당시 일본경찰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때의 호적은 혼인에 의해 일가를 창설하

고 호주가 죽어야 그 아들이나 손자에게 호주권이 상속되는 호적부와 죽거나 이사를 가거나 분가를 하면 호적에서 삭제해 그 기록을 남겨두는 제적부가 살던 읍·면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율성의 출생과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던 때까지의 생활 터전은 호주였던 정해업의 제적부에 나타난다. 정해업의 제적부는 화순 능주와 광주 불로동에 남아있다. 이 제적부와 자녀들의 학적부들을 종합해 보면 정율성의 아버지 정해업은 금동 62번지(1930년 이전 금계리 101번지 교회자리),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효천면 주월리 743번지로 이사 다녔다. 다만 큰아들 정효용은 황금동 60번지에서 살다 죽었으며 효용(1894-1934)의 둘째아들 상훈(祥勳)(1916~해업의 손자)은 불로동 94번지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다. 효룡은 1909년 이미 광주에서 살면서 1910년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정해업의 둘째딸 봉은(1908~1977)의 수피아여중 학적부를 보면 1928년 전후해 주월리와 향사리(鄉社里) 130번지로 옮긴 기록이 있다. 정해업의 셋째아들 의은(義恩)(1912~1980)의 기록을 보면 1936년 양림동 21번지로 분가했다. 의은은 1944년 양림동 79번지의 땅을 산 기록이 있고 정보은의 딸 박의란(朴義蘭)은 이 지번의 집에서 외할머니 최영온과 6·25전쟁 때까지 살았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문적기록을 근거로 동구청과 정승렬(생가복원추진위 위원장)은 불로동 94번지(정상훈 출생지)를 정율성의 생가터라고 주장, 2005년 기념비를 세웠다. 불로동 94번지는 1919년 4월까지 정해업이 소유했던 불로동 163번지의 땅과 동일하고 그의 손자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 정율성도 같은 지번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이다. 과연 출가한 장남이 같이 살았을까는 의심스럽다. 다만 이 지번의 땅은 정율성의 아버지 소유로 등기되었던 문적이 있다.

본디 민적법에는 신고 당시 모든 인물은 생년월일과 출생기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해업일가의 제적부에는 대부분 출생지와 출생 시기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다.

남구청은 불로동 94번지는 정율성의 조카 탄생지일 뿐이고 정율성의 자필 이력서나 부인이 쓴 『정율성 전』, 조카딸 박의란이 증언한 정율성의 본적지는

양림동이다 라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면서 양림동에 정율성로를 지정하고 학강초교 담장 곁 79번지 정의은의 집에 이르는 길 129m를 정율성로 8번길로 이름 지었다. 이처럼 동구청과 남구청이 정율성 생가를 두고 다투자 광주시는 남구청이 주최하던 정율성 음악제를 직접 주최했다.

2014년 12월 정율성의 딸 정소제鄭小提(73)는 불로동 탄생지 기념비 철거를 요구하면서 양림동 출생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정율성 기념사업회(회장 강원구)는 자필이력서가 위조된 것이고 처나 조카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증 자료들을 제출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광주시가 실시한 고증에서도 불로동이 출생지이고 양림동은 성장지라고 결론이 났음을 내세웠다. 2015년 10월 27일 윤장현 광주시장은 2개 구청과 화순군이 다 같이 출생지 논쟁종식과 선양사업에 힘쓰자고 합의를 이끌었다. 기념관은 불로동으로 결정될 것 같다.

영암군이 일본 문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왕인의 배출을 지역 자부심으로 내세워 축제를 벌이고 통영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윤이상을 지역의 자랑으로 내세운다. 어떤 지방은 소설속의 주인공인 춘향이나 심청이, 홍길동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정율성은 광주가 낳은 중국혁명음악가 3인 중의 한사람으로 자부할 수 있고 한·중 교류에 이용할 만도 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직 하얼빈에 기념관이 있을 뿐 음악제 등 대대적인 선양행사는 별로 없다. 광주에서는 4월 중 시립극단이 광주1백년사 연극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정율성 일대기를 공연했다. 지역 열성이 먼 뒷날 신사대주의로 비판받을까 두렵다.

정율성의 아버지 처가는 최흥중(죽보이름 영종永宗)목사 집안이다. 최목사의 어머니는 국씨와 공씨 두분으로 정율성의 어머니 최씨는 국씨가 낳은 넷째 딸로 최목사보다 일곱 살 손위 누나였다. 당시 풍습으로 최여인은 친정에서 자식들을 낳아 길렀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미 손자를 본 터이므로 친정에서 아들을 낳았을 것 같지는 않다. 최여인은 5남 3녀를 낳았으나 2남이 일찍 죽고

막내 딸도 어려서 죽었다.

큰딸(1906~1925)은 처녀 때 죽었다. 9남매 중 4남매 이름에 은혜 은
을자를 넣은 것은 당시 기독교 교인들이 자녀의 이름에 쓰던 돌림자였다. 이
로 미뤄보면 1908년에 낳은 둘째딸 이름을 봉은奉恩, 봉이鳳伊이라 한 다음
1912년에 낳은 의은義恩 1914년에 낳은 부은富恩 1919년에 낳은 귀은貴恩은
정율성의 아버지 정해업이 처남인 최흥중 따라 숭의학교에 관여하면서 기독
교 신자생활을 한 것이 1908년 전후였던 것을 나타낸다.

효용(1894~1984)과 충용(1901~1929)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
동을 하던 차이석李利錫에게 보냈다. 3·1만세운동 뒤 두 형제는 국내에 잠입
해 각도선전부 조직운동을 하다가 1921년 5월 첫째 효룡이 종로서에 붙들
려 1년 징역형을 받았다. 충룡은 다시 중국에 들어가 운남 강무학교 졸업 후
국민혁명군 장교가 되었다. 셋째 정의은義恩(일명 대성大星, 1912~1980)도
1932년 누나였던 정봉은(1908~1977)과 함께 중국에 건너가 조선혁명 군
사정치 간부학교를 졸업한 뒤 1933년 국내에 들어와 그의 동생 부은富恩(뒷
날의 율성律成)등 여러 명의 청년들을 독립군으로 모집해 중국에 들어갔다.

정의은은 1934년 다시 한국에 잠입했다가 체포된 뒤 출옥해 1936년 양
림동 21번지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어머니 최씨를 모셨으나 6·25때 최씨
가 중국에 건너간 뒤 광주에 남아 사는 동안 친북 인사로 감시를 받고 살다가
1980년 세상을 떠났다.

정율성에 대한 성장 연구나 음악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진하다. 다만 그의
음악적 재능은 숭일학교와 전주신흥학교, 양림교회 밴드부 활동 등 찬송가에
영향을 입은 바가 많았던 듯하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건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준 곳은 양림동이 분명하다.

: 창극의 선구자, 김창환

궁실극장 협률패들 지휘해 창극형태 창안

광주 국악의 대표적 인물로 내세우는 임방울林芳蔚(1905~1961)을 중앙 무대에 데뷔시킨 이는 나주사람이라 알려진 외삼촌 김창환金昌煥(1855~1937)이다. 그러나 김창환은 오늘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내산리內山里에서 태어나고 죽은 인물이므로 그는 오늘날의 광주땅 사람이다. 다만 김창환 명창이 살던 시절 오늘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리는 나주군 도림면道林面 양화촌이었다가 1914년 나주군 삼도면三道面에 합해졌다. 그러다가 1949년에야 광산군에 옮겨왔으므로 과거에는 나주사람이었으나 지금은 광주땅 사람이다. 김창환이 광주땅 사람이라면 그는 재조명 되어야 할 인물이라 임방울국악재단(이사장 김중채)은 2015년 8월 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강당에서 ‘국창 김창환의 삶과 소리세계’라는 이름의 학술회의를 열어 그의 재조명에 나섰다. 이날 주제 발표는 동국대 문화예술 행정대학원 김세종 교수가 맡았다. 김교수는 김창환은 대한제국시절 고종 황제로부터 의관議官(1895~1905년, 직제로 5품관)을 받은 조선 후기 5명창 중의 한분이라고 소개했다. 김명창은 누이의 아들인 임방울이 태어나기 전인 1902년 한국최초로 세운 현대적인 궁실극장(뒷날의 원각사) 주석으로 협률패들을 지휘해 창극 형태를 창안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는 음률을 하는 광대와 판소리꾼을 모아 그동안 고수의 반주에 맞춰 혼자서 부르던 1인 연희형식의 판소리 춘향전과 심청전

을 서양 오페라처럼 여러 사람의 소리꾼이 모여 각기 역할을 나눠 노래 부르는 창극을 개발했다. 김창환은 1908년 본격적인 민영 극장 기능을 맡게 된 원각사(圓覺社)에서 공연한 ‘최병두 타령’이라는 국악협률의 민요풍 가극의 주연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부터 판소리 오페라는 국극 또는 창극이란 이름으로 불려 서양가극과 구별하게 되었다. 그는 1908년 이미 미국 빅터회사가 취입한 레코드에 춘향가를, 1915년에 흥보가를 취입했으므로



국창 김창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내산리 태생으로 이웃마을 대산리 마을 입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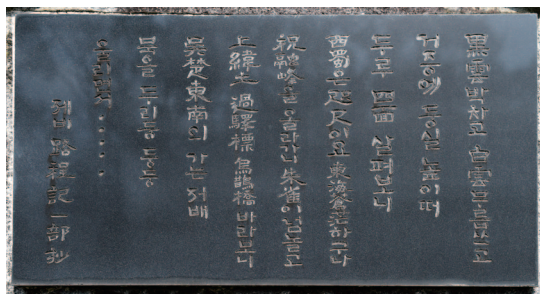
이미 70세를 넘어선 노인이었으므로 그가 남긴 죽음기판은 13장 26면 뿐이다. 그는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도 아홉 차례 출연한 기록이 남아있다. 초창기 그가 부른 노래는 흥부가의 제비노정기와 가난타령, 춘향전의 옥중가가 특기였고 소리 또한 수리성과 방울소리로 명성을 떨쳤다 하므로 조카인 임방울의 쑥대머리나 수리성 등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대목은 두 사람의 죽음기판이 전해오고 있으므로 비교해 볼 일이다.

김창환은 원각사 시절을 거쳐 1910년부터 협률패를 이끌고 전국 순회에 나섰다. 이후부터 판소리꾼들이 단체를 꾸려 공연하는 가극단을 협률사라 하고 광복 후에는 국극단 또는 창극단이라 불렀다.

판소리는 본디 세습 무당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다. 전라도 사람들 중에 특히 판소리 명창이 많았던 것은 전라도 무당곳이 다른 지방

은 신이 들어 무당이 되지만 전라도 무당은 대물림하는 세습제이다. 이 때문에 전문화된 예능가문 전통을 이어받아 일정 지방과 가문의 무당굿을 미리 도급하는 무당판(업권)이 발달했다. 무굿 때 반주를 맡는 악사들은 무당의 남편이나 인척 남자들이었다. 이들은 고을마다 행사 때 동원되었던 취타대나 기생, 무당굿의 악사로도 근무했다. 갑오경장 때 신분 타파가 이뤄짐에 따라 고을에 속해있던 장악원 또는 교방청 악사나 악공과 취타수들이 관속 신분에서 해고되면서 살길이 막막해졌다. 이들은 고을 수령의 이임이나 취임행차 때 고을 수령이 제관이 되는 향교 석존제나 사직제, 성황제 등에서 풍악을 연주했다. 특히 무당굿 때 큰 굿판에서는 정악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했으나 삼현 육각을 연주했다. 무당굿의 악사는 잭이 또는 화랭이라 불렸으며 이들 연주를 궁중악이나 정악에 견주어 향악 또는 시나위라 부르기도 했다. 관급 기생들은 해고된 뒤 기생 조합을 만들어 일본기생 공급기구인 권번 흥내를 내서 먹고 살길이 있었으나 이들의 반주로 살아오던 악사들이 새로 살길을 찾아 마련한 것이 험물패이다. 전통적인 무당굿은 큰 굿에 속하는 씻김굿의 경우 밤새워 한 사람의 무녀가 노래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주를 맡은 악사들이 쉬는 공간에 무녀 대신 소리를 해 구경꾼을 위로했다. 이를 굿판 소리라 했던 것인데 국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이 같은 사회적인 구조를 깊이 파져 쓴 글이 별로 없다. 그동안의 국악 역사는 판소리꾼 당사자들의 구술 중심으로 정리해 진실 접근이 어렵다. 특히 신청 제도는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민중 여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무당, 점쟁이, 풍수쟁이들을 달래 단체 결성을 허가하고 조직적인 회유와 관리에 들어갔다.



제비노정기 일부

무당들에게는 무당도 엄연한 조선의 종교이므로 야수교나 불교와 향교처럼 교당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옛 관청에 속했던 장악원 건물이나 교방청 건물을 치성당이나 신청으로 쓰도록 선심을 썼다. 이 같은 조치로 전남에서는 진도, 장흥 등지에 신청이 생기고 무당들이 그들 선조를 신위로 모시고 초하루, 보름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농악패를 만들거나 기생들 국악교육을 담당해 그 건물 관리비와 제수 비용을 마련했다. 1920년 조선총독부가 허가한 무당 조합이 송신인 조합이고 황조경신 송신교회, 영신회(靈神會)들이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미신 장려정책으로 순조(純祖) 때 2,600명이던 무당은 1930년 조사 때 1만 384명으로 늘어났다. 신청이 생기지 않은 곳은 대부분 기생 조합이 생겨서 일본 식민화 전후 협률패에 가입했던 소리꾼이나 악사들은 고을마다 생긴 기생조합 선생으로 팔려갔다.

3.1만세 이후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극 운동은 민간에 전파되어 신파극이 되고 출연자를 배우라고 부르면서 판소리꾼도 구파극 배우라 하여 1915년에는 구파 배우조합이 생기기도 했다.

광산구 삼도동 내산리 신성길씨(74)는 “김창환씨가 동네에 살던 시절에는 호수가 120호에 달하는 나주 고을 4대 명촌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겨우 4호가 살고 있다.”고 했다. 신씨는 1987년 이웃 동네 대산리에 ‘국창 김창현 기념비’를 세울 때 동네 이장을 맡아 심부름을 했다면서 그분의 원적은 본디 수원에 있었다고 했다.

내산리는 함평 나산면과 접계에 있는 동네로 1914년 나주군 삼가면에 속해있던 내동과 암탁골, 도림면 용산, 망월, 쌍계, 양화(良化)의 여섯 동네를 합해 만든 법정 동네 이름이다. 이웃 동네 대야(大也)에 도림면 면청이 있었던 나주읍-장성 간 주요 길목이었다. 이 탓이었는지 일본 사람들이 조사한 「조선 지지자료」를 보면 1910년대에는 도림 면내에만 14개 주막이 있었고 사방으로 통하던 고갯길 이름만 16개나 나온다. 김창환의 아버지는 김천경(金千鏡)으로 김해 본관의 나주 고을 무계로 도림면 무업을 이어받았던 것 같다. 김창환의 본처는 나주 읍내에 살던 전청용(全淸用)의 딸 전창순(1855~1917)으로 김

봉학金鳳鶴(1893~1927)을 낳았다. 그 밖에도 두 부인이 있었는데 김대년과의 사이에서 봉이鳳伊(1878~1929)를 낳고 대구 여인 박씨에게서 2남 1녀를 낳았다. 봉이에게 완용完龍(1899~?) 완선完善(1912~?)의 두 아들이 있어 완용의 부인 이소녀李小女(1902~?)가 70여 년 전까지 양화 동네에 살고 있었다 한다. 양화동네 전 이장 신성길씨는 김창환씨 집은 내산리 221번지이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풍류방 터와 사당 터(고종황제 추모)가 있다고 말했다. 호적상 봉학의 아들 성룡成龍(1905~?)에게 세 아들이 있었으나 광산에는 그 후손이 살고 있지 않아 옛날 광산 군청에서 내산에 있던 묘를 대산리 640번지로 옮겨 광산구청에서 돌보고 있다.

학자들은 김창환 명창이 박유전朴裕全(1834~1906)째를 이어받아 서편제를 완성한 인물로 정리한다. 『관소리』(77년 교양 국사총서)를 낸 강한영姜漢永은 김창환을 서편제의 우두머리라고 평했다. 흔히 국악계에서는 신재효申在孝(1812~1884)나 정노식鄭老湜의 정리에 따라 동편제를 우조羽調라 하고 서편제를 계면조界面調라 한다. 우조란 『악학궤범』에 나오는 어조調 중 높은 음을 뜻하는 술어로 지리산 자락의 광대들이 부른 우렁찬 소리를 뜻한다 계면조는 귀신 소리라고도 하여 애달프고 슬픈 소리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필자는 92년



임방울 선생을 중앙무대에 데뷔시킨 국창 김창환이 태어난 마을풍경

『호남 입문』을 쓸 때 동편제는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 같고 서편제는 발동선을 타고 강을 지나며 부르는 노래소리에 비유한 바 있다. 문화는 사람과 지리의 영향을 받는다. 농악을 우도 농악과 좌도 농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본디 조선시대 호남대로 중 전북 삼례에서 전남 해남, 진도에 이르는 길과 동쪽인 순천에 이르는 길을 우도와 좌도로 나뉘고 그 길을 중심으로 연행된 농악을 일컫는다. 길이 문화 전파의 혈맥이기 때문이다. 판소리도 문화교류의 길에 크게 영향을 입었을 것이나 산악지대 사람들과 평야지대 사람으로 구분하는 이도 있다. 이 때문에 섬진강 주변 사람들은 대개 동편제에 속하고 영산강 주변사람들은 서편제에 속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판소리도 이 같은 도로망과 지리에 영향을 받아 진화했을 것이나 판소리가 특수 신분층의 통혼권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흔적이 있다. 특히 큰 고을 무당 가게 중심의 승계 흔적이 뚜렷하다. 나주와 광주의 두 고을에는 고을 소속 악사나 무당 및 기생 수가 많아 인접 고을과 통혼권을 이루고 살았다.

나주 무당들은 함평, 영광, 영암 등지 무계 집안과, 광주 고을은 담양, 곡성, 장성, 화순, 능주와 혼인 관계가 많았다. 고흥과 장흥 무계가 보성, 순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순창과 담양에 살던 박유전(1834~1906)이 장흥(뒤에 보성 땅이 되었다)으로 옮겨가 살면서 장흥 무계 정권진을 중심으로 강산제가 되었다. 박유전의 제자이면서 같은 담양 출신인 이날치李捺致(1820~1892)는 박유전보다 나이가 많았으나 젊어서는 박유전의 고수로 지내다가 박유전이 보성으로 떠난 뒤 박유전제를 광주의 김채만金采萬(1865~1911)과 나주의 정창업丁昌業(1847~1919), 김창환金昌煥(1855~1937)에게 가르친 셈이다. 광산구에 속한 임방울, 김창환이 나주 혼맥인 것은 광산 선암역이 광주읍보다 나주로 통하는 우도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악의 계보는 판소리꾼의 창본唱本과 레코드판을 비교해가면서 그 특징에 따라 정리하되 인척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 임방울

흔한 전수관 · 전시시설 하나 없는 국악 본고장 광주

1930년대 한국 음반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청년 소리꾼은 임방울(1905~1961)이었다. 그는 광산구 도산동 수성마을에서 무계집안의 싯둥이로 태어났던 당시 25세의 젊은이였다. 황룡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황룡이라고도 부르고 강물이 범람할 때면 이 동네만 섬처럼 강물에 둘러싸이는 일이 잦아 ‘수성水城’이라고 불렀던 이 동네는 무 생산지로 유명했다. 광주비행장 부지로 흡수되어 없어지던 1961년 3월 7일 밤 임방울은 서울 중구 초동에서 죽어 망우리묘지에 묻혔다. 뒷날 그의 무덤은 여주 가남면 금곡리의 남한강 공원묘지로 이장되었다.

광산구 도산동에 남아있는 그의 제적부에 따르면 아버지는 금성 임씨 임경학林敬鶴, 어머니는 김나주金羅州이고 4남매 중 막내로 호적상 이름은 임승근林承根으로 1905년 4월 20일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호적은 1910년에 시행된 민적법에 따라 생후에 작성된 것이라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 호적상 임방울에게는 이복동생 하나가 있다.

임방울의 외가는 구한말 5대 명창 중의 한 사람인 나주(지금의 광산구 삼도동 내산) 출신인 김창환金昌煥(1855~1937)의 집안으로 그의 이숙들이 나주 출신 박기홍朴基洪, 담양 출신 이날치李捺致(1820~1892) 등으로 그 일가가 모두 명창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의 성장기였던 1910년 전



일제하 민족의 한을 판소리로 달래주던 명창 임방울선생. 1986년 9월, 14만 광산 군민의 뜻을 기려 현 송정 공원에 비를 세워 그를 기리고 있다. 비문은 필자가 지었다.

후는 광주의 광대들이 협률패를 만들어 지방을 순회하거나 광주천 가설극장에서 공연했던 시기라 그 영향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임방울은 급작스럽게 스타가 되어 타관 살이를 주로 하였고 57세 때 죽어 그의 생애가 과장되거나 신화처럼 각색된 면이 없지 않다.

광주의 협률패는 당시 화순 능주 출신으로 남구 효덕동 솟골에 살고 있던 김채만金采萬(1865~1911)과 그의 제자들이 주도했다. 이 축에는 임방울의 외사촌인 김봉학金奉鶴(1883~1927), 김채만과 같은 능주출신 조몽실(1900~1991), 공창식孔昌植(1887~1936, 공대일孔大一의 4촌) 등이 포함된다. 당시 광주에는 이들 말고도 나주 출신 정창업丁昌業(1847~1919, 정광수丁光秀의 조부)도 드나들었으며 담양의 박동실朴東實(1893~1967)은 협률패를

운영하기도 했다. 임방울은 박재실 또는 박재현의 창극단을 따라다니며 춘향가와 흥부가를 배웠다고 하지만 당시 광주지방에는 이 같은 소리꾼이 없었으므로 1915년 전후 광주지방에는 박동실의 협률단이 활동하였고 그는 6·25 전쟁 때 월북한 탓으로 잘못 전해진 것 같다.

임방울은 58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 ‘생활백상生活百想’에서 “14세 때 창극계에 들어가 박재실 선생에게서 춘향전, 흥부전을 배우고 유성준씨에게 수궁가, 삼국지(적벽가), 심청전을 배웠다. 25세까지 독단으로 공부하여 서울에 박람회(박람회)가 있어 시골에서 단체로 올라왔다. 당시 나의 외숙이 국창 김창환(1855~1937)씨였다. 그때 동아일보사에서 전국명창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에 출연하여 그날부터 출세했다. … (중략) … 해방되던 1945년 사이에 3개 레코드 회사에서 낸 「쑥대머리」 「호남가」를 120만장 이상 팔았다. 내 외사촌 형들이 김봉이(1878~1929), 김봉학(1883~1927)씨로 모두 조선 명창이었으므로 나는 유전으로 창계에 나오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군산대 최동현崔東賢 교수는 2004년 임방울국악진흥재단에서 간행한 『국창 임방울의 생애와 예술』에서 임방울이 죽은 후인 1961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한 유기룡劉起龍의 추모사에는 ‘유성준劉成俊(1874~1949)에게 배우기전 화순의 공창식에게 배웠다.’고 했다. 이 기사에는 ‘임방울이 25세 때 서울공진회 구경을 와서 명창대회에 참가해 이름을 얻었다는 얘기를 죽기 1년 전에 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기룡은 이 추모사에서 임방울은 김창환의 더늀을 이어받은 ‘서편제 최후의 대가’로 그 소리의 특징은 ‘출렁거리는 목과 뜯어내는 듯한 기교로 당대 국창 중에는 더할 분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록에 따라 공창식에게 사사했다는 이가 있고 명창대회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오락가락이다. 장례는 5일장으로 국악예술학교가 주관한 국악인장으로 치러졌다. 당시 국립국악원장은 고흥출신 김연수金演洙(1907~1974)였다.

최동현 교수의 글을 보면 1929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명창대회는 없었다. 다만 29년 9월 14일부터 3일간 김창환 국창 등이 참가하는

‘조선명창연주회’가 있었다. 하루 앞선 1929년 9월 14일 저녁 10시 20분에 경성방송국에서 임방울은 단가를 불렀다.

임방울이 구술한 서울박람회 얘기는 29년 9월 12일에 시작되어 각도에서 특산품 1만 2천여 종이 출품된 공진회였다. 이 때문에 주최측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로 광무대에서 명창들의 경연대회를 열었다. 각 도에서는 자기 코너에 지역명창들을 출연시켜 특산품 홍보활동을 벌였다. 임방울은 이 홍보단의 일원으로 단체 참가했던 것 같다. 임방울은 이 박람회 난장 노래마당에서 방송국의 눈에 띄어 출연의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물론 그의 외삼촌이 출연한 광무대의 창극 공연장에서 출연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다.

29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콜럼비아 축음기 회사가 두 번째로 조선가곡 취입을 위해 일본 오사가 지점으로 7명을 파견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이 7명 중에 임방울, 오태석, 복혜숙, 김초향 등의 이름이 보인다. 이때 취입한 음반은 1930년 3월에 발매되었고 4장 8면 중 호남가와 쑥대머리판이 히트였다.

임방울은 25세 나던 해 서울박람회에 단체관람차 올라가 쑥대머리로 경성 방송국의 눈에 띄었고 2개월 뒤 일본에 건너가 레코드를 취입한 이듬해 봄부터 전국 레코드판을 통해 일약 스타가 되었다. 레코드판이 팔리기 전인 1930년 2월 임방울은 동아일보 전주 지국에서 주최한 전주극장명창경연대회에 이미 이름 높은 소리꾼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31년 여수지국 독자우대 공연 때는 ‘명창 임방울 출연’이라는 제목이 붙을 만큼 이미 정상급 대우를 받았다. 1933년까지 3년간 콜럼비아사에서만 9장 18면의 레코드에 춘향가, 수궁가, 흥부가가 취입되었다. 34년에는 OK사 레코드로 다섯 장 10면이 나가고 31년부터 5년 사이에 시에론 회사 레코드에 29면이 취입되었다. 35년 이후에는 오케사 전속이 되었던지 춘향전 전집(20매) 흥부전 전집(12매) 등 69매 138면의 판을 냈다. 오케 음반 때 수궁가와 적벽가, 그 밖에도 38년 코라이 레코드에서 5면을 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간 임방울레코드는 121장 241면이 나왔다. 광복 후 임방울이 생전에 녹음한 것들을 「임

방울 창극』(1956년 국립국악원 감상회)이 LP판 또는 카세트, CD판 등으로 나왔다.

임방울의 출세작 쑥대머리는 흔히 임방울 창작이라 하지만 그의 외숙 김창환의 춘향가에 나온다고 정광수는 증언하고 있다. 32년에는 추억이란 이름으로 34년에도 사망처喪亡妻란 이름으로 낸 이별가는 임방울의 연인을 추모한 창작이라고 각색되어 있는 곳이 있고 34년 오케 레코드판에도 작사자가 임방울로 나온다. 일부 학자는 같은 형식의 가사가 이미 있었고 심청전에도 같은 대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임방울이 각색 편곡했을 가능성은 인정한다.

임방울은 광복 후 홀로 전국을 떠돌며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일본초청 공연에 나서기도 했다. 필자도 광복 1년 뒤 시골인 필자의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부르는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관람한 적이 있다. 그의 말대로 일제강점기에 축음기 있는 집이면 임방울의 쑥대머리 판은 필수 판이었을 만큼 히트를 친 당대의 스타였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재주는 없었던지 조선일보사 방일영方一榮(1923~2003)씨의 식객 노릇을 했던 점으로 보면 불행한 말년을 보낸 것 같다. 호적상 1명의 아들과 네 딸이 있었으나 세 여인에게서 낳았다. 외손자가 외국에 나가 살고 있고 외손녀 가수가 있을 뿐 얻고 있는 후손이 별로 없다. 임방울은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지정 제도가 생기기 전에 죽은 탓으로 후계자마저 불분명해졌다. 다른 국악인들처럼 단체를 구성하거나 정착생활을 하지 않은 탓으로 같이 공연을 다녔지만 지속해 임방울의 더듬을 이어받았다고 내세울 만한 제자도 없다. 그의 소리가 너무나 뛰어나 그 맥을 이었다고 나설만한 후배가 없는 탓도 있다. 임방울의 생애를 부분적으로나마 알려면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재단이 있는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6층의 전시관에 가면 된다. 이곳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판소리, 장고, 한 국무용, 민요 및 다문화반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993년에 설립한 광주국악진흥회는 국악대전을 개최하면서 전북에 편향된 국악의 본고장이 광주였음을 홍보하는 계기를 삼았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86년 9월 송정 공원에 국창 임방울 기념비(찬문, 필자)를 세웠다.

97년 광산구를 중심으로 국창임방울선생기념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임방울 명창대회를 운영 중, 2003년 두 재단을 통합 임방울국악진흥재단이라 이름 하고 이듬해에 제11회 임방울국악제 전국경연대회를 열었다. 2006년 제14 회 대회 때부터 임방울 선생과 인연이 깊은 조선일보사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통령상 부상을 3천만원 가까이 인상해 전주대사습이나 남원국악경연대회보다 격을 높였다. 경연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14회 이후 22회까지 대통령상은 서울 참가자들 7명이 쓸어갔다. 이 대회로 광주는 국악의 본고장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골 군부에도 흔한 국악전수관이나 전시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



임방울국악제

Ⅱ : 광주의 시가문학

자유스럽고 호방한 시로 ‘호남의 사중’ 추앙받은 석천

흔히 영남과 호남의 특징을 논할 때 영남은 도학道學, 호남은 문학文學이라고 말한다. 영남 도학은 퇴계 이황李滉(1501~1570)의 성리학을 말하고 호남문학은 놀재 박상朴祥(1474~1530)과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1496~1568)으로 이어지는 시기詩歌문학을 이른다. 광복 후 국문학자들은 우리말로 쓰거나 읊은 민요, 시조, 잡가, 가요 등의 발굴과 연구에 열중했다. 이때 전라도의 판소리나 해남의 고산 윤선도(1587~1671) 담양의 송강 정철(1536~1593) 등의 가사문학이 주목을 받았다. 근래 중국과 국교가 트이고 중국어 열풍이 불면서 한문으로 지은 한시漢詩와 정자에 내걸린 현판류의 누정문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와 더불어 한문으로 기록한 서사체 전기나 기행, 소설류도 문학의 범주에 포함해 연구되고 있다. 한시는 중국에서 발달해 온 오언절구 또는 칠언절구, 8행율시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춰 발달해 온 것이다. 그러나 형식과 글자는 중국을 따랐다 하더라도 이 땅 사람이 지은 한시에는 이 땅 사람의 생각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문학이 되는 셈이다. 일제시대 근대시를 쓴 한용운이나 조지훈 등은 한시의 영향을 받은 분들로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문학 형식의 하나가 한시라 할 수 있으므로 한국 문학의 뿌리를 밝히고 시대에 따라 유행한 문학 사조를 살피려면 한시의 연구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한시의 양식에 따라 지었던 한시는 송



담양 가사문학관 전경

나라 때 시풍과 당나라 때 시풍이 다르고 도학과들의 한시와 실학과 선비들의 한시가 각각 특색을 보여 근래에는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이 분야의 심층 연구는 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이 항목에서 다루려는 것은 조선 중기 때 이 고장을 문학의 고장으로 일컫던 인맥의 뿌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밝힌 놀재 박상은 대전에서 살다가 광주 정씨들의 사위가 되어 광산구 서창의 절동에 정착한 박지흥(朴智興)(1411~1489)의 둘째 아들이다. 학맥으로 따지자면 그는 김종직(金宗直)(1431~1492)의 학맥을 이은 그의 큰형 박정(朴楨)(1467~1498)에게서 글을 익혔다. 그 외의 뚜렷한 스승은 없었으나 그가 남긴 시가 1천3백여 수에 달해 뒷날의 하서 김인후(1510~1560)나 제봉 고경명(1533~1592)과 엇비슷하다. 석천 임억령은 이웃 동네에 살던 음성 박씨 박자회(朴子回)의 외손자로 박광옥(朴光玉)(1526~1592)과는 외종 사촌간이었다. 당시 풍습으로 자식들은 부인들이 친가에서 낳았으므로 석천의 아버지는 해남에서 살았으나 석천은 광주에서 태어나 외가 곁의 놀재 박상에게서 공부했다. 놀재는 그의 아들과 조카인 박순(朴淳)(1523~1589)과 더

불어 석천에게 글을 가르쳐 뒷날 석천은 3천여수의 한시를 남겨 백광훈(白光勳, 1537~1582)으로부터 「호남의 사종(詞宗)」이란 추앙을 받는다. 면양정 송순(宋純, 1493~1583)도 놀재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세살 위 동문이었던 셈이다. 송강 정철의 대표적인 가사로 평가 받는 성산별곡도 사실은 석천의 식영정 20영(詠) 한시를 각색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식영정이 있던 성산은 오늘의 담양군 남면이 아니라 광주목 석저면에 속했던지 석천은 스스로 복거석저촌이라고 시를 읊고 있어서 당시 성산은 광주에 속했던 땅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송강은 석천에게서 시를 배웠다. 삼당 시인이라는 최경창(崔慶昌, 1539~1583), 백광훈 등은 흔히 놀재 박상의 조카인 영의정 박순(朴淳, 1523~1589)의 문인으로 분류하지만 이들도 석천의 가르침을 받았다. 『광주산책』 상권에서 성산시단의 인맥은 이미 살핀바 있지만 석천은 38세 때 광주의 어머니를 모신다고 동북 현감을 자원해 왔을 때인 1533년, 그 길목의 담양 남면 지실에 살던 양승조(梁承祖, 양산보의 9촌숙)의 서녀를 첩실로 삼았던 듯하다. 이 때 이곳에는 광산 김씨 김운제(金允悌, 1501~1557)목사의 집이 있었으며 소쇄원 양산보(梁山甫, 1503~1577)가 광산 김씨 사위가 되어 이곳에 정착, 소쇄원 별원을 경영하고 있을 때이다. 이때 이곳 소쇄원은 송순의 고모 댁이라 송순이 자주 드나들고 있었고 학포 양팽손(1488~1545)도 드나들었던 듯하다. 양산보의 아들이 김인후 집으로 장가들어 양산보와 김인후는 사돈지간이라 김인후도 이곳 소쇄원을 자주 찾았다. 석천은 이런 연고로 1545년 첩실인 양씨 부인을 위해 집을 지어 서하당이라고 했고 1560년 그 곁에 정자를 지어 식영정이라 했다. 이 식영정과 서하당은 석천의 사위 김성원(金成遠, 1525~1597)의 차지가 되어 뒷날 연일 정씨 문중으로 넘겨졌었다. 김성원의 차지가 된 것은 석천의 첩실 양씨 부인에게서 두 딸을 낳아 큰 딸은 고정명의 아버지 고맹영의 첩실로 들여보냈고, 둘째 딸은 김성원에게 시집보내 석천이 장인이었으므로 석천의 유산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석천이 이곳에 드나들고 동북 현감을 지내던 시기에는 아직 송강 정철이 이곳에 살지 않았다.

석천의 가계는 해남 문학과도 연결된다. 뒷날 초계 정씨로 통합된 해남 정씨가 있었다. 고려 현종 때 사람 정신걸(鄭信傑)을 시조로 하는 초계 정씨의 내급사공파 중 해남파로 분류되는 이 집안의 증조는 정윤기(鄭允祺)로 초계 정씨 10세이다. 그의 아들 용(龍)이 이곳 호장(戶長)을 지낸 기록이 있고 그의 증손 재(在)田이 돈을 모아 조선조에 접어들면서 호장을 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4세 정문명(鄭文明)이 영암에 살던 임석천의 아버지 선산 임씨 임수(林秀)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강진에 살던 윤효정(尹孝貞)과 나주에 살던 탐진 최씨 최부(崔溥)를 손자 사위로 삼았다. 이처럼 해남 정씨 때문에 강진에서 처가로 옮겨온 윤효정 집안은 해남 윤씨가 되어 이 집안에서 윤구(尹衢)(1495~1542)의 4형제와 고산 윤선도(尹善道)(1587~1671) 공제 윤두서(尹斗緒)(1668~1715)등의 가계를 이룬다. 윤구의 외손자가 광산 이씨 이발(李潑)(1544~1589)이므로 뒷날 성산시단 인맥과 당쟁의 적수가 된다. 해남으로 옮겨간 최부의 사위가 담양에 정착한 미암 유희춘(柳希春)(1515~1577)의 아버지 유계린이고 정여립 기축옥사



담양 남면에 위치한 '한국가사문학관'을 찾은 학생들이 전라도 판소리와 시가문학의 계보 등을 살펴보고 있다.

때 광산 이씨들과 함께 피화를 입은 나주의 나질^{羅喆}이 최부의 사위가 되어 해남 윤씨 및 광주 광산 이씨들과 인척간이었다.

그러므로 석천 임억령은 해남 인맥에 속하면서도 담양 첩실동네 사람들과 연을 맺어 송강 정철의 당에 휩쓸린 꼴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서^{東西} 당맥은 석천 사후의 일로 석천은 비교적 강직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가사문학으로는 송순을 쳐주지만 유교 학맥으로는 같은 집안의 송흠^{宋欽}(1459~1547)을 훨씬 높게 쳐준다. 송흠의 직계 제자로 양팽손(1488~1545)을 들고 그의 제자며 아들인 양응정(1519~1582)과 함께 많은 제자를 길러낸 김경희^{金景禧}를 든다. 양응정의 제자로 화순의 최경운, 최경희와 영암 최경창 및 백광언, 백광훈 형제를 들기도 하지만 이들도 석천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다. 서울대학교 금장태 교수는 『율곡 평전』 88쪽에서 율곡 이이^{李爾}(1536~1584)도 석천을 만나 무릎을 꿇었다고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송천 양응정의 시에도 같은 뜻의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석천의 글 솜씨는 국내에 널리 알려졌던 셈이다.

흔히 한시 중 송나라때 시는 한유와 소식을 대표로 하는 기교를 특징으로 들고 당나라때 시는 이백과 두보의 시를 대표로 삼는다. 조선시대 훈구대신들은 송풍을 즐겨했으나 중기 이후 사람들은 당풍을 즐겨 따랐다. 석천의 시도 이때의 유행을 선도한 당풍류였다. 석천 2세대라 할 최경창, 이달, 백광훈 등의 시를 당풍시라 하고 양응정의 시를 만당풍의 시라고 평가한다. 훈구대신들이 송나라 때 시형식을 모방하거나 옛책 또는 고사를 많이 인용했던 것과는 달리 석천은 자유스럽고 호방한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석천 임억령은 해남 출신이면서도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공부한 뒤 담양에 첩실을 두고 살아 전라도의 광주, 해남, 장흥, 강진, 나주, 영암, 화순 일대의 선비들과 교류하고 시를 가르쳐 호남문학의 좌장 자리를 누렸던 셈이다. 석천의 행적과 시를 보면 광주에는 당시 성혼^{成渾}(1535~1598)의 아버지 성수침^{成守琛}(1493~1564)이 광주 정씨 처가 집에 와서 살아 집이 양림산 기슭 사직동에 있었음으로 석천과 친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1백여 명의 제자를 길러낸 성혼도 광주에서 태어났던 것 같다. 비록 어른이 되어 경기도 파주의 처가에 은거했지만 전라도 제자가 많았다. 석천이 활동하던 시절 신잠申潛(1490~1554)도 성산을 출입했다. 그는 신숙주申叔舟(1417~1475)집안이다. 신숙주는 외가인 나주 노안 금안동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그의 증조부 신덕린이 광주 정씨 사위가 되어 광주에 정착한 가문이라 신숙주도 광주사람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잠도 광주출입을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당파나 학맥은 이처럼 인척관계가 기본이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재산 상속이나 분배가 출가한 딸이나 아들이 구별 없이 똑같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식들은 처갓집에서 낳고 자라 본관이나 부모의 출신지만으로 출생과 성장을 잘못 판단할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인물을 살필 때에는 족보 등을 꼼꼼히 들춰보아야 한다. 그동안 국문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광주원 가사문학은 한시를 포함한 시가문학으로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

: 도서관과 기록물

무등도서관 소장 도서 중앙도서관 1년 수집량의 절반

지난 2015년 4월 22일 한국에서 열린 국제책박람회에 참석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레하버 부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책을 안 읽는 시민보다 책을 훑쳐 읽는 시민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책이 사람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꿔주는 불빛과 같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국민의 행복과 문화 발전을 위해 책 출간을 장려하고 국민이 출간된 책들을 읽도록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 같은 정책으로 광주 시내에는 시립도서관 3개, 교육청 소속 도서관 5개, 구청도서관 11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립 중앙도서관이라 할 무등도서관의 경우 소장 자료가 34만여 권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태부족이다. 국내에서 간행되는 연간 4만여 권의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도서 확보는 그만 두고라도 광주 시내 출판물의 확보에도 무심경하다. 특히 학생들은 공부방을 겸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편이지만 근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향토 서적이나 향토자료, 이 고장 선조들의 문집류 등에 관심을 보이지만 이 같은 이용자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적극적인 대응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소장도서를 기증하겠다고 신청하여도 도서관까지 가져와 기증하기를 요구한다.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처럼 광주 시내 출판사 발행 도서는 의무적으로 광주시 행정자료실이나 기록물관리실, 무등도서관에 2~3책을 납본하도록 하고 납본 받은 기관은 판매 가격과 송료를 부담하는 시 조례 제정



광주시민을 위한 무등도서관 내에는 다문화 및 아메리칸 전문 코너가 마련돼 있다.

이 절실하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의 하나이므로 시민에게 지식 및 문헌정보를 공급하고 시민교양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지역정보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하여 시민수요를 충족시키고 열람방문 시민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시대에 따라 지역사회에 어떤 자료들이 간행되었는지를 조사해 최소한 복사본이라도 확보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 행정자료실이나 무등도서관은 관심있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시대 광주시 출판물이나 광복 후 통계연보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체 소장 도서수가 국립중앙도서관 1년분 수집 자료인 65만 책의 절반가량을 소장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소장 자료 확보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지역도서관이 일차적으로 갖춰야 할 소장 자료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올리히(76)교수는 시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역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조산원이 쓴 일기를 발견, 이를 정리해 『산과의

일기』란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는 91년 풀리처상 등 미국의 유명한 출판상 8개를 휩쓴 뒤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발탁되었다. 도서관은 이처럼 하찮은 지역 생활기록이나 소개 책자, 잡지류를 수집해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근래에는 스토리텔링이라 하여 여러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구전 얘기들을 수집하는데 열을 올린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기억이 생생한 역사라면서 기록화하는 작업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요자료 수집의 기회를 놓칠세라 명지대학교 기록정보연구소는 대중생활사 기록수집에 착수해 이미 1천5백 명의 일기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국가기록원도 2013년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사업이라 하여 공공기록물 외에 일반국민의 생활사를 더듬을 수 있을만한 기록들의 수집에 나섰다. 보기를 들자면 담양에 살던 미암 유희춘(1513~1577)은 『미암일기』를 남겨 보물 제260호로 지정을 받았다. 이 일기는 11년간의 기록이지만 그 시대의 가정풍습, 물가는 물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승정원일기』를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운조루에 있는 촌락문서 중에는 유형업柳瑩業(1886~1944)의 39년간 일기인 『기어紀語』와 전가일기, 농가일기 등이 있어서 한말 및 일제 초기의 지방사정을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다. 특히 근래에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많아 시립도서관이나 광주문화재단, 시 기록관리소 등이



시립무등도서관

수집운동을 벌여 이를 지역정보와 서민생활사 자료로 관리한다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같은 자료는 전문요원을 두고 계속 현장조사를 통해 기증을 받아야 한다.

1999년 1월에 제정 공포된 법률 제5709호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도 기록물관리소와 관리시설을 두고 전문가를 배치할 뿐 아니라 산하 구청 및 동의 문서도 위탁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구청이나 동사무실은 자료관을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거의 건국이 비슷한 이스라엘은 먼, 동 단위까지도 자료관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농협, 금고, 관내 초·중학교의 문서까지 위탁 관리하여 먼 훗날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법에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관리, 전산화 등이 규정되어 있고 동·면사무소는 호적관련서류를 영구보관하고 있으나 아직 정상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법은 관내기관의 발간물 등록을 실시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광주시를 방문, 자료공개 신청을 하면 아직 궤도에 올라있지 않다.

공공기록이 아닌 민간의 생활기록 수집은 1937년 영국의 인류학자들이 시작했으나 1955년대 중단된 뒤 40여년 만에 한 대학에서 이 작업에 착수해 세계적인 유행을 이루고 있다. ‘기록보존’ 운동에서 오늘날은 ‘기억보존’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미세역사학이라 해서 기록중심보다 생활현장, 사건현장의 체험자들 구술을 채록하거나 기억을 인터뷰하면서 노인을 ‘기억의 저장고’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서울 관악구청은 노인 자서전 쓰기 사업을 벌여 자서전쓰기 교육과 함께 권당 2백50만원의 출판비를 지원, 이미 관내 노인 34명의 자서전이 출판되었다고 한다. 노인의 자서전 출판 장려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로 치매예방,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사를 풍부하게 한다.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시니어클럽 사업으로 구술 노인 일대기 간행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동아리들에게 5분 짜리 노인구술 동영상을 만드는 메모로 운동도 시작되었다. 도서관이 주도해 관내 노



광주시립무등도서관 내 향토자료실

인 자서전 쓰기와 주부 일기쓰기 강좌를 실시해 우수작품을 시상하기도 한다.

기억을 보존한다는 것은 평범한 개인의 족적을 남기는 일이 되면서 지역사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같은 처지의 감동을 주어서 어떤 문헌정보나 지식 정보보다 값진 기능을 한다. 프랑스 이념학파의 거장 필립 아리에스는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을 편집해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장군이나 귀족이 아니라 고대 로마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사이의 평범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다루어 주목을 받았다. 필자도 진도문화원에 근무할 때 관내 고등학생들 중 문장력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 녹음기를 사준 뒤 여러 분야에서 살아온 노인들을 골라 살아온 일생을 구술 받아다가 문장으로 옮기는 사업을 해본 일이 있다. 이때의 구술은 자신이 살아온 일도 좋고 옛날에 들은 민담이나 설화, 도깨비 얘기 등 기록화되지 않은 내용이면 상관하지 않았다. 일부 출판사와 시니어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구술 채록, 편집을 맡아 출판비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자서전 출판사업을 하는

곳도 있다. 이런 일에 문학을 지원하는 주부나 노인들을 동원한다면 지식산업에 의한 인력양성은 물론 취업에 도움을 주면서 시민생활사 자료를 풍성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의 독서량은 1주일에 3시간 6분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에 견주어 이웃 중국인들의 독서시간은 8시간, 인도사람들의 독서시간은 10시간42분, 태국사람들의 독서시간은 9시간24분이었다고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2013년 중 광주시민의 도서관 이용자 수는 681만명으로 한사람이 4.6회 도서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어있다. 이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자를 합한 숫자이므로 실제로 도서관을 찾지 않은 수가 전 시민의 90%를 웃돌았다.

근래 노인 독서층이 늘고 있으나 여자노인의 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광주시내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연람책 수는 558만권으로 1백 48만 시민으로 나눌 경우 3.7권 꼴이었다. 무료로 빌려 주는 책도 이처럼 읽지 않는 판국에 서점이 온전할 수가 없다. 전통 있던 삼복서점이나 나라서적이 먼저 문을 닫았다. 2002년 국내 서점수는 2,247곳이었으나 2012년 1,752곳으로 줄고 아주 큰 교보나 영풍문고 등을 제외한 서점들은 경영난으로 매장평수가 10평 이상 서점이 114곳에서 74곳으로 줄었다. 이제 학교 앞 책방들은 문방구와 겸한 참고서 판매점으로 전락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년에 3~4백 권의 책을 선정해 사들인 뒤 국내 도서관 1천4백여 곳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름 없는 시민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 초판 6천여 권은 전국 도서관 납품용으로 팔 수 있어서 출판이 활발하다고 한다.

Ⅲ : 박물관

지역 역사 전시관은 물론 의향 상징조차 없는 문화 도시

박물관은 인문학의 시청각교육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라마다 지역에 따라 박물관은 지역 필수 문화시설의 핵심이며 지역문화 수준을 재는 기초 요소로 꼽힌다. 박물관은 개설 초기에는 부호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시설로 쓰이거나 식민약탈의 과시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나라나 지역마다 그곳 역사문화의 기초시설로 여기고 그 규모나 전시 정도에 따라 지역자랑을 삼는다. 역사문화 자료들을 모아 전시물과 설명문을 통해 방문자를 교육하는 사회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박물관은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동·식물원은 물론 과학관, 지질관 등을 포함하기도 하고 미술관도 박물관의 한 파트로 여긴다. 역사가 짧은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적인 박물관을 세워 자랑하지만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나라는 박물관이 관광자원의 기본이다.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역역사 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년 한 번씩 관내 박물관에 다녀오는 것을 의무교육처럼 시행해 지역인식을 충실하게 교육한다.

광주 시내에는 국립광주박물관과 3개 대학 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외에 박물관으로 분류되는 김치박물관, 향토음식박물관, 서구 국악전수관 등이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국내 32개 국립박물관의 하나로 1978년 12월 매곡동에 개관했다. 당초에는 신안 해저에서 건져 올린 해저 유물과 광주 및 강진



국립광주박물관

등 청자와 분청자기 등을 주로 수장할 목적이었으나 개관후 점차 전남지방에서 발굴하는 고고학 자료는 물론 미술, 서적 등으로 확대해 그 수장물이 7만 8천 점을 넘어서고 있다. 근래 나주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서고 목포에 문화재청소속 해양유물전시관, 나주문화재연구소 등이 문을 열면서 국립광주박물관의 위상이 모호해져가고 있다.

문화특성이나 지역균형을 생각하면 구례에 지리산박물관, 순천·여수·광양 지역의 전남동부박물관이 세워져야 할 차례다. 물론 의병이 많았던 고장답게 의병기념관이 있어야 할 곳이지만 경남도에 의병박물관(의령)이 있는 것과 대비된다. 지역 분권화 논의가 활발했던 노무현 정부시절 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국립을 지역 역사박물관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이미 지역역사박물관들이 들어서 있었고 국립이 지방정부에 이관되고 나면 예산과 인력이 줄어 그 기능과 운영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국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 필자는 재정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국립이 지방으로 이관되면

이전에 운영하던 지역박물관의 예산이나 인력을 국립과 맞추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었고 우선 국립박물관 근무자들의 반대가 거세어 백지화되었다. 서울에는 전국박물관 743곳의 15%인 110관이 집중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외에 각 부처 특수 국립박물관이 8곳이다. 도마다 국립이란 이름의 지방박물관이 있으나 전남도에만 없고 경기도는 용인시에 도 자체로 세운 도립박물관이 있다. 광역시 중 부산·인천·대전·울산도 각각 시립박물관이 따로 있다. 국립박물관이 있는 대구시는 시민 향토역사관, 근대역사관 등이 있으나 별도로 광주시는 국립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시골 군부애나 있음직한 민속박물관 뿐 지역 역사박물관이 없다. 서울시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부처별 특수박물관 등이 있지만 한성백제박물관, 수도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지역성 박물관이 따로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이면서도 시립 향토역사관 외에 물박물관,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용기박물관, 활박물관 등 특수박물관이 따로 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만 있는 부산시의 경우 1978년에 세운 시립박물관에 이어 84년에 세운 임시수도기념관, 94년에 세운 해양자연사박물관, 96년에 세운 제2시립역사박물관이라 할 복천박물관, 2003년에 세운 근대역사관, 동삼동 패총자료관 등이 있어서 학예직 직원만 28명이다. 학예직이 많으면 결국 연구, 조사사업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매장문화 재발굴 사업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경기도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전담하는 기구가 생겨 발굴유물들은 도립박물관에 수장하거나 전시한다. 부산시도 학예직 직원들을 동원해 지역내 매장문화재를 발굴해 그 수장품이 많게 되자 현장 중심으로 복천박물관, 동삼동패총자료관등을 연달아 설립했다. 이에 견준다면 얼마나 광주시가 역사문화나 박물관에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무관심 때문에 당연히 광주시가 관리해 시민역사교육에 이용해야 할 값진 매장문화재들이 국립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에 넘겨져 광주시가 역사박물관을 설립하더라도 전시할 물건이 없다. 명색이 의향(義鄕)이라 하면서도 의향을 상징할 만한 상징물이나 기념관도 없다. 신창동에서 많은 농경자료와 선사시대 생활용품들이 쏟아져 나와 광주지역이 역사 이전부터 많은 선주민들이 살아왔고 어로, 공예, 음악, 농업 등을 경영했음이 밝혀졌으나 이를 대외에 자랑할 독립전시관도 없이 그 유물들은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묻혀있다. 뒤늦게 전남도는 전남문화예술재단 안에 발굴사업을 전제로 한 문화재연구소를 두고 연구원 9명을 임명, 2014년 발굴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국제적인 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전당을 유치하고 세계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면서도 광주의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인문학 기본시설이 없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유일한 시립민속박물관은 1963년에 개관한 전통 있는 박물관이다. 당초 골동품 수집가인 노석경씨의 소장품 5백여 점을 중심으로 구동의 광주공원에 있던 일본신사당 신관사택에 문을 열 당시 직원은 3명이었고 소장품은 모두 7백여 점이였다. 이 박물관은 매곡동에 국립광주박물관이 개관한데 자극받아 용봉동 1005번지에 7만655m²의 부지를 마련, 7

천76평의 2층 건물을 지어 88년 직원 19명으로 새 출발을 했다. 그동안 유물은 1만2천8백여 점으로 직원수는 청원경찰 9명을 포함해 30명으로 늘었다. 아직도 학예직원은 8명뿐이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싶어도 매장문화재 발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시립민속박물관은 그동안 매년 1~2회 특별전을 계속해 오면서 역사문화산책, 문화교실, 박물관대학, 공예교실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5만3천5백여 명에게 교육혜택을 주었다. 민속박물관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8회의 민속분야 기획전시를 꾸준히 해왔을 뿐 아니라 역사박물관이 맡아야 할 역사 분야 전시도 16회나 열었다. 조사보고서 29건, 국역 4건을 보더라도 광주 인문학 기초자료 간행에 힘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광주민속박물관이 그동안 간행한 광주 인문학 기초자료를 열거하면 광주지역고문서자료집 4권, 광주읍성, 무등산유산기, 영산강의 나루터, 일제강점기의 광주도시변천, 광주읍지번역, 충장로의 역사와 삶, 지도로 본 광주, 의향탐구시리즈, 광주의 음식·그림·소리·춤·문학 등이다. 이밖에도 민속분야로 민속놀이, 민속공예, 광주의 모정, 광주의 민요, 광주의 당산제, 신흥마을 옹기, 광주의 무속, 광주의 설화, 광주의 재래시장, 광주의 풍수, 남도의 민속놀이 등 민속 및 생활 문화 분야의 연구와 조사를 거의 끝내 새로운 주제설정애 애를 먹고 있다.

이웃해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학예직군 인원만 26명으로 시립민속박물관 전체 직원수와 맞먹는다. 2년 전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의 경우 계약직 15명을 제외한 직원 수만도 32명이다. 광주시립박물관의 연간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27억 원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의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립은 교류 이동이 많아 승진 기회가 많지만 시립박물관의 경우 학예직군 수가 한정되어 학예실장 자리를 동일 인물이 24년간이나 근무하는 인사 적체로 직장 생활의 보람을 맛 볼 수가 없다. 더구나 관장 자리는 행정직이 독차지해 공직 후배가 관장으로 부임해 전문 학예직군을 지휘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박물관장 자리는 지역 지성의 상징적인 자리로 문화예술계의 상징적인 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관행이다. 중국의 박물관은

자체 전시운영팀을 두고 기획전 등 인테리어까지도 직원들이 직접 시공한다. 이 때문에 상설전시도 전시 기간에 관계 없이 수시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체하고 사회교육을 위해 교육학 전공 학예사를 두기도 한다. 한국은 박물관 전시를 외부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전국의 박물관 전시 스타일이나 치장이 천편일률적이고 디자인 중심이 되어 전시물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체 시기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서 박물관이 언제나 같은 전시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박물관의 직렬과 관련해 검토할 직렬은 문화행정의 직렬이다. 문화관광은 전공과 관계없이 행정직이면 누구나 순환보직 대상 직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문화관광은 행정의 중요 위치를 점해 날로 전문화를 필요로 한다. 문화나 예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문화예술이나 관광시책을 담당하게 되면 기본소양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의 행정을 답습하거나 외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 버린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행정이 판박이고 그 많은 축제들이 외부 기획회사들의 판박이 작품



김치박물관

판매장이 되고 만다. 최소한 문화예술행정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축제담당관은 특수학과 전공자로 장기근속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등 학예직군은 오늘날 건축·산림·농업직과 같이 일반 행정책임자로 전임될 수 있도록 한정된 직군의 교류 숨통을 터 사기를 진작해 주어야 행정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하루속히 광주시에 시립역사박물관이 세워져 문화도시라는 명성에 맞는 위상이 갖춰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기구 안에 시사편찬실이 곁들여지고 매장문화재 발굴사업단이 갖춰질 때 비로소 광주는 문화도시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 인간문화재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한 명 없는 문화수도 광주

정부는 국가민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옛 것들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있다. 그중에는 천연기념물도 있고 민속자료도 있으며 유물, 유적은 물론 동산문화재도 있다. 이처럼 형태를 갖추지 않은 예능이나 기술은 중요 무형문화재라 하여 국가와 시, 도가 각각 지정해 그 전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이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을 흔히 인간문화재라 부른다.

광주시가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던 시절 광주시내 거주 인간문화재는 판소리꾼으로 박춘선·안채봉·한애순씨와 탕화장 송복동 청자장 조기정씨 등 5명이었다. 이분들은 모두 고인이 되고 광주시가 광역시가 된 뒤 인구가 늘면서 오늘날 광주광역시 인간문화재는 15건 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12명이 국악 관련 기능자들이므로 예향이란 고을 이미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고장 소리꾼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국악의 경우 악기장이 2명, 고수가 1명, 시조가 1명, 농악설쇠가 1명이다. 판소리 한애순에 이은 이순자, 동편제 정춘실·강산제 이임례·한혜자, 동초제 방이순, 가야금 병창 문명자·이영애·황순옥으로 시 지정 인간문화재만으로도 국악단을 꾸밀 수 있을 만큼 기능별 예능자들이 고루 지정되어 있다. 이밖에 중요무형문화재로 대목장(김기복), 소목장(조기종), 필장(안명환, 문상호), 탕화장(송광무), 나전장(김기복), 의례음식장(최영자, 이에섭), 악기장(이춘봉, 이복수) 등이 있



악기장 이춘봉



의례음식장 최영자



악기장 이복수

다. 광주광역시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20명 중 광주토박이로 선대로부터 예능을 전수받은 인간문화재는 음식장 정도이다. 오늘날 인간문화재라 부르는 무형문화재는 조선시대 공예 분야를 맡았던 공장^{工匠} 이외에 사당패, 판소리, 무속인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무형의 민속전통을 포함해 당산제, 고싸움, 농악을 포함하고 있다.

조선시대 광주는 나주와 더불어 목사고을이라 악생이나 악공 등 국악연주자나 훈련청 소속의 취타수 20명, 관아소속 무당, 기생 등 연예기능자들이 관속으로 있었다. 물론 관아에서 쓰이는 영선 및 증기류를 만드는 공방^{工房} 소속 장인들도 있었다. 특히 광주지역에는 경양역, 선암역, 광리역(남평) 등 3개 병부소속 관청이 있어서 이곳에도 광주목과 마찬가지로 공방에 소속된 장인과 관노비들이 있었다. 그들은 역에서 관리하는 역마의 말발굽징과 굴레장식을 담당하였고 관리들의 기숙에 필요한 침선장이나 음식장 등이 있어서 그 기능이 발달했다.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통편’이나 ‘대전회통’ 등에 보면 궁실 및 각부서 소속 경장^{庫匠}·8도 지방관아 소속 외공장^{外工匠}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본디 이 장인들은 양민출신을 쓰기로 되어있으나 공노비나 사노비가 많이 근무했다. 이들은 모두 관속으로 관청일에 동원되지만 공역일 외에 작업해 만든 기물들은 민간에 팔 수도 있었다. 이들 관속 외에도 승려, 백정, 농민들 중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수공품을 만들어 팔되 일정한 장인세^{匠人稅}를 내야 했다.

조선 중기 이후 전라도 외공장 수는 모두 775명으로 그 중 236명이 종이 만드는 지장^{紙匠}으로 전국 외공지장의 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장인은 야장^{冶匠}(대장쟁이) 68명, 칠장, 피장, 시장(화살)이 각각 61명, 목수가 59명 석장^{石匠}이 58명, 사기장 39명, 유구장^{油具匠} 55명 순위였다. 물론 10명 이내의 선자장^{扇子匠}, 상자장, 떡장, 유기장, 갑장, 유성장, 마조장 등이 전주 감영 곁에 있었다. 1879년의 광주읍지에 나오는 진공물선^{進貢物膳} 품목 중에 5월 단오절이면 칠첩선, 백접선, 칠유별선, 백유별선, 모편 등 5종의 단오부채를 궁실에 보낸 기록이 나온다. 1820년대의 『호남공선정례』 기

록을 보면 광주고을 공선품 중 공예품은 백포와 상자, 통초석과 후백지, 주유지, 유대지, 백대지 등 네 종류의 종이가 있다. 이로 미뤄보면 광주에도 종이 만드는 지소가 있었던 듯하다. 부채는 광주 건지산과 양림산에 왕대와 화살대가 있어서 남평, 나주, 담양과 함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이 많았던 듯하다. 지명으로 보면 충효동 일대의 분청사기는 조선 후기까지도 사기생산이 계속되었던 것 같으며 무등산에서 철이 나와 동구 소태동에 야철소가 있었고 충효동에도 칼을 만들던 터가 있다. 조선시대 질그릇은 도기소, 자기소 등으로 불렸지만 후기에는 사기소沙器所라 불러 옹기그릇과 구분을 두지 않았다. 광주의 옹기는 주로 첨단동 곁의 삼소동과 남구 진월동 원제의 흙이 옹기그릇에 쓰여 30여 년 전까지도 옹기가마가 있었다. 이처럼 광주는 큰 고을이라 관용에 쓰이는 각종 장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남에서는 가장 큰 정기시장이 섰던 곳이라 솜씨좋은 쟁이들이 몰려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시절과 광복 후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토박이 장인들은 새로운 직업의 역군이 되고 그 자리를 이웃 고을 장인들이 들어와 무형문화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테면 광주광역시 19호인 대목장이나 13호인 화류목장은 순천 출신들로 다른 지역 장인들의 물림을 받은 뒤 광주에 정착했고 풍류장이라 할 악기장 2명은 다 같이 전주와 완주 출신으로 국가문화재 제32호 김광주(1906~1984)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20호 나전장은 통영에서 배운 예능자라 광주장인의 후예들은 아니지만 광주에 정착해 솜씨를 발휘하고 있어서 광주광역시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흔히 일반시민들은 명장이나 명창과 인간문화재를 착각한다. 솜씨만 따지거나 소리 잘하는 것만을 따지기로 들자면 남원판소리대회나 임방울기념명창대회 장원이 판소리 인간문화재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문화재 지정제도는 실사 기술이 서투르고 목소리가 나쁘더라도 옛날 전통을 이어받아 계보를 중시한다. 옛 계보와 방법을 중시하는 것은 옛 기술을 계속 이어받다 보존하여 이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자료로 쓰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공예 분야에서 솜씨가 좋은 사람을 뽑자면 세계기능경기대회 입상자나 국내공예대전 입상자 또는 현대공예가들이 문화재가 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각 부처가 뽑는 명장이나 명장은 뭇망정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 공정을 제대로 알고 옛 소리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골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 분들에게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수당으로 국가 지정은 월 120만원, 광주시 지정은 월 95만원, 전남도 지정은 80만원씩을 준다. 그러므로 전수교육 능력이 없으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해제되고 계보가 없이 창작한 재능이면 지정되지 않는다.

물론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테면 고려청자나 조선초기 분청자는 이미 계보의 맥이 끊겼지만 독학으로 그와 비슷한 그릇이나 공예품 제작기술을 개발한 조기정씨 같은 이를 청자장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다. 영광의 공옥진씨는 선배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창작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지정이 계속 보류되다가 옛날에도 기생들 놀이에 짐승 흥내를 내는 독무가 있었다는 핑계에 맞춰 지정된 경우이다.

오늘날 무형문화재 제도는 기록뿐인 옛날 공예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개발해 내면 나이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이어가도록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국가지정 문화재와 지역 문화재에 차등을 두고 교습비 지급을 차별하는 것은 아직도 서울 중심이나 국가 중심주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이다. 더욱 문제 되는 것은 명색이 지역자치 행정을 한다는 구청들이 구청 나름의 문화재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잘못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면부面部까지도 면 특색을 나타내는 문화재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이 시, 군, 구의 기초단체 문화재 지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시, 군에 따라 조례로 군내 문화재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구청들은 행정 편의상의 구역 탓인지 자체 문화재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는 상여 나갈 때나 농약 고깔에 쓰던 종이꽃이나 지전 등을 만드는 기능이나 자수공예, 가구장석공예, 인장공예(서각, 전각), 옹기공예, 염색공예 등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공예 솜씨들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지정하는데 인색하다.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황칠 연구자가 있어서 학생과학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정년퇴임한 교사가 있으나 지정을 검토하지 않아 안타깝다. 물론 지정하지 않더라도 연구자가 많아서 장려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국악분야에 지나치게 치우치면서 지역 명예를 드러내는 일에 무신경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방문화재 중 국가 지정의 필요가 있는 문화재나 무형문화재 기능은 국가 지정으로 승격 추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자가 20명이라고 동네 자랑만 하고 있을 뿐 국가지정 문화재급의 승격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기이하다. 아시아문화수도라고 자칭하면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1명도 없다면 부끄럽지 않은가. 진도는 군부이면서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10명이나 된다. 가야금 병창, 부채춤 따위는 전통예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창조성을 발휘해 전통연회의 하나로 보존 받고 있다. 무형문화재 12호 악기장 이춘봉 같은 이는 국내 최초로 가야금 울림통을 개발하고 조율장치를 특허를 내는 등 악기제작 공정에 획기적인 재주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2011년 서암문화재단 제1회 전통문화대상을 수상한 뒤 백년이 가도 음색이 변하지 않는 가야금을 제작, 서울에서 시연회를 가진바 있다. 판소리 예능자 중에서도 국가지정으로 승급자가 2~3명은 나와야 예향의 격을 높일 수 있다.

： 축제祝祭

전문기관 설립 절실

원시사회에서도 축제는 있었다. 축제란 우리말로 굿이다. 굿은 굿은 일이 없도록 비는 원시형 샤먼 축제를 의미했다. 한문으로 쓰는 축제祝祭란 고기를 차려놓고 무릎 꿇고 신에게 비는 것을 뜻하는 상형문자이다. 서양의 사육제인 카니발은 금욕 해방의 종교의식으로 동양의 축제와 통한다. 기념제 또는 큰 잔치를 뜻하는 서양 말 페스티벌Festival도 축제로 푼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 축제는 사람이 신과 소통하는 행사였다. 이때는 사람끼리 정한 규칙과 규범이 파괴 되기도 하고 신명을 맛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원시공동체는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동의식을 강화했다. 이 같은 원형이 아직까지도 일부 시골마을에 잔존해 있는 동제나 당산제이다.

산업사회에 진입하고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생태적 공동체는 점차 해체되고 이익집단끼리의 계약관계에 의한 인위적 장삿속 행사나 놀이중심 도시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도시축제는 원시 취락 축제들이 갖던 정신적 유대감보다 지역 성원의 이익과 놀이 중심의 지역 행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도시형 행사의 시작은 체육행사였다. 지역 구성원 모두가 고무주연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선발된 선수를 통해 대리만족이나 긴장의 이완을 맛보면서 연대성을 갖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 본보기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이다. 대리 출연자나 출전자들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신에 제사하던 원시사회 때의 축제에서 종교의례만이 생략되었을 뿐 이익공동체인 도시에서도 축제는 존재 이유가 되었다.

축제는 결국 구성원을 즐겁게 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정보를 소통하는 도시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하여서 근대도시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기획하여 왔다. 자본가들은 축제에 따른 소비촉진으로 이문을 보고 노동자들은 숙박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는 여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회를 삼았다. 세계적인 도시축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축제가 도시 명품화에 기여하면서 관광이라는 새로운 도시성장 산업으로 떠올랐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왔다.

1947년에 시작한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는 오늘날 연간 1천3백만 명의 관광객을 동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지역활성화 바람을 타고 천편 일률 흥내내기 축제들이 시작되었다. 축제 따라 몰려다니는 천막 노점상들이 유목민이 된 가짜 민속축제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 때 한국의 지방 축제들도 옛날에는 없던 여성 농악대의 팽과리 소리와 노래자랑판으로 획일화되었듯 일본에도 갑작스럽게 다이코太鼓연주단이 지방축제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국적으로 3천6백 개 연주단이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현상이 일어났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 축제들은 옛 원시형 동제나 당제 대신 예술제나 체육대회, 노래자랑 위주로 바뀌기도 했지만 이 축제들이 정치인들의 얼굴 팔기 강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축제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교육과 연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 98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30여개 지역축제를 선정, 5천만원~1억원을 지원하다가 2005년 최우수축제에 3억 원을 지원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돼 심사 기준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났다. 2007년 문화관광부는 평가표준화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주어 그 이후부터는 최우수축제에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축제를 지원하는 한편 축제 범람으로 인한 예상 낭비를 견제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전국 축제수는 1,176개였다. 그 중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던 1991~95년 사이에 156개 축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368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간 304개 축제가 신설되었으므로 1991년 이후 15년 사이에 70%인 828개 축제가 신설된 셈이다. 이 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1개 축제에 평균 2억 2,700만원이었다.

광주시의 경우 비엔날레에만 1백억 내외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축제 중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비용 면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국내 축제 중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축제는 17.2%인 204개 축제 뿐으로 대부분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축제였다. 2015년 광주시의 축제는 15개에 달한다. 물론 굿모닝양림축제나 민속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정월대보름축제, 여성합창대회, 서창만드리축제, 광산구 우리밀축제, 대촌고싸움축제 등은 시청 주관 축제라 할 수 없으므로 시 축제 종류에 끼워 넣을 수 없다. 경비도 1억 원 내외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비엔날레는 별항에서 다뤘다. 이 행사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교양을 높이는데 기여도가 높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개최 연혁 순서로 따지자면 임방울국악축제를 들 수 있으나 시비 2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면에서 보면 4억 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정월성축제보다 비중이 낮다. 서양음악에 맞선 한국 전통음악이고 판소리 서편제 중심 고을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판소리 가극의 선구자인 김창환의 고장답게 창극을 중흥시키는 창극경연 등으로 그 격을 높여야 한다. 농악 대신 조선시대 군대의 취타대를 학생 취타대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김치축제는 94년에 시작된 특산품 관광축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김치가 광주특산품도 아니고 김치보급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패축제이다. 다만 이 축제를 명분으로 김치연구센터를 유치한 것은 부수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시의회가 이 축제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축제는 전라도 음식의 중심도시답게 음식경연이나 박람회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발효식품박람회를 여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충장축제는 2004년에 시작되어 국책장려 최우수 축제 8곳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비 2억5천만 원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거리축제는 거리극을 중심으로 펼치는 호주의 시드니축제와 영국 런던예술제를 들 수 있다. 충장축제는 거리축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식민지 시절 광주의 중심상가로 서울 명동에 견주던 이곳은 전남도청이 옮겨가고 외곽에 위성 부도심이 개발되면서 도심 공동화의 상징 거리가 되었다. 이같이 사양화되고 있는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지역재생의 뜻을 가진 기획 축제이다. 그러므로 전통성은 전혀 없지만 지역 상인들의 연대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축제가 개성을 갖는다면 장려할만한 뜻은 있다. 첫 번째는 상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이곳 축제가 국제성을 갖도록 광주 문화예술 역량을 총동원해 문화상품화 함으로써 비엔날레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뜬금없이 2012년에 시작한 아리랑축제는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 맛으로 떠맡고 있지만 광주가 아리랑축제를 주관해야 할 명분이 약하다.

인간은 호모루덴스라 하여 사람이 일하고 싸우는 모든 행위는 결국 여가를 확보하고 놀기 위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놀고 구경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시정의 책무라 할 것이지만 노는 종류를 가려 경비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충장축제가 단순한 충장로 일대 상인들의 상가변영 축제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거리의 이름이 된 충장공 김덕령(金德齡)(1567~1596)에서 비롯됐음을 축제에 부각시켜야 한다. 20대 청년으로 의병을 일으켜 공훈을 세우고도 정치권력의 희생이 된 충장공의 한많은 역사가 마치 이웃 거리 금남로에서 민주화를 외친 5·18 청년의 한스럼과 비길 만하므로 이 같은 광주의 역사적 의분과 한을 삭이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전체 시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축제 프로그램에는 추모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포



충장축제

합되어야 하고 세계적인 거리축제의 성공사례를 공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로 구성하는 축제추진위원회 대신 민간 주도 축제재단을 만들고 상근 직원을 둔 기구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기획, 축제동원, 기물의 보관 및 재활용 등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미 아리랑축제나 대인시장 및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에 축제 기획 및 운영팀을 두고 광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축제를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축제나 문화예술행정의 비중이 높아가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구청이나 시청에 순환보직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예술행정이나 관광, 축제 등을 맡아 민간 기구에 위탁하거나 공모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체제에 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전혀 전문성이 없고 1~2년 근무하면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행정공무원들에게 축제나 관광예술행정을 맡기는 관행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하는 행사전문 기획회사들이 행사를 맡아 백화점식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치러 전국의 축제가 획일화되어 있다. 강원도 강릉 단오축제 등은 이미 오래 전에 민간축제위원회가 상근 직원을 두고 축제

를 주관하고 있다.

축제전문기구가 신설된다면 5월에 열리는 오월창작가요제나 브랜드 공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등도 충장축제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통성이 없는 축제들을 통합해 명실상부한 시민축제로 확대하고 국제화에 활용해야 한다. 축제 수를 줄이는 대신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이 활발한 곳에는 공동체 성원들이 축제의 본질에 맞게 신명나게 놀고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잘잘한 축제를 기획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을 통해 경비를 지원하되 주민들이 일정한 자체부담 비율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광주산책 ㉓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지은이 김정호

펴낸곳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펴낸이 서영진

편집위원 신장용 조광철

사진담당 오세욱

발행 담당 이유진 팀장 김지원

발행부서 정책연구팀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광주문화재단 062)670-7432

만든곳 푸른커뮤니케이션

주소 61430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9-7

전화 062)434-8615

팩스 062)234-8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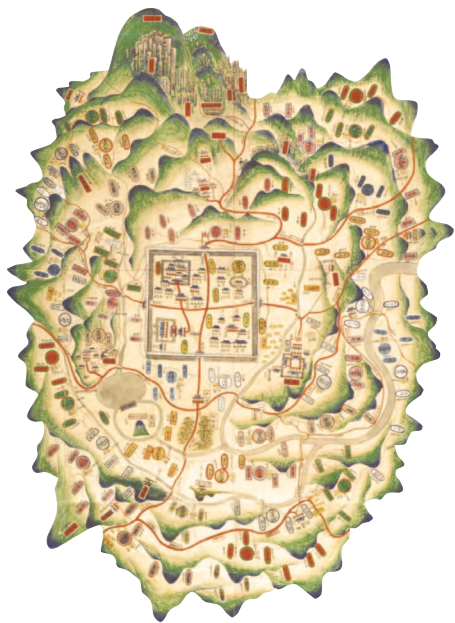
메일 sdh8615@hanmail.net

등록 2006년 12월 22일 제 2006-000067호

ISBN 978-89-98057-19-0 03910 :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5034742)

이 책에 사용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일 년 동안 매주 거르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무척 피로했다. 특히 현역이 아니고 나이도 있어서 현장 취재가 쑥스러울 때가 많았다. 『광주 산책(상)』이 주로 광주 역사를 탐색한데 견주어 이번 『광주 산책(하)』은 근·현대사를 다뤘고 광주의 특산품과 노비, 기축옥사 등을 덧붙였다.

저자의 말 중에서

